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博士學位論文

인지언어학 관점을 통한  
古代 漢語 詞義 引伸 研究

—『說文通訓定聲』의 轉注를 중심으로—

濟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李 荷 映

2021年 2月





인지언어학 관점을 통한  
古代 漢語 詞義 引伸 研究

-『說文通訓定聲』의 轉注를 중심으로-

指導教授 安在哲

李 荷 映

이 論文을 文學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21年 2月

李荷映의 文學 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李 滢 鎬



委 員

梁 萬 基



委 員

金 中 夏



委 員

金 思 希



委 員

安 在 哲



濟州大學校 大學院

2021年 2月





A Research on Word Meaning Extensions of Ancient  
Chinese Language through a Cognitive Linguistic  
Perspective  
-Focusing on the Transfer(轉注)  
in the Shuowen Tongxun Dingsheng(說文通訓定聲)-

Ha-yeong Lee  
(Supervised by professor Jae-cheol Ahn)

Submitted to th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2021.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Yeong-Ho Lee  
Man-Ki Yang  
Joong-Sub Kim  
Eun-Hee Kim

Thesis director, Jae-cheol Ahn, Prof.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2021. 2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 동기와 목적 .....	1
2.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	7
3.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 .....	17
II. 詞義 引伸 연구의 이론적 검토 .....	20
1. 引伸 및 환유와 은유 .....	20
1) 引伸 .....	20
2) 詞義 引伸의 인지의미론적 개념 .....	21
3) 환유와 은유 .....	23
4) 의미자질의 변화와 환유·은유의 관계 .....	33
2. 『說文通訓定聲』의 체례와 연구 자료의 유용성 .....	38
1) 『說文通訓定聲』의 체례 .....	38
2) 朱駿聲의 轉注 이론 및 詞義 引伸 연구의 유용성 .....	45
III. 『說文通訓定聲』의 환유를 통한 引伸 유형 분류 .....	51
1. 전체-부분 환유 .....	52
2. 부분-부분 환유 .....	80
IV. 『說文通訓定聲』의 은유를 통한 引伸 유형 분류 .....	115
1. 구조적 은유 .....	117
2. 존재론적 은유 .....	152
3. 방향적 은유 .....	161
4. 영상 은유 .....	167
V. 결론 .....	178
참고문헌 .....	183
【ABSTRACT】 .....	188



## 【국문초록】

이 연구는 古代 漢語 詞義 引伸을 환유와 은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詞義 引伸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詞義 引伸은 本義와 의미적 상관성을 가지고 또 다른 詞義를 파생하는 언어 운용 방식 중 하나이다. 기존의 詞義 引伸은 의미자질 분석을 통해 주로 이루어졌다. 의미자질 분석 방식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추상적인 개념을 분석하고 설명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인지언어학자들은 환유와 은유가 多義語 발생의 주요 원리라고 주장한다. 多義語란 두 개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단어를 가리키는 것으로, 多義語는 서로 의미적 상관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漢語의 引伸義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환유란 개념A를 가지고 개념B를 지시하는 것이며, 은유란 개념A를 통해 개념B를 이해하는 것으로, 환유는 인접성 인지능력에 의해 단어의 의미를 확장하는 방식인 반면, 은유는 유사성 인지능력에 의해 단어의 의미를 확장하는 방식이다.

본고에서는 기존 詞義 引伸 연구가 의미자질 분석 방식을 통한 연구와 인지언어학 관점을 통한 연구로 양분되어 진행했던 것과는 달리, 두 방식을 결합하여 詞義 引伸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고는 『說文通訓定聲』의 예자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說文通訓定聲』은 清代 說文四大家 중 한 명인 朱駿聲의 저작으로, 문자·훈고·성운이 결합된 종합적인 연구서이다. 朱駿聲은 轉注와 假借의 연구를 중요시하고 本義 외에 기타 詞義를 분석하여 古代 詞義를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매우 높이 평가 받는다.

朱駿聲은 기존에 정설이 없던 轉注와 관련하여 許慎이 제시한 轉注의 정의와 예자를 변경하고, 轉注를 引伸이라고 주장하였다. 朱駿聲은 표제자에 대한 설명에 있어 주로 『說文解字』의 本義 해설을 따르고, 轉注 항목을 따로 구분

하여 引伸義의 쓰임을 밝혔다. 이것을 통해 本義와 引伸義의 관계를 분석하고, 詞義 引伸의 유형을 분류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연구를 통해 환유와 은유적 사고가 古代 漢語 詞義 引伸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고찰하고, 환유와 은유가 의미자질 변화에 있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기존에 환유와 은유의 모호한 경계를 좀 더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키워드: 古代 漢語, 詞義 引伸, 引伸義, 환유, 은유, 의미자질, 說文通訓定聲, 朱駿聲, 轉注

# I. 서론

## 1. 연구 동기와 목적

一詞多義 현상이란 한 개의 詞<sup>1)</sup>가 여러 의미를 갖는 것으로 一詞多義 현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詞義의 引伸과 假借이다. 引伸은 本義를 기준으로 本義와 관련된 의미로 의미가 확대되거나 本義에서 引伸된 引伸義를 기준으로 또 다른 引伸義를 생성하는 언어 운용 방식이다. 引伸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하나의 언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돈주는 引伸이 의미간의 연상 작용에 의해 연쇄법이 적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나의 낱말을 N, 사물을 A, 특질을 a라고 가정하고 아래와 같은 공식을 제시했다.

$$N: aAb \rightarrow bBc \rightarrow cCd \rightarrow dDe \dots\dots$$

그리고 ‘朝’를 예로 들어 ‘朝’가 本義인 아침(旦)에서 朝會→朝見→朝庭→朝代로 의미가 확대되는 것과 같이 가까운 것에서 먼 것으로 뜻이 발전하는 것이 引伸이라고 설명했다.<sup>2)</sup>

연상은 인류 사유 활동의 기본 방식 중 하나로서 최근 詞義 引伸 연구의 근거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연상이란 한 개의 사물에서 또 다른 사물을 떠올리는 것, 혹은 사물의 한 부분에서 사물의 또 다른 부분으로 심리가 변화하는 과정이다.<sup>3)</sup>

인지언어학에서는 연상 활동을 통한 환유와 은유를 詞義 확장의 주요 원리로 삼는다. 환유란 하나의 의미영역 내에서 매체 실체가 목표 실체에 대응하

1) 본고에서 詞는 단어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2) 이돈주, 『漢字學總論』, 서울, 박영사, 2012, 682쪽.

3) 이하영, 「인지언어학의 연상개념으로 본 漢語 詞義引伸 類型 연구」, 『언어학연구』, 25권, 2020, 4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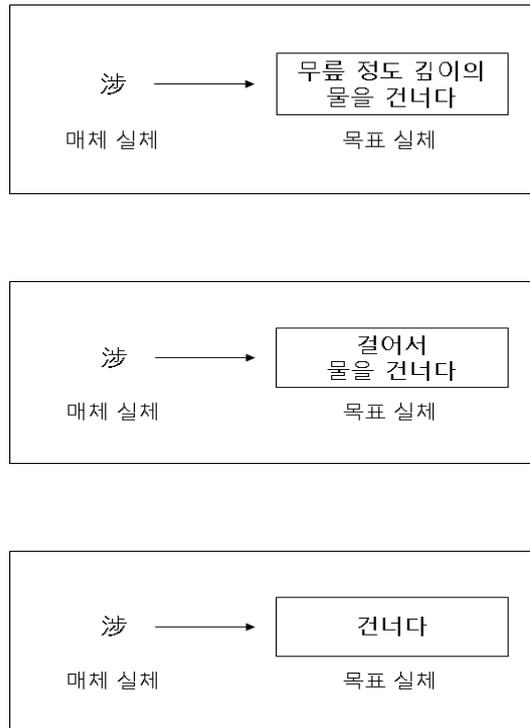
면서 詞義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며, 은유란 두 개의 의미영역에서 의미영역의 각 요소 간 대응을 통해 詞義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몇 가지 예를 통해 환유와 은유에 의한 詞義 引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예를 들어 ‘涉’은 ‘물을 건너다’라는 의미이다. 『說文解字』(이하 『說文』)에서 許慎은 ‘涉’의 本義를 ‘徒行厲水也. 从水从步.(걸어서 물을 건너다. 글자는 水, 步로 구성된다.)’라고 풀이했다. 段玉裁는 許慎이 설명한 ‘涉’의 本義 ‘徒行厲水也.’에서 ‘厲’가 ‘瀦’에 해당하는 것으로 ‘硤’를 가리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段玉裁는 ‘硤或从厲. 厲者, 石也. 从水厲猶从水石也.(硤는 厲로 구성되기도 한다. 厲는 돌이다. 水, 厲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水, 石으로 구성되었음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許慎에 따르면 ‘硤’는 ‘履石渡水也.(돌을 밟아 물을 건너다.)’이다. 許慎과 段玉裁가 설명한 ‘涉’의 本義와 ‘硤’의 의미로 미루어 봤을 때 ‘涉’의 정확한 의미는 ‘징검다리가 있는 물을 건너다’라고 할 수 있다. ‘涉’은 문장에서 本義 외에 다음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爾雅·釋訓』에서 ‘馮河, 徒涉也.’라고 했는데, 여기서 ‘徒涉’는 ‘배가 없이 물을 건너는 것’을 가리킨다. 『釋水』에서는 ‘繇膝以上爲涉.’라고 했는데 여기서 ‘涉’은 ‘무릎 정도 깊이의 물을 건너는 것’<sup>4)</sup>을 가리키며, 『廣雅·釋詁二』에서는 ‘涉, 渡也.(涉은 건너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중에 ‘무릎 정도 깊이의 물을 건너는 것’이라는 의미가 생길 수 있는 근거는 ‘涉’의 本義에 내포된 ‘징검다리’에서 찾을 수 있다. ‘징검다리가 있는 물’을 통해 그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음을 추측할 수 있다. ‘물을 건너다’, ‘무릎 정도 깊이의 물을 건너다’, ‘건너다’는 모두 ‘涉’의 引伸義로 本義와 의미적 관련성을 갖는다.

위에서 설명한 ‘涉’의 詞義 변화는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4) 『爾雅·釋水』: 揭者, 揭衣也. 以衣涉水爲厲. 繇膝以下爲揭, 繇膝以上爲涉, 繇帶以上爲厲, 潛行爲泳. (揭은 옷을 걷는 것이고, 옷을 입고 강을 건너는 것은 厲이다. 무릎 아래 깊이의 물을 건너는 것을 揭이라 하고, 무릎 위 깊이의 물을 건너는 것을 涉이라 하며, 허리 위 깊이의 물을 건너는 것을 厲라고 하며, 몸이 물 위로 드러나지 않은 채로 건너는 것이 ‘泳’이다.)

<그림 1> ‘涉’의 환유 寫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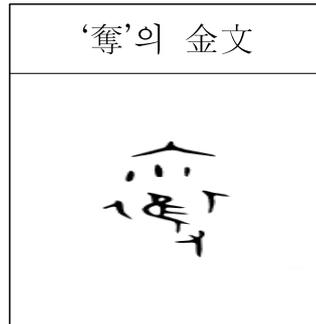
위 그림은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보면 ‘涉’의 환유 寫像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지언어학에서 환유란 개념의 인접성을 근거로 하나의 의미영역 내에서 의미영역을 구성하는 한 개념이 또 다른 개념을 지시하는 것이다. 위 그림에서 매체 실체와 목표 실체가 이 두 개념에 해당한다. 그리고 매체 실체가 목표 실체로 대응하는 것을 寫像이라고 한다.<sup>5)</sup> 위 그림에서 ‘涉’의 本義는 의미영역의 전체 개념에 해당하고, ‘무릎 정도 김이의 물’, ‘건너다’, ‘건다’, ‘징검다리’는 의미영역의 부분 개념에 해당한다. ‘涉’은 의미영역 전체 개념이자 매체 실체인 ‘涉’의 本義에서 의미영역의 부분 개념으로 寫像되면서 ‘무릎 정도의 물을 건너다’, ‘걸어서 물을 건너다’, ‘건너다’로 詞義가 변화한다.

또 다른 예로 ‘奪’을 가지고 환유 寫像을 통한 詞義 引伸 과정을 살펴볼 수도 하겠다. 『說文』에 따르면 ‘奪’의 本義는 ‘手持佳失之也.(손에 쥐고 있던 새를 잃어버리다.)’이다. 『腹中論』의 ‘勿動亟奪’에서 ‘奪’은 本義가 아닌 引伸義로

5) Zoltan Kovacs, 김동환 옮김, 『은유, 인지언어학적 접근법』, 서울, 로고스라이프, 2014, 30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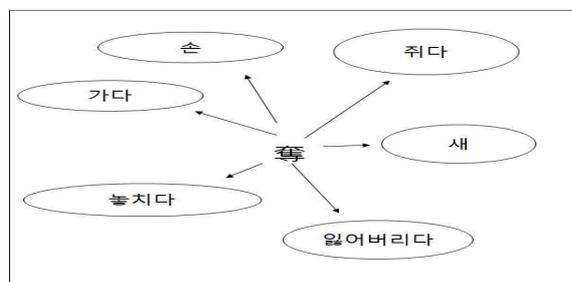
쓰였으며 그 의미는 ‘가다’이다.<sup>6)</sup> ‘奪’의 金文을 통해서 ‘奪’의 本義와 引伸義의 관계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림 2> ‘奪’의 金文



위 그림은 ‘奪’의 金文으로 아래에 위치한 사람의 손에서 새가 달아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임을 알 수 있다. 許愼이 풀이한 ‘손에 쥐고 있던 새를 잃어버리다’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던 물건이 사라진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이 그림을 새의 입장에서 바라봤다면, 그 의미는 ‘떠나다’, ‘가다’, ‘떨어지다’와 같은 의미가 本義가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奪’의 원형인 金文을 근거로 ‘奪’의 개념에 인접한 개념을 의미영역을 통해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3> ‘奪’의 의미영역 및 환유 寫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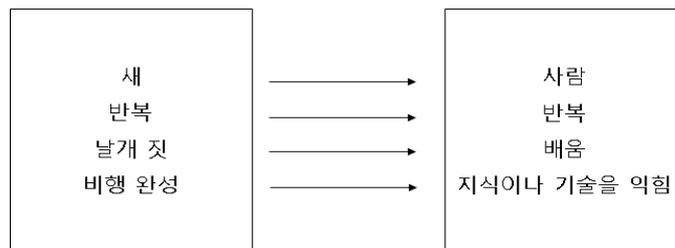
6) 奪: 【轉注】『腹中論』: 勿動亟奪. 注: 去也,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694쪽.

위 그림은 ‘奪’의 의미영역 내에서 발생 가능한 환유 寫像을 나타낸 것으로, 의미영역의 전체 개념에 해당하는 ‘奪’의 本義에서 의미영역의 부분 개념에 해당하는 ‘손’, ‘취다’, ‘새’, ‘잃어버리다’, ‘놓치다’, ‘가다’로 寫像되어 詞義의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때 ‘奪’의 本義는 매체 실체에 해당하며, 각 의미영역의 부분 개념은 목표 실체에 해당한다.

위에서 환유에 의한 詞義 引伸의 예를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은유에 의한 詞義 引伸의 예를 살펴보고, 은유에 의한 詞義 引伸이 환유에 의한 詞義 引伸과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許慎은 ‘習’의 本義를 ‘새가 반복적으로 비행 연습을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習’은 本義인 ‘새가 반복적으로 비행 연습을 하는 것’에서 ‘배우다’, ‘복습하다’로 詞義가 변화한다.

<그림 4> ‘習’의 은유 寫像



<그림 4>는 은유에 의한 ‘習’의 詞義 引伸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앞서 살펴 본 환유에 의한 詞義 引伸 과정과 다른 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바로 의미영역의 수이다. 환유는 하나의 의미영역 내에서 寫像이 이루어지는 반면, 은유는 두 개의 의미영역에서 각 영역의 개념 간 寫像을 통해 성립된다.

<그림 4>에서 왼쪽은 ‘習’의 本義에 대한 의미영역이며, 오른쪽은 引伸義에 대한 의미영역이다. 은유는 개념의 유사성을 근거로 의미영역을 횡단하여 개념 간의 대응을 통해 寫像되면서 詞義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림 4>를 살펴보면 두 의미영역에 포함된 개념 중에 ‘반복’이라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本義와 引伸義는 이 공통점을 근거로 각 의미영역의 개

념이 대응하면서 은유 寫像이 성립된다.

즉, 本義의 의미영역에서 동작 주체인 ‘새’는 引伸義 의미영역의 동작 주체인 ‘사람’에 대응하고, 本義 의미영역의 동작에 해당하는 ‘날개짓’은 引伸義 의미영역의 ‘배움’에 대응하며, 本義 의미영역의 ‘비행 완성’은 引伸義 의미영역의 ‘지식이나 기술을 익힘’에 대응하여 ‘習’은 本義인 ‘새가 반복적으로 비행 연습을 하다’에서 ‘사람이 배우다’로 詞義가 引伸된다.

기존의 詞義 引伸 연구는 의미자질 분석법 도입과 인지언어학 이론의 도입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되어 왔다. 의미자질 분석법은 체계적으로 詞義를 연구하여 공식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 받는다. 또한 동의어, 반의어의 구별을 하는데 효과적인 분석 방식으로 漢語 詞義 분석에 있어 성과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의미자질 분석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며, 분석 과정에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받는다.<sup>7)</sup>

인지언어학은 언어 연구의 한 방법론으로서 언어의 사용과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적 사고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언어학 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인지적 접근 방식은 마음과 몸과 언어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오게 하였다.<sup>8)</sup> 일부 심리학자들은 인지언어학 이론이 타당한 증거가 없으며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까지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없는 것으로 가정되었던 상상력 연구에 대해 언어가 인간 상상력에 작용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밝혔는데 성과가 있다. 그리고 인지언어학자들은 인간 상상력에 작용하는 이러한 체계적인 과정이 인간 사고의 주된 방식이라고 인식하고 있다.<sup>9)</sup> 이것은 인지언어학 관점에서의 언어 연구가 기존 연구에서 밝히기 쉽지 않았던 언어 운용에 있어 인간 심리가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기존 詞義 引伸 연구가 의미자질 분석을 통한 연구와 인지언어학 관점을 통한 연구로 양분되어 진행했던 것과는 달리 두 방식을 결합하여 詞義 引伸을 분석하고자 한다. 과학적인 詞義 연구 방법인 의미자질의 변화

7) 徐天興, 「義素分析法与古漢語詞匯研究」, 『河南科技學院學報(社會科學版)』, 1期, 2013, 89쪽.

8) 임지룡, 『인지의미론』, 서울, 한국문화사, 2017, 15쪽.

9) Vyvyan Evans, Melanie Green, 임지룡·김동환 옮김, 『인지언어학기초』, 서울, 한국문화사, 2008, 824-827쪽.

를 통해 환유와 은유를 이해함으로써 환유와 은유의 모호한 경계를 더욱 명확히 하고, 의미자질 분석으로 분석이 불가능했던 추상적인 개념을 환유와 은유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詞義 引伸의 규칙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 2.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 1) 의미자질 분석법

引伸은 詞義의 변화와 발전의 방식이다. 古代 漢語 詞義 引伸은 다방면에서 연구되어 왔다. 최근에는 많은 학자들이 義位와 의미자질을 가지고 詞義 引伸 연구를 진행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의미자질 분석법은 기존에 모호했던 詞義 引伸 연구를 정교화, 형식화하면서 의미 연구에 있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sup>10)</sup>

詞義 引伸에는 사회문화, 민족관습, 심리연상 등과 같은 언어 외부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외부 요인 외에 언어 내부의 요인도 詞義 引伸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의미자질 변화의 관점에서 引伸을 연구하는 것은 그것이 詞義 내부 요인의 변화에 착안했다는 점에서 매우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다.<sup>11)</sup>

詞義는 의미자질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의미자질이란 의미의 최소단위이며 詞義와 詞義를 구분하는 변별자질이다. 의미자질 분석법은 詞義의 의미자질을 나열함으로써 詞義 간의 관계와 차이점을 밝혀 詞義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의미자질 분석의 핵심은 義位를 분석 가능한 대상으로 간주하고 義位를 분석함으로써 義位の 최소 단위인 의미자질을 도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sup>12)</sup>

의미자질 분석법의 첫 단계는 의미자질의 유형을 설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학자들마다 사용하는 의미자질의 용어가 상이하고 그 유형의 기

10) 何書·馬景命, 『古漢語動詞詞義引伸的義素運動模式研究』, 『揚州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期, 2007, 92쪽.

11) 何書, 『『說文通訓定聲』의 詞義研究』, 南京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6, 44쪽.

12) 劉桂芳·楊曉敏, 『對義素分析及其困惑的幾點言說』, 『北方論叢』, 6期, 2005, 70쪽.

준도 통일되지 않았다. 이에 우선 의미자질 분석법을 통해 古代 漢語 詞義 引伸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들에 따른 의미자질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葉復興은 의미자질을 중심 의미자질, 제한 의미자질, 함축 의미자질로 구분했다. 그리고 義位의 유형은 중심 의미자질이 결정하고, 동일한 語義場에서 義位 간의 의미 구별은 제한 의미자질이 결정한다고 설명했으며, 함축 의미자질은 義位의 이성적인 의미로 義位를 표현하는 부가적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심 의미자질과 제한 의미자질은 하나의 義位에서 고정적인 성분이지만, 함축 의미자질은 고정적인 성분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葉復興은 ‘書’를 예로 들어 의미자질을 분석하고 설명했는데 그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書: 「글을 쓰는 도구」 + 「글을 쓰다」 + 「문자」 + 「행동」

위에서 설명한 의미자질의 유형에 따르면 ‘書’의 중심 의미자질은 ‘행동’이다. 그리고 그 외의 나머지 의미자질은 제한 의미자질에 해당한다. 葉復興에 따르면 위에 나열한 의미자질들은 각각 독립해 새로운 詞義를 생성하기도 하고, 의미자질이 전이된 후 또 다른 의미자질과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詞義를 생성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위 의미자질 중에 ‘문자’가 독립되어 파생된다면 ‘문자’라는 새로운 詞義를 생성하게 된다. 새롭게 생성된 引伸義인 ‘文字’는 또 다시 아래와 같은 의미자질로 분석된다.

文字: 「언어 기록이 가능」 + 「교류에 사용」 + 「서로 다른 형태의 부호」

‘文字’는 언어 기록의 수단이자 기호로 위에 나열된 의미자질에서 ‘서로 다른 형태의 부호’가 ‘文字’의 중심 의미자질에 해당하고, ‘언어 기록이 가능’, ‘교류에 사용’은 제한 의미자질에 해당한다.

‘文字’를 구성하는 의미자질들은 또 다시 독립하여 분화하거나, 의미자질이 전이되어 기타 의미자질과의 결합을 하는 방식을 통해 ‘문자기록’, ‘서신’, ‘서

체'와 같은 새로운 引伸義를 생성한다.<sup>13)</sup>

何書는 의미자질을 중심 의미자질, 제한 의미자질, 관련 의미자질로 구분했다. 그리고 중심 의미자질은 의미가 관련된 詞義들의 집합에서 공통적인 성질을 띠는 의미자질이며, 이성적 의미의 중심 요소라고 설명했다.<sup>14)</sup>

그는 명사의 중심 의미자질을 명사의 지칭 의미자질로, 동사의 중심 의미자질을 동작 의미자질로, 형용사의 중심 의미자질을 성질 및 상태 의미자질로 구분했다. 또한 제한 의미자질은 本義에서 중심 의미자질을 제외한 나머지 의미자질을 일컫는다고 설명했다. 그의 분류에 따라 명사, 동사, 형용사의 중심 의미자질과 제한 의미자질의 예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翡: 「붉다」 + 「새」

縊: 「목매다」 + 「죽다」

貴: 「물건」 + 「귀하다」

위에서 명사 '翡'의 중심 의미자질은 「새」이고, 동사 '縊'의 중심 의미자질은 「목매다」이며, 형용사 '貴'의 중심 의미자질은 「귀하다」이다. 그리고 중심 의미자질을 제외한 나머지 의미자질은 제한 의미자질에 해당한다.

何書는 관련 의미자질을 本義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本義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의미자질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繫'의 本義는 '말의 다리 묶다'이다. 本義를 통한 '繫'의 의미자질은 「말」+「다리」+「묶다」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이 의미자질 중에 동작에 해당하는 '묶다'가 중심 의미자질에 해당하며, '말'과 '다리'는 제한 의미자질에 해당한다. '繫'은 말을 묶는 동작을 나타내는 詞義이지만 무언가를 묶기 위해서는 반드시 '끈'이 있어야 한다. '繫'의 本義에는 표면적으로 '끈'이라는 의미자질이 드러나지 않지만, '繫'은 속성상 '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끈'은 '繫'의 관련 의미자질이 된다.

尙峰은 동일한 語義場 내에서 공통된 의미자질을 핵심 의미자질이며, 語義

13) 葉復興, 「古詞義引伸規律分析」, 『嶽陽大學學報』, 2期, 1988, 40-41쪽.

14) 何書, 『說文通訓定聲』의 詞義研究, 南京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6, 51-52쪽.

場에서 다른 詞義와 구분되는 의미자질을 구별 의미자질이라고 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예를 제시해 핵심 의미자질과 구별 의미자질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般: 「大」

鞞: 「大」 + 「皮制服飾」

磐: 「大」 + 「石頭」

嫫: 「大」 + 「人消極行爲之一種」

幣: 「大」 + 「巾飾」

위 詞義는 모두 ‘크다’라는 의미를 갖는 의미자질을 공유한다. 의미자질 분석 관점과 語義場 관점에서는 詞義가 공통된 의미자질을 공유하면 하나의 語義場에 포함된다. 그리고 하나의 語義場에 포함되어 있는 詞義를 분별하는 의미자질을 구별 의미자질이라고 설명했다.

‘磐’은 ‘돌이 크다’이며, ‘嫫’은 ‘사람의 행동이 크다’이다. 그리고 ‘幣’과 ‘鞞’은 옷의 장식에 관한 것이다. ‘幣’과 ‘鞞’은 모두 장신구와 관련된 것이지만, ‘鞞’은 장신구의 속성에 관한 것이며, ‘幣’은 장신구의 종류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두 詞義를 구분하는 구별 의미자질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sup>15)</sup>

이와 같이 의미자질 분석 연구에 있어 연구자마다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각 연구자가 사용한 용어의 성질을 통해 詞義의 의미자질을 크게 詞義의 중심을 이루는 의미자질과 詞義 간의 의미를 구별할 수 있는 변별 의미자질로 구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연구자가 사용한 용어 중 ‘중심 의미자질’, ‘핵심 의미자질’은 詞義의 중심을 이루는 의미자질에 해당하며, ‘제한 의미자질’, ‘함축 의미자질’, ‘관련 의미자질’, ‘구별 의미자질’은 詞義 간의 의미를 구별하는 변별 의미자질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미자질 분석 관점에서 詞義는 의미자질의 독립, 파생, 전이, 결합을 통해 引伸되어 새로운 引伸義를 생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의미자질의 독립,

15) 肖峰, 『義素分析－解讀『說文』的關鍵』, 湘潭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8쪽.

과생, 전이, 결합을 통해 引伸 전후의 詞義는 서로 공통된 의미자질을 공유하면서 상호 의미적 관련성을 갖는다.

## 2) 인지언어학 관점을 통한 詞義 引伸 분석

최근 인지언어학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언어연구의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되었다. 많은 학자들이 인지이론을 활용한 詞義 연구에 집중하면서 詞義 引伸 연구도 또 다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는 詞義 引伸의 인지연구와 언어교육 분야를 밀접하게 결합하여 인지규칙이 언어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흐름은 漢語의 詞義 引伸 연구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다수의 漢語 詞義 引伸과 관련된 연구가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기존 漢語 詞義 引伸 연구 중에 ‘연상’의 방식에 따라 詞義 引伸의 유형을 분류한 연구를 소개해보도록 하겠다.

趙宗芳은 詞義 引伸의 유형을 연상 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했다.<sup>16)</sup>

- ①相似聯想과 詞義 引伸    ②相關聯想과 詞義 引伸    ③同類聯想과 詞義 引伸
- ④異類聯想과 詞義 引伸    ⑤對比聯想과 詞義 引伸    ⑥接近聯想과 詞義 引伸
- ⑦因果聯想과 詞義 引伸

위에 나열한 詞義 引伸의 유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趙宗芳은 유형 ①相似聯想과 詞義 引伸에서 ‘相似’는 유사한 특징을 가리키는 것으로, 두 詞義 간에 유사점을 근거로 연상 작용이 발생하여 詞義가 引伸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習’이 本義인 ‘수차례 비행하다’에서 ‘복습하다’로 引伸된 예를 들고, ‘반복적인 행동’을 詞義 引伸의 근거라고 설명했다. 유사성은 인지언어학의 이론 중 은유의 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유형에 대한 정의와 예자로 미루어 보아 相似聯想과 詞義 引伸은 은유를 통한 引伸으로 볼 수 있다.

16) 趙宗芳, 「淺談聯想與詞義引伸」, 『社科縱橫』, 6期, 1998.

유형 ②相關聯想과 詞義 引伸에 대해서는 ‘두 詞義 간에 한 영역에서 일정한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연상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相關聯想과 詞義 引伸의 예로 ‘兵’이 本義인 ‘무기’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引伸된 것을 들었다. 또한 引伸의 근거로는 ‘무기’는 싸움의 도구이기 때문에 ‘무기’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연상되기 때문에 詞義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趙宗芳이 설명하는 相關聯想과 詞義 引伸에 대한 정의를 다시 살펴보면, ‘두 詞義 간에 한 영역에서 일정한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연상활동’에서 ‘한 영역’은 환유 寫像이 발생하는 하나의 의미영역을 가리키는 것이며, 일정한 관계란 환유 의미영역 내에서 ‘매체 실체’와 ‘목표 실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②相關聯想과 詞義 引伸은 그 정의와 예자를 통해 환유를 통한 詞義 引伸이라고 할 수 있다.

趙宗芳은 유형 ③과 유형 ④에 대해 ③同類聯想과 詞義 引伸은 동일한 종류의 사물에서 공통점이 존재할 때 그 공통점을 근거로 연상활동이 발생하여 詞義가 引伸되는 것이며, ④異類聯想과 詞義 引伸은 상이한 종류의 사물에서 공통점이 존재할 때 그 공통점을 근거로 연상활동이 발생하여 詞義가 引伸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同類聯想과 詞義 引伸의 예로 ‘勒’이 ‘재갈’에서 ‘구속하다’로 引伸된 것을 들었으며, 異類聯想과 詞義 引伸의 예로 ‘利’가 ‘칼의 날이 날카롭다’에서 ‘언변이 예리하다’로 引伸된 것을 들고 있다. 전자인 경우 인지언어학 관점에서는 환유 寫像에 의한 詞義 引伸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유형 ②에 해당하는 相關聯想 詞義 引伸과 구분이 모호하며, 후자인 경우 은유 寫像에 의한 詞義 引伸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유형 ①인 相似聯想 詞義 引伸과 구분이 모호하다.

또한 유형 ⑥接近聯想과 詞義 引伸은 ‘시간과 공간 간의 인접함을 근거로 발생한 연상’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厲’가 ‘숫돌’에서 ‘갈다’로 引伸되는 과정, ‘朝’가 ‘새벽’에서 ‘알현하다’, ‘조정’으로 引伸되는 과정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厲’의 引伸 전후의 詞義는 시간과 공간과는 큰 관련이 없으며, 예로 든 두 詞義의 引伸 과정은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분석하면 모두 환유에 의한 詞義 引伸으로 볼 수 있어 유형 ②에 해당하는 相關聯想과 詞義 引伸과 큰 차

이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유형 ⑤對比聯想과 詞義 引伸은 상반된 연상활동을 일컫는데, ‘逆’이 ‘맞이하다’에서 ‘저항하다’로 引伸된 과정을 그 예로 들었다. 趙宗芳은 맞이하는 행동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반대의 상황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詞義가 引伸되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 두 詞義의 관계는 단순히 상반된 연상에 근거한 것만은 아니다. ‘맞이하다’와 ‘저항하다’의 의미자질을 분석하면 두 詞義는 공통된 의미자질을 공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맞이하다: 「접근해 오는 대상」 + 「준비」 + 「수용」

저항하다: 「접근해 오는 대상」 + 「준비」 + 「거부」 + 「버티다」

두 詞義의 의미자질에서 모두 ‘접근해 오는 대상’이 존재하고, 이것을 위해 ‘준비’를 한다는 점에서 두 詞義는 유사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詞義가 서로 상반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각 의미자질 중에 각각 ‘수용’과 ‘거부’가 서로 다른 의미자질을 갖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분석 방식으로 引伸 과정을 설명한다면 對比聯想과 詞義 引伸의 예 역시 相似聯想과 詞義 引伸으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유형 ⑦因果聯想과 詞義 引伸은 引伸 前後 詞義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경우에 따라 하나의 의미영역 내에서 인과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또는 두 개의 의미영역에서 인과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환유와 은유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鄧開初와 杜音의 詞義 引伸 유형의 분류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鄧開初는 引伸 유형을 크게 相似聯想引伸과 關係聯想引伸으로 구분하고, 關係聯想引伸의 하위 유형으로 屬類聯想引伸, 因果聯想引伸, 正反聯想引伸, 同極聯想引伸을 두었다.<sup>17)</sup>

杜音이 분류한 引伸 유형과 정의는 鄧開初가 분류한 유형 및 정의와 대체

17) 鄧開初, 「關於詞義引伸的途徑問題」, 『長沙大學學報』, 1期, 1997.

로 일치한다. 단지 關係聯想引伸의 하위 유형 중 同極聯想引伸을 제외시켰다는 점이 다르다.<sup>18)</sup>

鄧開初, 杜音이 분류한 引伸 유형 중에 相似聯想引伸은 앞서 살펴본 趙宗芳의 相似聯想과 詞義 引伸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두 詞義 간에 유사성을 근거로 연상 작용이 발생하여 詞義가 引伸되는 것을 가리킨다.

鄧開初, 杜音은 關係聯想引伸을 ‘사물 간 객관적인 연결고리를 근거로 발생하는 引伸’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相似聯想引伸이 유사성을 근거로 주관적 사고에 의해 발생하는 것에 반해 關係聯想引伸은 객관적인 근거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두 유형의 차이점을 밝혔다.

그러나 關係聯想引伸의 예로 든 ‘節’이 ‘대나무 마디’에서 ‘관절’로 引伸되는 과정은 유사성에 근거를 둔 것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두 대상의 외형 관점에서의 분석이다. ‘대나무 마디’는 위로 뺀 대나무의 마디와 마디를 구분하는 것으로 마디와 마디 사이 밖으로 볼록 튀어나와 있다. ‘사람의 관절’은 뼈와 뼈를 연결하는 부분으로 ‘대나무 마디’와 같이 밖으로 돌출되어 있어 두 대상이 외형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두 대상의 기능 관점에서의 분석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나무 마디’와 ‘관절’은 그 대상이 ‘대나무’와 ‘뼈’로 다르지만 모두 ‘연결하다’라는 공통된 기능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두 대상의 기능의 유사한 특징으로 인해 詞義가 引伸되었다고 분석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節’의 詞義 引伸은 유사성을 근거로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相似聯想引伸과 관련해 ‘禦’가 ‘수레를 끌다’에서 ‘수레를 끄는 사람’으로의 引伸 과정을 예로 들고, 이 두 詞義가 유사성에 근거를 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수레를 끌다’에서 ‘수레를 끄는 사람’으로 詞義가 변화한 것은 本義인 ‘수레를 끌다’를 구성하는 하나의 의미영역 내에서 행동을 나타내는 詞義가 행동의 대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고가 전환되면서 지시 대상이 변화하는 것으로 환유 寫像으로 인한 詞義 引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연상은 인간 사유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인지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한다. 연상이란 친숙한 개념을 통해 詞義 引伸에 접근하여 비교적 쉽게 詞

18) 杜音, 『從心理學角度看詞義引伸的途徑』, 『湖南師範大學社會科學學報』, 1期, 2000.

義 引伸의 분석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연구에서 詞義 引伸 유형의 분류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아 詞義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趙宗芳인 경우 詞義 引伸 유형 분류의 기준이 詞義의 유사성과 인접성인지, 詞義가 속하는 범주인지, 詞義의 변화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각 유형의 정의와 예로 든 글자의 분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鄧開初와 杜音은 인접성과 유사성이라는 큰 틀로 詞義 引伸의 유형을 구분했는데, 이것은 인지언어학에서 환유와 은유를 구분하는 특징 중 하나로 환유와 은유를 詞義 引伸의 유형의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인지언어학에서 환유와 은유를 詞義 확대의 중요한 원리로 삼는다는 점에서 유형 분류의 기준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두 詞義의 특징 외에 구체적인 이론적 근거의 부족으로 각 유형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그 예자의 분석도 정확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의미자질 분석법과 인지언어학의 이론 원칙을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여 진행한 詞義 引伸 연구를 소개해보도록 하겠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詞義 引伸의 유형은 13가지로 구분된다. 각 유형을 간단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sup>19)</sup>

①個別与一般: 개별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詞義에서 보편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詞義로 변화하는 것을 가리킨다.

②部分与整体: 引伸 전후 詞義가 사물의 전체와 부분 관계를 갖는 유형이다.

③實虛引伸: 詞가 實詞(내용어)에서 虛詞(기능어)로 변화하는 유형이다.

④動靜引伸: 引伸 전후 품사의 변화가 발생하여 동사가 명사 혹은 형용사로 변화하거나 명사가 동사로 변화하는 유형이다.

⑤因果引伸: 詞義 引伸 과정에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발생함으로써 詞義가 부여되는 유형이다.

⑥功能引伸: 引伸 전후 詞義가 사물과 사물의 기능의 관계를 갖는 유형이

19) 安蘭朋, 『『說文通訓定聲』詞義引伸研究』, 安徽大學 博士學位論文, 2005, 72-106쪽.

다.

⑦部位引伸: 사물의 부위(위치)의 유사성을 근거로 詞義 引伸이 발생하는 유형이다.

⑧相似引伸: 사물 간에 유사한 성질을 근거로 연상 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詞義 引伸 유형이다.

⑨轉移引伸: 引伸 전후 詞義가 의미하는 사물의 범주에 변화가 생기는 것으로, ‘牢’가 ‘가축의 우리’에서 ‘감옥’으로 詞義 변화가 발생한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⑩制料与成品引伸: 引伸 전후 詞義가 재료와 재료로 만든 제품의 관계를 갖는 유형이다.

⑪時空引伸: 引伸 전후 詞義가 시간과 공간의 관계를 갖는 유형이다.

⑫致使義成爲固定詞義: ‘利’가 ‘날카롭다’에서 ‘날카롭게 하다’로 의미가 고정된 현상을 예로 들었다. 이 유형은 자동사 혹은 형용사가 타동사의 용법으로 변화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⑬正反引伸: 引伸 전후 詞義가 서로 상반된 의미를 갖는 유형이다.

위 詞義 引伸 유형을 살펴본 결과 引伸 방식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①引伸 전후의 개념간의 관계를 근거: ①個別与一般, ②部分与整体, ⑤因果引伸, ⑥功能引伸, ⑩制料与成品引伸, ⑪時空引伸, ⑫致使義成爲固定詞義, ⑬正反引伸

②품사의 변화에 근거: ④動靜引伸, ⑫致使義成爲固定詞義

③詞義의 기능에 근거: ③實虛引伸

④詞義 의미자질 간의 유사성에 근거: ⑦部位引伸, ⑧相似引伸

⑤引伸 전후 詞義의 범주에 근거: ①個別与一般, ⑨轉移引伸

이 연구는 의미자질 분석법과 인지언어학의 이론을 원칙으로 詞義 引伸을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대체로 詞義 引伸 전후 개념의 관계를 기

준 방식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部位引伸’의 예로 ‘要’가 本義인 ‘신체의 중간’에서 ‘요새’, ‘관건’으로 引伸되는 과정 들었으며, ‘轉移引伸’의 예로 ‘牢’가 ‘가축의 우리’에서 ‘감옥’으로 引伸되는 과정을 예로 들고 있다. ‘신체의 중간’과 ‘요새’는 서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유사성이 있으며, ‘가축의 우리’와 ‘감옥’은 간혀 자유가 없다는 유사성이 있다. 이 두 詞義의 引伸 과정은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본다면 은유를 통한 詞義 引伸 과정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正反引伸이란 引伸 前後 서로 상반된 詞義를 생성하는 것을 가리킨다. 즉, 詞義가 반의어의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 반의어는 두 詞義가 아무 관련도 없고 아무 공통점도 없는 것이 아니다. 반의어는 언제나 공통점이 있으면서 그 가운데 차이점이 있는 것이며, 공통점은 반의어의 반의 관계를 이루는 기초가 된다.<sup>20)</sup> 즉, 공유하는 의미자질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공유하는 의미자질이 있다는 것은 두 詞義 간에 유사성 혹은 인접성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正反引伸 역시 개념 간의 관계를 통한 분류가 아닌 조금 더 과학적인 방식을 통해 詞義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

본 연구는 『說文通訓定聲』의 轉注를 연구 범위로 삼으며, 인지언어학 이론 중 환유와 은유를 분석 방식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說文通訓定聲』은 清代 說文四大家 중 한 사람인 朱駿聲의 저작이다. 기존의 字典들이 대체로 『說文』의 구성방식을 따른 것과는 달리 朱駿聲은 許慎의 540部首를 해체하고 古韻 18部를 기준으로 글자를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매우 독창적인 저서라고 할 수 있다. 『說文通訓定聲』은 서명에서 알 수 있듯이 크게 ‘說文’, ‘通訓’, ‘定聲’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說文’은 本義를 밝힌 부분으로 朱駿聲은 글자의 本義를 밝히는데 있어 대체로 許慎의 의견을 따랐다. ‘通

20) 蔣紹愚, 이강재 옮김, 『古漢語詞彙講話』, 서울, 차이나하우스, 2012, 221쪽.

訓'에서는 轉注와 假借를 다룬다. 朱駿聲은 轉注를 '體不改造, 引意相受, 令長是也.'라고 정의 내렸다. 여기서 '引意相受'라는 문구를 통해 轉注가 두 詞義간에 의미적 상관성을 갖는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朱駿聲의 저서에서 轉注와 假借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다. 『說文通訓定聲』이 轉注와 假借의 전문서로 평가<sup>21)</sup> 받는 만큼 詞義 引伸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로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Zoltan Kovecses와 임지룡은 의미 확장 및 多義性을 동기화하는 중요한 요인이 은유와 환유라고 주장했다.<sup>22)</sup> 과거 은유는 修辭 장치의 하나로 정상적 언어표현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인지이론이 등장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은유는 일탈된 표현이 아닌 일상 언어에 편재되어 있는 매우 자연스러우며 필연적인 사고과정으로 인식이 변화했다. 환유 역시 은유와 마찬가지로 비유법의 한 종류이다. 환유에 대한 연구는 은유에 대한 연구보다 시기적으로 다소 늦지만, 최근 환유가 은유보다 더욱 근본적이며 인간 언어와 사고에서 널리 퍼져있다고 알려지면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인지언어학의 이론이자 사유방식 중 하나인 환유와 은유를 통해 고대 중국인들의 詞義 引伸 운용의 규칙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2장 1절에서는 引伸의 개념과 詞義 引伸 운용에서 중요한 특징을 살펴보고, 詞義 引伸의 인지의미론적 개념에 대해 기술한다. 이어서 본고에서 詞義 引伸 분석 방식으로 채택한 환유와 은유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 이와 함께 환유와 은유 사고에 따른 의미자질 변화의 관계에 대해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제2장 2절에서는 『說文通訓定聲』의 체례를 간단히 소개하고, 『說文通訓定聲』에 언급된 轉注에 대한 설명을 통해 朱駿聲이 六書의 轉注를 引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히고, 해당 자료가 본 연구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환유와 은유를 기준으로 詞義 引伸 과정을 분석할 것

21) 安蘭朋, 『『說文通訓定聲』詞義引伸研究』, 安徽大學 博士學位論文, 2005, 67쪽.

22) Zoltan Kovecses, 김동환 옮김, 『은유, 인지언어학적 접근법』, 서울, 로고스라이프, 2014, 423쪽.

임지룡, 『인지의미론』, 서울, 한국문화사, 2017, 241-242쪽.

이다. 朱駿聲은 『說文通訓定聲』의 표제자를 설명할 때 本義를 가장 먼저 설명하고 표제자가 本義로 쓰인 문장을 인용하여 詞義를 보충하고 있다. 轉注에서는 표제자가 引伸義로 쓰인 문헌의 문장을 인용하여 詞義 확대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朱駿聲이 轉注를 引伸이라고 밝힌 바에 따라 轉注에 인용된 詞義를 引伸義로 보고 本義와 引伸義가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어떤 관계를 갖는지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의미자질 변화 분석을 통해 환유와 은유에 따른 의미자질의 변화와 詞義 引伸과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의미자질의 용어는 통일되지 않았으며, 학자마다 다른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 그 중에 何書는 의미자질을 중심 의미자질, 제한 의미자질, 관련 의미자질로 구분했으며, 품사에 따른 중심 의미자질의 기준도 확립하여 다른 연구자에 비해 세밀하게 연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의미자질 분석을 기술할 때 何書가 사용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또한 본고에서는 기존 인지언어학 관점의 詞義 연구에서 다루었던 글자 중에 상용자를 선별하여 詞義 引伸 분석의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 Ⅱ. 詞義 引伸 연구의 이론적 검토

### 1. 引伸 및 환유와 은유

#### 1) 引伸

漢語는 表意文字로 表音文字와 비교하여 造字가 용이하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漢語의 一詞多義 현상은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다. 詞義는 引伸과 假借를 통해 확대되는데, 本義(혹은 引伸義)와 의미의 상관성을 근거로 詞義가 확대되는 것을 引伸이라고 하며, 의미와는 상관없이 소리가 같거나 유사한 점을 근거로 詞義가 확대되는 것을 假借라고 한다.

『說文』에 따르면 ‘如’의 本義는 ‘따르다’이다. 徐鍇는 ‘如’의 本義에 대해 ‘女子从父之教, 从夫之命, 故从口.(여자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르고, 남편의 말을 따른다. 그래서 口로 구성되었다.)’라고 풀이했다. 現代 漢語에서 ‘如’는 本義의 쓰임 외에 ‘만약’, ‘예를 들어’와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이 때 ‘如’의 의미는 本義와는 의미적 상관성이 없으며 단순히 소리를 빌어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假借에 의해 의미가 파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引伸義는 本義 혹은 引伸義에서 파생된 의미이다. 引伸이란 本義와 引伸義 사이에 공유하는 의미자질과 공유하지 않는 의미자질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뜻한다. 이는 引伸義와 引伸義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本義와 引伸義 또는 引伸義와 引伸義 사이에 어떤 의미자질을 공유함으로써 의미적 상관성을 맺지만, 한편으로는 공유하지 않는 의미자질이 있음으로 하여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것이다.<sup>23)</sup>

예를 들어 ‘梳’의 本義는 ‘머리빗’이다. ‘梳’는 引伸되어 ‘머리빗으로 머리를 빗다’라는 引伸義를 갖는다. ‘머리빗’과 ‘머리빗으로 머리를 빗다’ 두 詞義 간

23) 이영주, 『漢字字義論』,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65쪽.

에는 ‘머리빗’이라는 의미자질을 공유하지만, 후자의 의미자질 중 하나인 ‘머리를 빗다’는 공유하지 않는다. 또 다른 예로 ‘螫’의 本義는 ‘독이 있는 곤충이 물거나 쏘다’이다. 『韓非子·用人』에서 ‘有刑法而死，無螫毒，故奸人服.(형법으로 사람을 처단하여 죽이는 것은 분노하여 함부로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죄를 인정한다.)’이라고 했는데, 이 문장에서 ‘螫’은 ‘화가 나서 남을 해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쏘다’와 ‘해치다’는 상대를 공격하는 것으로 ‘공격하다’를 뜻하는 의미자질을 공유한다. 반면 本義의 행동 주체는 ‘곤충’이고 引伸義의 행동 주체는 ‘사람’며, 本義에서는 ‘독’이 공격의 수단이고, 引伸義에서는 ‘화’가 공격의 원인이다.

즉, ‘梳’는 의미자질 ‘머리빗’이 전이되고, 기타 의미자질과의 결합을 통해 詞義가 引伸되었고, ‘螫’은 의미자질 ‘공격하다’가 전이되고, ‘螫’의 행동 주체, 행동 원인, 행동 결과를 나타내는 의미자질이 변화하여 새로운 引伸義를 생성하게 된 것이다.

## 2) 詞義 引伸의 인지의미론적 개념

인지언어학은 인간의 언어, 마음, 사회적, 물리적 경험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 언어를 연구하는 언어학 이론이다. 인지언어학은 언어학과 철학에서 지배적이었던 형식주의 언어 접근법에 불만을 품고 등장했다.<sup>24)</sup> 인지언어학은 언어의 습득과 언어 사용의 방식을 인지적으로 설명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인지언어학의 분야는 크게 인지의미론과 인지적 문법 접근법으로 구분된다.

인지의미론이 발전시킨 주요 분야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Rosch와 그 동료들에 의해서 개발된 ‘원형이론(prototype)’이다. 원형이론은 George Lakoff, Ronald Langacker, Cruse, D·Alan, Jean Aitchison, John R Taylor에 의하여 여러 면에서 수정되고 확장되었다. 둘째, 인지언어학자들의 또 다른

24) 김동환, 『인지언어학과 개념적 혼성 이론』, 서울, 박이정, 2013, 27쪽.

특징적 기여는 ‘의미 확장’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주제는 多義語, 은유 및 환유 등이다.<sup>25)</sup>

多義語란 두 개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단어<sup>26)</sup>를 가리키는 것으로, 多義 현상은 대다수의 언어가 갖는 보편적인 특성 중 한 가지이다. 사회, 문화의 지속적인 발달과 끝없는 교류는 多義語가 발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인류는 문명의 발달과 함께 무수히 늘어나는 개념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을 고안해야만 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 바로 多義語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방법이다.

인지언어학에서 多義語는 의미 간에 관련성을 지닌 단어를 뜻하는 것으로 同音異義語와 구별된다. 同音異義語는 강의 둑(bank)과 은행(bank)과 같이 서로 관련 없는 두 개념이 하나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引伸이 本義와 의미적 관련성을 근거로 삼는다는 점에서 引伸을 통한 一詞多義 현상<sup>27)</sup>은 漢語에 있어서 多義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28)</sup>

인간은 인접성과 유사성의 인지능력에 의해서 기존 단어의 의미를 유연하고도 창조적으로 확장해 나간다. 여기서 ‘인접성 인지능력’이란 시간과 공간적으로 인접해 있는 대상을 관련시키는 능력인 환유를 가리키는 것이며, ‘유사성 인지능력’이란 대상과 대상 간에 유사성을 파악하는 능력인 은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인간은 환유와 은유 사고를 통해 기존 단어의 대상 범위를 넓혀가면서 단어의 의미를 확장해 나간다.<sup>29)</sup>

Zoltan Kovecses는 多義語 발생이 종종 은유와 환유에 기초하며, 한 단어의 두 의미 사이에 체계적인 환유 및 은유 관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sup>30)</sup>

박영순 역시 은유에 의한 조어법인 ‘은유 조어법’이 일반 언어의 조어법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하며, 가장 먼저 개인에서 은유를 통해 발생한 의미가 사회적으로 수용되면 사회적 언어로 확대되고, 시간적·공간적으로 확대되면 多

25) 임지룡, 『인지의미론』, 서울, 한국문화사, 2017, 28쪽.

26) 본고에서 ‘단어’는 ‘詞’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古代 漢語 詞義에 대한 기술을 할 때는 ‘詞’를 일반 언어학 이론을 기술할 때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27) 본고에서 언급하는 一詞多義 현상은 引伸을 통한 一詞多義 현상만을 가리킨다.

28) 이하영, 「인지언어학 관점을 통한 漢語의 의미 확장 양상-正反引伸을 통한 반의어로의 의미 변화를 중심으로-」, 『中國文學研究』, 79집, 2020, 192쪽.

29) 임지룡, 『인지의미론』, 서울, 한국문화사, 2017, 241-242쪽.

30) Zoltan Kovecses, 김동환 옮김, 『은유, 인지언어학적 접근법』, 서울, 로고스라이프, 2014, 423쪽.

義語化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sup>31)</sup>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환유와 은유가 多義語 발생의 주요 원리라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多義語는 단어 간에 상호 공유하는 의미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漢語의 詞義 引伸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3) 환유와 은유

전통적으로 환유는 ‘물질적·인과적·개념적 관계에 기초하여 한 단어가 다른 단어로 대치되는 수사법’, ‘한 사물의 이름이 그것과 관련해 연상되거나 암시되는 다른 사물의 이름 대신 사용되는 수사적 표현’으로 정의되었다.<sup>32)</sup>

전통적인 비유법에서 환유는 은유에 비해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인지언어학이 등장하고 난 후 환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김동환은 환유가 은유보다 더욱 근본적인 인지 현상이고, 인간 언어와 사고에서 은유보다 더 널리 퍼져있다고 설명하며, 실제로 다른 종에도 존재하는 인지적 기초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큰 맹수의 발자국이나 뒷모습을 보고 사슴과 같은 동물들이 놀라 달아나는 것은 사슴에게는 맹수의 발자국이나 뒷모습이 그 맹수 전체를 대표하게 되는 인지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sup>33)</sup>

환유와 관련한 초기 연구는 Lakoff & Johnson에서 살펴볼 수 있다. Lakoff & Johnson은 은유처럼 환유도 본질상 개념적이라고 주장했다. 환유가 은유보다 더 본질적 개념인 이유는 은유가 환유에서 도출되기 때문이다.

‘눈물을 삼키다’라는 표현을 예로 들어 환유가 은유보다 더 본질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눈물’의 사전적 의미는 ‘눈물샘에서 나오는 분비물’이다. ‘눈물’은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의 일종으로, ‘눈물’은 ‘삼키다’의 대상일 수 없다. ‘눈물’이 ‘삼키다’의 대상이 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눈물’과 ‘삼키다’의 개념을 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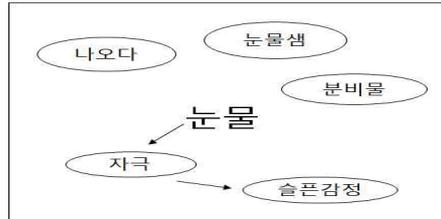
31) 박영순, 『한국어 은유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120쪽.

32) 김동환, 『인지언어학과 개념적 혼성 이론』, 서울, 박이정, 2013, 193쪽.

33) 김동환, 『환유와 인지-인지언어학적 접근법』, 서울, 한국문화사, 2019, 들머리 6-12쪽.

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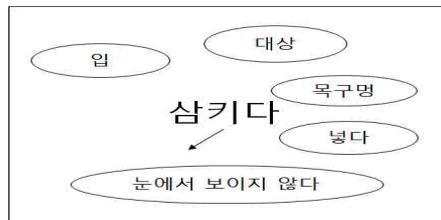
<그림 5> ‘눈물’의 환유 寫像



‘눈물’은 그 개념의 인접성을 근거로 <그림 5>와 같이 의미영역을 구성할 수 있다. ‘눈물’은 ‘눈물’을 발생하게 만드는 원인인 ‘자극’으로 寫像되어 ‘결과 는 원인을 대표한다’라는 개념적 환유를 성립시킨다. 그리고 그 자극은 물리 적 자극일 수도 있고, 추상적 자극일 수도 있다.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눈 물을 삼키다’에서 ‘눈물’은 추상적 자극으로 ‘슬픈 감정’을 가리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삼키다’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삼키다’의 사전적 의 미는 ‘무엇을 입에 넣어 목구멍으로 넘기다’이다. 목구멍으로 넘기는 동작을 한 결과 음식물 혹은 사물은 눈에서 보이지 않게 된다.

<그림 6> ‘삼키다’의 환유 寫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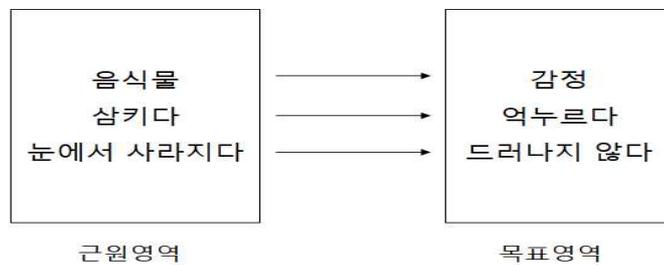
<그림 6>은 ‘삼키다’의 의미영역과 환유 寫像으로, 개념의 인접성을 근거로 위 그림과 같이 의미영역을 구성할 수 있다. ‘삼키다’는 의미영역을 구성하는 여러 개념 중 동작의 결과로 寫像되면서 ‘원인은 결과를 대표한다’ 환유가 성

립된다. 이 환유 寫像을 통해 ‘삼키다’는 ‘사라지다’로 의미가 변화하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두 환유 寫像을 통해 ‘눈물’은 ‘슬픈 감정’을, ‘삼키다’는 ‘눈에서 보이지 않게 사라짐’으로 의미가 변화하였음을 확인했다.

환유를 통해 문장에서 단어가 지시하는 구체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한 뒤 우리는 개념적 은유 ‘감정은 음식이다’를 통해서 ‘눈물을 삼키다’가 의미하는 바를 비로소 파악할 수 있다.

<그림 7> 개념적 은유 ‘감정은 음식이다’ 寫像



<그림 7>의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에서 ‘눈에서 사라지다’와 ‘드러나지 않다’는 두 개념의 유사성으로 작용하여 은유를 성립시키는 근거가 된다. 이 유사성을 근거로 근원영역의 ‘음식물’은 ‘감정’에 대응하고, ‘삼키다’는 ‘억누르다’에 대응하여 은유 寫像이 성립되면서 ‘눈물을 삼키다’와 같은 은유적 표현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환유를 통해 각 의미영역에서 지시하는 대상을 확정된 후 이 두 대상을 서로 연결시켜 새로운 은유 표현을 완성할 수 있다.

Lakoff & Johnson은 환유도 은유처럼 개념적 현상이지만 은유는 개념A를 통해 개념B를 이해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반면, 환유는 매체 실체<sup>34)</sup>를 가지

34) 환유는 단어의 범위를 넘어 담화, 사건에서 하나의 의미영역의 각 개념 간 대응을 통해 의미를 지시하는 언어 운용의 방식이자 사유과정이다. 위에서 언급한 ‘실체’는 단어에 있어서는 단어의 의미자질을 가리키며, 담화에서는 상황을 가리키고, 사건에서는 상위 사건 혹은 하위 사건을 가리킨다. 본고에서는 환유의 의미영역을 구성하는 개념들을 의미자질이라고 지칭했는데, 본고의 연구가 단어의 의미를 그 범위로 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환유의 일반 이론에 대한 기술을 할 때는 ‘실체’ 혹은 ‘개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詞義 분석에 대한 기술을 할 때는 의미자질이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하겠다.

고 목표 실체를 지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환유는 본질적으로 지시적 기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Lakoff & Johnson은 또한 환유가 물리적 또는 인과적 연상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다고 주장했으며, 이것은 인접성(contiguity)에 의해 표현된다고 하였다. 인접성이란 두 실체 사이의 가깝거나 직접적인 관계를 말한다.

아래 문장을 살펴보자.<sup>35)</sup>

- a-1. 나는 셰익스피어를 읽고 있다.
- a-2. 닉슨은 하노이를 폭격했다.
- a-3. 백악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 b-1. 셰익스피어는 문학적인 천재였다.
- b-2. 닉슨은 전직 미국 대통령이다.
- b-3. 백악관은 미국 대통령의 관저이다.

문장 a에서 밑줄이 그어진 단어와 문장 b에서 밑줄이 그어진 단어는 표면적으로 같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지시하는 대상은 상이하다. 문장 a에서 밑줄이 그어진 단어를 더욱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 c-1. 나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고 있다.
  - c-2. 미국의 폭격기가 하노이를 폭격했다.
  - c-3. 미국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 (미국 정치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셰익스피어’를 통해 ‘셰익스피어가 쓴 작품’으로, ‘닉슨’을 통해 ‘미국의 폭격기’로, ‘백악관’을 통해 ‘미국 정부’ 혹은 ‘미국의 정치인’으로 정신적 접촉을 제공하여 사고의 전환을 발생시키는 것이 환유의 사고 과정이다. 이 때 ‘셰익스피어’, ‘닉슨’, ‘백악관’은 매체 실체에 해당하고, ‘셰익스피어가 쓴 작품’, ‘미

35) Zoltan Kovecses, 김동환 옮김, 『은유, 인지언어학적 접근법』, 서울, 로고스라이프, 2014, 301-303쪽.

국의 폭격기’, ‘미국 정부’ 또는 ‘미국 정치인’은 목표 실체에 해당한다.

환유의 매체 실체와 목표 실체의 가장 기본적 특징은 그 두 개념이 서로 ‘가깝다’는 것이다. 여기서 ‘가깝다’는 것은 환유 발생의 근거인 ‘인접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생산자(셰익스피어)는 제품을 만드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품(셰익스피어의 작품)과 가까우며, 통제자(닉슨)는 통제대상(미국의 폭격기)의 활동을 개시하거나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권한을 갖으며, 장소(백악관)는 기관(미국 정부)이 존재하는 곳으로 물리적으로 매우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환유가 인접성에 바탕을 둔 관계라는 것은 환유와 은유의 차이점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환유의 이러한 특징은 매체 실체와 목표 실체가 동일한 의미영역, 즉 Lakoff가 말하는 동일한 이상적 인지모형(Idealized Cognitive Model)<sup>36)</sup>에 속할 때, 매체 실체는 목표 실체에 정신적 접근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되었다.<sup>37)</sup> 이것은 매체를 통해 또 다른 개념 혹은 사건으로 주위를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Whittok은 환유와 은유의 차이점을 인접성과 유사성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인접성은 동일한 경험 안에서 각 개념들 사이에서 맺어지는 ‘결합적 관계(syntagmatic relation)’인 반면, 유사성은 하나의 개념에서 또 다른 개념으로 사고의 전환이 발생하여 서로 다른 두 개념을 연결하는 ‘계열적 관계(paradigmatic relation)’이다. 여기서 인접성은 연쇄의 관계를 이루며, 유사성은 등치의 관계를 이룬다.<sup>38)</sup>

위 설명에서 ‘동일한 경험 안’은 하나의 의미영역을 가리키는 것이며, ‘하나

36) 이상적 인지모형(Idealized Cognitive Model)을 처음으로 상세히 설명한 학자는 Lakoff(1987)이다. 그는 우리의 언어적 지식이 세상의 지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세상의 지식이 인지모형의 형태를 취한다는 인지 의미론의 근본생각을 포착하는 방법으로 이상적 인지모형(ICM)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인지모형이란 언어 사용을 포함해 인지 처리를 안내하는 신념과 기대치의 구조화된 집합을 말한다. 그리고 인지모형은 물리계의 복잡성으로부터 지각적·개념적 과정을 통한 추상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이라고 부르고, 실제의 모든 복잡성을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복잡성을 유연하게 다루기 위한 인지적 형판을 제공한다. 김동환, 『인지언어학과 개념적 혼성 이론』, 서울, 박이정, 2013, 5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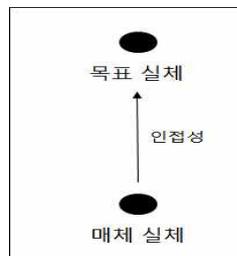
37) Zoltan Kovecses, 김동환 옮김, 『은유, 인지언어학적 접근법』, 서울, 로고스라이프, 2014, 305쪽.

38) 임지룡, 『인지의미론』, 서울, 한국문화사, 2017, 165쪽,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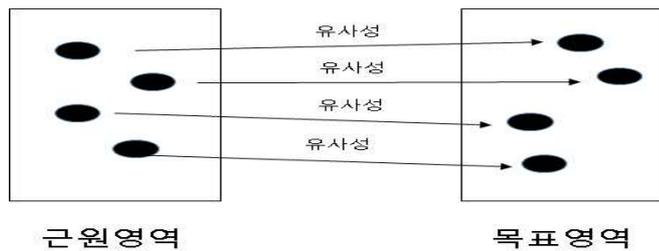
의 개념에서 또 다른 개념으로 사고의 전환'은 하나의 의미영역에서 또 다른 의미영역으로의 변화를 가리킨다. 이것은 하나의 의미영역에서 또 다른 의미영역으로 사고가 전환되는 것으로 은유는 두 의미영역의 요소가 대응함으로써 성립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환유 寫像과 은유 寫像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sup>39)</sup>

<그림 8> 환유 寫像



<그림 9> 은유 寫像



<그림 8>과 <그림 9>에서 보는 것과 같이 환유는 하나의 영역 내에서 인접성에 기반해 寫像이 발생하는 것에 반해, 은유는 서로 다른 두 의미영역에서 유사성에 기반해 寫像이 발생한다.

은유는 낱말의 속성으로 언어현상의 일부로 간주되어 왔다. 은유는 修辭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언어의 의식적이고 고의적인 것에 사용된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Lakoff & Johnson은 은유의 전통 이론의 통념에 체계적으로

39) Vyvyan Evans, Melanie Green, 임지룡·김동환 옮김, 『인지언어학기초』, 서울, 한국문화사, 2008, 332쪽.

도전하며 새로운 은유 이론을 구축했다. 그들은 은유가 낱말의 속성이 아니라 개념의 속성이며,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인간 사고와 추론의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주장했다.<sup>40)</sup>

‘시간을 벌다’, ‘시간이 가다’, ‘시간을 메우다’, ‘시간을 주다’는 모두 ‘시간’과 관련된 표현으로 은유적 사고를 통해 나타낸 것들이다. 시간과 관련된 은유 표현에서 주어와 서술어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각 문장에서는 주어인 ‘시간’을 ‘벌다’, ‘가다’, ‘메우다’, ‘주다’와 같은 술어를 통해 표현했는데, ‘시간’은 본질적으로 수확 혹은 취득의 대상이 아니며, 이동할 수 있는 실체가 아니고, 공간도 아니며, 주고받는 대상도 아니다.

위와 같은 은유적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념적 은유 ‘시간은 돈이다’, ‘시간은 이동 가능한 실체이다’, ‘시간은 빈 공간이다’, ‘시간은 물건이다’를 통해 문장의 실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개념적 은유란 한 개념을 또 다른 개념에 비추어 이해하는 것으로 ‘A는 B이다’와 같은 형태로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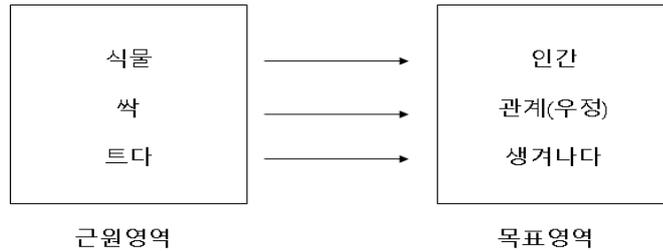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은유는 하나의 의미영역을 다른 의미영역을 통해 이해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 때 한 영역은 근원영역이고, 또 한 영역은 목표영역으로 근원영역의 구체적인 개념을 통해 목표영역의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개념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상상이 용이하며 직접 경험으로부터 유래한 것인데 반해 추상적인 개념은 보고, 듣고, 느낄 수 없고 직접 경험이 용이하지 않은 것들이다. 그리고 이 개념적 은유를 통해 드러나는 언어표현이 바로 은유적 표현이다.

즉, 은유는 근원영역(구체적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한 개념)과 목표영역(추상적 개념: 이해하고자 하는 개념) 사이 영역의 횡단 寫像이며, 환유는 단 하나의 영역 내에서 매체 실체와 목표 실체 사이의 寫像이다.

개념적 은유 ‘우정은 식물의 싹이다’를 예로 들어 은유 寫像 과정을 살펴보고 하겠다.

40) 김애령, 『은유의 도서관-철학에서의 은유』, 서울, 그린비출판사, 2013, 134-135쪽.

<그림 10> 개념적 은유 ‘우정은 식물의 싹이다’ 寫像



<그림 10>은 개념적 은유 ‘우정은 식물의 싹이다’의 寫像 과정이다. ‘두 사람 사이에 우정이 싹트기 시작했다’라는 문장은 우정을 식물에 빗대어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식물’을 ‘인간’으로, ‘싹’을 ‘우정’으로, ‘친구 간 우정의 발생’을 ‘식물의 싹이 트는 것’으로 대응시킴으로써 구체적인 사건인 ‘식물의 싹이 트’를 통해 추상적인 사건인 ‘친구 사이의 우정 발생’을 이해하게 된다. 즉, 은유적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 개념과 개념을 연결시키는 것을 개념적 은유라고 한다. 개념적 은유 ‘우정은 식물의 싹이다’(사고 방식)를 통해 언어적 은유(말하는 방식)를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환유와 은유의 차이점은 각각 인접성과 유사성에 기반을 둔다는 점 외에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sup>41)</sup>

첫째, 환유는 주로 지시적 기능을 하며 은유는 한 사물을 또 다른 사물에 비추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해의 기능을 갖는다.

둘째, 환유는 하나의 의미영역 내에서 寫像이 발생하며, 은유는 두 개의 의미영역에서 寫像이 발생한다. 위에서 환유 寫像과 은유 寫像에서 살펴봤듯이 환유는 하나의 의미영역 내에서 매체 실체가 목표 실체로 대응하며, 은유는 두 개의 의미영역에서 각 영역의 개념이 서로 대응한다.

셋째, 환유는 한 영역의 전체가 영역의 일부로 寫像되기도 하고, 영역의 일부가 영역 전체로 寫像되기도 한다. 환유는 한 영역을 구성하는 개념 사이에서 어느 방향으로든 寫像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은유는 근원영역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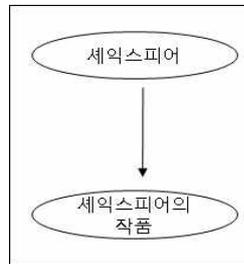
41) 김동환, 『환유와 인지-인지언어학적 접근법』, 서울, 한국문화사, 2019, 63-72쪽.

목표영역을 이해하고 구조화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寫像이 발생한다.

넷째, 환유는 일대응 寫像인 반면 은유는 일대응 寫像과 다대응 寫像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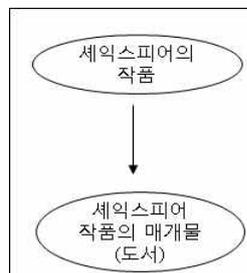
예를 들어 “나는 셰익스피어를 좋아해.”라는 문장에서 ‘셰익스피어’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가리킨다. 이것은 ‘작가는 작품을 대표한다’ 환유로 아래 <그림 11>과 같이 寫像된다.

<그림 11> ‘작가는 작품을 대표한다’ 환유 寫像



또 다른 예로 도서관에서 “셰익스피어는 어느 쪽에 있나요?”라고 질문을 했다고 하자. 여기에서 ‘셰익스피어’는 셰익스피어가 작가 활동을 통해 창출한 결과물인 책이나 원고를 가리킨다. 이것은 ‘작품은 매개물(도서 혹은 원고)을 대표한다’ 환유를 통해 지시 대상이 달라지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寫像으로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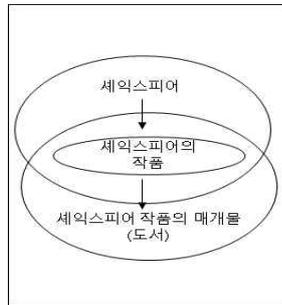
<그림 12> ‘작품은 매개물을 대표한다’ 환유 寫像



위 두 그림에서 보듯이 매체 실체에서 목표 실체로의 寫像은 일대응 寫像이다.

이 두 환유는 ‘작가는 작품을 대표하고, 작품은 매개물을 대표한다’로 요약되어 아래와 같이 하나의 환유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3> ‘작가는 작품을 대표하고, 작품은 매개물을 대표한다’ 환유 寫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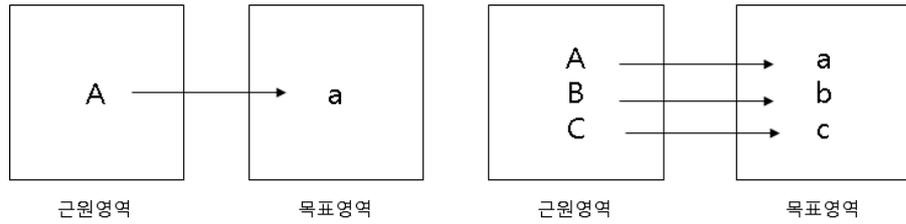


위 그림은 앞서 설명한 두 환유를 연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나는 셰익스피어를 좋아해.”에서 ‘셰익스피어’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대표한다. 이것은 매체 실체인 ‘저자’가 목표 실체인 ‘작품’을 지시하는 것으로 단일 환유이다. 하지만 “셰익스피어는 어디에 있나요?”는 ‘작가는 작품을 대표한다’ 환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문장에서 ‘셰익스피어’는 작가 활동의 직접적인 결과물인 그의 작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을 책이나 원고 등 특정한 매개물로 표현한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그의 작품의 표본’을 대표하는 또 다른 환유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셰익스피어’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으로의 접근 후 또 다시 ‘셰익스피어 작품의 표본’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가는 작품을 대표하고, 작품은 매개물을 대표한다’인 이중 환유가 발생하게 된다.

반면에 은유는 寫像의 수에 따라 일대응 은유와 다대응 은유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4> 일대응 은유 寫像(좌)과 다대응 은유 寫像(우)



예를 들어 ‘아킬레스는 사자이다’는 근원영역 ‘사자’에서 사자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한 가지인 ‘용감함’이 사람의 행동으로 寫像됨으로써 이루어진 표현이다. 이 寫像 과정에서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의 횡단 寫像은 하나의 대응만 존재하기 때문에 일대응 은유라고 한다. 반면 다대응 은유는 근원영역과 목표영역 간에 두 개 이상의 대응이 존재한다. 앞에서 설명한 개념적 은유 ‘우정은 식물의 싹이다’와 같은 은유 寫像을 다대응 은유라고 할 수 있다.

#### 4) 의미자질의 변화와 환유·은유의 관계

본고는 多義語 생성의 주요 원리인 환유와 은유를 의미자질 분석을 통해 구분하고 비교하여 詞義 引伸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환유와 은유의 개념 정리에 이어 환유 寫像과 은유 寫像이 의미자질 변화의 관점에서 어떤 차이점을 갖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환유 寫像과 의미자질의 변화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앞서 ‘눈물을 삼키다’라는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눈물’의 환유 寫像과 ‘삼키다’의 환유 寫像을 통해 ‘눈물’과 ‘삼키다’가 의미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 두 환유 寫像을 의미자질 관점에서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눈물’의 의미자질과 ‘삼키다’의 의미자질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눈물: 「눈물샘」 + 「나오다」 + 「분비물」 + 「자극」

삼키다: 「사물」 + 「입」 + 「넣다」 + 「목구멍」 + 「넘기다」 + 「사라지다」

위 의미자질은 앞서 살펴보았던 환유 寫像에서 환유의 의미영역을 구성하는 개념들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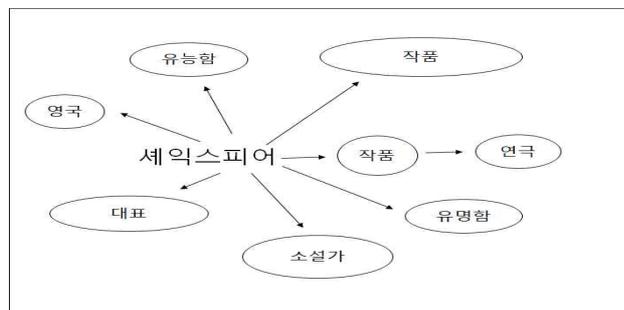
‘눈물’의 의미자질에서 중심 의미자질은 ‘분비물’이고, ‘눈물샘’, ‘나오다’는 제한 의미자질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극’은 관련 의미자질로 눈물을 발생시키는 원인에 해당한다. 이 자극은 물리적 자극과 추상적 자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눈물을 삼키다’에서 ‘눈물’은 ‘슬픈 감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상적인 자극’에 해당한다. ‘눈물’이 ‘슬픈 감정’으로 의미가 변화하는 과정은 ‘눈물’의 의미자질 중 관련 의미자질의 파생에 의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삼키다’의 의미자질에서 중심 의미자질은 ‘넘기다’이고, ‘사물’, ‘입’, ‘넣다’, ‘목구멍’, ‘넘기다’는 제한 의미자질이다. ‘사라지다’는 관련 의미자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작의 결과에 해당한다. ‘삼키다’가 ‘사라지다’로 의미가 변화하는 과정은 ‘눈물’과 마찬가지로 의미자질의 파생에 의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환유 ‘작가는 작품을 대표한다’를 통해 의미자질의 변화를 살펴볼도록 하겠다.

‘나는 셰익스피어를 좋아한다’라는 문장에서 ‘셰익스피어’는 소설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소설가의 작품을 가리킨다. 다음 그림은 ‘셰익스피어’의 의미영역을 구성하는 개념과 환유 寫像이다.

<그림 15> ‘셰익스피어’의 환유 寫像



‘셰익스피어’는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로 <그림 15> ‘셰익스피어’의 의미영역을 구성하는 ‘영국’, ‘유능함’, ‘유명함’, ‘대표’, ‘소설가’, ‘작품’, ‘연극’은 실질

적으로 ‘셰익스피어’의 의미자질에 해당한다. 이 의미자질들 중에 ‘소설가’는 ‘셰익스피어’의 중심 의미자질에 해당하며, ‘영국’, ‘유능함’, ‘유명함’, ‘대표’는 제한 의미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셰익스피어’의 표면적 의미를 통해서는 ‘작품’과 ‘연극’이라는 의미자질을 찾을 수는 없지만, 작가와 작품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셰익스피어의 많은 작품이 연극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작품’과 ‘연극’은 ‘셰익스피어’의 관련 의미자질로 작용하게 된다.

‘셰익스피어-작품-연극’의 관계는 ‘셰익스피어’를 통해 ‘작품’으로의 사고 전환이 발생하고, ‘작품’을 통해 ‘연극’으로의 사고 전환이 다시 발생하는 것으로 이중 환유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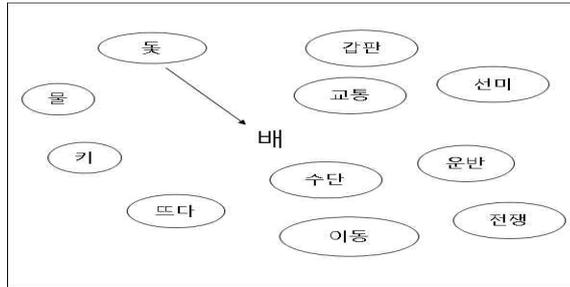
환유 寫像을 통해 ‘나는 셰익스피어를 좋아한다’에서 ‘셰익스피어’가 ‘셰익스피어의 작품’으로 그 지시 대상이 변화했는데, 이것은 의미자질 분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의미를 구성하는 의미자질이 독립하여 파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는 미국이 낳은 셰익스피어이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하자. 이 문장에서 ‘셰익스피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셰익스피어’는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가 아닌 ‘유능하고 유명한 소설가’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문장에서 ‘셰익스피어’는 의미자질 ‘유능함’, ‘유명함’, ‘소설가’의 집합체로서 ‘유능하고 유명한 소설가’를 지시한다.

이처럼 환유에 의한 단어 의미의 변화는 의미자질이 독립적으로 파생되어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미자질의 집합이 파생되어서 의미가 변화하는 방식이기도 있다.

마지막으로 문장 ‘저 멀리 돛이 보인다’를 살펴보자. 여기서 ‘돛’이 의미하는 것은 ‘배’이다. 이 두 의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배’의 의미영역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배’의 의미영역은 다음 그림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그림 16> ‘배’의 환유 寫像



위 그림에서 의미영역 ‘배’를 구성하는 개념들은 ‘배’의 의미자질들에 해당한다.

물리적 실체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배’는 ‘갑판, 선미, 돛 등으로 이루어진 물 위를 떠다니는 물체’이고, 기능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배’는 ‘물 위에 떠서 사람이나 사물을 싣고 이동시키는 수단’이자 ‘전쟁에서 적을 공격하고 아군을 방어하기 위해 무장한 무기’로 정의할 수 있다. 관점에 따라 그 중심 의미자질은 상이해질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예로 든 문장 ‘저 멀리 돛이 보인다’에서 ‘돛’이 ‘배’를 지시한 것은 물리적 실체의 관점에 따라 ‘배’를 구성하는 일부가 ‘배’ 전체를 지시하는 것이다. 이 때 중심 의미자질은 ‘물체’이며, ‘갑판’, ‘선미’, ‘돛’, ‘물’, ‘뜨다’는 제한 의미자질에 해당한다.

‘배’의 의미영역 안에서 ‘사물의 부분은 사물의 전체를 대표한다’ 환유에 근거해 ‘돛’은 ‘배’로 그 지시 대상이 변화했다. 의미자질 분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배’의 일부에 해당하는 ‘돛’ 전체가 전이된 후 ‘배’를 구성하는 또 다른 의미자질과의 결합을 통해 문장에서 ‘배’를 지시하는 詞義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몇 가지 환유 寫像 유형을 의미자질 변화의 관점에서 분석해본 결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환유는 詞義를 구성하는 의미자질이 독립적으로 파생되어 引伸義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둘째, 환유는 의미자질의 집합이 파생되어 引伸義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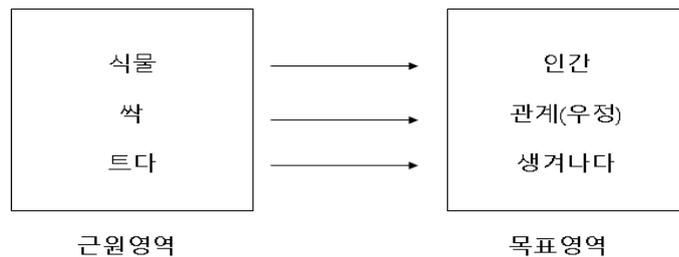
셋째, 환유는 단어의 의미 전체가 전이되고 또 다른 의미자질과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다음으로 은유 寫像과 의미자질의 변화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서 개념적 은유 ‘우정은 식물의 싹이다’를 통해 ‘두 사람 사이에 우정이 싹트기 시작했다’와 같은 표현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은유적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유를 통해 의미영역을 분석한 후, 각 의미영역의 개념을 서로 대응시켜 각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해석해야 한다.

개념적 은유 ‘우정은 식물의 싹이다’의 은유 寫像은 아래와 같은데, 각 의미영역을 구성하는 개념들이 실제로 ‘식물의 싹’과 ‘우정’의 의미자질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7> 개념적 은유 ‘우정은 식물의 싹이다’ 寫像



환유가 의미자질의 파생 혹은 전이 및 결합인 것과는 달리 은유는 근원영역의 의미자질 중 하나가 전이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행동의 주체, 목적, 원인, 결과, 상태 등에 대응하는 의미자질의 변화를 통해 의미가 변화한다. 이때 전이되는 의미자질은 두 의미의 공통된 속성 혹은 유사한 속성에 해당한다.

위 은유 寫像에서는 ‘트다’와 ‘생겨나다’는 두 개념의 유사점으로, ‘트다’가 전이된 후 ‘트다’의 대상을 나타내는 의미자질인 ‘식물’, ‘싹’이 ‘인간’, ‘관계(우정)’를 나타내는 의미자질로 변화하면서 의미가 변화하게 된다.

즉, 인지언어학에서의 은유 寫像은 의미자질이 전이된 후 근원영역의 의미

자질이 변화하여 목표영역의 의미자질로 대응하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환유가 의미자질의 파생 혹은 전이 및 결합을 통해 의미의 변화를 일으키는 반면, 은유는 의미자질의 전이 및 의미자질의 변화를 통해 두 영역 간에 대응을 이루면서 변화를 일으킨다는 차이점이 있다.

## 2. 『說文通訓定聲』의 체례와 연구 자료의 유용성

### 1) 『說文通訓定聲』의 체례

許愼이 『說文』을 편찬한 이후 『說文』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현재까지 전하는 最古의 판본으로는 宋代 徐鉉이 교감한 『說文解字(大徐本)』가 있고, 체계적으로 『說文』을 해설하고 분석한 연구서로는 南唐 徐鍇의 『說文繫傳』이 있는데, 徐鉉과 徐鍇 두 형제로부터 『說文』의 연구가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清代의 說文四大家에 의해 『說文』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sup>42)</sup>

『說文通訓定聲』은 說文四大家 중 한 사람인 朱駿聲이 편찬한 저서이다. 기존의 『說文』 연구서는 ‘小篆體의 수정’, ‘字形에 대한 새로운 견해 제시’, ‘古今字의 字形 정리’, ‘교감 및 보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 및 분석했지만, 기본적으로 540部首에 기반을 둔 許愼의 글자 배열 방식을 따랐다. 하지만 朱駿聲은 許愼의 540부수 배열 방식을 해체하고 古韻의 韻部를 따라 『說文』의 글자를 재배열했다. 아래 『說文通訓定聲·凡例』의 내용을 통해 『說文通訓定聲』의 구성을 엿볼 수 있다.

六書形聲之字，十居其九。是編就許書五百四十部，舍形取聲，貫穿聯綴，離之爲一千一百三十七母，比之爲十八部，以箸文字聲音之原，以正六朝四聲之失。前哲江，戴，段，孔分部遞益各有專書，今復參互加覈，不妄立異亦不敢苟

42) 이규갑, 『漢字學教程』, 서울, 차이나하우스, 2015, 75쪽.

同.43)

六書 중에 形聲字가 9할을 차지한다. 이 책은 許慎이 창안한 540개 部에서 모양을 버리고 소리를 취하여, 일관적으로 연결시켜서, 1,137개 母를 도출하고, 그것들을 비교하여 18개 部를 삼아, 文字의 소리의 근원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내어, 六朝의 4聲의 잃음을 바로잡았다. 이전의 학자 강 씨, 대 씨, 단 씨, 공 씨가 서로 더하여 각각 이 주제를 전문적으로 다룬 책이 있으니, 지금 각 책을 다시 참고하여 검증하였고, 망령되이 다른 것을 세우지 않고, 또 감히 구차하게 같기를 추구하지 않았다.44)

위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朱駿聲은 形聲字의 소리를 기준으로 1,137개의 聲符(聲母)를 도출하여 18개 韻部로 나누었다. 18部의 명칭은 아래와 같으며 그 명칭은 『易經』의 卦名을 따른 것이다.

豐部, 升部, 臨部, 謙部, 頤部, 孚部, 小部, 需部, 豫部  
隨部, 解部, 履部, 泰部, 乾部, 屯部, 坤部, 鼎部, 壯部

朱駿聲은 『說文通訓定聲』의 본문 시작에 『說文通訓定聲總目』을 두고 豐部第一, 升部第二, 臨部第三, 謙部第四, 頤部第五, 孚部第六, 小部第七, 需部第八, 豫部第九, 隨部第十, 解部第十一, 履部第十二, 泰部第十三, 乾部第十四, 屯部第十五, 坤部第十六, 鼎部第十七, 壯部第十八의 순서로 18部를 나열했다. 그리고 ‘部’ 아래 ‘母’를 두었는데, ‘母’는 形聲字에서 소리를 담당하는 요소이다. 예를 들어 ‘豐部第一’에는 38개의 ‘母’가 있는데 아래와 같다.

東 同 彤 中 夂 冢 衆 蟲 充 春 工 公 容 孔 躬 井 共 鬯 戎  
宄 輻 膏 邕 凶 龙 冒 弄 丰 封 豐 从 叢 宗 囟 雙 竦 送 夬

그리고 각 ‘母’에 속하는 표제자에 대한 설명 이전에 각 ‘母’ 앞에 ‘某五十一名, 凡某之派皆衍某聲’이라고 설명하여 각 ‘母’에 속하는 표제자의 수를 밝혔

43)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凡例』 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15쪽.

44) 이재혁, 『『說文通訓定聲』古音체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23쪽.

다. 예를 들어 ‘東母’ 시작 전에 ‘東五十一名, 凡東之派皆衍東聲-得紅切-’이라고 쓰여 있어 ‘東母’에 해당하는 글자의 수가 51개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뒤에 해당 反切을 표기했다. 그 다음 ‘母’에 속하는 표제자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표제자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은 구성을 갖는다.

①許慎의 해설 ②按語 ③轉注 ④假借 ⑤別義 ⑥聲訓 ⑦古韻 ⑧轉音

표제자를 제시하고 本義를 밝힌 뒤 轉注, 假借, 別義, 聲訓, 古韻, 轉音에 해당하는 문헌과 예문을 나열했다. 하지만 표제자마다 위 항목이 모두 있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 글자가 해당 항목 중에 일부만 설명하고 있다.

書名에서 알 수 있듯이 『說文通訓定聲』은 크게 ‘說文’, ‘通訓’, ‘定聲’ 세 분야로 나누어 漢字의 ‘形, 義, 音’에 대해 설명하고 예자를 제시했다. 이 중에 許慎의 해설을 따라 本義를 밝힌 부분이 『說文通訓定聲』의 ‘說文’에 해당한다.

朱駿聲은 本義와 관련해서 대체로 許慎의 의견을 따랐지만 ‘按語’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더해 本義를 수정하기도 했다.

아래 몇몇 표제자를 통해서 朱駿聲이 本義를 어떤 방식으로 설명했는지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아래는 ‘矯’에 대한 『說文』의 해석과 『說文通訓定聲』의 해석이다.

『說文』: 揉箭箝也. 从矢喬聲. 居夭切.

『說文通訓定聲』: 揉箭箝也. 从矢喬聲. 正曲使直. 『廣雅·釋詁三』: 矯, 直也.

『易·說卦傳』: 坎爲矯輮. 『荀子·性惡』: 故枸木必將待櫟括烝矯然後直. 『淮南·本經』: 矯枉以爲直. 『漢書·嚴安傳』: 矯箭控弦.

朱駿聲은 ‘矯’의 本義를 ‘揉箭箝也. 从矢喬聲.’이라고 설명했다. 許慎의 의견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正曲使直’을 덧붙여 의미를 보충했다. 이 문장은 『說文』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문장이다. 그렇다면 朱駿聲의 의견일 가능성이 있는데, 朱駿聲은 『說文通訓定聲』에서 本義의 대한 자

신의 의견을 밝히기 전에 ‘按’이라고 표기하고 설명을 이어갔다. 그런데 이 문장 앞에는 ‘按’ 표기가 없어 朱駿聲의 의견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실제로 이 문장은 『漢書·嚴安傳』의 문장 ‘矯箭控弦’에 대한 注인데 朱駿聲이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狂’의 本義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說文』: 狺犬也. 从犬峯聲. 忞, 古文从心. 巨王切.

『說文通訓定聲』: 狺犬也. 从犬峯聲. 古文从心. 按: 移以言人乃製忞字. 『廣雅·釋詁三』: 狂, 癡也.

朱駿聲은 ‘狂’의 本義를 ‘狺犬也. 从犬峯聲.’이라고 설명했다. 許慎의 의견을 그대로 따랐다. 하지만 그 뒤에 ‘按’을 명시하여 ‘狂이 사람에게 쓰이면서 忞이 생겼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그와 관련된 문장을 인용해서 本義의 설명을 보충했다.

반면, 許慎의 의견을 반박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혀 本義에 대한 해석을 달리한 경우도 있다. 그 예를 ‘牢’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래는 ‘牢’에 대한 『說文』의 풀이와 『說文通訓定聲』의 풀이이다.

『說文』: 閑, 養牛馬圈也. 从牛, 冬省. 取其四周市也. 魯刀切.

『說文通訓定聲』: 閑, 養牛馬圈也. 从牛, 冬省. 取其四周市也. 按: 外象匊而堅固形. 一以閑之. 古文終象絲束. 牢象閑. 皆象形指事. 非冬省也. 又按: 牛羊豕之閑曰牢, 馬曰廄曰~~廄~~(木+厂안에 林과 心). 『周禮·充人』: 祀五帝則繫于牢. 『詩』: 執豕于牢. 『列子·仲尼』: 長幼群聚, 而爲牢藉. 『莊子·達生』: 元端以臨牢筴. 又養牲所曰, 故牲即曰牢. 『周禮·大行人』: 禮九牢. 注: 三牲備爲一牢. 『呂覽·仲夏』: 以太牢祀于高禴. 注: 三牲具曰太牢. 『儀禮·目錄』: 羊豕曰小牢. 『晉語』: 子爲我具特羊之饗. 注: 凡牲一爲特, 二爲牢.

許慎은 ‘牢’의 本義를 ‘난간이다. 소와 말의 우리이다. 牛와 생략된 冬의 형태로 구성된다.’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朱駿聲은 許慎이 ‘牢’의 글자를 잘못

분석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자신의 의견을 새롭게 밝혔다. 朱駿聲은 ‘牢’가 ‘冬’이 생략된 형태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바깥 울타리가 견고한 모습을 본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牢’의 의미는 ‘소, 양, 돼지의 우리’이며, ‘말의 우리’는 ‘廐’, ‘厩’ (木+厂안에 林과 心)이라고 하여 의미도 수정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朱駿聲은 ‘說文’ 혹은 ‘本義’라는 표기는 따로 하지 않았지만 표제자를 설명하는데 있어 가장 먼저 해당 글자의 本義를 밝히고 관련 문헌과 문장을 나열했는데, 이 부분이 이 저서의 ‘說文’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通訓’의 주요 내용은 ‘轉注’와 ‘假借’이며, 그 외에 ‘別義’, ‘聲訓’, ‘古韻’, ‘轉音’등의 항목을 포함한다.<sup>45)</sup> 朱駿聲은 『凡例』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是書於每字本訓外，列轉注假借二書，各以□表識，補許書所未備，徵舉典籍，引端見緒，遺奪舛錯，知所不免，釐整之善，以俟達人。<sup>46)</sup>

(이 책은 매 글자의 本訓 이외에 轉注, 假借 두 가지를 나열하여, 각각 □로 표시했으며, 許慎의 『說文』의 미비한 바를 보충하였는데, 典籍을 증거로 들어 실마리를 이끌어 보였으나, 빠지고 틀린 것을 피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니, 達人을 기다린다.)<sup>47)</sup>

또한 『說文通訓定聲』의 편찬 목적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夫叔重萬字，發明本訓，而轉注假借則難言，爾雅一經，詮釋全詩，而轉注假借亦終晦，欲顯厥旨，貴有專書。<sup>48)</sup>

(무릇 許慎의 일만 자는 本訓을 밝혔으나, 轉注와 假借는 설명하기 어려우며, 『爾雅』가 『詩經』 전체를 해설하였으나, 轉注와 假借는 여전히 분명치 않다. 그 뜻을 밝히고자 이 전문서가 있는 것이다)<sup>49)</sup>

45) 박홍수, 「朱駿聲 說文學의 創見」, 『中國語文學』, 25권, 1995, 184쪽.

46)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凡例』 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15쪽.

47) 박홍수, 「朱駿聲 說文學의 創見」, 『中國語文學』, 25권, 1995, 184쪽.

48)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通訓』 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10쪽.

49) 박홍수, 「朱駿聲 說文學의 創見」, 『中國語文學』, 25권, 1995, 184쪽.

위 두 인용문을 통해 朱駿聲이 ‘通訓’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이 轉注와 假借임을 알 수 있다. 朱駿聲은 轉注와 假借에 대한 許慎의 정의를 수정했는데, 그의 轉注說을 통해 轉注가 곧 引伸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轉注者, 體不改造, 引意相受, 令長是也. 假借者, 本無其意, 依聲託字, 朋來是也.<sup>50)</sup>

(轉注는 형태는 변화시키지 않고 그 의미를 끌어와서 서로 받는 것이다. 令과 長이 그 예이다. 假借는 본래 그 의미가 없으나 소리에 의탁한 것으로 朋과 來가 그 예이다.)

朱駿聲이 말한 ‘引意相受’에서 ‘引意’는 ‘의미를 끌어오다’는 것으로 의미의 전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한 글자의 의미 혹은 의미자질이 또 다른 글자에 전이되어 두 글자 모두 의미적 관련성을 갖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朱駿聲은 轉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을 했다.

竊以轉注者, 即一字而推廣其意. 非合數字而雷同其訓.<sup>51)</sup>

(轉注는 한 글자가 그 의미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여러 글자를 합쳐져 의미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一字而推廣其意’는 詞義 引伸을 뜻하는 것이며, ‘非合數字’는 轉注가 造字法이 아님을 다시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轉注와 함께 假借에 대한 설명도 했는데, 위 원문에서 朱駿聲이 밝힌 假借는 本無其字的 假借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나 朱駿聲은 『說文通訓定聲·假借』에서 假借의 발생 원인을 아래와 같이 세분화하여 다시 설명했다.<sup>52)</sup>

①先無正字之假借

②偶書他字之假借

50)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轉注』 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13쪽

51)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轉注』 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13쪽.

52)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假借』 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14쪽.

### ③ 轉用別字之假借

① 先無正字之假借은 고유의 글자가 없는 말을 소리가 같거나 혹은 유사한 글자를 빌어 의미를 대신 나타내는 것이다. 낱말은 통용되지만 이것을 기록할 글자가 없어 발생한 假借로 本無其字의 假借이다. ② 偶書他字之假借은 고유의 글자가 있지만 우연히 다른 글자를 빌어 사용하면서 발생한 假借이다. ③ 轉用別字之假借은 고유의 글자가 있지만 고의로 다른 글자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假借이다. ②, ③은 本有其字의 假借로 通假라 할 수 있다.

즉, 朱駿聲의 정의에 근거하면 轉注는 引伸을 의미하고, 假借는 同音通假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朱駿聲은 표제자를 설명하는데 있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本義를 가장 먼저 밝히고 이어서 轉注, 假借, 別義, 聲訓, 古韻, 轉音에 해당하는 인용문을 나열하여 글자의 의미를 밝혔다. 아래 예문은 『說文通訓定聲』의 표제자에 대한 설명으로 각 글자의 轉注, 假借, 別義, 聲訓에 대한 설명이다.

奪: 手持隹失之也. 从又从奞. 會意. 既得而失去也. 字亦作奪. 从寸. 經傳統以脫爲之. 【轉注】『廣雅·釋詁三』: 奪誤也. 按: 猶失也. 又奪, 馘也. 『孟子』: 勿奪其時. 荀子注: 作失. …… 【假借】爲放. 『書·呂刑』: 奪攘矯虔. 『周禮·天官·大宰』: 奪以馭其貧. 注: 謂臣有大罪沒入家財者. ……

澗: 和也. 从水戡聲. 經傳: 多以輶爲之. 【別義】『南都賦』: 流湍投澗. 注: 引埤蒼. 澗, 水行出也. ……

尾: 微也. 从到毛. 在尸後. 古人或飾系尾, 西南夷亦然. 按: 禽獸後也. …… 【聲訓】『釋名』: 尾, 微也. 承脊之末稍微殺也.

위 예문 중 ‘奪’을 통해 轉注와 假借에 대한 설명 방식을 알 수 있다. 朱駿聲은 먼저 本義를 밝힌 뒤 ‘轉注’라는 항목을 표시하고 해당 글자가 引伸義로 쓰인 문장들을 인용하여 글자의 의미를 밝혔다. 그리고 假借에 대한 설명은 ‘爲X’와 같은 형식으로 그 의미를 밝히고, 해당 의미에 속하는 인용문을 나열

하여 의미를 밝혔다.

위 예문에서 ‘澱’은 本義에 대한 설명 다음에 바로 ‘別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朱駿聲은 ‘別義’에 대한 설명도 ‘轉注’와 마찬가지로 문헌의 문장을 인용하여 뜻을 밝히고 있다.

위 예문 중 ‘尾’를 통해서 ‘聲訓’의 방식에 대해 살펴 볼 수 있다. ‘聲訓’은 앞서 설명한대로 소리가 유사하거나 혹은 소리가 같은 글자를 통해 그 의미를 밝히는 방식이다.

표제자의 설명 방식 중 나머지 ‘古韻’과 ‘轉音’은 압운을 의미한다.

‘古韻’은 『時經』을 비롯한 선진문헌에서의 압운을 가리키며, ‘轉音’은 원칙적으로 압운이 되지 않지만 압운이 된 경우를 가리킨다. 『說文通訓定聲』에서 ‘古韻’과 ‘轉音’은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sup>53)</sup>

東：……【古韻】『詩·小星』叶：東公同，『詩·旄邱』叶：戎東同，『詩·桑中』叶：葑東庸，『詩·伯兮』叶：東蓬容，『詩·采芡』叶：葑東從，『詩·東山』叶：東濛，『詩·車攻』叶：攻同龐東 ……

위 원문에서 ‘『詩·小星』叶：東公同’은 『詩·小星』에서 ‘東’, ‘公’, ‘同’이 서로 압운이 된다는 의미이다.

夂：……【轉音】『詩·蕩』叶：諶終. 按：讀如斟也.

위 원문에서 ‘『詩·蕩』叶：諶終.’은 『詩·蕩』에서 ‘諶’, ‘終’이 서로 압운이 된다는 의미이다.

## 2) 朱駿聲의 轉注 이론 및 詞義 引伸 연구의 유용성

許慎은 『說文·敘』에서 轉注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53) 이재혁, 『『說文通訓定聲』 古音체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9, 40-41쪽.

轉注者, 建類一首, 同意相受, 考老是也.

(轉注는 하나의 부수를 세워 동일한 의미를 서로 받는 것으로 考, 老가 그것이다.)

그러나 轉注는 象形이나 指事처럼 간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許慎의 설명이 너무 함축적이고 간단하여, 내용 파악이 어렵다. 또 예로 든 ‘考’, ‘老’ 두 글자의 관계를 보면, 모두 同部에 속하고 음과 의미가 비슷할 뿐만 아니라, 『說文』에서 각 글자를 설명하는 방식이 통일되지 않아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기 어렵게 했다. 許慎은 ‘考’와 ‘老’를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sup>54)</sup>

考: 老也. 从老省, 丂聲.

老: 考也. 七十曰老. 从人毛匕. 言須髮變白也.

‘考’에서 形符는 ‘老’가 생략된 형태이며 聲符는 ‘丂’이다. 또한 ‘老’는 ‘人’, ‘毛’, ‘匕’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의미는 수염과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했음을 의미한다. 許慎은 ‘考’를 形聲字로, ‘老’를 會意字로 분석한 것이다.

또한 두 글자가 각자 서로 다른 造字法에 속하면서도 互訓하고 있기 때문에 轉注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다. 과거 학자들은 許慎의 轉注說과 그가 예로 든 ‘考’와 ‘老’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각자 나름의 轉注說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形轉說, 省畫說, 部首說, 轉聲說, 互訓說, 折衷說, 分化·派生說, 引伸說 등 轉注에 대한 다양한 異說이 등장했다.

朱駿聲 역시 轉注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학자 중 한 명이다. 朱駿聲은 『說文通訓定聲·通訓』에 다음과 같이 책을 쓴 목적을 밝혔다.

夫叔重萬字, 發明本訓, 而轉注假借則難言. 『爾雅』一經, 詮釋全詩, 而轉注假借亦終晦. 欲顯厥旨, 貴有專書.

(무릇 許慎의 일만 자는 本訓을 밝혔으나, 轉注와 假借는 설명하기 어려우며, 『爾雅』가 『詩經』 전체를 해설하였으나, 轉注와 假借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그 뜻을 밝히고자 이 전문서가 있는 것이다.)<sup>55)</sup>

54) 이규갑, 『漢字學教程』, 서울, 차이나하우스, 2015, 151쪽.

이것은 『說文通訓定聲』이 轉注와 假借의 의미를 정확히 밝히기 위한 저서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朱駿聲은 許慎의 轉注說을 과감히 수정하고 그 예자도 변경했는데, 朱駿聲이 정의한 轉注說과 그 예자는 아래와 같다.

轉注者, 體不改造, 引意相受, 令長是也.<sup>56)</sup>

(轉注는 형태는 변화시키지 않고 그 의미를 서로 받는 것이다. 令과 長이 그것이다.)

許慎이 轉注를 ‘同意相受’라고 한 것은 두 글자가 동일한 의미로 訓釋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朱駿聲은 轉注를 ‘引意相受’라고 했는데 이것은 ‘의미를 끌어와서 서로 받다’라는 의미로 두 글자 간에 의미적 상관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朱駿聲은 轉注의 예자로 든 ‘令’의 두 가지 쓰임을 설명했다.

又試以令譬之, 自公令之, 爲本訓, 命也. 秦郎中令, 爲轉注, 官也.<sup>57)</sup>

(令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자. 自公令之에서 ‘令’은 本義로 ‘명령하다’이다. 秦郎中令에서 ‘令’은 轉注이다. ‘관직’을 의미한다.)

‘自公令之’는 ‘관리가 불러 놀라다’라는 의미로 이 문장에서 ‘令’은 本義인 ‘명령하다’이다. ‘郎中令’은 ‘官名’을 가리키는데, 관직에 있는 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다. ‘令’은 형태의 변화는 없지만 그 의미가 ‘명령하다’에서 ‘명령하는 사람’으로 引伸되어 詞義가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두 詞義가 의미적 상관성을 근거로 詞義가 확대된 것으로 朱駿聲은 轉注를 引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朱駿聲이 轉注를 引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說文通訓定聲·轉注』의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55) 박홍수, 「朱駿聲 說文學의 創見」, 『中國語文學』, 25권, 1995, 184쪽.

56)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轉注』 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13쪽.

57)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轉注』 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14쪽.

其一字而數訓者，有所以通之也。通其所可通則爲轉注，通其所不通則爲假借。如网爲田漁之器，轉而爲車网爲蛛网。此通以形。又轉而爲文網。此通以意。<sup>58)</sup>  
 (한 글자가 많은 의미를 갖는 것은 그것이 통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그 통하는 바를 통하게 하는 것이 轉注이고, 통하는 바를 통하지 않게 하는 것이 假借이다. 예를 들어 网은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다. 車网, 蛛网과 같이 쓰인다. 이것은 형태가 서로 통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文網이 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의미가 서로 통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朱駿聲은 ‘通其所可通’과 ‘通其所不通’을 轉注와 假借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여기서 ‘通’의 대상은 ‘의미’이다. 두 글자가 서로 의미가 통하는 것은 轉注이며 서로 통하지 않은 것은 假借이다. 위 원문에서 轉注를 설명하기 위해 ‘网’의 쓰임을 예로 들었다. ‘网’은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기준으로 詞義가 引伸된다. ‘車网’ 혹은 ‘蛛网’으로 쓰이는 것은 ‘通以形’으로 형태가 통하기 때문이며, ‘文網’으로 쓰이는 것은 ‘通以意’로 의미가 통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형태가 통하는 것은 두 사물의 외형이 유사함을 일컫는 것이다. 또한 ‘文網’은 ‘빈틈없는 법률제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물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매우 촘촘해야 한다. 법률도 마찬가지로 죄인이 빠져나갈 틈 없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 두 詞義의 중 전자는 구체적, 가시적이고 후자는 추상적이고 비가시적이지만 詞義간의 유사한 점이 상통하기 때문에 서로 의미가 통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의미가 상통한다는 것은 詞義의 引伸을 가리키며 朱駿聲은 轉注를 詞義 引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문장이다.

竊以轉注者，即一字而推廣其意。非合數字而雷同其訓。

(轉注란 한 글자가 그 의미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여러 글자를 합쳐져 의미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위 문장에서 ‘一字而推廣其意’는 의미를 확대시킨다는 것으로 ‘引伸’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轉注가 곧 詞義 引伸임을 가리키는

58)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通訓』 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10쪽.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就本字本訓，而因以展轉引伸爲他訓者，曰轉注。

본래의 글자 본래의 의미에 대해 돌고 돌아引伸되어 다른 의미가 되는 것이 轉注이다.

위 문장에서는 직접적으로 ‘引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轉注가 本義에서 의미가 확대된 것임을 밝혔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朱駿聲이 주장하는 轉注는 詞義의 引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朱駿聲은 『說文通訓定聲·轉注』에 轉注가 訓詁學의 분야라고 언급했는데<sup>59)</sup>, 이것은 轉注에 대한 연구가 文字學의 범주에서 訓詁學의 범주로 넘어오면서 연구의 한계점을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朱駿聲의 轉注說은 漢字 詞義 발전의 규칙을 밝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文字學의 범주에 속하는 轉注를 訓詁學의 범위에서 논하는 것은 연구의 범주를 달리하는 것이며, 轉注로 인해 造字의 번거로움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은 과도하게 비현실적인 생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sup>60)</sup> 또한 轉注와 假借의 경계를 완전하게 구분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王力은 文字學 연구자들의 오랜 토론 과제였던 轉注의 정의 및 예자와 관련해 轉注의 정의를 고치고 例字를 바꾼 것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sup>61)</sup>

또한 清代 이전 학자들이 六書의 정의에 구애되어 맹목적으로 許慎을 맹신하고 本義 연구에만 심혈을 기울인 반면, 朱駿聲은 轉注와 假借의 연구를 중요시하고 本義 외에 기타 詞義를 분석하여 古代 詞義를 전면적으로 깊이 있

59) 小學之綱有三，一曰形體，曰音聲，曰訓詁。周官保氏以六書教國子。象形指事會意者，形體之事也。諧聲字，音聲之事也。轉注者，訓詁之事也。(小學에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첫째는 形體, 둘째는 音聲, 셋째는 訓詁이다. 周官 保氏가 육서로 국자(國子)를 가르쳤는데 象形, 指事, 會意는 形體와 관련 된 것이고, 諧聲字는 音聲과 관련된 것이다. 轉注는 訓詁와 관련된 것이다.).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12쪽.

60) 박홍수, 「朱駿聲의 轉注·假借說研究」, 『中國言語研究』, 6권, 1998, 14쪽.

61) 박홍수, 「朱駿聲의 轉注·假借說研究」, 『中國言語研究』, 6권, 1998, 12쪽.

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매우 높이 평가 받는다.<sup>62)</sup>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한자는 그 수가 매우 방대하고 복잡한 의미 구조를 갖는다. 朱駿聲이 轉注와 假借를 통해 밝힌 詞義 발전 규칙은 초보 학습자로 하여금 한자의 수많은 의미를 이해하고 의미의 체계를 인지하고 수립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sup>63)</sup>

이러한 이유로 朱駿聲의 학설은 일리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詞義 引伸을 연구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62) 羅薇, 「朱駿聲與『說文通訓定聲』」, 『青年文學家·言語研究』, 25期, 2016, 188쪽.

63) 袁媛, 「朱駿聲『說文通訓定聲』語義研究」, 『語文建設』, 32期, 2015, 81쪽.

### Ⅲ. 『說文通訓定聲』의 환유를 통한 引伸 유형 분류

인지언어학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는 환유의 정의는 Kovecses & Radden의 것으로 다음과 같다. 환유는 동일한 이상적 인지모형(Idealized Cognitive Model; ICM) 내에서 매체 실체가 목표 실체로 정신적 접촉을 제공하는 인지과정이다.<sup>64)</sup>

Kovecses와 Radden은 환유를 하나의 이상적 인지모형 내에서 일어나는 개념적 관계로 정의를 내렸다.<sup>65)</sup> 두 사람은 전체와 부분의 구분이 환유에 있어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고 주장하면서 환유를 전체와 부분 관계를 기준으로 그 유형을 구분했다. 그들이 분류한 환유의 유형은 크게 ‘전체-부분’ 환유와 ‘부분-부분’ 환유로 구분된다. 전자는 전체가 부분을 가리키는 것과 부분이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세분화 된다.

Vyvyan Evans, Melanie Green은 Kovecses와 Radden의 논문 「Metonymy: Developing a cognitive linguistic view」가 인지의미론 내에서 환유 이론에 대한 연구를 상세하게 시도한 논문이라고 평가했다.<sup>66)</sup> 또한 많은 환유와 관련된 저서<sup>67)</sup>에서 Kovecses와 Radden의 환유 분류법을 따르는데, 본고에서도 Kovecses와 Radden의 분류법을 따라 기술하도록 하겠다.

‘전체-부분’ 환유는 개념A와 개념 A를 구성하는 의미 자질 a, b, c, d가 있을 때, 개념 A가 의미자질 a, b, c, d를 가리키거나, 의미자질 a, b, c, d가 개념 A를 가리키는 것을 말한다. Kovecses와 Radden은 ‘전체-부분’ 환유를 ‘사물과 부분 ICM’, ‘척도 ICM’, ‘구성 ICM’, ‘사건 ICM’, ‘범주와 구성원 ICM’, ‘범주와 특성 ICM’ 6가지 ICM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부분-부분’ 환유는 개념A 내에 개념을 구성하는 의미 자질 a, b, c,

64) 김동환, 『환유와 인지-인지언어학적 접근법』, 서울, 한국문화사, 2019, 3쪽.

65) 김동환, 『환유와 인지-인지언어학적 접근법』, 서울, 한국문화사, 2019, 10쪽.

66) Vyvyan Evans, Melanie Green, 임지룡·김동환 옮김, 『인지언어학기초』, 서울, 한국문화사, 2008, 344쪽.

67) 김동환, 『인지언어학과 개념적 혼성 이론』, 서울, 박이정, 2013.

오예욱, 『형식의미론과 인지의미론에서 본 어휘의미론』, 서울, 역락, 2004.

김동환, 『환유와 인지-인지언어학적 접근법』, 서울, 한국문화사,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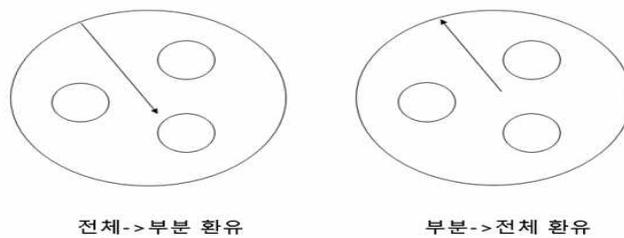
김예령, 『은유의 도서관-철학에서의 은유』, 서울, 그린비출판사, 2013.

d 중에서 a가 b를 가리키거나, c가 d를 가리키는 것을 말한다. 즉, 한 개념의 의미 자질이 동일한 영역 안의 또 다른 의미 자질을 대표하는 것이다. Kovecses와 Radden은 ‘부분-부분’ 환유를 분석 후 ‘행동 ICM’, ‘인과성 ICM’, ‘지각 ICM’, ‘생산 ICM’, ‘통제 ICM’, ‘소유 ICM’, ‘포함 ICM’, ‘위치 ICM’, ‘기호와 지시 ICM’, ‘수정 ICM’ 10가지 ICM으로 분류했다. 본고에서는 10가지 ICM 중에 상용되는 ‘행동 ICM’, ‘인과성 ICM’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 1. 전체-부분 환유

하나의 인지모형은 인지모형을 구성하는 부분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인지모형을 구성하는 부분들의 집합을 ‘전체’라고 하고, 각 부분을 ‘부분’이라고 했을 때 ‘전체-부분’ 환유는 인지모형의 전체에서 부분으로 寫像되거나 인지모형의 부분에서 전체로 寫像되어 발생하는 환유의 유형이다. 이에 따라 ‘전체-부분’ 관계에 따른 분류는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8> ‘전체-부분’ 관계에 기초한 환유의 유형<sup>68)</sup>



‘전체-부분’ 환유는 인지모형에서 전체와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 사이의 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전체 인지모형의 성격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뉜

68) 김동환, 『환유와 인지-인지언어학적 접근법』, 서울, 한국문화사, 2019, 11쪽.

다.<sup>69)</sup> 본고에서는 ‘사물과 부분 ICM’, ‘구성 ICM’, ‘범주와 구성원 ICM’, ‘범주와 특성 ICM’으로 구분하여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 1) 사물과 부분 ICM

‘사물과 부분 ICM’은 물리적 사물에 적용되는 것으로, 사물을 구성하는 부분과 부분의 집합체인 전체 간에 서로 寫像되어 전체가 부분을 지시하거나, 부분이 전체를 지시하는 유형이다. ‘사물과 부분 ICM’은 전체와 부분의 관계에서 ‘사물의 전체는 사물의 부분을 대표한다’와 ‘사물의 부분은 사물의 전체를 대표한다’ 두 가지 환유로 다시 세분화된다. ‘사물의 전체는 사물의 부분을 대표한다’는 전체 사물에서 활성영역이 부각되면서 환유가 발생하는 것이며, ‘사물의 부분은 사물의 전체를 대표한다’는 전통 수사법의 제유<sup>70)</sup>에 해당한다. 아래 『說文通訓定聲』의 예자를 통해 두 가지 환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體<sup>71)</sup>: 總十二屬之名也. 从骨豐聲. 字亦作體. 按: 十二屬者, 頂面頤首屬三, 肩脊臂身屬三, 肱臂手手屬三, 股脛足足屬三也. 『孟子』: 猶其有四體也. 謂二手二足. 『廣雅·釋親』: 體, 身也. 『墨子·經上』: 體, 分于兼也. 【轉注】『周禮·內饗』: 辨體名肉物. 按: 牲體有七脊也, 左右脊也, 左右肱也, 左右股也, 所謂全脊也. 七體乾之爲腊或用于俎, 乃折爲二十一體: 正脊, 脰脊, 橫脊, 三也; 代脊, 長脊, 短脊, 左右六也; 肩, 臂, 臑, 左右六也; 髀, 肫, 骼, 左右六也, 所謂殺脊也. 其首尾與四蹄不用. 周禮牲體貴右, 吉禮用右肱, 凶禮用左肱, 若左右皆用謂之合升. 愚按: 俎有十一體, 九體, 七體, 五體, 三體, 一體之差. 大氏皆用奇數. 『士虞禮』: 祝俎, 髀, 脰, 脊, 肱. 脰者, 短字之誤. 短脊即橫脊也. 蓋三體. 『少牢禮』: 侑俎羊左肩左肫正脊脊. 左肫二字當爲折字. 亦三體也. 『鄉射記』: 釋獲者之俎, 折脊, 脊, 肺. 肺者肫字之誤. 亦三體也. 上文獲者之俎衍肺字. 不衍臑字. 又 『詩·相鼠』: 有體. 傳: 支體也. 『行葦』:

69) 김동환, 『인지언어학과 개념적 혼성 이론』, 서울, 박이정, 2013, 218쪽.

70) 한 부분으로써 전체를 의미하는 비유법으로 환유의 하위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제유는 부분이 전체를 대신하여 나타내는 비유법을 말한다. 박영순, 『한국어 은유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59쪽.

71)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 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589쪽.

方苞方體. 箋: 體, 成形也. 『氓』: 體無咎言. 傳: 兆卦之體也. 『谷風』: 無以下體. 傳: 根莖也. 又『周禮·天官』: 體國經野. 注: 猶分也. 『禮記·學記』: 就賢體遠. 注: 猶親也. 『中庸』: 體物而不可遺. 注: 生也. 體羣臣也. 注: 猶接納也. 『文王世子』: 體異姓也. 注: 猶連結也. 『漢書·賈誼傳』: 所以體貌大臣. 注: 謂加禮容而敬之也. 又『淮南·汜論』: 聖人以身體之. 注: 行也.

『說文』에 따르면 ‘體’의 本義는 ‘總十二屬也.’이다. 즉, ‘사람과 동물의 전신’을 의미한다. 【轉注】에 인용된 『周禮·內饗』의 문장 ‘辨體名肉物’에서 ‘體’는 제사에 쓰이는 희생물을 가리킨다. 이 문장에 대해 朱駿聲은 ‘牲體(제사에 쓰이는 희생물)’가 ‘二十一體’로 나누어진다고 설명했다.<sup>72)</sup> 이 때 ‘牲體’에서 ‘體’는 本義인 ‘전신’이며, ‘二十一體’에서 ‘體’는 희생물을 해체한 각 부위이다.

또한 ‘七體乾之爲臘或用於俎’는 ‘옆구리, 팔뚝, 허벅지를 소금에 절여 말리거나 혹은 제기(俎)에 올려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다’라는 의미로 여기서 ‘體’의 구체적인 의미는 이 문장 앞에서 설명한 ‘등뼈’를 지시하는 것으로 신체의 일부에 해당한다. ‘體’가 本義인 ‘전신’에서 ‘신체의 일부’로 詞義가 변화한 것을 환유의 관점에서 분석한다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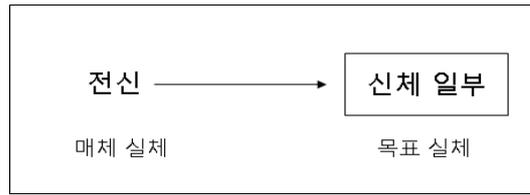
‘體’의 의미영역은 ‘전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전신’과 물리적으로 인접한 요소들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머리, 몸통, 발, 손, 머리카락, 엉덩이, 허벅지 등이 있다. 의미영역의 전체에 해당하는 ‘體’는 의미영역을 이루는 부분인 몸통, 발, 손, 머리카락 등으로 寫像되어 문장에서 ‘신체의 일부’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體’의 환유 寫像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72) 牲體有七脊也, 左右脊也, 左右肱也, 左右股也, 所謂全脊也. 七體乾之爲臘或用于俎, 乃折爲二十一體: 正脊, 脰脊, 橫脊, 三也; 代脊, 長脊, 短脊, 左右六也; 肩, 臂, 臑, 左右六也; 髀, 肫, 髀, 左右六也, 所謂股脊也. 其首尾與四蹠不用. 周禮牲體貴右, 吉禮用右肱, 凶禮用左肱, 若左右皆用謂之合升. 愚按: 俎有十一體, 九體, 七體, 五體, 三體, 一體之差. 大氏皆用奇數.

(희생 동물의 몸은 일곱 개의 등뼈로 나뉜다. 좌우의 옆구리, 좌우의 팔뚝, 좌우의 허벅지 이것이 전체 등뼈이다. 나누어진 옆구리, 팔뚝, 허벅지는 소금에 절여 말리거나 혹은 제기(俎)에 올려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데 모두 21개 부위로 나누어 쓴다. 正脊·脰脊·橫脊 3개, 代脊·長脊·短脊 좌우 6개, 肩·臂·臑 좌우 6개, 髀·肫·髀 좌우 6개 이것이 소위 ‘股脊’이다. 머리, 꼬리 그리고 발굽은 사용하지 않는다. 제사를 지낼 때 제단에 올리는 희생물은 올리는 수에 따라 十一體, 九體, 七體, 五體, 三體, 一體로 구분된다. 모두 홀수이다.)

<그림 19> ‘體’의 ‘사물의 전체는 사물의 부분을 대표한다’ 환유 寫像



이것은 ‘전체-부분’ 환유 중에 ‘사물과 부분 ICM’의 ‘사물의 전체는 사물의 부분을 대표한다’에 해당한다.

‘體’의 의미영역을 구성하는 부분들은 ‘體’의 의미자질에 해당한다. 許愼에 따르면 ‘體’의 本義는 ‘總十二屬之名也.’이다. 여기서 ‘十二屬’에 대해 朱駿聲은 ‘頂面頤首屬三, 肩脊臂身屬三, 肱臂手手屬三, 股脛足足屬三也.(정수리, 얼굴, 턱이 머리의 세 부분에 속하고, 어깨, 등골, 팔이 몸의 세 부분에 속하며, 팔뚝, 팔, 손이 손의 세 부분에 속하고, 허벅지, 정강이, 발이 발의 세 부분에 속한다.)’라고 했다. 許愼의 설명을 근거로 ‘體’의 本義의 의미자질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體: 「12」 + 「신체의 부분」 + 「명칭」

물론 「신체의 부분」은 다시 분석 대상이 되어 더 세분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체의 부분」을 세분화하여 本義를 설명한 朱駿聲의 설명을 근거로 ‘體’의 의미자질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이 도출할 수 있다.

體: 「정수리」 + 「얼굴」 + 「턱」 + 「어깨」 + 「등골」 + 「팔」 + 「팔뚝」 + 「팔」 + 「손」 + 「허벅지」 + 「정강이」 + 「발」 + 「12」 + 「신체의 부분」 + 「명칭」

위에 나열된 의미자질은 신체의 외형에 근거해서 분석된 것이다. 실제로 신체는 매우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위 의미자질 외에 더 많은 의미자질을 포함한다. 위에 나열된 「정수리」, 「얼굴」, 「턱」, 「어깨」, 「등골」, 「팔

」, 「팔뚝」, 「팔」, 「손」, 「허벅지」, 「정강이」, 「발」은 뼈대와 살갓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그리고 글자 ‘體’에 ‘骨’이 포함되어 있으며 形符로 쓰였다는 것은 곧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므로, 그 의미자질에는 뇌를 감싸는 뼈, 턱 뼈, 어깨 뼈, 팔과 팔뚝의 뼈, 손 뼈, 허벅지 뼈, 정강이 뼈, 발 뼈도 포함시킬 수 있다.

의미자질 분석 관점에서 ‘體’가 ‘진신’에서 ‘신체의 일부’로引伸된 것은 위 의미자질이 독립적으로 과생하거나 혹은 몇몇 의미자질의 결합이 과생되어 성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體’의 의미자질들은 과생되어 문장에서 ‘신체의 일부’, 더 나아가 신체의 구체적인 부위를 의미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물과 부분 ICM’의 ‘사물의 전체는 사물의 부분을 대표한다’ 환유는 本義의 의미자질이 과생되어 詞義가引伸되는 방식임을 알 수 있다.

豪<sup>73)</sup>: 豪, 豕鬣如筆管者, 出南郡. 从彘高聲. 籀文从豕. 俗字作毫. 此豕能以脊上豪射物, 一名狙豬, 蘇俗謂之箭豬. 今湖北多有之西北經. 鹿臺之山. 其獸多白豪. 【轉注】『穆天子傳』: 豪羊. 注: 似鬣牛. 又豪馬豪牛 注: 豪猶鬣也. 鬣馬如馬足四節皆有毛. 又『廣雅·釋器』: 鞞謂之毫. 『爾雅·釋獸』: 豨修豪. 『釋畜』: 未成毫狗. 『詩·車攻傳』: 宗廟齊豪. 又『素問·刺要論』: 病有在毫毛腠理者. 注: 毛之長者曰豪. 又『禮記·經解』: 差若毫釐. 『孟子』: 明足以察秋毫之末. 『答賓戲』: 銳思于毫芒之內. 又『月賦』: 抽毫進牘. 注: 筆毫也. 『文賦』: 或含毫而邈然. 又『鶡冠子·博選』: 德千人者謂之豪. 『淮南·泰族』: 百人者謂之豪. 『春秋繁露·爵國』: 十人者曰豪. 『孟子』: 若夫豪傑之士. 『漢書·趙廣漢傳』: 中貴人豪長者. 『列子·楊朱』: 對鄉豪稱之. 又『史記·韓長孺傳』: 雁門馬邑豪. 『集解』: 猶帥也. 『漢書·趙充國傳』: 先零豪, 書旅燹. 馬注: 酋豪也. 以燹爲之.

『說文』에 따르면 ‘豪’의 本義는 ‘몸에 붓대처럼 곳곳한 털이 난 돼지’이다. 【轉注】에 인용된 『穆天子傳』의 ‘豪羊’을 통해 ‘豪’의 의미가 ‘돼지’가 아닌 다른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豪羊’, ‘豪馬’, ‘豪牛’는 『穆天子傳·券四』의 ‘天子之豪馬、豪牛、龍狗、豪羊, 以三十祭文山’에 있는 詞로, 朱駿聲은 ‘豪羊’

73)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 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332쪽.

을 ‘털이 긴 소’, ‘豪馬’, ‘豪牛’는 ‘다리에 털이 있는 말과 소’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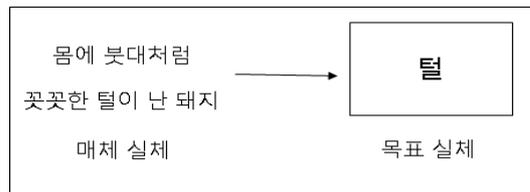
또한 『釋畜』에서 ‘未成毫狗’는 ‘다 자라지 않은 가는 털이 난 개’를 가리킨다.

‘豪羊’, ‘豪馬’, ‘豪牛’, ‘未成毫狗’에서 ‘豪’는 그 형태는 다소 다르지만 모두 ‘털’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豪’는 본래 ‘돼지’를 가리키는 詞이다. 그러나 ‘豪’의 붓대처럼 위로 솟은 털은 누가 보더라도 매우 인상적인 특징일 것이다. ‘豪’는 의미영역을 구성하는 여러 부분들 중 털이 부각되면서 의미영역 전체에 해당하는 ‘돼지’에서 의미영역의 부분인 ‘털’로 寫像되어 ‘사물의 전체는 사물의 부분을 대표한다’ 환유가 성립된다.

‘豪’의 환유 寫像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0> ‘豪’의 ‘사물의 전체는 사물의 부분을 대표한다’ 환유 寫像



환유의 관점에서 바라본 ‘豪’의 詞義 引伸 과정은 사물의 전체가 사물의 부분을 지시하는 것으로, ‘전체-부분’ 환유 중에 ‘사물과 부분 ICM’의 ‘사물의 전체는 사물의 부분을 대표한다’ 환유에 해당한다.

‘豪’의 의미영역을 구성하는 부분들은 ‘豪’의 의미자질에 해당한다. ‘豪’의 本義를 통해 ‘豪’의 의미자질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豪: 「붓대」 + 「위로」 + 「솟다」 + 「털」 + 「돼지」

위 의미자질 중에 중심 의미자질은 ‘돼지’이며 나머지는 제한 의미자질이다. 의미자질 분석 관점에서 ‘豪’가 ‘돼지’에서 ‘털’로 引伸된 것은 ‘豪’의 의미자질 중 하나가 독립적으로 파생되어 성립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물과 부분 ICM’의 ‘사물의 전체는 사물의 부분을 대표한다’

환유는 本義 의미자질의 파생에 의해 詞義가 引伸되는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胡<sup>74)</sup>: 牛顛丞也. 从肉古聲. 『詩』: 狼跋其胡. 『漢書·郊祀志上』: 有龍垂胡須下迎黃帝. 『爾雅』: 鵠, 鵠鷖. 注: 今之鵠, 胡也. 領下胡大如數斗囊. 【轉注】『漢書·金日磾傳』: 擗胡投何羅殿下. 注: 顛也. 又『考工·治氏』: 胡三之. 司農注: 援直刃也. 胡其子. 『廣雅·釋器』: 胡, 戟也. 又『禮記·深衣』注: 謂胡下也. 『釋文』: 下丞曰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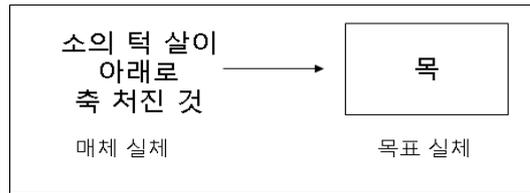
『說文』에 따르면 ‘胡’의 本義는 ‘소의 턱 살이 아래로 축 처진 모습’이다. 【轉注】에 인용된 『漢書·金日磾傳』의 ‘擗胡投何羅殿下.(何羅의 목을 궁궐 앞에 던지다.)’를 통해 ‘胡’가 本義가 아닌 引伸義 ‘목’으로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턱은 얼굴의 일부로 입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그리고 아래턱은 목과 바로 연결된다. 동물인 경우 턱과 목의 경계가 더 모호할 때가 많다. 환유는 매체 실체와 목표 실체 간의 인접성에 의해 발생하는데, ‘턱’과 ‘목’은 공간적으로 매우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어 두 부위의 인접성이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다.

‘胡’의 의미영역은 공간적 인접성에 근거해 ‘소’, ‘턱’, ‘살’, ‘목’, ‘아래로 처지다’, ‘윗턱’, ‘아래턱’ 등 다양한 개념들로 구성된다. ‘胡’는 의미영역 전체에 해당하는 ‘아래로 축 처진 소의 턱살’에서 ‘목’으로 寫像되어 ‘사물의 전체는 사물의 부분을 대표한다’ 환유가 성립된다. 환유의 관점에서 바라본 ‘胡’의 詞義 引伸 과정은 사물의 전체가 사물의 부분을 지시하는 것으로 ‘전체-부분’ 환유 중에 ‘사물과 부분 ICM’에 해당한다.

‘胡’의 환유 寫像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74)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419쪽.

<그림 21> ‘胡’의 ‘사물의 전체는 사물의 부분을 대표한다’ 환유 寫像



의미자질 분석 관점에서 ‘胡’의 의미영역을 구성하는 부분들은 ‘胡’의 의미자질에 해당한다. ‘胡’의 本義를 통해 의미자질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胡: 「소」 + 「턱」 + 「아래」 + 「처지다」 + 「살」

의미자질 분석 관점에서 ‘胡’의 중심 의미자질은 ‘살’이며 나머지는 제한 의미자질이다. 턱은 머리와 목을 연결하는 부위인데, 소의 경우 사람과 달리 턱과 목의 경계가 매우 모호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턱」은 「얼굴」+「목」+「연결」+「부위」로 또 다시 의미자질을 도출 할 수 있다. 이 의미자질은 관련 의미자질에 해당한다. 의미자질 분석 관점에서 ‘胡’의 詞義引伸 과정은 관련 의미자질 ‘목’이 독립적으로 파생되어 새로운 引伸義를 생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鉤<sup>75)</sup>: 曲鉤也. 从金句, 會意, 句亦聲. 『晉語』: 申孫之矢, 集於桓鉤. 注: 帶鉤也. 『孟子』: 豈謂一鉤金. 『莊子·胠篋』: 竊鉤者誅. 『詩·皇矣』: 以爾鉤援. 傳: 鉤, 梯也, 所以引上城者. 『漢書·韓延壽傳』: 作刀劍鉤鐔. 注: 兵器也. 『周禮·巾車』: 金路, 鉤. 注: 鉤婁頷之鉤也. 『東京賦』: 鉤膺玉璫. 注: 當胸也. 『莊子·胠篋』: 鉤餌綱罟罾筍之知. 『釋文』: 鉤, 鉤也. 『書·璿璣鈴』: 白狼銜鉤. 【轉注】『小爾雅·廣詁』: 鉤, 取也. 『鬼谷子·飛箝』: 引鉤箝之辭. 注: 謂誘致其情. 『管子·宙合』: 鉤入枉而出直. 『後漢·范滂傳』注: 鉤, 引也. 『史弼傳』注: 鉤, 謂相連也. 『靈帝紀』注: 相牽引也. 『荀子·疆國』: 勁魏鉤吾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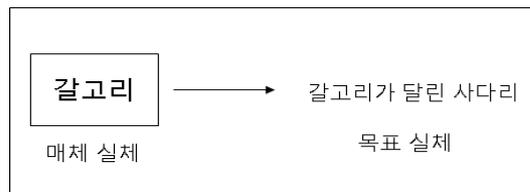
75)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357쪽.

『說文』에서 許慎은 ‘鉤’의 의미를 ‘曲也. 从金从句.’라고 풀이했다. 許慎의 정의에 따르면 ‘鉤’의 本義는 ‘구부러진 것’이다. 그러나 朱駿聲은 ‘鉤’의 本義를 ‘曲鉤也. 从金句.’라고 했는데, 段玉裁의 설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段玉裁는 ‘鉤’를 ‘曲鉤也. 曲物曰鉤. 因之以鉤取物亦曰鉤.(구부러진 물건이 鉤이다. 鉤로 물건을 취하는 것도 鉤라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段玉裁의 설명에 따르면 ‘鉤’는 ‘구부러진 사물’을 가리킨다. 朱駿聲은 『詩·皇矣』의 문장 ‘以爾鉤援’을 인용해 ‘鉤’가 ‘사다리’로 쓰인 예를 들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鉤’의 쓰임에 대해 ‘鉤 梯也, 所以引上城者.(갈고리가 달린 사다리이다. 끌어다가 성에 오르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는데, 이 설명을 통해 ‘鉤’가 ‘갈고리가 달린 사다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鉤’가 引伸義인 ‘사다리’로 쓰인 문장이 【轉注】가 아닌 本義 설명에 인용되었다는 것이다.

환유의 관점에서 ‘鉤’가 ‘갈고리’에서 ‘갈고리가 달린 사다리’로 寫像된 것은 의미영역을 구성하는 여러 개념 중 하나가 의미영역 전체로 寫像된 것으로, 이것은 ‘사물의 부분은 사물의 전체를 대표한다’ 환유에 해당한다.

‘鉤’의 환유 寫像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2> ‘鉤’의 ‘사물의 부분은 사물의 전체를 대표한다’ 환유 寫像



의미자질 관점에서 ‘鉤’의 詞義 引伸 과정은 ‘體’, ‘豪’, ‘胡’의 詞義 引伸 과정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鉤’의 매체 실체가 목표 실체의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體’, ‘豪’, ‘胡’와 같이 목표 실체가 매체 실체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의미자질 분석 관점에서 詞義 引伸은 목표 실체의 의미영역 전체를 구성하는 의미자질이 파생되어 引伸義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鉤’와 같이 매체 실체가 목표 실체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미자질의 파생으로 詞義 引伸을 설명할 수 없다. 이 경우는 매체 실체에 해당하

는 ‘鉤’의 本義인 ‘갈고리’ 전체가 전이되고 또 다른 의미자질 ‘사다리’가 결합되어 새로운 引伸義 ‘갈고리가 달린 사다리’가 생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鉤’의 詞義 引伸 과정은 사물의 부분이 사물의 전체를 지시하는 것으로 ‘전체-부분’ 환유 ‘사물과 부분 ICM’의 ‘사물의 부분은 사물의 전체를 대표한다’ 환유에 해당하며, 이것은 詞義 전체가 전이되고, 또 다른 의미자질이 결합되어 詞義가 引伸되는 방식이다.

## 2) 구성 ICM

‘구성 ICM’은 사물을 구성하는 부분과 그 전체인 사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환유이다. 이 ICM은 큰 틀에서 본다면 ‘사물과 부분 ICM’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사물과 부분 ICM’과는 달리 ‘구성 ICM’은 詞義 간에 ‘재료’와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의 관계가 형성되는 유형으로 제품의 구성요소인 재료가 완성품으로 寫像되거나, 완성품이 제품의 구성요소로 寫像되는 것을 가리킨다. ‘구성 ICM’은 재료와 완성품의 관계에서 ‘재료는 완성품을 대표한다’와 ‘완성품은 재료를 대표한다’ 환유로 나누어진다.

아래 『說文通訓定聲』의 예자를 통해 두 가지 환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다.

硯<sup>76</sup>): 石滑也. 从石, 見聲. 『江賦』: 綠苔鬢髻乎研上. 以研爲之. 【轉注】後世名所以磨墨者曰硯. 『釋名·釋書契』: 硯, 研也. 研墨使和濡也.

『說文』에 따르면 ‘硯’의 本義는 ‘반들반들한 돌’이다. 【轉注】에 ‘後世名所以磨墨者曰硯.(후세에 먹을 가는 것을硯이라고 했다.)’이라고 설명한 것을 통해 ‘硯’이 ‘벼루’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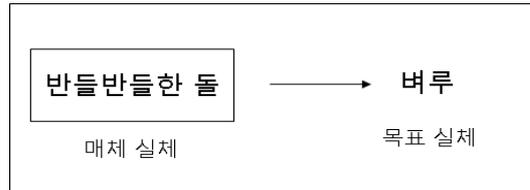
환유의 관점에서 ‘硯’은 의미영역을 구성하는 여러 부분 중 하나인 ‘반들반들한 돌’에서 의미영역 전체인 ‘벼루’로 寫像되어 ‘재료는 완성품을 대표한다’ 환유가 성립된 것이다. 이 때 매체 실체인 ‘반들반들한 돌’은 목표 실체인 ‘벼루’

76)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 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738쪽.

루'의 의미영역의 부분에 해당한다.

'硯'의 환유 寫像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23> '硯'의 '재료는 완성품을 대표한다' 환유 寫像



'硯'의 의미자질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이 중심 의미자질과 제한 의미자질로 분류할 수 있다.

硯: 「반들반들하다」 + 「돌」

위 의미자질에서 '돌'은 중심 의미자질이며, '반들반들하다'는 제한 의미자질이다. 의미자질 분석의 관점에서 '硯'의 詞義 引伸은 '硯'의 本義 전체가 전이되고, 기능을 나타내는 의미자질인 '갈다'와 그 대상을 가리키는 또 다른 의미자질 '떡'이 결합되어 '떡을 가는 반들반들 한 돌'인 '벼루'가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硯'이 '반들반들한 돌'에서 '벼루'로 引伸된 것은 '전체-부분' 환유 중에 '구성 ICM'의 '재료는 완성품을 대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환유 寫像은 詞義의 전이와 또 다른 의미자질과의 결합을 통해 引伸義를 생성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石<sup>77)</sup>: 山石也. 在厂之下. 口象形. 『爾雅·釋山』: 西南之美者, 有華山之金石焉. 『易·豫』: 介于石. 『說卦傳』: 艮爲小石. 『書』: 予擊石拊石. 傳: 磬也. 『周禮·典同』: 原聲石. 『呂覽·精通』: 慈石召鐵或引之也. 注: 石鐵之母也. 『書·大

77)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 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47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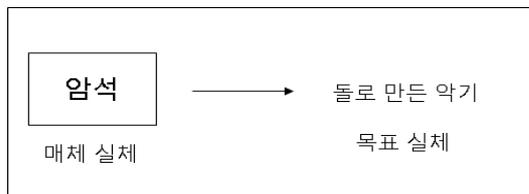
傳』: 大夫有石材, 庶人有石承. 注: 石材柱下質. 石承當柱下而已. 又『素問·腹中論』: 禁芳草石藥. 注: 石藥, 英乳也. 『左襄十九傳』: 晉楊石字食我. 【轉注】『素問·腹中論』: 石之則狂. 注: 謂以石針開破之. 又『平人氣象論』: 胃而有石曰冬病. 注: 石冬脈水氣也. 又『廣雅·釋詁四』: 石, 擿也. 『新書·連語』: 提石之者. 猶未肯止. 『後漢·堅鐔傳』: 注: 石謂發石以投人也.

『說文』에 따르면 ‘石’의 本義는 ‘암석’이다. ‘石’은 本義 ‘암석’에서 ‘돌로 만든 악기’로 詞義가 引伸되는데, 위 인용문에서 『書』의 ‘予擊石拊石.(내가 악기를 두드린다.)’에서 그 쓰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문장에서 ‘石’은 本義가 아닌 ‘돌로 만든 악기(磬)’를 의미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石’이 引伸義인 ‘돌로 만든 악기’로 쓰인 문장이 【轉注】가 아닌 本義 설명에 인용되었다는 것이다.

‘돌’과 ‘돌로 만든 악기’는 재료와 완성품의 관계를 갖는다. ‘磬’은 본래 돌이나 옥으로 만든 악기로 벽이나 거치대에 걸어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것이다. ‘石’은 재료와 완성품의 관계를 근거로, ‘구성 ICM’ 내에서 재료가 완성품으로 寫像되면서 ‘재료는 완성품을 대표한다’ 환유가 성립된다.

‘石’의 환유 寫像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4> ‘石’의 ‘재료는 완성품을 대표한다’ 환유 寫像



<그림 24>에서 재료에 해당하는 本義 ‘石’은 완성품인 ‘악기’의 의미영역의 부분 개념에 해당한다.

‘石’의 本義를 통해 의미자질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石: 「낭떠러지」 + 「아래」 + 「놓이다」 + 「돌」

위의 의미자질에서 ‘돌’은 중심 의미자질이며 나머지는 제한 의미자질에 해당한다. 의미자질 분석 관점에서 ‘石’의 詞義 引伸은 ‘石’ 전체가 전이되어 引伸義의 제한 의미자질로 쓰이고, 그 외에 ‘걸다’, ‘두드리다’, ‘악기’ 등의 ‘磬’을 구성하는 또 다른 의미자질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石’이 ‘돌’에서 ‘돌로 만든 악기’로 引伸된 것은 ‘전체-부분’ 환유 중에 ‘구성 ICM’의 ‘재료는 완성품을 대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환유 寫像은 詞義의 전이와 또 다른 의미자질과의 결합을 통해 引伸義를 생성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 3) 범주와 구성원 ICM

‘범주와 구성원 ICM’은 하위 범주의 구성원이 상위 범주로 寫像되거나, 반대로 상위 범주가 하위 범주의 구성원으로 寫像되어 발생하는 환유이다. ‘범주와 구성원 ICM’에서 매체 실체 혹은 목표 실체로 사용되는 범주의 구성원은 현저하게 부각되는 구성원이다.<sup>78)</sup> 예를 들어 ‘대일밴드’는 일회용 반창고 상품 중 하나로서 ‘일회용 반창고’의 하위 범주에 해당하지만, 브랜드의 현저한 특성으로 인해 상위 범주 ‘일회용 반창고’를 대표한다. 이렇게 현저하게 부각되는 성질로 인해 범주와 구성원 간에 환유 寫像이 발생하여 詞義 引伸이 발생한다.

그러나 古代 漢語에서는 범주와 구성원이 현저하게 부각되지 않더라도 하위 범주의 구성원이 상위 범주를 의미하거나, 상위 범주가 하위 범주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런 과정을 통해 引伸 전후 詞義는 서로 보편과 특수 관계 형성을 한다.

아래 『說文通訓定聲』의 예자를 통해 ‘범주와 구성원 ICM’ 환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78) Zoltan Kovecses, 김동환 옮김, 『은유, 인지언어학적 접근법』, 서울, 로고스라이프, 2014, 31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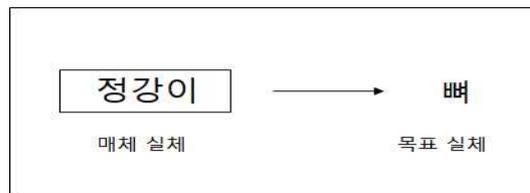
骹<sup>79)</sup>: 脛也. 从骨交聲. 『爾雅·釋畜四』: 骹皆白驢. 【轉注】『考工·輪人』: 去一以爲骹圍. 先鄭注: 人脛近足者細于股, 謂之骹, 羊脛細者, 亦謂之骹. 『廣雅·釋器』: 骹, 骨也. 按: 凡物之足皆得言骹. 猶皆得言柎也. 『禮記·祭統』: 執校, 以校爲之. 『射雉賦』: 奮勁骹以角槎.

『說文』에 따르면 ‘骹’의 本義는 ‘정강이’이다. 【轉注】에 인용된 『廣雅·釋器』에서는 ‘骹, 骨也.(骹는 뼈이다.)’라고 했다. ‘정강이’는 ‘무릎 아래에서 앞 뼈가 있는 부분’을 가리킨다. 신체에는 여러 뼈가 있는데, ‘정강이’가 ‘뼈’로 쓰이는 것은 하위 범주의 구성원이 상위 범주를 가리키는 것으로 ‘구성원(부분)은 범주(전체)를 대표한다’ 환유에 해당한다.

범주와 구성원의 관계에서 ‘범주’는 의미영역의 전체에 해당하고, 구성원은 의미영역의 부분에 해당한다. 환유 관점에서 ‘骹’는 의미영역 부분에 해당하는 매체 실체 ‘정강이’가 의미영역의 전체에 해당하는 목표 실체 ‘뼈’로 寫像되면서 詞義가 변화한다.

‘骹’의 환유 寫像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5> ‘骹’의 ‘구성원은 범주를 대표한다’ 환유 寫像



‘骹’의 의미자질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骹: 「무릎」 + 「아래」 + 「앞」 + 「뼈」 + 「부위」

위에서 중심 의미자질은 ‘부위’이고, 나머지 의미자질은 제한 의미자질에 해

79)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 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317쪽.

당한다. ‘骸’는 本義에서 제한 의미자질이 과생되어 引伸義 ‘뼈’가 생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詞義는 확대되고, 그 결과 특수한 개념이 점차 보편적인 개념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띤다.

앞서 살펴봤던 ‘사물과 부분 ICM’의 ‘사물의 전체는 부분을 대표한다’ 환유에서 사물의 전체는 사물의 부분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의미자질의 수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의미영역의 전체는 의미영역의 부분보다 더 많은 의미자질을 갖는다. 그래서 ‘사물의 전체는 부분을 대표한다’ 환유를 통한 詞義 引伸은 의미영역 전체를 구성하는 의미자질의 과생을 통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범주와 구성원의 관계에서 ‘구성원’에 해당하는 의미영역의 부분은 상위 범주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개념이다. 범주와 구성원의 관계에서 ‘범주’는 의미영역의 전체에 해당하고, 구성원은 의미영역의 부분에 해당하는데, ‘사물과 부분 ICM’과 ‘구성 ICM’과 달리 ‘범주와 구성원 ICM’ 의미영역의 부분은 의미영역의 전체보다 의미자질의 수가 많고, 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개념에 해당한다.

‘骸’의 詞義 引伸은 ‘전체-부분’ 환유 중에 ‘범주와 구성 ICM’의 ‘구성원은 범주를 대표한다’ 환유로, 의미자질 분석 관점에서 本義의 의미자질의 과생을 통한 引伸義 생성 방식이다.

員<sup>80</sup>): 物數也. 从貝口聲. 字亦誤作負. 按: □者櫛倫之形, 或曰骨省聲. 籀文貝作鼎, 木曰枚, 竹曰箇, 絲曰總, 貝曰員. 『廣雅·釋詁三』: 員, 眾也. 【轉注】『漢書·高惠高后功臣表』: 國人過員. 注: 數也. 『史記·平原君傳』: 願君即以遂備員而行矣. 『漢書·尹翁歸傳』: 責以員程. 『楚語』: 伍員, 字子胥. 胥, 皆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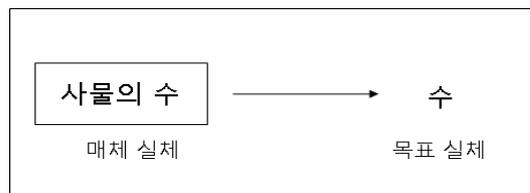
『說文』에 따르면 ‘員’의 本義는 ‘사물의 수’이다. 【轉注】에 인용된 『漢書·高惠高后功臣表』의 ‘國人過員.(백성이 그 수를 넘었다.)’을 통해 ‘員’이 ‘사물의 수’에서 ‘수’로 詞義가 引伸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환유 관점에서 ‘員’은 의미영역의 부분에 해당하는 매체 실체(사물의 수)가 의미영역 전체에 해당하는 목

80)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 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821쪽.

표 실체(수)로 寫像되면서 ‘구성원(부분)은 범주(전체)를 대표한다’ 환유가 성립된다.

‘員’의 환유 寫像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6> ‘員’의 ‘구성원은 범주를 대표한다’ 환유 寫像



의미자질 분석 관점에서 ‘員’의 本義인 ‘事物의 수’의 의미자질은 아래와 같다.

員: 「事物」 + 「수」

위에서 중심 의미자질은 ‘수’이고, 제한 의미자질은 ‘事物’이다. ‘員’은 本義에서 중심 의미자질이 파생되어 引伸義 ‘수’가 생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詞義는 확대되고 그 결과 특수한 개념이 점차 보편적인 개념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띤다.

범주와 구성원의 관계에서 하위 범주의 구성원은 상위 범주보다 구체적인 대상이거나 구체적인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위 범주에 해당하는 대상 혹은 개념의 의미자질이 파생되어 상위 범주를 가리키는 詞義로 引伸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것은 ‘전체-부분’ 환유의 ‘범주와 구성원 ICM’ 중 ‘구성원은 범주를 대표한다’에 해당한다.

臬<sup>81)</sup>: 麻也. 从木, 台聲. 籀文从林, 辟聲. 按: 牡麻無實者也. 夏至開花, 榮而不實, 亦曰夏麻. 其有子者曰苴, 或謂之蕘. 『考工·弓人』注: 蕘, 臬實也. 【轉注】爲凡麻之大名. 『書·禹貢』: 岱畎絲臬. 『周禮』: 有典臬. 『淮南·覽冥』: 位賤尚蕘. 字亦作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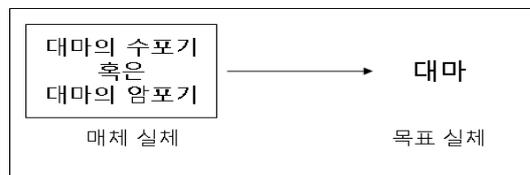
苴<sup>82)</sup>: 麻母也. 从艸, 子聲. 字亦作苴. 『爾雅·釋草』: 苴, 麻母. 注: 苴麻盛子者. 按: 俗謂之子麻. 有實者曰苴, 無實者曰臬. 【轉注】『說文』一曰: 苴則臬也. 按: 對文則別. 散文亦通稱.

‘臬’, ‘苴’의 本義는 각각 ‘대마의 수포기’와 ‘대마의 암포기’이다. ‘臬’의 【轉注】에 인용된 문장 ‘爲凡麻之大名.(대마의 통칭이다.)’과 ‘苴’의 【轉注】에 인용된 문장 ‘苴則臬也.(苴는 臬이다.)’를 통해 ‘臬’와 ‘苴’가 本義인 ‘대마의 수포기’, ‘대마의 암포기’에서 ‘대마’를 통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환유 관점에서 ‘臬’와 ‘苴’의 本義인 ‘대마의 수포기’와 ‘대마의 암포기’는 하위 범주의 구성원으로 의미영역의 부분에 해당한다. ‘臬’와 ‘苴’는 의미영역의 부분에 해당하는 매체 실체(대마의 수포기, 대마의 암포기)에서 의미영역 전체에 해당하는 목표 실체(대마)로 寫像되면서 ‘구성원은 범주를 대표한다’ 환유가 성립된다.

‘臬’, ‘苴’의 환유 寫像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7> ‘臬’와 ‘苴’의 ‘구성원은 범주를 대표한다’ 환유 寫像



本義를 기준으로 ‘臬’와 ‘苴’의 의미자질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81)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177쪽.

82)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170쪽.

泉: 「수포기」 + 「대마」

苧: 「암포기」 + 「대마」

두 詞義는 모두 각 의미자질 중 중심 의미자질에 해당하는 ‘대마’가 파생되어 引伸義가 생성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詞義의 활용 범위는 확대되고 그 결과 특수한 개념이 점차 보편적인 개념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띤다.

이것은 ‘전체-부분’ 환유의 ‘범주와 구성원 ICM’ 중 ‘구성원은 범주를 대표한다’ 환유에 해당한다.

級<sup>83)</sup>: 絲次第也. 从糸及聲. 【轉注】『廣雅·釋言』: 級, 等也. 『禮記·曲禮』: 拾級聚足. 注: 等也. 『聲類』: 級, 階次也. 又『月令』: 以別貴賤等級之度. 又授車以級. 注: 等次也. 又『論語摘輔象』: 明由曉升級. 注: 等差也. 五聖受道級. 注: 次序也. 『後漢·光武紀』: 斬首數千級. 注: 秦法, 斬首一, 賜爵一級, 故因謂斬首爲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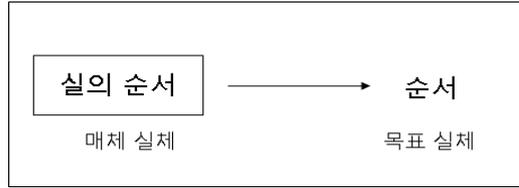
『說文』에 따르면 ‘級’의 本義는 ‘실의 순서’이다. 【轉注】에 인용된 문장 『月令』의 ‘授車以級.(등급에 따라 수레를 주다.)’, 『論語摘輔象』의 ‘明由曉升級.(정사를 순서대로 정하다.)’을 통해 ‘級’이 ‘실의 순서’에서 ‘등급’, ‘순서’로 詞義가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두 문장에서 ‘級’은 ‘실의 순서’가 아닌 ‘등급’, ‘순서’라는 의미로 쓰였다. 즉, 계단에 쓰이면 계단의 순서가 되고, 지위에 쓰이면 지위의 순서, 관직에 쓰이면 관직의 순서를 의미한다.

환유 관점에서 ‘級’은 의미영역의 부분에 해당하는 매체 실체(실의 순서)가 의미영역 전체에 해당하는 목표 실체(순서)로 寫像되면서 ‘구성원은 범주를 대표한다’ 환유가 성립된다.

‘級’의 환유 寫像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83)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 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117쪽.

<그림 28> ‘級’의 ‘구성원은 범주를 대표한다’ 환유 寫像



本義를 기준으로 ‘級’의 의미자질을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級: 「실」 + 「순서」

위 의미자질 중에 중심 의미자질은 ‘순서’이고, 제한 의미자질은 ‘실’이다. 의미자질의 분석 관점에서 本義인 ‘실의 순서’가 ‘순서’로引伸된 것은 ‘級’의 의미자질 중 중심 의미자질인 ‘순서’가 독립 파생되어 새로운 詞義를 생성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詞義의 활용 범위는 확대되고 그 결과 특수한 개념이 점차 보편적인 개념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띤다.

이것은 ‘전체-부분’ 환유의 ‘범주와 구성원 ICM’ 중 ‘구성원은 범주를 대표한다’ 환유에 해당한다.

夕<sup>84)</sup>: 莫也. 从月半見. 指事. 『易』: 夕惕若, 虞注: 坤爲夕. 『時·公劉』: 度其夕陽. 『爾雅』: 山西曰夕陽. 『周禮·大司徒』: 日東則景夕多風. 司農注: 謂日跌景乃中立表之處, 大東近日也. 『洪範·五行傳』注: 初昏爲夕. 又將晨爲夕. 【轉注】『洪範·五行傳』: 晡時至黃昏爲日之夕; 下旬爲月之夕; 自九月盡至十二月爲歲之夕. 『荀子·禮論』: 月夕卜宅. 注: 月末也. 又『左·成十二傳』: 朝而不夕. 『左·昭十二傳』: 字革夕. 『周禮·道僕』: 以朝夕燕出入. 注: 朝朝莫夕. 又『抱朴子』: 潮汐言汐者. 據夕至也. 變作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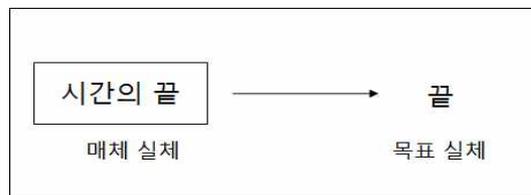
『說文』에 따르면 ‘夕’의 本義는 ‘해가 저물다’이다. 【轉注】에 인용된 『洪範·五行傳』에서 ‘晡時至黃昏爲日之夕; 下旬爲月之夕; 自九月盡至十二月爲歲之

84)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473쪽.

夕.(晡時(오후 3시에서 5시)에서 황혼까지는 하루의 夕이고, 하순은 한 달의 夕이며, 9월부터 12월까지는 한 해의 夕이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夕’은 ‘일정 시간의 끝’을 가리킨다. 그리고 『荀子·禮論』의 ‘月夕卜宅.(월말에는 땅을 점치다.)’에서 ‘月夕’은 월말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서 ‘夕’은 ‘시간의 끝’을 의미한다. 환유 관점에서 ‘夕’은 의미영역의 부분에 해당하는 매체 실체(하루의 끝)가 의미영역 전체에 해당하는 목표 실체(일정 시간의 끝)로 寫像되면서 ‘구성원은 범주를 대표한다’ 환유가 성립된다.

‘夕’의 환유 寫像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9> ‘夕’의 ‘구성원은 범주를 대표한다’ 환유 寫像



本義를 기준으로 ‘夕’의 의미자질을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夕: 「하루」 + 「끝」

위 의미자질 중에 중심 의미자질은 ‘끝’이고, 제한 의미자질은 ‘하루’이다. 의미자질의 분석 관점에서 本義 ‘하루의 끝’이 ‘일정 시간의 끝’으로 引伸된 것은 ‘夕’의 의미자질 중 중심 의미자질인 ‘끝’이 독립 과생되어 새로운 詞義를 생성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詞義의 활용 범위는 확대되고, 그 결과 특수한 개념이 점차 보편적인 개념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띤다.

이것은 ‘전체-부분’ 환유의 ‘범주와 구성원 ICM’ 중 ‘구성원은 범주를 대표한다’ 환유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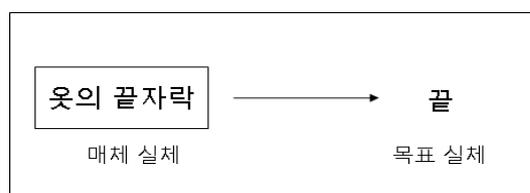
裔<sup>85)</sup>: 衣末邊也. 从衣尙聲. 古文几聲. 字亦作衷, 外形內聲. 故又誤作衷.  
**【轉注】**『小爾雅·廣言』: 裔, 末也. 字亦以緇爲之. 『方言·十三』: 裔, 末也. 『左·襄十四傳』: 是四嶽之裔胄也. 『晉語』: 紹續昆裔. 『離騷』: 帝高陽之苗裔兮. 『張納功德敘』: 枝裔滋布. 『漢書·藝文志』: 亦大經之支與流裔. 又『廣雅·釋言』: 邊也. 『淮南·原道』: 江潯海裔. 『左·哀十七傳』: 裔焉大國. 又『小爾雅·廣言』: 裔, 外也. 『廣雅·釋詁一』: 裔, 遠也. 四, 表也. 『左·文十八傳』: 投諸四裔. 『定十傳』: 裔, 夷之俘. 『晉語』: 以實裔土. 『海賦』: 逸涎八裔. 『方言·十二』: 裔, 夷狄之總名.

『說文』에서 許慎은 ‘裔’의 本義를 ‘衣裾(옷자락)’라고 했는데, 朱駿聲은 ‘裔’의 本義를 ‘衣末邊(옷의 끝자락)’이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석했다. **【轉注】**에 인용된 『淮南·原道』의 문장 ‘江潯海裔(강의 가장자리와 바다의 끝)’에서 ‘裔’는 ‘땅’ 혹은 ‘사물’의 둘레나 끝을 가리킨다.

환유 관점에서 ‘裔’는 의미영역의 부분에 해당하는 매체 실체(옷의 끝자락)가 의미영역 전체에 해당하는 목표 실체(끝)로 寫像되면서 ‘구성원은 범주를 대표한다’ 환유가 성립된다.

‘裔’의 환유 寫像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30> ‘裔’의 ‘구성원은 범주를 대표한다’ 환유 寫像



本義를 기준으로 ‘裔’의 의미자질을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裔: 「옷」 + 「끝부분」

85)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 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603쪽.

위 의미자질 중에 중심 의미자질은 ‘끝부분’이며, 제한 의미자질은 ‘옷’이다. 의미자질 분석 관점에서 ‘畚’는 本義인 ‘옷의 끝부분’에서 중심 의미자질인 ‘끝부분’이 파생되어 새로운 引伸義를 생성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詞義는 확대되고 그 결과 특수한 개념이 점차 보편적인 개념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띤다.

이것은 ‘전체-부분’ 환유의 ‘범주와 구성원 ICM’ 중 ‘구성원은 범주를 대표한다’ 환유에 해당한다.

#### 4) 범주와 특성 ICM

특성은 범주의 부분으로 간주될 수 있다. 만약 범주가 일련의 특성에 의해 정의된다면, 이런 특성은 필연적으로 범주의 부분이 된다. 범주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결정적 특성 또는 본질적 특성을 전형적으로 환기시키고, 그것을 환유적으로 대표할 수 있다. 역으로 범주의 결정적 특성 또는 본질적 특성은 그것이 한정하는 범주를 환기시키고 그것을 대표할 수 있다.<sup>8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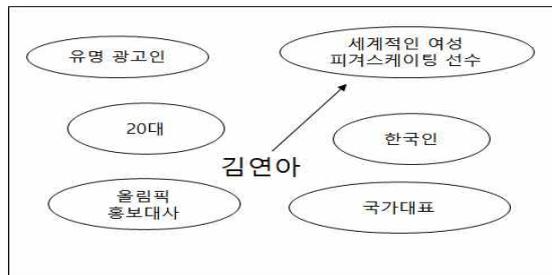
예를 통해 ‘범주와 특성 ICM’의 ‘범주는 특성을 대표한다’ 환유와 ‘특성은 범주를 대표한다’ 환유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예를 들어 ‘그녀는 제2의 김연아이다.’에서 ‘김연아’가 뜻하는 것은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가리킨다. ‘김연아’는 대한민국의 대표 피겨스케이팅 선수로 피겨스케이팅 불모지인 한국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거머쥔 세계적인 선수이다. 사람 ‘김연아’의 의미영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개념 중에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팅 선수’는 가장 현저한 특징으로, ‘피겨스케이팅 실력이 뛰어난 사람’을 가리킬 때 ‘김연아’라는 인물을 통해 지시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선수가 남성인 경우 ‘그는 제2의 김연아이다.’라는 표현은 다소 어색해 보인다. 즉, ‘김연아’가 지시하는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팅 선수’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계적인 여성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피겨스케이팅 실력이 우수한 여성 선수’,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성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가리킬 때 의미영역 전체에 해당하는 ‘김연아’가 의미영역의 부분인 ‘세계적인 여

86) Zoltan Kovecses, 김동환 옮김, 『은유, 인지언어학적 접근법』, 서울, 로고스라이프, 2014, 316쪽.

성 피겨스케이팅 선수’로 寫像되어 ‘범주는 범주의 특성을 대표한다’ 환유가 성립된다. 이 때 ‘김연아’는 매체 실체이고 ‘세계적인 여성 피겨스케이팅 선수’는 목표 실체이다. 이 때 목표 실체가 매체 실체의 부분에 해당한다.

<그림 31> ‘김연아’의 환유 寫像



‘범주는 범주의 특성을 대표한다’ 환유를 의미자질 관점에서 분석한다면, ‘범주’는 ‘범주의 특성’의 결합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범주의 특성’은 곧 ‘범주’의 의미자질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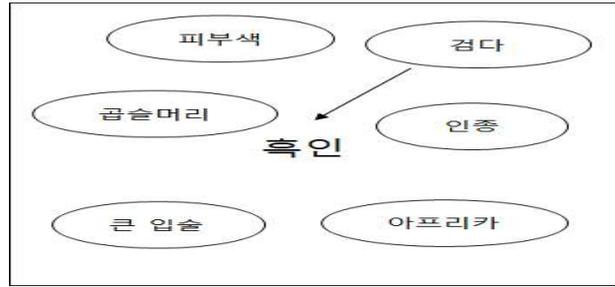
즉, ‘범주는 범주의 특성을 대표한다’ 환유는 ‘범주’의 의미자질이 단독으로 과생되거나 혹은 몇몇 의미자질의 결합이 과생되어 引伸義를 생성하는 방식에 해당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반대로 범주의 특성이 범주를 대표하기도 한다.

There are many blacks around here. (주위에 흑인이 많다.)

위 문장에서 ‘black’은 ‘검은 색’이 아닌 ‘흑인’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black’이 어떻게 ‘흑인’을 의미하게 되었는지 다음 환유 그림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32> ‘흑인’의 환유 寫像



‘곱슬머리’, ‘검다’, ‘피부색’, ‘인종’, ‘큰 입술’, ‘아프리카’는 의미영역 전체인 ‘흑인’을 구성하는 개념으로 의미영역의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물론 이 의미영역은 ‘흑인’의 외형적 특징을 기준으로 도출된 개념들이며, 문화, 민족, 언어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또 다른 다양한 개념들을 연상할 수 있다. 위 그림에서 의미영역의 부분 중 하나인 ‘검다’가 ‘흑인’으로 寫像되어 ‘범주의 특성이 범주를 대표한다’ 환유가 성립된다. 이 때 ‘검다’는 매체 실체이고 ‘흑인’은 목표 실체로, 매체 실체는 목표 실체의 부분에 속한다. 이것은 의미자질 관점에서 본다면 ‘범주의 특성’을 나타내는 의미자질 중 하나인 ‘검다’가 전이되고, 목표 실체를 나타낼 수 있는 또 다른 의미자질들이 결합하여引伸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 『說文通訓定聲』의 예자를 통해 ‘범주와 특성 ICM’의 환유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聖<sup>87)</sup>: 通也. 从耳, 呈聲. 按: 耳順之謂聖. 彼教所言耳根圓通亦此意. 『管子·四時』: 聽信之謂聖. 『書·洪範』: 睿作聖. 傳: 于事無不通謂之聖. 『詩·凱風』: 母氏聖善. 傳: 叡也. 『詩·小宛』: 或聖或否. 『周禮·大司徒』: 知仁聖義中和. 『禮記·鄉飲酒義』: 仁義接, 賓主有事, 俎豆有數日聖. 又產萬物者聖也. 『樂記』: 作者之謂聖. 『楚語』: 其聖能光遠宣朗. 『大戴·四代』: 聖知之華也. 按: 春秋以前所謂聖人者通人也. 【轉注】『白虎通·聖人』: 引禮別名記. 萬傑曰聖. 『禮記·禮運』 疏: 引辨名記. 萬人曰傑, 倍傑曰聖. 『孟子』: 大而化之之謂聖.

87)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 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88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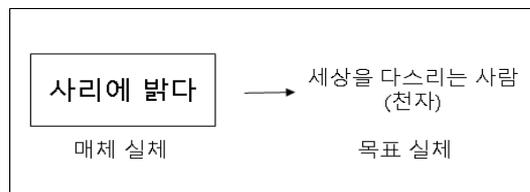
聖而不可知之謂神. 偽『禹謨』: 乃聖乃神. 『荀子·禮論』: 聖人者道之極也. 『賈子·大政』: 聖人也者, 賢知之師也. 『韓非·揚權』: 能象天地是謂聖人. 按: 戰國以後所謂聖人, 則尊崇之虛名也. 又『後漢·班彪傳』注: 聖躬謂天子也. 『列子·黃帝』: 仙聖爲之臣. 注: 治世之名. 又『海內西經』: 開明北又有聖木. 注: 食之令人智聖也.

『說文』에 따르면 ‘聖’의 本義는 ‘통하는 것’이다. 『說文通訓定聲』에서 ‘聖’의 本義를 설명하기 위해 인용한 문장들을 통해 ‘聖’이 ‘지혜로운 것’, ‘사리에 밝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轉注】에 인용된 『後漢·班彪傳』의 ‘聖躬謂天子也.(聖躬은 천자이다.)’, 『列子·黃帝』의 ‘仙聖爲之臣.(선인과 성인이 신하가 되었다.)’을 통해 ‘聖’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으로 詞義가 引伸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환유의 관점에서 ‘聖’의 本義에 해당하는 ‘지혜롭다’, ‘사리에 밝다’는 의미영역의 부분에 해당하며, ‘引伸義’인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의미영역의 전체에 해당한다. ‘聖’은 매체 실체인 범주의 특성이 목표 실체인 범주로 寫像되어 ‘범주의 특성(부분)은 범주(전체)를 대표한다’ 환유가 성립된다.

‘聖’의 환유 寫像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33> ‘聖’의 ‘범주의 특성은 범주를 대표한다’ 환유 寫像



의미자질 분석 관점에서 ‘聖’의 詞義 引伸 과정은 범주의 특성 중 하나에 해당하는 ‘聖’ 전체가 전이되고 ‘천자’를 구성하는 또 다른 의미자질들이 결합하여 引伸義를 생성하는 것이다.

또한 【轉注】에 인용된 『白虎通·聖人』의 문장 ‘引禮別名記. 萬傑曰聖.’, 『禮記·禮運』의 ‘萬人曰傑, 倍傑曰聖.’에서 ‘聖’은 ‘재능이 출중한 사람’을 가리킨다. ‘천자’와 ‘재능이 출중한 사람’은 詞義는 서로 다르지만 ‘聖’의 특성을 모두 내포한다는 점에서 넓게는 하나의 범주로 귀속시킬 수 있다. 즉, ‘聖’은 문장에서 해당 특성을 내포하는 대상을 지시함으로써 ‘범주의 특성은 범주를 대표한다’ 환유를 통한 詞義 引伸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賢<sup>88</sup>): 多才也. 从貝, 叡聲. 『莊子·徐无鬼』: 以財分人之謂賢. 【轉注】『小爾雅·廣詁』: 賢, 多也. 『廣雅·釋詁一』: 賢, 大也. 『白虎通·聖人』: 引禮別名記. 倍英曰賢. 『賈子·道術』: 行道者謂之賢. 『周禮·太宰』: 三曰進賢. 注: 有善行也. 『鄉大夫』: 而興賢者能者. 注: 有德行者. 又『廣雅·釋詁一』: 賢, 勞也. 『詩·北山』: 我從事獨賢. 又『禮記·內則』: 獻其賢者於宗子. 注: 猶善也. 又『秦策』: 賢於兄弟. 注: 猶厚也. 『晉語』: 敬賢於請. 注: 愈也. 『儀禮·鄉射禮』: 右賢於左. 注: 猶勝也. 『大射儀』: 取賢獲. 注: 勝黨之算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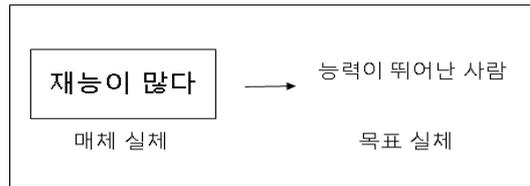
『說文』에 따르면 ‘賢’의 本義는 ‘재능이 많다’이다. 【轉注】에 인용된 『白虎通·聖人』의 ‘倍英曰賢.(英이 두 배인 것이 賢이다.)’과 『周禮·太宰』의 ‘三曰進賢.(셋째, 능력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다.)’을 통해 ‘賢’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詞義가 引伸되었음을 알 수 있다.

‘賢’의 本義 ‘재능이 많다’와 引伸義 ‘재능이 많은 사람’은 의미영역의 부분과 전체 관계로 의미영역의 부분인 ‘재능이 많다’가 의미영역의 전체 ‘재능이 많은 사람’으로 寫像되어 환유가 성립된다.

‘賢’의 환유 寫像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88)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 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833쪽.

<그림 34> ‘賢’의 ‘범주의 특성은 범주를 대표한다’ 환유 寫像



의미자질 관점에서 ‘賢’의 引伸 과정은 ‘賢’의 本義가 전이되고 그 특성을 지니는 대상을 의미하는 의미자질이 결합되어 引伸義를 생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전체-부분’ 환유 중 ‘범주와 특성 ICM’의 ‘범주의 특성(부분)은 범주(전체)를 대표한다’에 해당하는 환유로, 의미자질 ‘재능이 많다’는 의미영역의 부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매체 실체가 목표 실체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의미자질 관점에서는 本義 전체의 전이와 또 다른 의미자질과의 결합을 통해 詞義가 引伸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범주(전체)가 범주의 특성(부분)을 대표한다’ 환유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僮<sup>89)</sup>: 未冠也。从人童聲。按：十九以下，八歲以上也。字亦作僮。經傳：多以童爲之。『廣雅·釋言』：僮，稚也。『魯語』：使僮子備官而未之聞邪。注：僮蒙不達也。『張公神碑』：驂白鹿兮從仙僮。『嚴訢碑』：人僮復復。【轉注】『廣雅·釋詁三』：童，癡也。『釋訓』：僮，昏疾也。『晉語』：僮昏不可使謀。注：無知也。字亦作瞳。『莊子·知北遊』：汝瞳焉如新生之犢。李注：未有知兒。又『埤蒼』：瞳，目珠子也。按：人對面則□(墨+廬)精中各映小人形。故□(言+乎)眸子爲僮子。『漢書·項籍贊』：舜目重童子，以童爲之。

『說文』에 따르면 ‘僮’의 본의는 ‘未冠’으로 ‘성인이 되지 않은 남자’이다. 【轉注】에서는 ‘僮’의 쓰임에 대해 『廣雅·釋詁三』에서는 ‘童，癡也.(童은 어리석은 것이다.)’, 『釋訓』에서는 ‘僮，昏疾也.(僮은 흐리멍덩한 것이다.)’라고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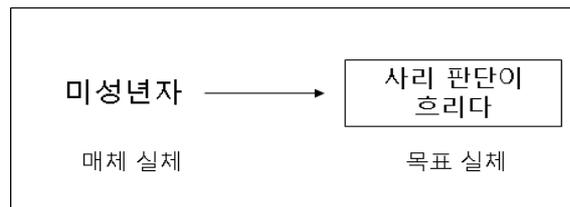
89)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 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35쪽.

하고 있다. 그리고 『晉語』의 ‘僮昏不可使謀.(무지하여 도모할 수 없다.)’에서 ‘僮’은 ‘무지함’이며, 『莊子·知北遊』의 ‘汝瞳焉如新生之犢.(그대는 어리석기가 갓 낳은 송아지 같다.)’에서 ‘僮’은 ‘알지 못하는 모습’이다.

환유의 관점에서 ‘僮’의 本義인 ‘성인이 되지 않은 남자’는 의미영역의 전체에 해당하고, 引伸義인 ‘어리석음’, ‘무지함’, ‘흐리멍덩함’은 의미영역의 부분에 해당한다. ‘어리석음’, ‘무지함’, ‘흐리멍덩함’은 ‘지혜롭지 못해 옳고 그름의 구별을 못하는 것’, ‘사리판단이 흐린 것’을 의미한다. ‘미성년자’는 ‘성인이 아닌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는 ‘성인’이 사고가 성숙하고, 지혜로우며, 사리에 밝은 것에 반해 ‘미성년자’는 보호가 필요하고, 사리 분별에 약하며, 더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인식한다. ‘僮’은 매체 실체인 ‘미성년자’에서 목표 실체인 ‘사리판단이 흐림’으로 寫像되면서 ‘범주는 범주의 특성을 대표한다’ 환유가 성립된다.

‘僮’의 환유 寫像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5> ‘僮’의 ‘범주는 범주의 특성을 대표한다’ 환유 寫像



<그림 35>을 통해 범주인 ‘미성년자’는 의미영역 전체에 해당하고, 범주의 특성인 ‘사리판단이 흐리다’는 의미영역 부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미자질 분석 관점에서 ‘僮’의 詞義 引伸 과정은 범주 ‘僮’을 이루는 의미자질 중 현저한 특징인 ‘사리판단이 흐림’이 파생되어 引伸義를 생성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 2. 부분-부분 환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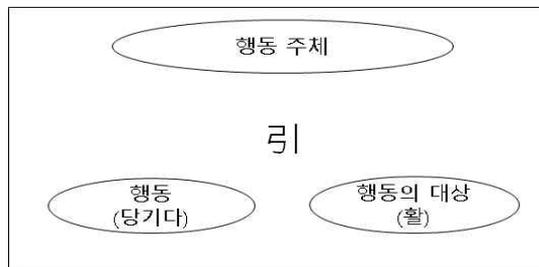
‘부분-부분’ 환유는 전체 인지모형을 구성하는 개념과 개념 사이의 寫像을 통해 환유가 발생하는 것을 가리킨다. ‘부분-부분’ 환유는 인지모형의 성격에 따라 그 유형을 10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는 古代 漢語 詞義 引伸에서 주로 발생하는 ‘행동 ICM’과 ‘인과성 ICM’ 두 유형에 해당하는 詞義를 대상으로 引伸 과정을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 1) 행동 ICM

‘행동 ICM’은 ‘행동’, ‘행동의 주체’, ‘행동의 대상’, ‘행동의 도구’, ‘행동이 발생하는 장소’, ‘행동의 원인’, ‘행동의 결과’ 등 행동과 관련된 개념들이 ICM을 구성하고, ICM 내에서 서로 寫像되면서 詞義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행동 ICM’은 행동의 복잡성에 따라 ICM 내 개념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것은 행동의 유형에 따라 수반되는 대상의 수, 장소, 목적 등과 관련된 개념의 존재 유무에 따라 복잡성 정도가 결정된다. ICM의 복잡성 정도의 차이를 ‘引’과 ‘封’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引’의 本義는 ‘開弓也.(활을 당기다.)’로 ‘引’의 의미영역은 행동(당기다), 행동의 대상(활), 행동의 주체로 구성된다. ‘引’의 의미영역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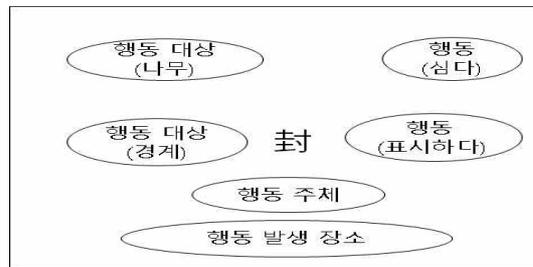
<그림 36> ‘引’의 의미영역



또한 ‘封’의 本義는 ‘흙 위에 나무를 심어서 경계를 표시한 것’<sup>90)</sup>이다. 本義를 기준으로 ‘封’의 의미영역은 행동1(심다), 행동의 대상1(나무), 행동2(표시), 행동의 대상2(경계), 행동의 주체, 행동이 발생하는 장소(흙 위)로 구성된다.

‘封’의 의미영역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7> ‘封’의 의미영역



‘引’과 비교해 ‘封’의 의미영역을 구성하는 요소가 더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封’의 의미영역은 두 가지 행동을 포함한다. 하나는 ‘나무를 심다’이고, 또 하나는 ‘경계를 표시하다’이다. 이 두 행동 중에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 ‘封’의 本義이기 때문에 행동1과 행동 대상1은 행동2와 행동 대상2를 위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행동 ICM’을 구성하는 개념들은 개념들 간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 개념들은 상호 寫像되어 ‘행동이 행동주체를 대표한다’, ‘행동이 사물을 대표한다’, ‘행동이 장소를 대표한다’ 등의 환유를 발생시키는데 이것은 古代 漢語 詞義 引伸 유형 중 하나인 動靜引伸과 그 성질이 매우 흡사하다.

武惠華(1995)는 動靜引伸이 중국 古代 문헌에서 보이는 매우 흔한 현상으로 動靜引伸 과정에서 새로 생성된 의미는 본래 의미와 다양한 관계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動靜引伸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sup>91)</sup>

90) 『說文』에서는 ‘封’의 本義를 ‘爵諸侯之士也.(제후에게 작위의 등급에 따라 내리는 땅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馬如森(2008: 304)과 손예철(2019: 629)은 郭沫若이 甲骨文을 분석한 것을 근거로 ‘封’의 本義가 ‘나무를 심어 경계를 삼은 것을 삼은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漢字源流字典』(2008: 777)에서도 ‘封’의 甲骨文이 손으로 땅에 나무를 심는 모습을 형상화 한 것으로 許慎의 本義 해석이 정확하지 않으며 ‘封’의 本義는 ‘나무를 심어 경계를 삼은 것’이 옳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封’의 本義에 대해서 세 저서를 따르도록 하겠다.

① 명사(행동 주체)-동사

- a. 『書·大禹謨』: 奄有四海, 爲天下君.
- b. 『荀子·王霸』: 合天下而君之.

a에서 ‘君’은 ‘통치자’를 의미하며 本義의 쓰임이다. b에서 ‘君’은 引伸義로 ‘통치하다, 관리하다’는 의미이다. ‘君’은 문장에서의 위치로 인한 품사의 변화를 통해 행동의 주체가 행동을 뜻하는 詞義로 변화했다.

② 동사-명사(행동 대상)

- a. 『書·酒誥』: 肇牽車牛遠服賈.
- b. 『左·禘·三十三』: 吾子淹久於敝邑, 唯是脯資餼牽竭矣.

a에서 ‘牽’은 ‘끌다’라는 의미이며 本義의 쓰임이다. b에서 ‘牽’은 ‘끌림을 당하는 대상’을 가리킨다. 즉, 행동이 행동의 대상을 뜻하는 詞義로 변화했다.

③ 명사(도구)-동사

- a. 『論語·衛靈公』: 子張書諸紳.
- b. 『韓非子·外儲說』: 紳之束之. 宋人有治者, 因重帶自紳束也.

a에서 ‘紳’은 ‘허리에 두르는 띠’로 本義로 쓰였다. b에서 ‘紳’은 引伸義로 ‘묶다’이다. 즉, 도구가 행동을 뜻하는 詞義로 변화했다.

④ 동사-명사(시간)

- a. 『六韜·龍韜』: 善者從而擇, 巧者一決而不猶豫, 故疾雷不及掩耳, 卒電不及瞬目.
- b. 『文賦』: 觀古今於須臾, 撫四海於一瞬.

a에서 ‘瞬’은 ‘눈을 깜빡이다’라는 의미로 本義로 쓰였다. b에서 ‘瞬’은 引伸

---

91) 武惠華, 「古漢語詞義的動靜引伸」, 中國人民大學學報, 4期, 1995, 113-115쪽.  
 : 武惠華가 제시한 유형은 총 8가지이다. 본문에서 설명하는 7가지 외에 사물을 의미하는 詞가 사물의 특성이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詞義가 변화하는 유형이 있지만, 이것은 행동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본 고에서는 행동과 관련된 7가지 유형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다.

義로 ‘순간’, ‘눈 깜짝할 사이’와 같은 의미이다. 행동이 시간을 뜻하는 詞義로 변화했다.

⑤ 동사-명사(장소)

a. 『孟子·公孫丑』: 坐而言, 不應, 隱幾而臥.

b. 『漢書·韓信傳』: 自稱漢使, 馳入壁, 張耳韓信未起, 卽其臥, 奪其印符.

a에서 ‘臥’는 本義로 ‘드리눅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b에서 ‘臥’는 引伸義로 ‘침실’의 의미이다. 즉, 행동이 장소를 뜻하는 詞義로 변화했다.

⑥ 명사(원인)-동사

a. 『易·賁』: 匪寇婚媾, 終無尤也.

b. 『詩·鄘·載馳』: 許人尤之, 衆釋且狂.

a에서 ‘尤’는 ‘허물’, ‘실수’라는 의미로 本義로 쓰였다. b에서 ‘尤’는 引伸義로 ‘탓하다’라는 의미이다. 남을 탓하게 되는 원인은 상대방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원인이 행동을 뜻하는 詞義로 변화했다.

⑦ 명사(결과)-행동

a. 『禮·曲禮』: 四郊多壘, 此卿大夫之辱也.

b. 『僮約』: 焚薪作炭, 壘石薄岸.

a에서 ‘壘’는 本義로 ‘군영의 보루’, ‘방어를 위한 사물’을 가리킨다. b에서 ‘壘’는 引伸義로 ‘성을 쌓다’, ‘돌이나 벽돌을 쌓다’와 같은 의미이다. ‘壘’의 本義와 引伸義는 행동과 그 행동에 따른 결과의 관계로 결과를 나타내는 詞義가 결과를 유발한 원인을 뜻하는 詞義로 변화했다.

武惠華의 動靜引伸 유형 분석을 통해 하나의 詞가 ‘행동-행동 주체’, ‘행동-행동 대상’, ‘행동-도구’, ‘행동-시간’, ‘행동-장소’, ‘행동-원인’, ‘행동-결과’의 관계가 성립되면서 문장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쓰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動靜引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詞의 품사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漢語는 품사가 고정되지 않은 문자이기 때문에 문장의 위치에 따른 품사의 변화는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다. 動靜引伸인 경우 행동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행동을 나타내는 詞義가 행동과 관련된 대상, 도구, 장소 등으로 변화하거나, 행동과 관련된 대상, 도구, 장소 등을 나타내는 詞義가 행동을 나타내는 詞義로 변화하면서 품사의 변화가 발생한다. 여기서 행동과 관련된 범위는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하나의 ICM에 해당하며, ICM을 구성하는 행동, 행동의 대상, 행동의 도구, 행동 발생 장소 등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을 근거로 서로 寫像되면서 詞義가 확대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古代 漢語의 引伸 유형 중 하나인 動靜引伸은 Kovecses와 Radden이 분류한 환유의 유형 중 ‘부분-부분’ 환유의 하위 유형인 ‘행동 ICM’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고에서는 의미자질의 변화를 통해 ‘행동 ICM’의 환유 寫像 과정을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 (1) 행동과 도구와의 관계

이 유형은 ‘행동 ICM’ 내에서 행동과 도구가 서로 寫像되면서 詞義가 변화하는 것을 가리킨다. ‘행동’과 행동의 수단인 ‘도구’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처럼 강한 인접성으로 인해 ‘행동’은 ‘도구’로, ‘도구’는 ‘행동’으로 종종 寫像되어 詞義의 변화를 일으키며, 引伸 전후 詞義의 변화와 함께 품사의 변화도 함께 발생한다.

支<sup>92)</sup>: 小擊也. 从又卜聲. 字亦作扑. 『夏小正·詩·幽風』: 剝棗, 皆以剝爲之. 又叩門曰: 剝啄. 亦疊韻連語. 『虞書』: 扑作教刑. 傳: 榎楚也. 『儀禮·鄉射禮』: 取扑搯之. 『周禮·司市』: 大刑扑罰. 注: 撻也. 【轉注】『左·文十八傳』: 歇以扑扶職. 注: 箠也. 『漢書·陳項傳贊』: 執敲扑以鞭答天下. 注: 捶也.

『說文』에 따르면 ‘支’의 本義는 ‘작게 두드리다’이다. 朱駿聲은 ‘支’이 ‘扑’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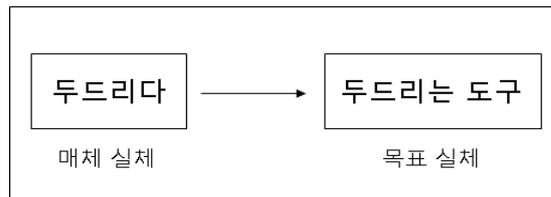
92)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 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378쪽.

같이 쓰이기도 한다고 보충 설명하고 ‘攴’과 ‘扌’이 쓰인 문장을 예문으로 제시했다. 『儀禮·鄉射禮』의 ‘取扑搯之.(회초리를 휘두르다.)’에서 ‘扌’은 ‘교화를 위한 도구’로 ‘회초리’와 같은 처벌 도구를 가리킨다. ‘扌’은 행동을 나타내는 ‘두드리다’에서 ‘두드리는 도구’로 詞義가 引伸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漢書·陳項傳贊』의 ‘執敲扑以鞭答天下.(회초리를 들고 때려 천하에 답하다.)’에서도 ‘扌’은 ‘두드리는 도구’를 가리킨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攴’이 引伸義인 도구로 쓰인 문장이 【轉注】가 아닌 本義 설명에도 인용되었다는 것이다.

‘攴’이 ‘두드리다’에서 ‘두드리는 도구’로 引伸되는 과정을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본다면 ‘행동 ICM’의 ‘행동은 도구를 대표한다’ 환유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攴’은 매체 실체 ‘행동’을 통해 목표 실체인 ‘도구’로 사고의 전환이 발생하면서 의미영역 안에서의 寫像을 통해 詞義의 변화를 일으킨다.

‘攴’의 ‘행동은 도구를 대표한다’ 환유 寫像은 아래와 같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8> ‘攴’의 ‘행동은 도구를 대표한다’ 환유 寫像



의미자질 관점에서 ‘攴’의 詞義 引伸 과정은 本義인 ‘두드리다’ 전체가 전이되고, 수단을 나타내는 의미자질 ‘도구’가 결합되어 ‘두드리는 도구’로 詞義가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攴’이 本義인 ‘두드리다’에서 ‘두드리는 도구’로 詞義가 변화한 것은 ‘부분-부분’ 환유의 ‘행동 ICM’ 중 ‘행동은 도구를 대표한다’에 해당하며, 이것은 本義 전체가 전이되고 새로운 의미자질이 추가로 결합되어 詞義가 引伸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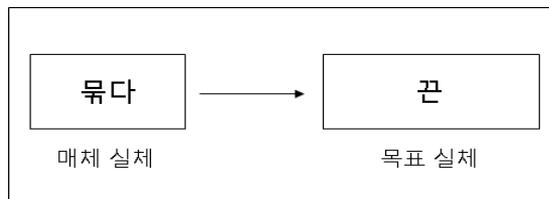
滕<sup>93</sup>): 緘也. 从糸, 朕聲. 『廣雅·釋器』: 滕, 索也. 『書·金縢』 鄭注: 束也. 『詩·小戎』: 竹閼緘滕. 傳: 約也. 『閼宮』: 朱英綠滕. 傳: 繩也. 『儀禮·士喪禮』: 無滕. 注: 緣也. 『禮記·少儀』: 甲不組滕. 注: 以組飾之. 及紵帶也. 『莊子·胠篋』: 則必攝緘滕. 『秦策』: 行滕履□(尸+喬). 【轉注】『爾雅·釋木』: 山巢. 注: 今江東呼. 巢爲滕. 按: 凡草之藎木之藎者皆曰滕. 今字變作藤.

『說文』에 따르면 ‘滕’의 本義는 ‘묶다’이다. ‘滕’은 本義인 ‘묶다’에서 ‘끈’으로 詞義가 변화한다. 위 인용문에서 『閼宮』의 ‘朱英綠滕(창의 붉은 실 장식과 궁의 녹색 끈 장식)’, 『莊子·胠篋』의 ‘則必攝緘滕.(필히 끈을 묶어야 한다.)’, 『秦策』의 ‘行滕履□(尸+喬)(행전과 짚신)’에서 ‘滕’은 ‘묶다’가 아닌 묶는 도구인 ‘끈’을 가리킨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滕’이 引伸義인 ‘끈’로 쓰인 문장이 【轉注】가 아닌 本義 설명에 인용되었다는 것이다.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滕’의 詞義 引伸은 ‘행동 ICM’ 내에서 ‘행동은 도구를 대표한다’ 환유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滕’은 매체 실체인 행동을 통해 목표 실체인 도구로 사고의 전환이 발생하면서 詞義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滕’의 ‘행동은 도구를 대표한다’ 환유 寫像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9> ‘滕’의 ‘행동은 도구를 대표한다’ 환유 寫像



의미자질 관점에서 ‘滕’의 詞義 引伸 과정은 本義인 ‘묶다’ 전체가 전이되고, 수단을 나타내는 의미자질이 결합되어 ‘묶는 도구’로 詞義가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93)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 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71쪽.

즉, ‘滕’이 本義인 ‘묶다’에서 ‘묶는 도구’로 詞義가 변화한 것은 ‘부분-부분’ 환유의 ‘행동 ICM’ 중 ‘행동은 도구를 대표한다’ 환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것은 本義의 전이와 새로운 의미자질의 결합을 통해 詞義가 引伸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鞭<sup>94</sup>: 驅也. 从革便聲. 古文从支从𠄎疑令省聲. 字亦省作鞭. 『廣雅·釋詁一』:

鞭, 也. 按: 亦曰策曰箠亦用竹. 『論語』: 雖執鞭之士. 『晉語』: 其左執鞭弭. 【轉注】『虞書』: 鞭作官刑. 『劉寬碑』: 去鞭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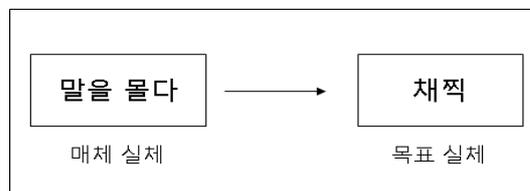
『說文』에 따르면 ‘鞭’의 本義는 ‘말을 몰다’이다. ‘鞭’은 本義 ‘말을 몰다’에서 ‘채찍’으로 詞義가 변화한다. 『論語』의 ‘雖執鞭之士(비록 말채찍을 잡아야 하는 일일지라도)’와 『晉語』의 ‘其左執鞭弭.(왼손으로 채찍과 활을 잡다.)’에서 ‘鞭’은 ‘말을 몰다’가 아닌 말을 몰기 위한 도구인 ‘채찍’을 가리킨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鞭’이 引伸義인 ‘채찍’으로 쓰인 문장이 【轉注】가 아닌 本義 설명에 인용되었다는 것이다.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鞭’이 ‘말을 몰다’에서 ‘채찍’으로 引伸되는 과정은 ‘행동 ICM’의 ‘행동은 도구를 대표한다’ 환유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鞭’은 매체 실체 ‘행동’을 통해 목표 실체인 ‘도구’로 사고의 전환이 발생하면서 의미영역 안에서의 寫像을 통해 詞義의 변화를 일으킨다.

‘鞭’의 ‘행동은 도구를 대표한다’ 환유 寫像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40> ‘鞭’의 ‘행동은 도구를 대표한다’ 환유 寫像



94)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 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849쪽.

의미자질 관점에서 ‘鞭’의 詞義 引伸 과정은 本義인 ‘말을 몰다’ 전체가 전이되고, 도구를 나타내는 의미자질이 결합되어 ‘채찍’으로 詞義가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鞭’이 本義 ‘말을 몰다’에서 ‘채찍’으로 詞義가 변화한 것은 ‘부분-부분’ 환유의 ‘행동 ICM’ 중 ‘행동은 도구를 대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것은 本義가 전이된 후 새로운 의미자질과의 결합을 통해 詞義가 引伸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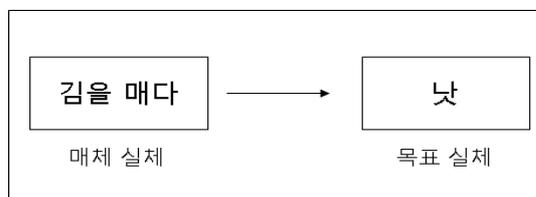
芟<sup>95)</sup>: 刈艸也。从艸，殸聲。按：从艸，从殸，會意。殸，殊也。『詩·載』：芟，載柞。傳：除草曰芟。『周禮·肆師』：嘗之日，涖卜來歲之芟。注：芟草除田也。『左·隱·六』傳：芟夷蕪崇之。注：刈也。說問艸部引作芟。『淮南·本經』：芟野芟。注：殺也。【轉注】『齊語』：耒，耜，耒，芟。注：大鎌也，所以芟草。

『說文』에 따르면 ‘芟’의 本義는 ‘김을 매다’이다. 【轉注】에 인용된 『齊語』의 문장에서 ‘耒，耜，耒，芟’은 모두 김을 매 때 사용하는 도구를 가리킨다.

‘芟’은 ‘행동 ICM’ 내에서 ‘행동’이 ‘도구’로 寫像되어 ‘행동은 도구를 대표한다’ 환유가 성립된다. 이 과정을 통해 ‘芟’의 詞義는 김을 매는 도구인 ‘낫’으로 引伸되어 詞義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芟’의 ‘행동은 도구를 대표한다’ 환유 寫像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41> ‘芟’의 ‘행동은 도구를 대표한다’ 환유 寫像



95)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 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145쪽.

의미자질 관점에서 ‘芘’의 詞義 引伸 과정은 本義인 ‘김을 매다’ 전체가 전이되고, 도구를 나타내는 의미자질이 결합되어 ‘김을 매는 도구’로 詞義가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芘’이 本義 ‘김을 매다’에서 ‘김을 매는 도구’로 詞義가 변화한 것은 ‘부분-부분’ 환유의 ‘행동 ICM’ 중 ‘행동은 도구를 대표한다’ 환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것은 本義가 전이된 후 새로운 의미자질의 결합을 통해 詞義가 引伸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위에서 살펴본 것과 반대로 ‘행동 ICM’ 내에서 도구가 매체 실체로 작용하여 목표 실체인 행동으로 寫像되는 ‘도구는 행동을 대표한다’ 환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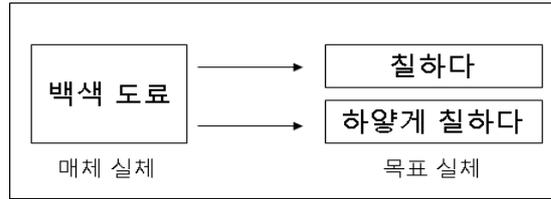
堊<sup>96)</sup>: 白塗也. 从土亞聲. 『西山經』: 大次之山, 其陽多堊. 注: 堊似土, 色甚白. 『子虛賦』: 其土則丹青赭堊. 注: 白土也. 『穀梁·莊甘三傳』: 天子諸侯黝堊. 又『北山經·澗水』: 其中多黃堊. 【轉注】『廣雅·釋室』: 堊, 塗也. 『周禮·司桃』: 其桃則守桃黝堊之. 『爾雅·釋宮』: 牆謂之堊. 『禮記·喪大記』: 既祥黝堊. 注: 黝堊, 堊室之飾也. 『後漢·尹敏傳』: 堊墁. 注: 有泥墁之也. 『考工·匠人』: 營國. 注: 以蜃灰堊牆. 疏: 堊即白蜃.

『說文』에 따르면 ‘堊’의 本義는 ‘백색 도료’이다. 【轉注】에 인용된 『廣雅·釋室』에서는 ‘堊, 塗也.(堊은 칠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周禮·司桃』의 ‘其桃則守桃黝堊之.(사당을 검은색과 흰색으로 칠하여 지키다.)’에서 ‘堊’은 ‘하얗게 칠하다’이다. ‘堊’은 ‘행동 ICM’ 내에서 도구에 해당하는 ‘백색 도료’가 행동에 해당하는 ‘칠하다’ 혹은 ‘하얗게 칠하다’로 寫像되어 ‘도구는 행동을 대표한다’ 환유가 성립된다.

‘堊’의 환유 寫像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96)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 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454쪽.

<그림 42> ‘堊’의 ‘도구는 행동을 대표한다’ 환유 寫像



‘도료’는 물건의 겉에 칠하는 재료이다. 이 개념을 근거로 ‘堊’의 의미자질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堊: 「하얀색」 + 「칠하다」 + 「재료」

의미자질 관점에서 ‘堊’의 詞義 引伸 과정은 ‘堊’의 의미자질 중 하나인 ‘칠하다’가 파생되어 引伸義를 생성하거나 혹은 의미자질 ‘하얀색’과 ‘칠하다’가 함께 파생되어 ‘하얗게 칠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引伸義를 생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堊’이 本義 ‘백색 도료’에서 ‘칠하다’, ‘하얗게 칠하다’로 詞義가 변화한 것은 ‘부분-부분’ 환유의 ‘행동 ICM’ 중 ‘도구는 행동을 대표한다’ 환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것은 매체 실체에 해당하는 本義의 의미자질의 파생을 통해 詞義가 引伸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繩<sup>97)</sup>: 索也. 从糸, 蠲省聲. 『小爾雅·廣器』: 大者謂之索, 小者謂之繩. 『易·說卦』: 巽爲繩直. 『系辭傳』: 作結繩而爲網罟. 『詩·絃』: 其繩則直. 『爾雅·釋器』: 繩之謂之縮之. 『家語』 孔子曰: 木受繩則直. 【轉注】 『廣雅·釋詁三』: 繩, 直也. 『禮記·深衣』: 負繩及踝以應直. 注: 謂袷與後幅相當之縫也. 又 『樂記』: 以繩德厚. 注: 猶度也. 『史記·樂書·集解』 王肅曰: 繩, 法也. 『管子·七臣七主』: 以繩七臣. 注: 謂彈正也. 『淮南·主術』: 能進退履繩. 注: 直正也. 又 『春秋·元命苞』: 玉衡北兩星爲玉繩. 按: 謂天乙, 太乙兩小星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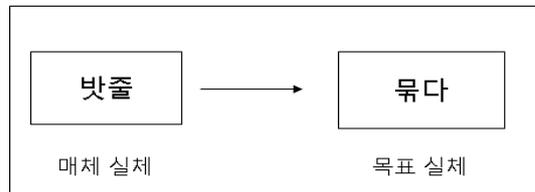
97)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 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75쪽.

『說文』에 따르면 ‘繩’의 本義는 ‘밧줄’이다. ‘繩’은 本義 ‘밧줄’에서 ‘묶다’로 詞義가 변화한다. 引伸義의 쓰임은 『爾雅·釋器』의 문장 ‘繩之謂之縮之.(繩之는 ‘묶다’를 이르는 것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장에서 ‘繩’은 ‘묶다’라는 의미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繩’이 引伸義인 ‘묶다’로 쓰인 문장이 【轉注】가 아닌 本義 설명에 인용되었다는 것이다.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繩’이 ‘밧줄’에서 ‘묶다’로 引伸되는 과정은 ‘행동 ICM’의 ‘도구는 행동을 대표한다’ 환유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繩’은 매체 실체인 ‘도구’를 통해 목표 실체인 ‘행동’으로 사고의 전환이 발생하면서 의미 영역 안에서의 寫像을 통해 詞義의 변화를 일으킨다.

‘繩’의 환유 寫像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3> ‘繩’의 ‘도구는 행동을 대표한다’ 환유 寫像



‘밧줄’은 사람 혹은 사물을 묶기 위한 도구로 그 의미자질은 아래와 같다.

繩: 「사람」 + 「사물」 + 「묶다」 + 「끈」

의미자질 관점에서 ‘繩’의 詞義 引伸 과정은 ‘繩’의 의미자질 중 하나인 ‘묶다’가 파생되어 引伸義를 생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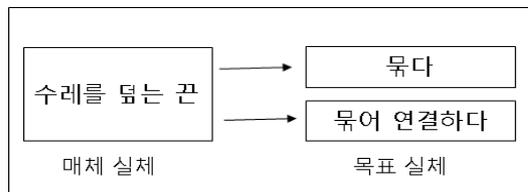
즉, ‘繩’이 本義인 ‘밧줄’에서 ‘묶다’로 詞義가 변화한 것은 ‘부분-부분’ 환유의 ‘행동 ICM’ 중 ‘도구는 행동을 대표한다’ 환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것은 매체 실체에 해당하는 本義의 의미자질이 파생되어 詞義가 引伸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維<sup>98</sup>): 車蓋維也. 从糸佳聲. 『廣雅·釋詁二』: 維, 係也. 『楚辭·天問』: 幹維焉繫. 【轉注】『周禮·節服氏』: 維王之大常. 注: 維之以縷. 又『儀禮·大射儀』: 中離維綱. 注: 候有上下, 綱其邪制躬舌之角者爲維. 『左·昭十傳』: 居其維首. 疏: 綱也. 『管子·禁藏』: 法令爲維綱. 又『爾雅·釋水』: 諸侯維舟. 李注: 中央左右相維持者曰維舟. 又『詩·白駒』: 繫之維之. 傳: 繫也. 『公羊·昭廿五傳』: 牛馬維婁. 注: 繫馬曰維. 又『廣雅·釋言』: 維, 隅也. 『秦策』: 其寧于太山四維. 『淮南·天文』: 東北爲報德之維也. 注: 四角爲維. 『西京賦』: 振天維. 又『太元達』: 蒼木維流. 注: 枝枚垂兒也. 又『周禮·大司馬』: 以維邦國. 注: 猶連結也. 『易·隨』: 乃從維之. 虞注: 兩係稱維.

『說文』에 따르면 ‘維’의 本義는 ‘수레를 덮는 끈’이다. 【轉注】에 인용된 『爾雅·釋水』에서 ‘諸侯維舟’의 ‘維舟’를 ‘中央左右相維持者曰維舟.(중앙과 좌우를 서로 연결하여 지지하는 것이 ‘維舟’이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維’는 ‘묶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또한 『公羊·昭廿五傳』의 ‘牛馬維婁.(소를 묶는 것은 婁이고, 말을 묶는 것은 維이다.)’에서 ‘維’는 ‘묶다’라는 의미로 행동을 나타낸다. ‘維’는 의미영역의 부분에 해당하는 도구(끈)가 행동(묶다)으로 寫像되어 ‘도구는 행동을 대표한다’ 환유가 성립되어 詞義가 변화한다.

‘維’의 환유 寫像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44> ‘維’의 ‘도구는 행동을 대표한다’ 환유 寫像



‘끈’은 사물이나 사람을 묶는 도구이다. 한 사람 혹은 한 개의 사물만 묶었을 경우와는 달리 두 명 이상 혹은 두 개 이상의 사물을 묶었을 경우에는 사물을 묶어 연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維’의 의미자질

98)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 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609쪽.

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維: 「수레」 + 「덮다」 + 「끈」 + 「묶다」 + 「연결하다」

위 의미자질에서 중심 의미자질은 ‘끈’이며, 제한 의미자질은 ‘수레’와 ‘덮다’이다. 그리고 나머지 ‘묶다’와 ‘연결하다’는 관련 의미자질에 해당한다.

의미자질 분석 관점에서 ‘維’의 詞義 引伸 과정은 ‘維’의 의미자질 중 관련 의미자질 ‘묶다’가 파생되거나 혹은 ‘묶다’와 ‘연결하다’가 함께 파생되어 引伸義를 생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維’가 本義인 ‘수레를 덮는 끈’에서 ‘묶다’, ‘묶어 연결하다’로 詞義가 변화한 것은 ‘부분-부분’ 환유의 ‘행동 ICM’ 중 ‘도구는 행동을 대표한다’ 환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것은 매체 실체에 해당하는 本義의 의미자질이 파생되어 詞義가 引伸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鉤<sup>99)</sup>: 曲鉤也. 从金句, 會意, 句亦聲. 『晉語』: 申孫之矢, 集於桓鉤. 注: 帶鉤也. 『孟子』: 豈謂一鉤金. 『莊子·胠篋』: 竊鉤者誅. 『詩·皇矣』: 以爾鉤援. 傳: 鉤, 梯也, 所以引上城者. 『漢書·韓延壽傳』: 作刀劍鉤鐔. 注: 兵器也. 『周禮·巾車』: 金路, 鉤. 注: 鉤婁頷之鉤也. 『東京賦』: 鉤膺玉璫. 注: 當胸也. 『莊子·胠篋』: 鉤餌網罟罾筍之知. 『釋文』: 鉤, 鉤也. 『書·璿璣鈴』: 白狼銜鉤. 【轉注】 『小爾雅·廣詁』: 鉤, 取也. 『鬼谷子·飛箝』: 引鉤箝之辭. 注: 謂誘致其情. 『管子·宙合』: 鉤入枉而出直. 『後漢·范滂傳』注: 鉤, 引也. 『史弼傳』注: 鉤, 謂相連也. 『靈帝紀』注: 相牽引也. 『荀子·疆國』: 勁魏鉤吾右.

앞서 ‘전체-부분’ 환유 중 ‘사물과 부분 ICM’에서 ‘鉤’가 本義인 ‘갈고리’에서 ‘갈고리가 달린 사다리’로 詞義가 引伸되는 과정을 이미 살펴보았다. 여기서 ‘鉤’가 ‘갈고리’에서 갈고리를 사용해 취하는 행동인 ‘당기다’, ‘얻다’, ‘연결하다’, ‘이끌다’로 쓰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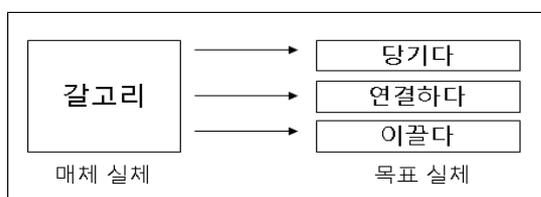
朱駿聲은 【轉注】에 『後漢·范滂傳』과 『史弼傳』의 注를 인용해 ‘鉤’의 의미

99)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357쪽.

를 ‘鉤, 引也.(鉤는 끄는 것이다.)’, ‘鉤, 謂相連也.(鉤는 서로 연결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鉤’가 이와 같이 의미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본다면 환유에 의한 詞義 변화라고 할 수 있다. ‘鉤’는 의미영역의 부분 개념에 해당하는 도구(갈고리)가 행동(끌다, 서로 연결하다)으로 寫像되어 ‘도구는 행동을 대표한다’ 환유가 성립되고, 그 결과 ‘鉤’는 도구를 나타내는 詞義에서 행동을 나타내는 詞義로 그 의미가 변화하게 된다.

‘鉤’의 환유 寫像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5> ‘鉤’의 ‘도구는 행동을 대표한다’ 환유 寫像



‘갈고리’는 ‘끝이 구부러진 사물’로 구부러진 부분을 통해 사물을 끌어당기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구부러진 부분을 통해 다른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는 기능도 갖는다. 이러한 기능을 모두 포함하여 ‘鉤’의 의미자질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鉤: 「끝」 + 「구부러지다」 + 「도구」 + 「당기다」 + 「이끌다」 + 「연결하다」

위 의미자질에서 중심 의미자질은 ‘도구’이며, 제한 의미자질은 ‘끝’과 ‘구부러지다’이다. 그리고 나머지 의미자질은 관련 의미자질에 해당한다.

의미자질 분석 관점에서 ‘鉤’의 詞義 引伸 과정은 ‘鉤’의 관련 의미자질인 ‘이끌다’, ‘연결하다’가 각각 파생되어 引伸義를 생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鉤’가 本義인 ‘갈고리’에서 ‘당기다’, ‘연결하다’, ‘이끌다’로 詞義가 변화한 것은 ‘부분-부분’ 환유의 ‘행동 ICM’ 중 ‘도구는 행동을 대표한다’ 환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것은 매체 실체에 해당하는 本義의 의미자질이 파생되어 詞義가 引伸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 (2) 행동과 행동의 주체 및 행동의 대상과의 관계

‘행동 ICM’에는 행동을 직접 행하는 주체와 행동을 받는 대상이 의미영역의 부분을 구성한다. 이 때 행동의 대상은 생물일 수도 있고 무생물일 수도 있다. 이 유형은 ‘행동 ICM’ 내에서 행동과 행동의 주체 사이에 발생하는 寫像과 행동과 행동의 대상 사이에 발생하는 寫像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행동과 행동의 주체 간에 발생하는 환유 寫像을 통한 詞義 引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嗣<sup>100</sup>): 諸侯嗣國也. 从冊, 从口, 司聲. 古文从子, 司聲. 冊者於廟讀之, 故从口. 或曰: 當从口. 國也. 存疑. 『爾雅·釋詁』: 嗣, 繼也. 『書舜典序』: 將使嗣位. 『洪範』: 禹乃嗣興. 傳: 繼也. 『左·昭七傳』: 今又不禮於衛之嗣. 注: 新君也. 『魯語』: 苟半姓實嗣. 注: 嗣, 嗣世也. 『儀禮·特牲禮』: 嗣舉. 奠注: 主人將爲後者. 『左·襄廿六傳』: 齊慶嗣, 字子息. 【轉注】『左·襄廿五傳』: 其弟嗣書. 注: 續也. 『襄三傳』: 晉侯問嗣焉. 注: 續其職者. 『襄十九傳』: 所不嗣事于齊者有如河. 注: 續也. 又『詩·生民』: 以興嗣歲. 箋: 今新歲也. 『杕杜』: 繼嗣我日. 箋: 續也. 『子衿』: 子寧不嗣音. 傳: 習也. 箋: 續也. 『韓詩』: 以詒爲之.

『說文』에 따르면 ‘嗣’의 本義는 ‘諸侯嗣國也. 从冊, 从口, 司聲. 古文从子.(제후가 나라를 이어받다. 冊, 口로 구성되었으며, 司는 소리이다. 古文은 子로 구성되었다.)’이다. 許慎은 ‘嗣’의 古文이 ‘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풀이했다. 그러나 ‘嗣’와 ‘嗣’의 소전체인 嗣를 통해서 ‘子’의 형태를 찾아보기 힘들다. ‘子’의 모습은 갑골문을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嗣’의 갑골문은 𠄎<sup>100</sup>이다.

100)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17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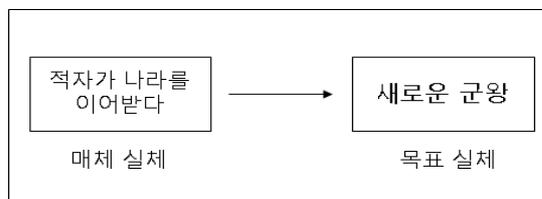
【轉注】에서 위쪽 좌측에 있는 형상은 ‘子’의 갑골문이며, 위쪽 우측에 있는 형상은 ‘大’의 갑골문이고, 아래는 ‘冊’의 갑골문 형상이다. 여기서 ‘大’는 ‘子’와 함께 쓰여 ‘적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嗣’의 정확한 의미는 ‘적자가 군왕의 직위를 이어받다’라고 할 수 있다.<sup>101)</sup>

위 원문에 인용된 『左·昭七傳』의 문장 ‘今又不禮於衛之嗣.(지금 또한 衛의 새로운 군주에게 예의가 아니다.)’에서 ‘嗣’은 ‘새로운 군주’를 가리킨다. 그리고 인용한 『儀禮·特牲禮』의 문장 ‘嗣舉’는 ‘嗣舉奠.(후계자가 잔을 들다.)’에서 ‘奠’이 빠진 문장인데, 이 문장에서 ‘嗣’는 역시 ‘새로운 군주’를 가리킨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嗣’가 引伸義인 ‘후계자’로 쓰인 문장이 【轉注】가 아닌 本義 설명에 인용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本義인 ‘자리를 이어받다’로 쓰인 문장은 【轉注】에 인용되어 本義와 引伸義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嗣’가 本義인 ‘적자가 군왕의 직위를 이어받다’에서 ‘후계자’로 詞義가 引伸되는 과정은 ‘행동 ICM’의 ‘행동은 행동의 주체를 대표한다’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嗣’는 매체 실체 ‘행동’을 통해 목표 실체 ‘행동의 주체’로 사고의 전환이 발생하면서 의미영역 안에서의 寫像을 통해 詞義가 변화한다.

‘嗣’의 환유 寫像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46> ‘嗣’의 ‘행동은 행동의 주체를 대표한다’ 환유 寫像



‘嗣’의 詞義 引伸 과정을 의미자질 분석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嗣’의 本義를 기준으로 ‘嗣’의 의미자질은 아래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101) 馬如森, 『殷墟甲骨文實用字典』, 上海, 上海大學出版社, 2008, 53쪽.

嗣: 「적자」+「군왕」+「직위」+「이어받다」

위 의미자질에서 중심 의미자질은 ‘이어받다’이며, 나머지 의미자질은 제한 의미자질에 해당한다. ‘嗣’의 의미자질은 위에 나열된 중심 의미자질과 제한 의미자질 외에 또 다른 관련 의미자질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적자’는 군왕의 자리를 이어받아 새로운 군주가 되는 대상으로 ‘후임자’, ‘새로운 군왕’이다. 그리고 ‘군왕’은 정치, 군사, 행정의 권력을 갖는 대상으로 그와 관련된 수많은 의미자질을 구성한다. ‘嗣’가 ‘군왕의 직위를 이어받다’에서 ‘새로운 군왕’, ‘후계자’로 詞義가 引伸된 것은 의미자질 분석 측면에서 ‘嗣’의 제한 의미자질인 ‘군왕’이 파생되어 詞義가 引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嗣’의 詞義 引伸 과정은 ‘행동 ICM’의 ‘행동은 행동의 주체를 대표한다’ 환유에 해당하며, 이것은 本義의 의미자질 중에 제한 의미자질이 파생되어 詞義가 引伸되는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행동과 행동의 대상 간에 발생하는 환유 寫像을 통한 詞義 引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飯<sup>102)</sup>: 食也. 从食, 反聲. 字亦作飧作飮. 『儀禮·少牢禮』注: 食, 大名. 小數曰飯. 『禮記·玉藻』: 飯飧者三飯也. 『論語』: 君祭先飯. 又『漢書·朱買臣傳』: 呼飯飲之. 注: 謂飲之也. 又『禮記·檀弓』: 飯設飾. 『釋文』: 唅也. 『周禮·典瑞』: 共飯玉. 注: 碎玉以糶米也. 【轉注】『呂覽·本味』: 飯之美者, 元山之米. 按: 飯所食也.

『漢字形義演釋字典』에 따르면 ‘飯’의 本義는 ‘음식’이다.<sup>103)</sup> 반면, 『漢字源流字典』과 『漢語音義字典』에 따르면 ‘飯’의 本義는 ‘먹다’이다.<sup>104)</sup> 『漢語音義字典』에서는 段玉裁의 의견을 근거로 ‘飯’을 동사라고 설명하였고, ‘食’과 달리 ‘飯’은 ‘반복적으로 먹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여 두 글자의 의미상 차이점

102)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72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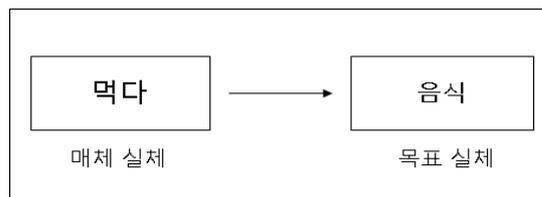
103) 王朝忠, 『漢字形義演釋字典』, 成都, 四川辭書出版社, 2006, 530쪽.

104)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北京, 語文出版社, 2008, 477쪽.

齊沖天·齊小乎, 『漢語音義字典·上冊』, 北京, 中華書局, 2010, 282쪽.

을 밝혔다. 朱駿聲도 『儀禮·少牢禮』에서 ‘食, 大名. 小數曰飯.(食은 일반적으로 용어이며, 飯은 자주 쓰이지 않는다.)’이라고 注한 것을 인용해 두 詞義의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飯’의 本義를 밝히는 부분에 인용된 문장들에서 ‘飯’이 모두 동사로 쓰인 것으로 보아 朱駿聲은 ‘飯’의 本義를 ‘먹다’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轉注】에 인용된 『呂覽·本味』의 ‘飯之美者, 元山之米.(음식 중 최고는 元山の 쌀이다.)’에서 ‘飯’은 먹는 대상인 ‘음식’을 가리킨다. ‘먹다’와 ‘음식’은 행동과 행동의 대상의 관계로서, 이 두 詞義의 관계는 환유 관점에서 ‘행동’이 ‘행동의 대상’으로 寫像되어 ‘행동이 행동의 대상을 대표한다’ 환유가 성립되면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詞義는 이와 같은 사고 과정을 통해 확대되면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게 된다. ‘飯’의 환유 寫像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7> ‘飯’의 ‘행동은 행동의 대상을 대표한다’ 환유 寫像



‘飯’의 本義인 ‘먹다’는 입을 통해 음식물을 몸 속으로 들여보내는 행동이다. 위 해석을 기준으로 ‘飯’의 의미자질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飯: 「입」 + 「음식」 + 「몸 속」 + 「들어가다」

위 의미자질에서 중심 의미자질은 ‘들어가다’이고 나머지는 제한 의미자질에 해당한다. 의미자질 분석 관점에서 ‘飯’은 의미자질 중에서 제한 의미자질의 파생을 통해 詞義가 引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飯’의 詞義 引伸 과정은 ‘행동 ICM’의 ‘행동은 행동의 대상을 대표한다’ 환유에 해당하며, 이것은 本義의 의미자질이 파생되어 詞義가 引伸되는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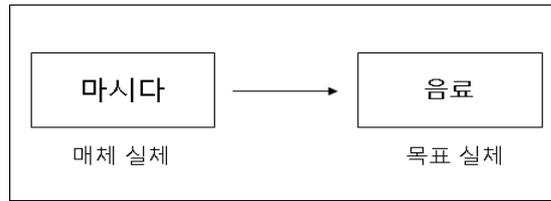
飲<sup>105</sup>): 飲也. 从欠奮聲. 古文从水, 今聲. 又古文从食今聲. 按: 小篆从酉从欠, 今聲. 酉者, 酒也. 古文余. 與左水右今之或淦字別. 今隸作飲. 『易·需』: 君子以飲食宴樂. 虞注: 水流入口爲飲. 【轉注】 『周禮·膳夫』: 飲食賓賜之殮牽. 注: 飲食燕饗也. 『儀禮·公食禮』: 飲酒漿飲, 俟於東房. 注: 飲酒, 清酒也. 又『左·哀·二十五傳』: 請飲彘也. 注: 罰也. 按: 自飲曰飲, 飲人亦曰飲, 所飲之物即曰飲. 『周禮·酒正』: 辨四飲之物. 清, 醫, 漿, 醕也. 『漿人』: 掌共王之六飲, 水, 漿, 醕, 涼, 醫, 醕也. 又『漢書·朱家傳』: 飲其德. 注: 沒也. 按: 猶食言之食也. 『說苑』: 沒矢飲羽. 飲亦沒也. 又『莊子·則陽』: 或不言而飲人以和. 注: 被也. 按: 猶食舊德之食也. 又『趙策』: 漆其頭以爲飲器. 注: 溺器也. 按: 猶受也.

『說文』에 따르면 ‘飲’의 本義는 ‘마시다’이다. 【轉注】에 인용된 『左·哀·二十五傳』의 문장 ‘請飲彘也.’는 ‘孟武伯(字: 彘)에게 벌로 술을 마시도록 하십시오.’라는 뜻이다. 朱駿聲은 이에 대해 ‘自飲曰飲, 飲人亦曰飲, 所飲之物即曰飲.(스스로 마시는 것을 ‘飲’이라 하고, 상대에게 마시도록 하는 것도 ‘飲’이며, 마시는 대상도 ‘飲’이다.)’이라고 설명했다. 『漿人』의 ‘掌共王之六飲.(왕의 여섯 가지 음료를 관장한다.)’에서 ‘飲’은 ‘음료’를 뜻하는 것이다. 이 예문들을 통해 ‘飲’은 행동인 ‘마시다’에서 행동의 대상인 ‘음료’로 引伸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시다’와 ‘음료’는 행동과 행동의 대상 간의 관계로,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飲’의 詞義 引伸은 ‘행동’이 ‘행동의 대상’으로 寫像되어 ‘행동이 행동의 대상을 대표한다’ 환유가 성립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飲’의 환유 寫像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05)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98쪽.

<그림 48> ‘飲’의 ‘행동은 행동의 대상을 대표한다’ 환유 寫像



‘飲’의 本義인 ‘마시다’는 ‘飯’과 마찬가지로 ‘입을 통해 음식물을 몸속으로 들여보내는 행동’이다. 그러나 ‘飲’의 대상은 액체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에서 ‘飯’과 차이점이 있다. ‘飲’의 의미자질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飲: 「입」 + 「음료」 + 「몸 속」 + 「들어가다」

위 의미자질에서 중심 의미자질은 ‘들어가다’이고 나머지는 제한 의미자질에 해당한다. 의미자질 분석 관점에서 ‘飲’은 제한 의미자질 ‘음료’가 파생되어 詞義가 引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飲’의 詞義 引伸 과정은 ‘행동 ICM’의 ‘행동은 행동의 대상을 대표한다’ 환유에 해당하며, 이것은 本義의 의미자질 파생에 의한 詞義 引伸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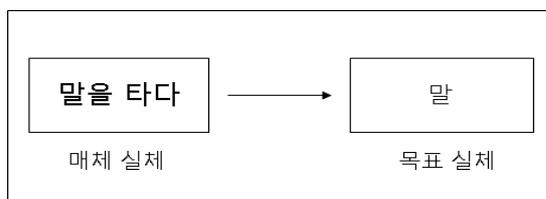
騎<sup>106</sup>): 跨馬也. 从馬奇聲. 按: 『左昭二十五傳』: 左師展將以公乘馬而歸. 『宣十二傳』: 趙旃以其良馬二, 濟其兄與叔父, 是單騎. 『春秋』: 時已有之. 『史記·袁盎傳』: 不騎衡. 『素隱』: 謂跨之. 『楚辭·招魂』: 步騎羅些. 注: 乘馬爲騎. 『釋名·釋姿容』: 騎, 支也. 兩腳枝別也. 【轉注】 『禮記·曲禮』: 前有車騎. 『史記·項羽紀』: 乃上馬騎. 『漢書·高帝紀』: 操兵, 乘騎馬. 注: 單騎也.

『說文』에 따르면 ‘騎’의 本義는 ‘말을 타다’이다. ‘騎’는 本義인 ‘말을 타다’에서 행동의 대상인 ‘말’로 詞義가 引伸된다. 【轉注】에 인용된 『禮記·曲禮』의 문장 ‘前有車騎.(앞에 수레와 말이 있다.)’에서 ‘騎’는 ‘말을 타다’가 아닌 ‘말’을

106)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 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498쪽.

뜻하는 것이다. 환유 관점에서 이것은 의미영역의 부분 개념인 ‘행동’이 또 다른 부분 개념인 ‘행동의 대상’으로 寫像되어 ‘행동’이 ‘행동의 대상을 대표한다’ 환유가 성립되어 詞義가 引伸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騎’의 환유 寫像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9> ‘騎’의 ‘행동은 행동의 대상을 대표한다’ 환유 寫像



‘騎’의 本義인 ‘말을 타다’의 의미자질은 크게 「말」+「타다」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에 중심 의미자질은 ‘타다’이며, ‘말’은 제한 의미자질에 해당한다. ‘騎’는 의미자질 중 제한 의미자질이 파생되어 또 다른 詞義를 갖게 된다.

‘騎’의 詞義 引伸 과정은 ‘행동 ICM’의 ‘행동은 행동의 대상을 대표한다’ 환유에 해당하며, 이것은 本義의 의미자질이 파생되어 詞義가 引伸되는 방식을 알 수 있다.

鏤<sup>107</sup>): 剛鐵. 可以刻鏤. 从金婁聲. 『書·禹貢』: 梁州厥貢璆, 鐵, 銀, 鏤, 磬磬. 【轉注】『爾雅·釋器』: 金謂之鏤. 又鏤, 鏤也. 『詩·韓奕』: 鉤膺鏤錫. 『左·哀元傳』: 器不彤鏤. 『禮記·禮器』: 管仲鏤簋朱紘. 『後漢·西南夷傳』: 樓體. 注: 文身也 字亦作□(金+屮).

『說文』에서 許慎은 ‘鏤’를 ‘剛鐵, 可以刻鏤.(단단한 쇠이다. 새길 수 있는 것이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즉, ‘鏤’의 本義는 ‘쇠’이다. 【轉注】에 인용된 『爾雅·釋器』의 ‘金謂之鏤’는 ‘金爲之鏤, 木爲之刻.(쇠로 새기는 것은鏤이고 나무로 새기는 것은刻이다.)’<sup>108</sup>의 앞 구절인데, 이 문장을 통해 ‘쇠에 새기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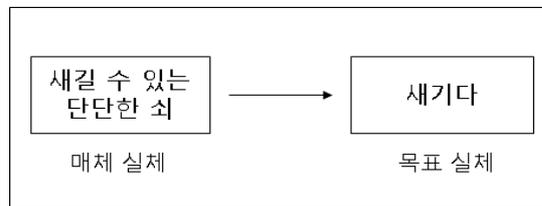
107)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 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354쪽.

108) 齊沖天·齊小平, 『漢語音義字典』, 北京, 中華書局, 2010, 509쪽.

이 ‘鏤’임을 확인할 수 있다. 『左·哀元傳』의 ‘器不彫鏤.(그릇은 붉게 새기지 않는다.)’와 『禮記·禮器』의 ‘管仲鏤篋朱紘.(管仲이 제기를 새기고 두건을 붉게 만듦다.)’에서 ‘鏤’는 모두 ‘새기다’는 의미로 쓰였다. ‘쇠’와 ‘새기다’ 두 詞義는 행동의 대상과 행동의 관계로, 환유 관점에서 ‘행동의 대상’이 ‘행동’으로 寫像되어 ‘행동의 객체가 행동을 대표한다’ 환유가 성립되어 詞義가 引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鏤’의 환유 寫像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0> ‘鏤’의 ‘행동의 대상은 행동을 대표한다’ 환유 寫像



이미자질 관점에서 ‘鏤’는 의미자질 「새기다」+「단단하다」+「쇠」에서 행동을 의미하는 의미자질 「새기다」가 파생되어 詞義가 引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鏤’의 詞義 引伸 과정은 ‘행동 ICM’의 ‘행동의 대상은 행동을 대표한다’ 환유에 해당하며, 이것은 本義의 의미자질이 파생되어 詞義가 引伸되는 방식임을 알 수 있다.

### (3) 행동과 행동의 원인 및 결과의 관계

행동을 하는 것에는 그 원인이 있기 마련이며, 또한 행동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결과가 생기게 된다. 古代 漢語에서는 행동을 의미하는 詞가 행동의 원인이나 결과를 의미하는 詞義로 변화하는 경우가 종종 확인된다. ‘행동 ICM’ 내에서 행동을 나타내는 詞義가 행동의 원인 및 결과로 寫像되어 詞義가 변화하는 경우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

劫<sup>109)</sup>: 人欲去, 以力脅止, 曰劫. 按: 从力, 从去, 會意字. 亦作法. 俗誤作劫作劫. 『禮記·儒行』: 劫之以眾. 注: 脅也. 『秦策』: 已璿欲以齊秦劫魏. 注: 脇也. 『荀子·解蔽』: 故口可劫而使墨雲. 注: 迫也. 『淮南子·精神』: 不可劫以死生. 注: 迫也. 『漢書·高帝紀』: 因以劫眾. 注: 謂威脅之. 『羽獵賦』: 拏靈蠅. 注: 拏也. 『漢書』: 注: 挹, 取也. 『後漢·馬融傳』: 拏封豨. 注: 音劫. 『廣雅·釋言』: 拏, 挹也. 【轉注】『說文』或曰: 以力去曰劫. 『方言·六』: 拏摸, 去也. 拏摸, 猶言持去也. 『荀子·修身』: 劫之以師友. 注: 奪去也. 又『笙賦』: 郁捋劫悟. 注: 劫悟, 氣相衝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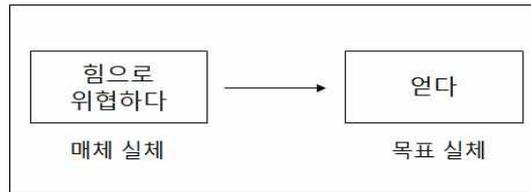
『說文』에 따르면 ‘劫’의 本義는 ‘힘으로 위협하는 것’이다. 朱駿聲은 ‘劫’이 ‘拏’으로도 쓰인다고 보충 설명했다. 위 인용문 따르면 『漢書』에는 ‘挹, 取也’, 『廣雅·釋言』에는 ‘拏, 挹也’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설명에 따르면 ‘拏, 挹, 取’는 모두 ‘얻다’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羽獵賦』의 문장 ‘拏靈蠅.(점을 치기 위한 거북이 껍질을 취하다.)’에서 ‘拏’이 ‘捧’이라고 注를 달았는데, ‘捧’은 두 손으로 받드는 것으로, 이 문장에서 ‘拏’은 ‘취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상대를 위협하는 이유는 그 대상이 어떤 것이건 상관없이 분명 얻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힘으로 위협한 결과 원하는 바를 취하게 되므로 ‘劫’은 그 결과인 ‘얻다’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劫’이 引伸義 ‘얻다’로 쓰인 문장이 【轉注】가 아닌 本義 설명에 인용되었다는 것이다.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劫’이 ‘위협하다’에서 ‘얻다’로 詞義가 변화하는 과정은 ‘행동 ICM’의 ‘행동은 행동의 결과를 대표한다’ 환유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劫’은 매체 실체인 ‘행동’을 통해 목표 실체인 ‘행동의 결과’로 사고의 전환이 발생하면서 의미영역 안에서의 寫像을 통해 詞義의 변화를 일으킨다.

‘劫’의 환유 寫像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09)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153쪽.

<그림 51> ‘劫’의 ‘행동은 행동의 결과를 대표한다’ 환유 寫像



의미자질 관점에서 ‘劫’의 詞義 引伸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劫’의 의미자질을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劫: 「무력」+「위협하다」

위 의미자질에서 중심 의미자질은 ‘위협하다’이며, 제한 의미자질은 ‘무력’이다. ‘劫’은 本義에 드러나는 중심 의미자질과 제한 의미자질 외에 더 많은 관련 의미자질을 갖는다. ‘위협하는 것’은 반드시 위협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다. 그리고 ‘위협’이라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겁을 주는 것이며, 그것이 물리적인 것이든 추상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얻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시 ‘劫’의 의미자질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劫: 「무력」 + 「행동의 대상」 + 「겁주다」 + 「강제」 + 「취하다」 + 「목적(물리적 혹은 추상적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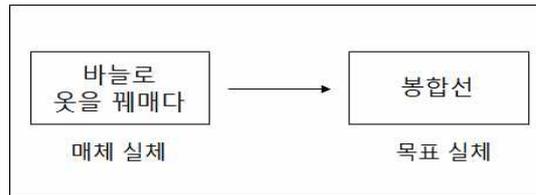
위에서 분석한 의미자질을 통해 ‘劫’이 本義인 ‘무력으로 위협하다’에서 ‘취하다’로 詞義가 변화한 것은 本義의 의미자질 중에서 관련 의미자질인 ‘취하다’가 파생되어 詞義가 引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劫’의 詞義 引伸 과정은 ‘부분-부분’ 환유의 ‘행동 ICM’의 ‘행동은 행동의 결과 대표한다’ 환유에 해당하며, 이것은 本義의 의미자질이 파생되어 詞義가 引伸되는 방식임을 알 수 있다.

縫<sup>110</sup>): 以鍼紩衣也. 从糸逢聲. 『廣雅·釋詁二』: 縫, 合也. 『禮記·玉藻』: 縫齊倍要. 注: 紩也. 【轉注】『爾雅·釋訓』: 紩, 羔裘之縫也. 『詩』: 羔羊之縫. 『正義』: 縫合羔羊皮爲裘. 縫卽皮之界域. 『趙策』: 鰻冠稊縫. 注: 女工之拙. 字亦作鞣. 『字林』: 鞣, 被鞣也.

『說文』에 따르면 ‘縫’의 本義는 ‘바늘로 옷을 꿰매다.’이다. 【轉注】에 인용된 『正義』의 문장 ‘縫合羔羊皮爲裘. 縫卽皮之界域.(양 가죽을 꿰매어 만든 것이裘이다. 縫은 가죽의 경계선이다.)’을 통해 ‘縫’이 가죽과 가죽을 꿰맨 결과 발생한 ‘봉합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縫’은 ‘행동 ICM’ 내에서 ‘바늘로 옷을 꿰매다’가 ‘봉합선’으로 寫像되면서 ‘행동은 결과를 대표한다’ 환유가 성립된다. ‘縫’의 환유 寫像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52> ‘縫’의 ‘행동은 행동의 결과를 대표한다’ 환유 寫像



의미자질 관점에서 ‘縫’의 詞義 引伸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縫’의 의미자질을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縫: 「바늘」 + 「옷」 + 「꿰매다」 + 「봉합선」

위 의미자질에서 중심 의미자질은 ‘꿰매다’이며, 제한 의미자질은 ‘바늘’과 ‘옷’이다. ‘縫’은 本義의 중심 의미자질과 제한 의미자질 외에 결과를 나타내는 관련 의미자질인 ‘봉합선’을 의미자질로 갖는다. ‘縫’의 本義인 ‘바늘로 옷을 꿰매다’에서 ‘봉합선’으로 詞義가 변화한 것은 本義의 의미자질 중에서 관련 의미자질이 파생되어 詞義가 引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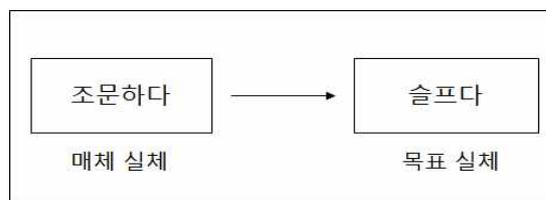
110)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 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57쪽.

즉, ‘縫’의 詞義 引伸 과정은 ‘부분-부분’ 환유 중 ‘행동 ICM’의 ‘행동은 행동의 결과를 대표한다’ 환유에 해당하며, 이것은 本義의 의미자질이 파생되어 詞義가 引伸되는 방식임을 알 수 있다.

弔<sup>111)</sup>: 問終也. 古之葬者. 厚衣之以薪. 从人持弓會馭禽. 按: 會意. 字亦作 𠄎(口+弔). 『夏堪碑』: 官遼臨𠄎(口+弔). 『禮記·曲禮』: 知生者弔, 古弔辭曰, 如何不淑. 【轉注】 『詩·匪風』: 中心弔兮. 傳: 傷也. 『左·僖廿四傳』: 昔周公弔二叔之不咸. 『左·襄十四傳』: 有君不弔. 注: 恤也.

『說文』에 따르면 ‘弔’의 本義는 ‘問終也.(죽음을 묻다.)’로 ‘조문하다’는 의미이다. 【轉注】에 인용된 『詩·匪風』의 문장 ‘中心弔兮.(마음이 슬퍼지네.)’에서 ‘弔’는 ‘슬프다’이다. 『左·襄十四傳』의 ‘有君不弔.(군자가 백성을 가엽게 여기지 않다.)’에서 ‘弔’는 ‘불쌍히 여기다’이다. 이와 같은 詞義는 ‘弔’의 本義인 행동의 결과에 의해 발생하는 감정으로, 의미영역 안에서 本義인 ‘조문하다’가 ‘슬프다’, ‘불쌍히 여기다’로 寫像되면서 ‘행동은 결과를 대표한다’ 환유가 성립하여 詞義가 引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弔’의 환유 寫像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3> ‘弔’의 ‘행동은 행동의 결과를 대표한다’ 환유 寫像



의미자질 관점에서 ‘弔’의 詞義 引伸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弔’의 의미자질을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111)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331쪽.

弔: 「죽음」 + 「묻다」 + 「위로하다」 + 「슬프다」 + 「불쌍히 여기다」

위 의미자질에서 중심 의미자질은 ‘묻다’이며, 제한 의미자질은 ‘죽음’이다. 그리고 나머지 ‘弔’의 행동에 따라 수반되는 감정은 모두 관련 의미자질로 행동에 따른 결과를 나타낸다. ‘弔’가 本義인 ‘죽음을 묻다’에서 ‘슬프다’, ‘불쌍히 여기다’로 詞義가 변화한 것은 本義의 의미자질 중에서 관련 의미자질이 파생되어 詞義가 引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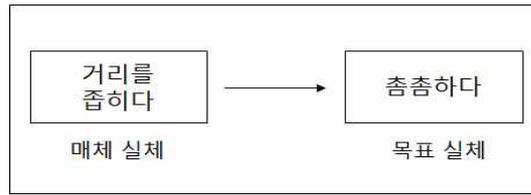
즉, ‘弔’의 詞義 引伸 과정은 ‘부분-부분’ 환유 중 ‘행동 ICM’의 ‘행동은 행동의 결과 대표한다’ 환유에 해당하며, 이것은 本義의 관련 의미자질이 파생되어 詞義가 引伸되는 방식임을 알 수 있다.

厭<sup>112)</sup>: 笮也. 从厂, 厭聲. 按: 迫迮也. 字从厂, 與陘陘同韻. 【轉注】『周禮·巾車』: 厭翟勒面績總. 注: 厭翟, 次其羽使相迫也. 『射雉賦』: 表厭躡以密緻. 注: 厭躡重而密也. 亦疊韻連語.

『說文』에 따르면 ‘厭’의 本義는 ‘좁은 것’이다. 朱駿聲은 ‘厭’을 ‘迫迮也.(사물의 간격을 좁게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轉注】에 인용된 『周禮·巾車』의 문장 ‘厭翟勒面績總’은 ‘수레(厭翟), 말의 얼굴 장식(勒面), 리본(績總: 고대 수레나 말의 장식에 쓰임)’을 가리킨다. 그 중에 ‘厭翟’에 대해 ‘次其羽使相迫也.(깃털의 간격을 좁게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厭翟’는 ‘깃털을 겹쳐 뽁뽁하게 장식한 수레’이다. 사물 간의 간격을 좁게 하면 결국 그 틈이 사라지고 공간이 뽁뽁하고 촘촘하게 된다. 그리고 『射雉賦』에서는 ‘表厭躡以密緻.(겹쳐 뽁뽁하게 만들어 밀집되게 하다.)’라고 했는데, 이 문장에서 ‘厭’은 ‘촘촘하다’는 의미이다. 공간이 좁기 때문에 사물 간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틈이 사라질 정도로 사이가 촘촘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행동 ICM’ 내에서 행동(거리를 좁히다)이 그 결과(촘촘하다)로 寫像되어 詞義가 引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厭’의 환유 寫像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12)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143쪽.

<그림 54> ‘厭’의 ‘행동은 행동의 결과를 대표한다’ 환유 寫像



의미자질 관점에서 ‘厭’은 本義의 의미자질 「공간」+「간격」+「좁게 되다」+「참참하다」에서 결과를 의미하는 관련 의미자질 「참참하다」가 파생되어 詞義가 引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厭’의 詞義 引伸 과정은 ‘행동 ICM’의 ‘행동은 행동의 결과를 대표한다’ 환유에 해당하며, 이것은 本義의 의미자질이 파생되어 詞義가 引伸되는 방식을 알 수 있다.

#### (4) 행동과 장소의 관계

행동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동의 주체, 행동의 대상 외에도 행동이 발생하는 장소가 존재한다. 행동이 발생하는 장소는 그 의미에 따라 특정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 행동이 발생하는 장소가 매우 현저한 특징을 가짐으로써 부각되는 경우도 있다. 이 유형은 행동이 발생하는 장소가 현저하게 두드러짐으로써 ‘행동 ICM’ 내에서 행동이 장소로 寫像되어 詞義가 引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牧<sup>113</sup>): 養牛人也. 从支从牛. 會意. 『詩』: 牧人乃夢. 按: 牧, 養牛也. 『方言·十二』: 牧, 飢也. 『周禮·牧人』: 掌牧六牲. 注: 養牲于野田者. 『左·僖廿八傳』: 誰扞牧圉. 注: 牛曰牧. 『列子·黃帝』: 周宣王之牧正. 『釋文』: 養禽獸之長也. 『詩·駟』: 駟駟牧馬. 毛本作牡. 【轉注】『爾雅·釋地』: 郊外謂之牧. 『周禮·大宰』: 四曰藪牧, 養蕃鳥獸. 注: 在遠郊. 『載師』: 牧田. 司農注: 牧六畜之

113)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231쪽.

田. 『孟子』: 則必爲之求牧與芻矣. 注: 牧, 牧地. 又『周禮·小司徒』: 井牧其田野. 注: 隰皋之地. 九夫爲牧. 司農注: 『春秋傳』: 所謂井衍沃牧隰皋者也. 『遂師』: 經牧其田野. 注: 制田界與井也. 『詩·靜女』: 自牧歸芻. 傳: 田官也. 又『小爾雅·廣言』: 牧, 臨也. 『方言·十二』: 墾, 牧, 司也. 監, 牧, 察也. 『廣雅·釋詁一』: 牧, 使也. 牧, 臣也. 『周禮·大宰』: 而建其牧. 注: 侯伯有功德者, 加命作州長謂之牧. 『大宗伯』: 八命作牧. 『禮記·曲禮』: 九州之長入天子之國, 曰牧. 『書·立政』: 宅乃牧. 鄭注: 殷之州牧曰伯, 虞夏及周皆曰牧. 『白虎通·封公侯』: 唐虞謂之牧者何. 尚質, 使大夫往來牧視諸侯, 故謂之牧. 又『廣雅·釋詁一』: 牧, 養也. 『易·謙』: 卑以自牧也. 鄭注: 養也. 『莊子·天道』: 使天下無失其牧乎. 司馬注: 養也. 『周書·周祝』: 爲天下者用牧. 注: 謂法也. 『荀子·成相』: 請牧基賢者思. 注: 治也. 皆一義之引申.

『說文』에 따르면 ‘牧’의 本義는 ‘소를 기르는 사람’이다. ‘牧’의 갑골문은 ‘𠂔’으로, 왼쪽은 소의 모습이며 오른쪽은 채찍의 형상을 나타낸다. 손에 채찍을 들고 소나 양을 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sup>114)</sup> 『說文』에서 許慎이 ‘牧’을 ‘소를 기르는 사람’이라고 한 것에 반해 갑골문을 분석한 몇몇 서적에서는 ‘牧’의 本義를 ‘소를 기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sup>115)</sup>

朱駿聲은 許慎이 정의에 따라 ‘牧’의 本義를 밝혔지만, 本義를 설명하는데 인용된 『詩』의 ‘牧人乃夢.(목동이 꿈을 꾸다.)’, 『方言·十二』의 ‘牧, 飤也.(牧은 먹이는 것이다.)’, 『周禮·牧人』의 ‘掌牧六牲.(여섯 가축을 관장하고 기르다.)’과 같은 문장에서 ‘牧’이 모두 ‘기르다’로 쓰인 것으로 보아 朱駿聲은 ‘牧’의 本義를 동사인 ‘소를 기르다’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轉注】에 인용된 『爾雅·釋地』의 ‘郊外謂之牧.(교외를 ‘牧’이라 한다.)’에서 ‘牧’은 ‘교외’를 가리키고, 『周禮·大宰』에서 ‘藪牧’은 ‘물이 없는 연못과 목장에 딸린 논밭’으로 注를 통해 ‘교외’를 뜻함을 밝히고 있다. ‘牧’은 ‘행동 ICM’ 내에서 ‘행동’이 ‘행동이 발생하는 장소’로 寫像되어 ‘행동은 장소를 대표한다’ 환유가 성립된다. 그리고 이 결과 詞義 引伸이 발생하여 詞義 變化를 일으킨

114) 馬如森, 『殷墟甲骨文實用字典』, 上海, 上海大學出版社, 2008, 83-84쪽.

115) 손예철, 『簡明甲骨文字典』, 서울, (주)박이정, 2019, 16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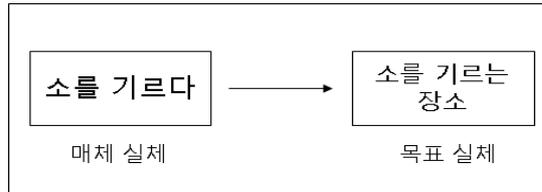
王朝忠, 『漢字形義演繹字典』, 成都, 四川辭書出版社, 2006, 640-641쪽.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北京, 語文出版社, 2008, 643쪽.

다.

‘牧’의 환유 寫像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55> ‘牧’의 ‘행동은 장소를 대표한다’ 환유 寫像



의미자질 관점에서 ‘牧’의 詞義 引伸 과정은 ‘牧’의 詞義 전체가 전이되고, 장소를 의미하는 의미자질이 결합되어 引伸義를 생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행동 ICM’의 ‘행동은 장소를 대표한다’ 환유로, 의미자질의 관점에서 매체 실체에 해당하는 本義가 전이되고 장소를 의미하는 의미자질과의 결합을 통해 詞義가 引伸되는 방식이다.

## 2) 인과성 ICM

詞義 발전 과정에서 인과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詞義 引伸이 다량 존재한다. 행동이나 사건의 의미를 나타내거나 혹은 그로 인한 결과를 나타내려고 할 때, 해당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글자가 없다면, 종종 결과를 발생하게 원인을 연상하게 되고, 조건과 원인을 나타내는 글자를 사용해 결과를 나타내고는 한다. 하나의 사물, 사건, 행동 안에서 원인과 결과가 서로 사유과정의 중심축이 되어 상호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행동 ICM’의 ‘행동과 행동의 원인 및 결과의 관계’ 유형이 행동에 따른 원인과 결과인 것과 달리, ‘인과성 ICM’은 행동이 아닌 사물의 상태나 성질로 인한 원인과 결과에 해당한다.

『說文通訓定聲』의 예자를 통해 인과관계에 근거한 詞義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冰<sup>116</sup>): 水堅也. 从宀, 从水. 按: 宀亦聲. 俗从宀, 从疑, 會意. 按: 疑者止不動也. 『廣雅·釋詁四』: 疑定也. 『爾雅·釋器』: 冰, 脂也. 按: 『禮記·內則』注: 凝者爲脂. 釋者爲膏. 『詩·碩人』: 膚如凝脂. 『考工記』: 凝土以爲器. 注: 堅也. 『禮記·鄉飲酒義』: 天氣嚴凝之氣. 注: 猶成也. 『楚辭·憂苦』: 凝汜濫兮. 注: 止也. 『淮南·兵略』: 典凝如冬. 注: 正也. 『七命』: 霜鏗水凝. 注: 凝冰之絜也. 『素問·五常政大論』: 其候凝肅. 注: 寒也. 【轉注】『易·鼎』: 君子以正位凝命. 鄭注: 成也. 『書·臯謨』: 庶績其凝. 馬注: 定也. 『禮記·中庸』: 至道不凝焉. 注: 猶成也. 『釋文』: 本作疑. 『漢書·薛宣傳』: 嘉氣尚凝. 注: 謂不通也. 『淮南·原道』: 凝結而不流. 注: 如脂凝也. 『七命』: 天凝地閉. 注: 猶結也. 『謝元暉·鼓吹曲』: 凝笳翼高蓋. 注: 徐引聲謂之凝.

『說文』에 따르면 ‘冰’의 本義는 ‘水堅也. 从宀, 从水.(물이 단단해지는 것이다. 宀과 水로 구성되었다.)’이다. 즉, 물이 온도가 낮아지면서 응결된 것을 가리킨다. 朱駿聲은 ‘冰’의 글자 구성에 대해 ‘宀亦聲.(宀은 表音의 기능도 갖는다.)’이라고 설명했는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冰’은 會意字 중에 兼聲會意字<sup>117</sup>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俗从宀, 从疑, 會意. 疑者止不動也.(俗字는 宀와 疑로 구성되었다. 會意字이다. ‘疑’은 멈추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는데, ‘疑’가 멈춰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미임을 밝혀 ‘冰’의 성질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글자가 구성된 것임을 나타냈다. ‘疑’는 ‘冰’의 이체자이다. ‘冰’은 本義인 ‘물이 단단해지다’에서 ‘춥다’로 詞義가 변화한다. 『素問·五常政大論』의 ‘其候凝肅.(날이 춥고 고요하다.)’에서 ‘凝’은 ‘춥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冰’이 引伸義로 쓰인 문장이 【轉注】가 아닌 本義 설명에 인용되었다는 것이다.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冰’의 詞義 引伸 과정은 ‘인과성 ICM’의 ‘결과는 원인을 대표한다’ 환유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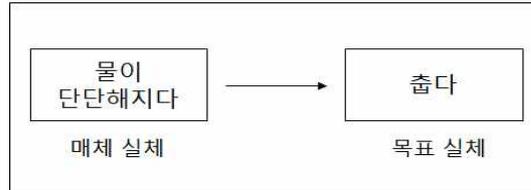
‘冰’은 매체 실체 ‘결과’를 통해 목표 실체인 ‘원인’으로 사고의 전환이 발생하면서 의미영역 안에서의 寫像을 통해 詞義의 변화를 일으킨다.

116)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76쪽.

117) 둘 또는 그 이상의 독립 문자가 서로 결합하여 일정한 뜻을 나타냄과 동시에 그 중의 한 글자가 해당 會意字의 聲韻을 겸한 것을 兼聲會意라고 한다. 『說文』의 자형 해설 가운데 ‘从XY, (X)Y亦聲’ 또는 ‘从X, 从Y, (X)Y亦聲’과 같이 분석한 한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돈주, 『漢字學總論』, 서울, 박영사, 2012, 289쪽.

‘氷’의 환유 寫像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6> ‘氷’의 ‘결과는 원인을 대표한다’ 환유 寫像



의미자질 관점에서 ‘氷’의 詞義 引伸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氷’의 의미자질을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氷: 「물」 + 「저온」 + 「응결」

중심 의미자질은 ‘응결’이고 제한 의미자질은 ‘물’이다. 그리고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은 ‘저온’으로 이것은 관련 의미자질에 해당한다. ‘氷’이 本義 ‘물이 단단해지다’에서 ‘출다’로 詞義가 변화한 것은 本義의 의미자질 중에서 관련 의미자질이 파생되어 詞義가 引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晦<sup>118)</sup>: 月盡也. 从日, 每聲. 『爾雅·釋言』: 晦, 冥也. 『論衡·四諱』: 三十日日月合宿謂之晦. 『左·成十七傳』: 陳不違晦. 注: 晦, 月終. 陰之盡. 『穆天子傳』: 一, 賜語晦. 注: 月終爲晦. 『莊子·逍遙遊』: 朝菌不知晦朔. 【轉注】『易·象上傳』: 君子以嚮晦入冥息. 鄭注: 宴也. 翟元注: 冥也. 『魯語』: 晦而休. 注: 冥也. 『左·昭元傳』: 晦, 淫惑疾. 注: 夜也. 『詩』: 風雨如晦. 傳: 昏也. 又『爾雅·釋天』: 霧謂之晦. 『公羊僖十五年』: 己丑晦. 『成十六年』: 甲午晦. 傳: 晦者何, 冥也. 『漢書·高帝紀』: 是時雷電晦冥. 注: 晦冥皆謂暗也. 『太元元錯』: 晦也晷. 又『詩酌』: 遵養時晦. 傳: 昧也. 『左·成十四傳』: 志而晦. 注: 亦微也. 『荀子賦』: 闇乎天下之晦盲也. 注: 晦盲言人莫之識也. 『楚辭靈懷』: 羣阿容以晦光兮. 注: 冥也. 又『江淹詩』: 寂歷百草晦. 注: 凡草木華實榮茂謂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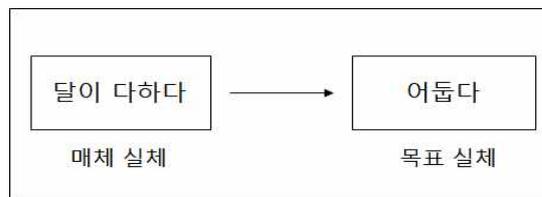
118)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208쪽.

明, 枝葉彫傷謂之晦.

『說文』에 따르면 ‘晦’의 本義는 ‘달이 다하다’이다. 달은 일정한 주기로 변화한다. 가장 큰 보름달에서 달의 형태가 가작 작은 초승달과 그믐달까지 달은 계속해서 변화한다. ‘晦’는 달의 주기 중에 ‘그믐 달’에 해당하며 달의 모습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다. 달의 형태가 작아져 빛이 함께 줄어들면서 하늘은 매우 어두워진다. ‘晦’는 本義인 ‘달이 다하다’에서 ‘어둡다’로 詞義가 변화한다. ‘晦’가 引伸義로 쓰인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轉注】에 인용된 『易·象上傳』의 ‘君子以嚮晦入冥息.(군자는 어두워지면 들어가서 휴식을 취한다.)’, 『魯語』의 ‘晦而休.(어두워지면 휴식을 취한다.)’, 『詩』의 ‘風雨如晦.(비바람이 불어 뿌영고 어둡다.)’, 『漢書·高帝紀』의 ‘是時雷電晦冥.(이 때 천둥과 번개가 쳐서 어두워졌다.)’에서 ‘晦’는 모두 ‘어둡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晦’는 의미영역 내에서 本義인 ‘달이 다하다’가 ‘어둡다’로 寫像되면서 ‘원인은 결과를 대표한다’ 환유가 성립된다.

이것은 ‘부분-부분’ 환유의 ‘인과성 ICM’의 ‘원인은 결과를 대표한다’ 환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晦’의 환유 寫像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7> ‘晦’의 ‘원인은 결과를 대표한다’ 환유 寫像



의미자질 관점에서 ‘晦’의 詞義 引伸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晦’의 의미자질을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晦: 「달」 + 「다하다」 + 「어둡다」

위 의미자질에서 중심 의미자질은 ‘다하다’이며, 제한 의미자질은 ‘달’이다. 그리고 상태의 변화에 따른 결과를 나타내는 ‘어둡다’는 관련 의미자질에 해당한다. ‘晦’가 本義인 ‘달이 다하다’에서 ‘어둡다’로 詞義가 변화한 것은 本義의 의미자질 중에서 결과를 나타내는 관련 의미자질이 파생되어 詞義가 引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IV. 『說文通訓定聲』의 은유를 통한 引伸 유형 분류

인지언어학에서 은유는 개념적 은유를 일컫는다. 개념적 은유란 ‘A는 B’이다 와 같은 공식을 이용해 구체적인 개념인 근원영역을 통해 추상적인 개념인 목표영역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개념적 은유는 관습성, 인지적 기능, 본질, 일반성의 층위를 기준으로 그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sup>119)</sup> 본고에서는 은유를 인지적 기능에 따른 구조적 은유, 존재론적 은유, 방향 은유와 본질에 따른 영상 은유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서술하겠다. 여기서 인지적 기능이란 목표영역에 대한 개념적 구조의 충실성 정도를 말한다.<sup>120)</sup> 이것은 근원영역의 개념들이 얼마나 많이 목표영역에 대응하는지에 대한 척도를 의미한다.

인지적 기능에 따른 개념적 은유의 유형은 목표영역의 성질에 따라 구조적 은유, 존재론적 은유, 방향 은유 세 가지로 구분된다.

구조적 은유의 기능은 언어 사용자로 하여금 목표영역 개념을 근원영역 개념의 구조를 통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조 은유의 근원영역은 목표영역 개념에 상당히 풍부한 지식 구조와 이해를 제공한다.<sup>121)</sup>

구조적 은유에서는 근원영역이 목표영역에 풍부한 지식 구조를 제공하는데, 구조적 은유의 인지 기능은 화자에게 근원영역을 통해 목표영역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추상적인 개념영역인 목표영역의 이해를 돕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해는 근원영역의 구성 요소와 목표영역의 구성 요소 간의 개념적 寫像을 통해 발생한다. 앞서 살펴본 ‘감정은 음식이다’, ‘우정은 식물의 싹이다’가 모두 구조적 은유에 속한다.

존재론적 은유는 구조적 은유보다 목표영역을 인지적으로 훨씬 덜 구조화한다. 존재론적 은유의 인지적 기능은 단순히 추상적인 목표영역에 존재론적 위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존재론적 은유는 윤곽이 없는 곳에 뚜렷한 윤곽이

119) Zoltan Kovecses, 임지룡·김동환 옮김, 『언어·마음·문화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서울, 역락, 2010, 216쪽.

120) 임지룡,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서울, 한국문화사, 2008, 170쪽.

121) 윤영은, 『언어의 의미 및 화용 이론과 실제-형식 의미론적 관점과 인지 의미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문화사, 2013, 283쪽.

있는 구조를 보도록 해준다.<sup>122)</sup>

즉, 목표영역에 그릇, 사람, 실체 등 존재론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존재론적 은유는 명확하게 묘사할 수 없거나 모호한 추상적인 경험을 이해하는데 매우 적합한 방식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유의 한 방법인 ‘의인화’ 역시 존재론적 은유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삶이 우리를 속였다’라는 표현에서 추상적인 개념인 ‘삶’에 ‘사람’의 지위를 부여했음을 알 수 있다.<sup>123)</sup>

또한 ‘사랑이 넘치다’, ‘사랑에 빠지다’, ‘호의가 넘치다’와 같이 ‘마음’을 개념화하기 위해서 ‘마음’에 ‘그릇 속의 액체’의 지위를 부여하여 ‘마음’의 구조를 구축하는 것도 존재론적 은유에 해당한다. 존재론적 은유에서 목표영역은 시간, 감정, 이론, 언어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경험인 것에 해당한다.

방향 은유는 공간의 방향과 관련된 것으로, ‘위-아래’, ‘오른쪽-왼쪽’, ‘앞-뒤’ 등 상호 관계를 바탕으로 전체적 개념구조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아래 문장을 살펴보자.

a-1. 우리는 앞 세대 분들의 글에서 누적된 경험을 존중해야 한다.

a-2. 그 뒤에 올 사태에 대한 대비책.

a-1에서 ‘앞’은 과거를 가리킨다. 그리고 a-2에서 ‘뒤’는 미래를 가리킨다. 즉, 상반된 개념 ‘앞-뒤’가 본래의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은유적 표현에서도 서로 상반된 의미를 갖으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며 의미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기가 올라가다-사기가 내려가다’, ‘고품질-저품질’, ‘상류사회-하류사회’, ‘고소득-저소득’과 같은 표현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 ‘위-아래’ 방향과 관련해서 ‘위’로 표현되는 것 중에는 긍정적인 표현이 주를 이루는 반면 ‘아래’로 표현되는 것은 부정적인 표현이 주를 이룬다.

마지막으로 영상 은유란 영상이 훨씬 더 풍부한 영상 토대적 은유를 말한

122) 김동환, 『인지언어학과 개념적 혼성 이론』, 서울, 박이정, 2013, 165쪽.

123) 임지룡, 『인지의미론』, 서울, 한국문화사, 2017, 183쪽.

다.<sup>124)</sup>

즉, 주로 시각적 자극을 통해 두 대상의 유사성을 인지하고 은유적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경우 두 사물의 외형이 닮음을 근거로 詞義가 확장된다. 영상 은유는 가장 일차원적인 은유라고도 할 수 있다. 古代 漢語 詞義 引伸 에는 영상 은유를 통해 詞義가 변화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 1. 구조적 은유

구조적 은유는 두 개의 개념적 영역, 즉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에서 유사성을 근거로 각 영역을 구성하는 개념 간의 寫像을 통해 구조를 구축해나가는 과정이다. 의미자질 분석 관점에서 구조적 은유는 本義의 의미자질 중 하나가 전이되어 引伸義의 의미자질로 작용하고, 本義의 의미자질 중 대상, 장소, 행동, 상태, 목적, 원인, 결과 등을 나타내는 의미자질들이 차례로 변화하면서 本義와 引伸義 간에 대응하는 구조를 이루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최초로 本義에서 전이된 의미자질은 本義와 引伸義가 공유하는 공통 의미자질로, 은유 寫像 발생의 근거인 유사성에 해당한다.

『說文通訓定聲』의 예자를 통해 구조적 은유를 통한 詞義 引伸 과정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泉<sup>125)</sup>: 水原也. 象水流出成川形. 字亦作淙. 『爾雅·釋水』: 濫泉正出. 沃泉縣出. 汎泉穴出. 『詩·召旻』: 泉之竭矣. 傳: 泉水从中以益者也. 『竹竿』: 泉源在左. 傳: 泉源小水之源. 『楚辭』: 守志食時至今增泉. 注: 增泉天漢也. 『孫叔敖碑』: 波障源淙. 俗字作淙. 【轉注】『周禮·泉府』疏: 錢與泉今古異名. 『顏氏家訓』: 漢書以貨泉爲白水真人. 『周禮·外府』注: 貨泉徑一寸, 重五銖. 右文曰貨, 左文曰泉, 直一也. 大泉徑一寸二分. 重十二銖. 文曰大泉, 直十五貨泉. 又其藏曰泉, 其行曰泉, 取名于水泉, 其流行無不偏也.

124) 김동환, 『인지언어학과 개념적 혼성 이론』, 서울, 박이정, 2013, 169쪽.

125)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77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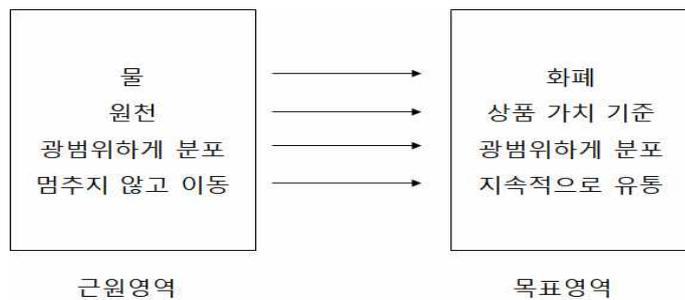
『說文』에 따르면 ‘泉’의 本義는 ‘샘물’이다. 【轉注】에 인용된 『周禮·外府』의 ‘貨泉徑一寸，重五銖。右文曰貨，左文曰泉。(貨와 泉은 지름이 1寸이고 무게가 5銖이며, 오른쪽에 무늬가 있는 것이 貨이고 왼쪽에 무늬가 있는 것이 泉이다.)’에서 ‘泉’은 ‘화폐’를 의미한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其流行無不偏也。(편중되지 않고 흐른다.)’라고 설명을 덧붙여 本義인 ‘샘물’과 引伸義인 ‘화폐’의 유사한 속성을 설명했다.

샘물과 화폐는 모두 그 분포 범위가 넓고, 그 흐름이 치우치지 않으며, 보편적으로 두루 통용된다는 유사성이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을 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廣雅·釋詁四』에서 ‘資，川。(재물은 내천이다.)’이라고 했으며, ‘돈의 흐름’, ‘돈을 물 쓰듯 하다’, ‘돈을 뿌리다’, ‘돈이 새다’와 같은 한국어 표현과, ‘throw your money’, ‘money is leaking’, ‘current money’와 같은 영어 표현 모두 돈을 물(혹은 액체)에 빗대어 표현한 것들이다.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泉’이 ‘샘물’에서 ‘화폐’로 詞義가 변화한 것은 아래 개념적 은유 寫像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그림 58> 개념적 은유 ‘화폐는 샘물이다’ 寫像



‘샘물’과 ‘화폐’는 두 詞義의 특징 중 ‘광범위한 분포 범위’라는 유사성에 근거하여 근원영역의 ‘물’이 ‘화폐’로, ‘원천’이 ‘상품 가치 기준’으로, ‘멈추지 않고 이동’이 ‘지속적으로 유통’으로 寫像되어 대응하는 구조를 이루게 된다. 이와 같이 개념적 은유 ‘화폐는 샘물이다’의 寫像을 통해 개념의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두 詞義 引伸 관계를 의미자질 분석 관점에서 본다면 ‘샘물’의 의미자질 중 제한 의미자질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분포 범위’가 전이되고, 특징의 대상인 중심 의미자질 ‘샘물’이 ‘화폐’로 변화하고, ‘멈추지 않고 이동’이 ‘지속적인 유통’으로 변화하면서 詞義가 변화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度<sup>126)</sup>: 法制也. 从又, 庶省聲. 按: 五度分寸尺丈引也. 度起于人手取法, 故从又. 凡八寸曰咫. 七尺曰仞. 八尺曰尋皆同. 惟倍尋曰常. 常長也. 十丈曰引, 引, 引也, 亦長也. 言度數最長也. 『虞書』: 同律度量衡. 『孟子』: 度然後知長短. 按: 古以一黍之廣爲一分橫彙十黍得古尺一丈, 今以一黍之縱爲一分直彙十黍得今尺一寸. 今尺八寸一分, 當古尺十寸也. 又『宗動天』: 一日一周三百六十五度四分度之一. 日月隨天左旋日每日右旋一度. 月每日右旋十三度有奇. 又『禮記·樂記』: 百度得數而有常. 注: 百度, 百刻也. 又『周禮·司市』: 執鞭度守門. 注: 爲笏也. 因刻丈尺耳. 『廣雅·釋器』: 度杖也. 『方言·五』: 僉宋魏之間謂之攝笏. 或謂之度. 注: 今江東呼打爲度音量度也. 【轉注】『說文』: 度, 法制也. 『書·盤庚』: 度乃口. 『呂刑』: 度作刑以詰四方. 馬注: 法度也. 『詩』: 禮儀卒度. 傳: 法度也. 『周禮·大司徒』: 九曰以度教節. 注: 謂宮室車服之制. 『左·昭四』傳: 度, 不可改. 注: 法也. 『襄廿五傳』: 度, 山林. 賈注: 九夫爲度. 『禮記·緇衣』: 往省括于度則釋. 注: 度謂可擬射也. 又『王制』: 度, 地居民. 『釋文』: 量也. 『少儀』: 不度民械. 『釋文』: 計也. 又『賈子·道術』: 以人自觀謂之度. 『左·襄四傳』: 咨禮爲度. 『昭廿八傳』: 心能制義曰度. 『書·呂刑』: 何度非及. 『詩·皇矣』: 爰究爰度. 『爾雅·釋詁』: 度, 謀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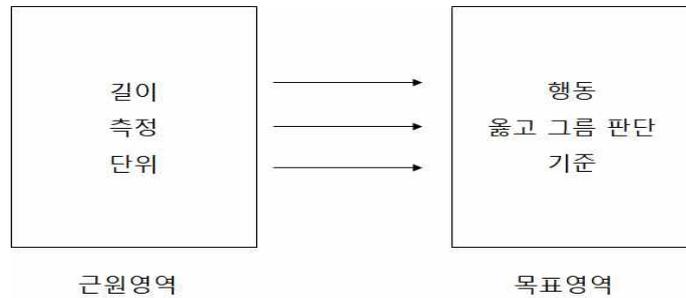
‘度’의 本義는 ‘길이를 측정하는 단위’로 길이의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기 위한 기준이다. 【轉注】에 인용된 『呂刑』의 ‘度作刑以詰四方.(도로 형법을 삼아 사방에 알린다.)’에서 ‘길이의 측정 단위’가 ‘형법’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두 詞義 간에 공통된 특징이나 유사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左·昭四』의 ‘度, 不可改.(도는 바뀔 수 없다.)’를 통해 ‘度’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이것은 ‘度’와 ‘형법’이 모두 판단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의 기준은 쉽게 변하지

126)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448쪽.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리적 실체를 측정하는 단위가 추상적인 대상의 판단 기준으로 의미가 확장된 것이다.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度’가 ‘길이 측정 단위’에서 ‘형법’으로 詞義가 변화한 것은 다음 개념적 은유 寫像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그림 59> 개념적 은유 ‘형법은 기준이다’ 寫像



‘길이 측정 단위’와 ‘형법’은 두 의미영역을 구성하는 개념 중 ‘기준’이라는 유사성을 근거로 근원영역의 ‘길이’가 ‘행동’으로, ‘측정’이 ‘옳고 그름 판단’으로 寫像되어 대응하는 구조를 이루게 된다. 이와 같이 개념적 은유 ‘형법은 기준이다’ 寫像을 통해 개념의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두 詞義 引伸 관계를 의미자질 분석 관점에서 본다면 ‘길이 측정 단위’의 의미자질 중 중심 의미자질에 해당하는 ‘기준’이 전이되고, ‘기준’의 대상이자 제한 의미자질에 해당하는 ‘길이’가 ‘행동’으로, ‘측정’이 ‘옳고 그름 판단’으로 변화하면서 詞義가 변화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館<sup>127)</sup>: 客舍也, 从食官聲. 『周禮·遺人』: 五十裏有市, 市有候館. 候館有積. 『詩·緇衣』: 適子之館兮. 『詩·公劉』: 于豳斯館. 『左隱十一』傳: 館于寫氏. 『僖·廿八』傳: 晉師三日館穀年. 『莊元傳』: 築王姬之館于外. 『禮記·曾子問』: 公館復. 注: 若今縣官舍也. 【轉注】『周覆·司巫』: 及菑館. 注: 館所以承菑, 若今筐也. 館神所館止也. 又『文選·典引』: 啟恭館之金滕. 注: 恭館, 宗廟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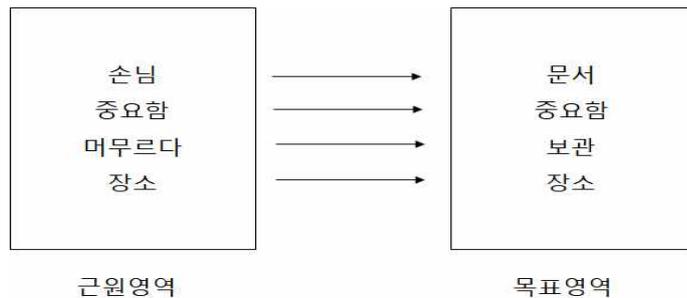
127)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743쪽.

滕之所在. 又『今寺觀字』: 唐始定以觀爲之本字. 即館也.

『說文』에 따르면 ‘館’의 本義는 ‘객사’이다. 객사는 손님이 머무르는 곳이다. 【轉注】에서는 『周禮·司巫』의 문장 ‘及蒞館(제사를 지낼 때 돛자리를 담은 광주리)’에서 ‘館’을 ‘館所以承蒞, 若今筐也. 館神所館止也.(돛자리를 넣는 것으로, 지금의 광주리와 같은 것이다. 귀신이 머무는 곳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설명을 통해 ‘館’을 ‘제사를 지낼 때 조상의 영혼이 잠시 머무르고 가는 곳’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文選·典引』의 문장 ‘啓恭館之金滕.(恭館의 서적과 문서를 열다.)’의 ‘恭館’은 ‘중요한 문서와 책이 있는 곳’으로 이 문장에서 ‘館’은 ‘문서를 보관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館’이 本義인 ‘객사’에서 ‘귀신이 머무르는 곳’, ‘문서를 보관하는 곳’으로 詞義가 변화한 것은 다음 개념적 은유 寫像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그림 60> 개념적 은유 ‘문서는 손님이다’ 寫像



‘객사’와 ‘문서 보관 장소’는 모두 ‘중요한 대상’을 취한다는 유사성이 존재한다. 이 특징에 근거하여 근원영역의 ‘손님’이 ‘문서’로, ‘머무르다’가 ‘보관하다’로 寫像되어 대응하는 구조를 이루게 된다. 이와 같이 개념적 은유 ‘문서는 손님이다’의 寫像을 통해 개념의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두 詞義 引伸 관계를 의미자질 분석 관점에서 본다면 ‘객사’의 의미자질 중 중심 의미자질에 해당하는 ‘장소’와 관련 의미자질에 해당하는 ‘중요함’이 전

이 되고, 그 대상을 나타내는 제한 의미자질인 ‘손님’이 ‘문서’로, ‘머무르다’가 ‘보관하다’로 변화하면서 詞義가 변화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牢<sup>128)</sup>: 閑, 養牛馬圈也. 从牛, 冬省. 取其四周巾也. 按: 外象匊巾堅固形. 一以閑之. 古文終象絲束. 牢象閑. 皆象形指事. 非冬省也. 又按: 牛羊豕之閑曰牢, 馬曰廄曰~~廄~~(木+厂안에 林과 心). 『周禮·充人』: 祀五帝則繫于牢. 『詩』: 執豕于牢. 『列子·仲尼』: 長幼群聚, 而爲牢藉. 『莊子·達生』: 元端以臨牢筴. 又養牲所曰, 故牲即曰牢. 『周禮·大行人』: 禮九牢. 注: 三牲備爲一牢. 『呂覽·仲夏』: 以太牢祀于高禴. 注: 三牲具曰太牢. 『儀禮·目錄』: 羊豕曰小牢. 『晉語』: 子爲我具特羊之饗. 注: 凡牲一爲特, 二爲牢. 【轉注】『釋名』: 獄. 又謂之牢. 言所在堅牢也. 又『廣雅·釋詁一』: 牢, ~~牢~~也. 『漢書·師丹傳』: 曾不能牢讓爵位. 注: 堅也.

『說文』에 따르면 ‘牢’의 本義는 ‘소와 말을 기르는 우리’로 ‘외양간’을 가리킨다. 許愼은 ‘牢’의 글자 구성에 대해 ‘從牛, 冬省’이라고 설명했다. 이 구성은 ‘牢’의 小篆體를 통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림 61> 牢(좌)와 冬(우)의 小篆體



楷書體인 ‘牢’를 통해서는 許愼이 설명한 ‘從牛, 冬省’을 이해하기 힘들지만, 小篆體를 통해서 許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위 그림에서 ‘牢’의 小篆體는 ‘冬’의 小篆體에서 그 바깥부분을 취하고 있으며, 내부가 생략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許愼의 분석에 의하면 ‘牢’의 造字 방식은 省體會意字<sup>129)</sup>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128)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 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285쪽.

129) 두 개의 독립된 한자를 합하되 그 중 한 글자의 자획을 감생하여 만든 會意字를 省體會意字라고 한다. 『說文』에서 ‘从X Y省’, 또는 ‘从X 从Y省’으로 자형을 해설한 예가 대개 여기에 해당된다. 이돈주, 『漢字學總論』

그러나 朱駿聲은 ‘牢’의 글자 분석과 관련해 許慎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朱駿聲은 ‘牢’의 글자 구성에 대해 ‘外象廂而堅固形. 一以閑之. 古文終象絲束. 牢象閑. 皆象形指事. 非冬省也.’(외부는 울타리가 견고한 형태를 본뜬 것이고, ‘一’로 난간을 나타낸 것이다. 古文的 終은 실을 묶은 모습이다. 그러나 牢는 우리의 모습이다. 각각 象形字와 指事字자이다. ‘冬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것은 ‘牢’의 글자 구성 중 ‘宀’에 대한 설명으로, ‘外象廂而堅固形. 一以閑之.’라고 한 것은 ‘宀’이 ‘冬’의 小篆體의 외부를 취한 것이 아니고 울타리의 모습을 취하고 가로획을 그려 난간을 표시한 것으로 象形字임을 밝힌 것이다.

또한 ‘古文終象絲束. 牢象閑.’와 관련해서 ‘終’이 ‘실을 묶은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說文』에 따르면 ‘宀’은 ‘終’의 고문이다. 즉, 이 문장은 宀이 ‘冬’의 小篆體의 외부를 취한 것이 아니고, 본래 하나의 완전한 글자로 指事字임을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朱駿聲은 위 두 가지 경우에 대해 설명하면서 ‘牢’의 글자 구성이 ‘冬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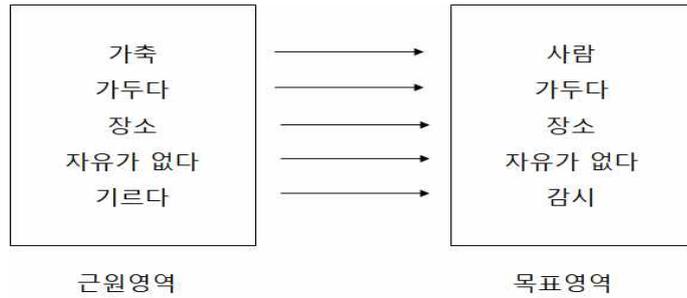
글자 구성 방식 외에도 許慎이 ‘牢’를 ‘養牛馬圈也.(소나 말을 기르는 우리이다.)’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 朱駿聲은 ‘牛羊豕之閑曰牢, 馬曰廐曰廄(소, 양, 돼지의 우리는 牢이고, 말의 우리는 廐 혹은 廄이다.)’라고 정정했다.

‘牢’는 本義인 ‘가축의 우리’에서 ‘감옥’으로 詞義가 변화되었다. 【轉注】에 인용된 『釋名』에서 ‘獄. 又謂之牢. 言所在堅牢也.(감옥이다. ‘牢’라고도 한다. 견고한 우리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牢’가 ‘우리’에서 ‘감옥’로 詞義가 변화한 것은 다음 개념적 은유 寫像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 서울, 박영사, 2012, 285-286쪽.

<그림 62> 개념적 은유 ‘감옥은 외양간이다’ 寫像



‘외양간’과 ‘감옥’은 두 개념의 의미영역에서 ‘가두다’와 ‘자유가 없다’는 특징이 유사성으로 작용하여 은유 寫像이 성립하게 된다. 근원영역의 ‘가축’이 ‘사람’으로, ‘기르다’가 ‘감시하다’로 寫像되어 대응하는 구조를 이루게 된다. 이와 같이 개념적 은유 ‘감옥은 외양간이다’의 寫像을 통해 개념의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두 詞義 引伸 관계를 의미자질 분석 관점에서 본다면 ‘외양간’의 의미자질 중 제한 의미자질에 해당하는 ‘가두다’가 전이되고, 대상을 나타내는 제한 의미자질인 ‘가축’이 ‘사람’으로 변화하고, 목적에 해당하는 제한 의미자질인 ‘기르다’가 ‘감시하다’로 변화하여 詞義가 변화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題<sup>130)</sup>: 額也. 从頁是聲. 『爾雅·釋言』: 頤, 題也. 『小爾雅·廣服』: 題, 定也. 『禮記·王制』: 雕題交趾. 『漢書·司馬相如傳』: 赤首圓題. 『揚雄傳』: 徒角搶題. 『太元』: 視粉其題頰. 又『北山經』: 石首之山有獸焉, 文題白身, 名曰孟極. 『莊子·馬蹄』: 齊之以月題. 崔注: 馬額上當顛如月形者也. 【轉注】『詩·清人·箋』: 喬矛矜近上及室題. 『釋文』: 頭也. 『淮南·本經』: 橈簷椳題. 注: 頭也. 『漢書·楊雄傳』: 璿題玉英. 注: 頭也. 又在上居前者皆得稱題. 『左·襄十傳』: 舞, 師題以旌夏. 注: 識也. 『詩·商頌』疏: 題, 名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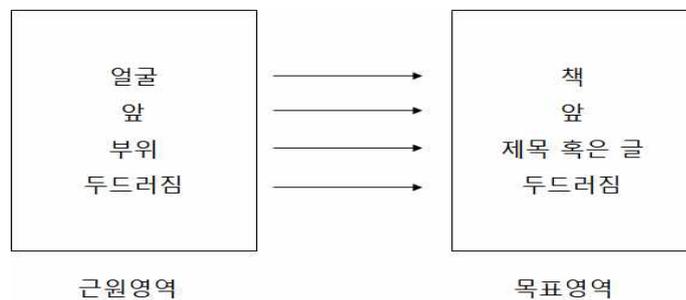
‘題’의 本義는 이마이다. 이마는 얼굴의 가장 위에 위치하는 신체 부위로, 신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위이기도 하다. ‘題’는 引伸되어 ‘책의 제목’, ‘책

130)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522쪽.

의 머리말'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轉注】에 인용된 『詩·商頌』에서 '題, 名也.'라고 했는데, '題'는 '제목'을 뜻한다. 책의 제목은 책을 한 마디 혹은 한 줄로 상징하는 것으로, 독자가 책의 제목을 통해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고, 책의 제목을 통해 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지어야 한다. 머리말은 내용이나 목적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적은 글이다. 두 가지 모두 책의 내용을 함축하여 드러낸다는 유사성이 있다.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題'가 '이마'에서 '제목', '머리말'로 詞義가 변화한 것은 다음 개념적 은유 寫像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그림 63> 개념적 은유 '제목은 이마이다' 寫像



'이마'와 '제목'은 두 개념의 특징 중 '앞에 위치함'과 '두드러짐'이라는 유사성에 근거하여 개념적 은유 寫像이 성립된다. '이마'는 신체 부위 중에 밖으로 가장 두드러지고 시선이 가장 먼저 가는 곳이며, '제목'은 책의 겉표지에 표기되는 것으로 책의 내용을 함축하여 드러내는 것이다. 이 두 개념은 근원영역의 '얼굴'이 '책'으로, '부위'가 '제목'으로 寫像되어 대응하는 구조를 이루게 된다. 이와 같이 개념적 은유 '제목은 이마이다' 寫像을 통해 개념의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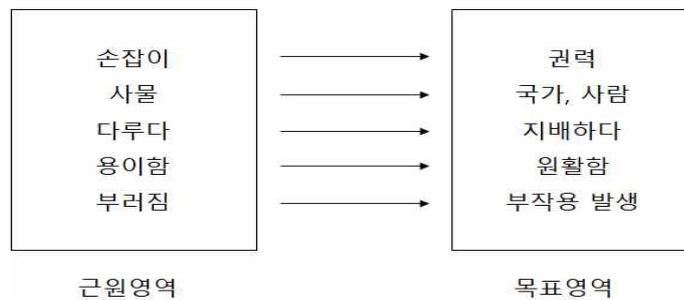
두 詞義 引伸 관계를 의미자질 분석 관점에서 본다면 '이마'의 제한 의미자질인 '앞'과 관련 의미자질인 '두드러짐'이 전이되고, 그 대상에 해당하는 제한 의미자질인 '얼굴'이 '책'으로 변화하고, 중심의미자질인 '부위'가 '제목'으로 변화하면서 詞義가 변화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柄<sup>131</sup>): 柯也. 从木丙聲. 或从秉聲. 『儀禮·少牢禮』: 覆之南柄. 『大射儀』: 有柄. 『士冠禮』: 面枋. 『士昏禮』: 南枋. 以枋爲之. 【轉注】『周語』: 辰在斗柄. 注: 斗前也. 『易·繫辭』: 德之柄也. 虞注: 本也. 『說卦』: 坤爲柄. 『周禮·大宰』: 以八柄詔王馭羣臣. 注: 所秉執以起事者也. 『莊子·天道』: 天下奮楨. 司馬注: 威權也. 『管子·山權數』: 此謂君楨.

『說文』에서 許慎은 ‘柄’을 ‘柯也. 从木丙聲. 或从秉.’(자루이다. 木과 丙으로 구성되었다. 丙이 秉으로 구성되기도 한다.)’이라고 풀이했다. 許慎에 따르면 ‘柄’의 本義는 ‘자루’로 ‘손잡이’를 의미하며, 柄 혹은 楨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손잡이’는 연장이나 기구의 끝에 달린 것으로 손으로 연장을 용이하게 다루기 위해 달려 있는 것이다. 【轉注】에 인용된 『周禮·大宰』의 ‘以八柄詔王馭羣臣.(八柄으로 신하를 다루다.)’에서 ‘柄’은 ‘손잡이’가 아닌 ‘권력’을 의미한다. 『莊子·天道』의 ‘天下奮楨.(천하에 권세를 떨치다.)’, 『管子·山權數』의 ‘此謂君楨.(임금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말한다.)’에서 ‘柄’은 ‘권세’와 ‘권력을 장악함’을 가리킨다.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柄’이 ‘손잡이’에서 ‘권력’으로 詞義가 변화한 것은 다음 개념적 은유의 寫像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그림 64> 개념적 은유 ‘권력은 손잡이다’ 寫像



‘손잡이’와 ‘권력’은 ‘용이함’이라는 유사성에 근거하여 은유 寫像이 성립된

131)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 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933쪽.

다. ‘손잡이’는 사물을 다루기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권력’은 국가를 지배하기 위한 강제력으로 권력을 가지면 지배에 용이하다. 또한 사물의 손잡이는 힘을 너무 강하게 주었을 때 부러질 수 있으며, 권력은 남용했을 때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개념의 특성들을 근거로 근원 영역의 ‘손잡이’가 ‘권력’으로, ‘사물’이 ‘국가’ 혹은 ‘사람’으로, ‘다루다’가 ‘지배하다’로, ‘부러짐’이 ‘부작용 발생’으로 寫像되어 대응함으로써 은유의 구조를 구축한다. 이와 같이 개념적 은유 ‘권력은 손잡이다’의 寫像을 통해 개념의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두 詞義 引伸 關係를 의미자질 분석 관점에서 본다면 ‘손잡이’의 의미자질 중 관련 의미자질 ‘용이함’이 전이되고, 대상을 나타내는 중심 의미자질 ‘손잡이’가 ‘권력’으로, 제한 의미자질 ‘사물’이 ‘국가’ 혹은 ‘사람’으로, 관련 의미자질 중 목적을 나타내는 ‘다루다’가 ‘지배하다’로, 결과를 나타내는 관련 의미자질 ‘부러짐’이 ‘부작용 발생’으로 변화하면서 詞義가 변화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甲<sup>132)</sup>: 東方之孟, 陽氣萌動. 从木戴孚甲之象. 『大一經』曰: 人頭宜爲甲. 甲象人頭. 古文 , 始于一, 見于十. 成于木之象. 按: 十幹皆託名標識字. 非本義. 若大一經. 謂甲豆乙頸. 丙肩丁心. 戊脅己腹. 庚臍辛股. 壬脛癸足. 聯十幹字. 爲一大人形. 尤淺陋無理. 駿按: 甲, 鎧也. 象戴甲于首之形. 古文人象甲, 小篆 | 指事. 从古文省. 『周禮·夏官』: 司甲次于弁師之下. 知古先有護首之甲, 後製護身之甲, 因復名甲爲冑. 『易·說卦』傳: 離爲甲冑. 『禮記·曲禮』: 獻甲者執冑. 乃兼言護身者. 『考工』: 函人爲甲. 『晉語』: 殪以爲大甲. 乃傳: 言護身者. 因又命甲冑之民爲甲. 『左成元年』: 作邱甲. 『公羊閔二』傳: 桓公使高子將南陽之甲. 『齊語』: 齊國寡甲兵. 『秦策』: 秦下甲而攻趙. 注: 兵也. 【轉注】『易·解』: 百果草木皆甲宅. 鄭注: 皮曰甲, 根曰宅, 故戴伺. 『六書故』雲: 甲, 象草木戴種而出之形. 古文  象葉兩岐. 愚按: 『易』: 傳借甲爲莢, 借宅爲毛, 猶言華實也. 存參. 又『中山經』: 有獸焉, 虎爪而有甲. 注: 有體有鱗甲. 『吳都賦』: 葺鱗鏤甲. 注: 爲龜甲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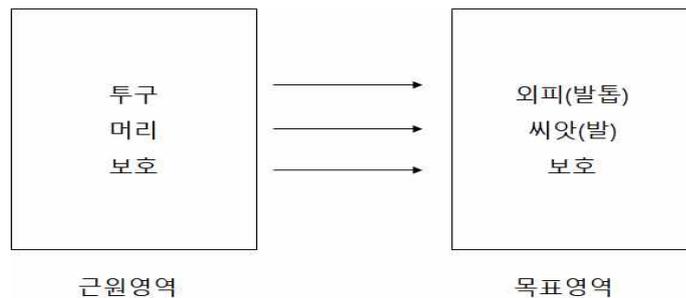
132)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155쪽.

許愼은 ‘甲’의 本義를 ‘東方之孟, 陽氣萌動.(동방의 맹아이다, 양기가 태동하는 것이다.)’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朱駿聲은 ‘甲’의 本義에 대해 ‘甲, 鎧也. 象戴甲于首之形.(甲은 투구이다. 머리에 투구를 쓴 모습을 본뜬 것이다.)’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許愼이 ‘甲’의 本義로 밝힌 ‘씨앗의 외피’로 쓰인 문장을 【轉注】에 인용하여 引伸義임을 밝히고 있다.

【轉注】에 인용된 『易·解』의 ‘百果草木皆甲宅.(과일과 풀과 나무는 모두 싹을 틔운다.)’에서 ‘甲’은 ‘외피’이다. 또한 『中山經』의 ‘有獸焉, 虎爪而有甲.(짐승이 있다. 호랑이 발에 甲이 있다.)’에서 ‘甲’에 대해 ‘有體有鱗甲’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발톱에 단단한 껍질과 비늘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甲’은 ‘딱딱한 발톱’을 가리킨다.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甲’이 ‘투구’에서 ‘외피’, ‘딱딱한 발톱’으로 詞義가 변화하는 과정은 다음 개념적 은유 寫像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그림 65> 개념적 은유 ‘외피(발톱)는 투구이다’ 寫像



‘투구’와 ‘외피’, ‘발톱’은 ‘보호’ 기능이 유사성으로 작용하여 은유 寫像이 성립된다. 근원영역의 ‘투구’가 ‘외피’, ‘발톱’으로 寫像되고, ‘머리’가 ‘씨앗’, ‘발’로 寫像되어 대응하는 구조를 이루면서 詞義의 引伸이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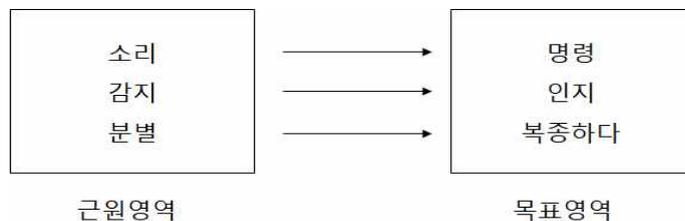
두 詞義 引伸 과정을 의미자질 분석 관점에서 본다면 ‘투구’의 의미자질 중에 기능을 나타내는 제한 의미자질이 전이되고, 대상을 나타내는 ‘투구’가 ‘외피’ 혹은 ‘발톱’으로 변화하고, ‘머리’가 ‘씨앗’ 혹은 ‘발’로 변화하여 詞義가 변화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聽<sup>133)</sup>: 聆也. 从耳聽, 會意, 壬聲. 『書·洪範』: 四曰聽, 聽曰聰, 聰作謀. 『儀禮·特牲禮』: 進聽嘏. 注: 猶待也. 『荀子·議兵』: 十裏之國則將有百里之聽. 注: 猶耳目也. 【轉注】 『廣雅·釋詁四』: 聽謀也. 『周禮·小宰』: 以聽官府之六計. 注: 平治也. 『鄉師』: 而聽其治. 注: 謂平察之. 『秦策』: 王何不聽乎. 注: 察也. 『尚書·大傳』: 諸侯不同聽. 注: 議獄也. 『禮記·大傳』: 聖人南面而聽天下. 『荀子·王制』: 聽之繩也. 注: 聽, 聽政也. 凡聽朝聽訟皆是猶視朝視事之亦曰視也. 又『廣雅·釋詁一』: 聽, 從也. 『周語』: 民是以聽. 『秦策』: 則王勿聽其事. 注: 從也. 受也. 『左成十二傳』: 鄭伯如晉聽成. 注: 猶受也. 『禮記·祭義』: 故聽且速也. 注: 謂順教令也. 『呂覽·知士』: 三日而聽. 注: 許也.

‘聽’의 本義는 ‘듣다’이다. 【轉注】 에 인용된 『廣雅·釋詁一』의 ‘聽, 從也.(聽은 따르는 것이다.)’, 『周語』의 ‘民是以聽.(백성은 옳아야 듣는다.)’에서 ‘聽’은 ‘따르다’는 의미이다. 또한 『禮記·大傳』의 ‘聖人南面而聽天下.(성인이 남쪽으로 향해 천하를 듣는다.)’, 『秦策』의 ‘王何不聽乎.(왕이 어찌 듣지 않을 수 있는가.)’, 『秦策』의 ‘則王勿聽其事.(왕은 그 일을 듣지 마라.)’에서 ‘聽’은 각각 ‘헤아리다’, ‘살피다’, ‘수용하다’는 의미이다. ‘헤아리다’, ‘살피다’, ‘수용하다’는 의견을 듣고, 조사하고, 반영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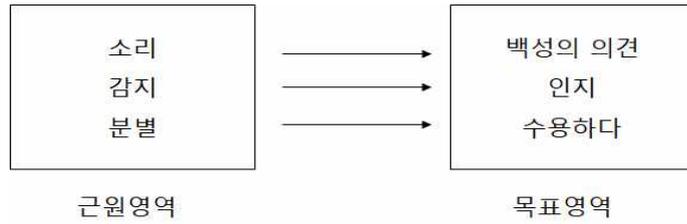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聽’이 ‘듣다’에서 ‘따르다’로, ‘듣다’에서 ‘수용하다’로 詞義가 변화하는 과정은 두 가지 개념적 은유 寫像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그림 66> 개념적 은유 ‘듣는 것은 복종하는 것이다’ 寫像



133)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 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881쪽.

<그림 67> 개념적 은유 ‘듣는 것은 수용하는 것이다’ 寫像



‘듣는 것’은 감각 기관 중 청각 기관인 ‘귀’를 통한 감각이다. ‘명령’과 ‘백성의 의견’도 모두 감각 기관 중에 청각 기관인 ‘귀’를 통해 인지하고, 그 결과 행동으로 실천한다.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은 청각 기관을 통한 감각인 ‘듣다’를 유사성으로 삼아 ‘소리’가 ‘명령’ 혹은 ‘백성의 의견’으로, ‘분별하다’가 ‘복종하다’ 혹은 ‘수용하다’로 寫像되어 대응함으로써 詞義의 구조를 이룬다.

두 詞義 引伸 관계를 의미자질 분석 관점에서 본다면 ‘듣다’의 의미자질 중 중심 의미자질이자 동작 의미자질인 ‘듣다’가 전이되고, 그 대상에 해당하는 제한 의미자질인 ‘소리’가 ‘명령’ 혹은 ‘백성의 의견’으로 변화하고, 결과에 해당하는 관련 의미자질인 ‘소리의 분별’이 ‘복종하다’ 혹은 ‘수용하다’로 변화하면서 詞義가 변화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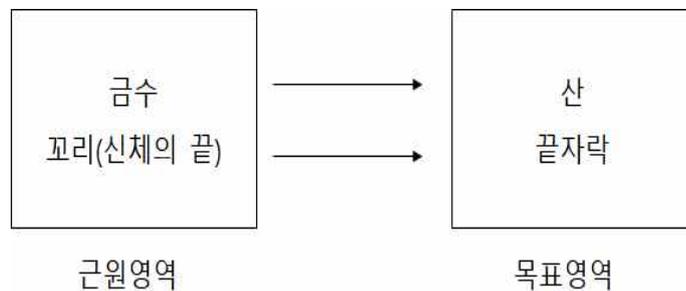
尾<sup>134</sup>): 微也. 从到毛. 在尸後. 古人或飾系尾, 西南夷亦然. 按: 禽獸後也. 『史記·五帝紀』: 解引【說文】, 尾交接也. 愚謂人畜之分. 造字宜謹. 當从到毛. 从尸聲近是. 『易·履』: 履虎尾, 未濟, 濡其尾. 又『書·堯典』: 鳥獸孳尾. 傳: 交接曰尾. 【轉注】『爾雅·釋天』: 大辰, 房, 心, 尾也. 按: 東方七宿尾九星在後, 象蒼龍之尾故名. 又『方言·十二』: 尾, 梢也, 尾, 盡也. 『廣雅·釋詁四』: 尾, 後也. 『爾雅·釋水』: 瀆, 大出尾下. 注: 猶底也. 字亦作泥. 『莊子·秋水』: 尾閭泄之. 司馬注: 尾閭泄, 海水出外者也. 又『史記·張儀傳』: 獻恒山之尾五城. 『素隱』: 猶末也. 『易』: 遯尾. 注: 尾之爲物, 取在體後者也. 又『秦策』: 王若能爲此尾. 注: 後也. 『太元元文』: 故首尾可以爲庸也. 注: 終也.

134)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560쪽.

‘尾’의 本義는 ‘금수의 꼬리’이다. 【轉注】에 인용된 『廣雅·釋詁四』에서 ‘尾, 俊也.(尾는 뒤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인용문 『史記·張儀傳』의 ‘獻恒山之尾五城.(恒山 끝자락에 있는 다섯 개의 성을 바치다.)’에서 ‘尾’는 ‘산의 끝자락’을 의미한다.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尾’가 ‘금수의 꼬리’에서 ‘산의 끝자락’로 詞義가 변화한 것은 다음 개념적 은유 寫像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그림 68> 개념적 은유 ‘산의 끝자락은 금수의 꼬리이다’ 寫像



‘금수의 꼬리’와 ‘산의 끝자락’은 서로 위치가 유사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꼬리’는 신체의 끝에 위치하며, ‘산의 끝자락’ 모두 사물의 끝에 위치한다. 이를 근거로 근원영역의 ‘금수’가 ‘산’으로, ‘꼬리’가 ‘끝자락’으로 寫像되어 대응함으로써 詞義의 구조를 이룬다.

두 詞義 引伸 관계를 의미자질 분석 관점에서 본다면 ‘금수의 꼬리’의 의미자질 중 중심 의미자질에 해당하는 ‘신체의 끝’이 전이되고, 그 대상에 해당하는 제한 의미자질 ‘금수’가 ‘산’으로 변화하면서 詞義가 변화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要<sup>135)</sup>: 身中也. 象人要自臼之形. 从臼. 又云交省聲段氏玉裁云: 字當作𠄎. 上象首, 下象足, 中象胷, 手臼之. 今體譌也. 按: 『漢書·地理志下』注: 𠄎古文要字. 『斥漳長田君斷碑』: 君究屈道. 𠄎段說據此. 古文从女从臼. 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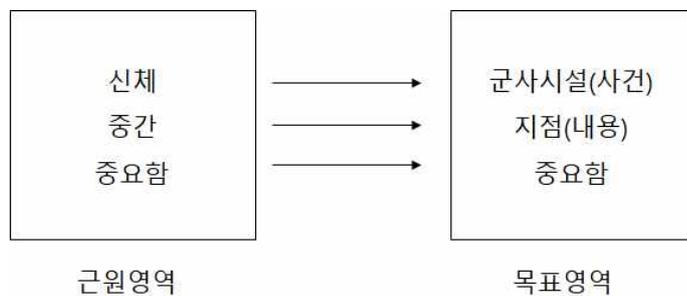
135)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310쪽.

从囟从女非誼。𠄎當爲小篆。𠄎當爲古文。古文象身形。非交字。小篆象古文形。疑筆書稍譌耳。今字作腰。『素問·痿論』注：要者身之大關節，所以司屈伸。『詩·葛屨』：要之襟之。『洛神賦』：解玉佩以要之。注：屈也。非是。『禮記·玉藻』：縫齊倍要。又『爾雅·釋木』：邊要棗。注：子細腰。今謂之鹿盧棗。『釋文』：字或作櫻。【轉注】『孟子』：使數人要於路。『荀子·禮論』：以隆殺爲要。按：中也。『太元·達』：不要止洫。注：中也。『禮記·樂記』：要其節奏。注：猶會也。『蜀都賦』：內函要害於膏腴。注：要害，地險阻也。『孝經』：先王有至德要道。殷仲文曰以一管眾爲要。『淮南·主術』：此治之要也。按：樞紐，總會也。

‘要’의 本義는 허리이다. 『素問·痿論』에서는 ‘要者身之大關節.(신체에서 가장 큰 관절이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신체에서 가장 큰 관절은 허리인데, 허리는 사람의 신체 중간에 위치하며 매우 중요한 부위이다. ‘要’는 本義의 특성을 근거로 또 다른 의미로 詞義가 引伸된다. 【轉注】에 인용된 『蜀都賦』의 ‘內函要害於膏腴.(비옥한 땅에 요새가 있다.)’에서 ‘要’는 ‘요충지’이다. 또한 『淮南·主術』의 ‘此治之要也.(이것은 다스림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다.)’에서 ‘要’는 ‘중요한 사항’이다.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要’가 ‘허리’에서 ‘요충지’, ‘중요한 사항’으로 詞義가 변화한 것은 다음 개념적 은유의 寫像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그림 69> 개념적 은유 ‘군사 요충지는 허리이다’ 寫像



‘허리’와 ‘요충지’는 신체와 군대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허리’는 신

체의 중간에 위치하지만 ‘요충지’는 반드시 중간에 위치한 것은 아니다. 두 詞義의 유사성은 모두 ‘중요함’ 정도에 있지 위치에 있지 않다. 두 詞義는 근원영역의 ‘신체’가 ‘군사시설’로, ‘중간’이 ‘지점’으로 寫像되어 대응하는 구조를 이루게 된다. ‘허리’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詞義가 引伸되는 과정도 ‘허리’가 ‘요충지’로 引伸되는 과정과 동일하다.

두 詞義 引伸 관계를 의미자질 분석 관점에서 본다면 ‘허리’의 의미자질 중 관련 의미자질에 해당하는 ‘중요함’이 전이되고, 그 대상을 나타내는 제한 의미자질인 ‘신체’가 ‘군사시설’로 변화하고, 중심 의미자질인 ‘부위’가 ‘지점’으로 변화하면서 詞義가 변화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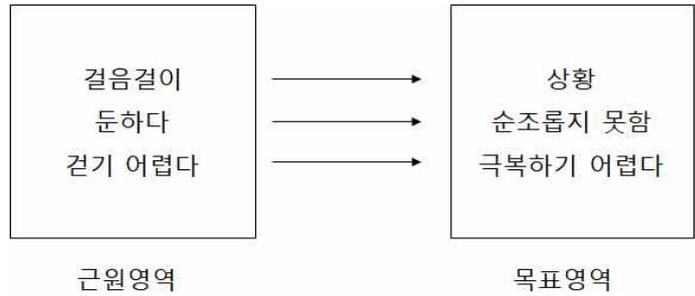
蹇<sup>136)</sup>: 跛也. 从足, 寒省聲. 『素問·骨空論』: 蹇, 膝伸不屈, 易蹇, 往蹇來連. 『楚辭·謬諫』: 駕蹇驢而無策兮. 【轉注】『易·序卦』: 蹇者, 難也. 又『呂覽·別類』: 合兩淖則爲蹇. 注: 疆也. 『管子·水地』: 凝蹇而爲人. 注: 停也. 又『洞簫賦』: 終嵬峨以蹇愕. 注: 正直之貌. 字亦作蹇, 作謔, 作蹇(蹇에서 ㄱ이 생략된 형태 + 아래 巳). 作蹇(言+蹇). 『方言·六』: 蹇, 難也. 十蹇吃也, 楚語也. 『通俗文』: 言不通利謂之蹇吃. 『列子·力命』: 謔極. 『釋文』: 吃也. 『高頤碑』: 清蹇之口.

『說文』에 따르면 ‘蹇’의 本義는 ‘질름발이’이다. 질름발이는 다리와 발을 민첩하게 움직이지 못해 걷는데 어려움이 있다. 【轉注】에 인용된 『易·序卦』의 ‘蹇者, 難也.’는 과명에 대한 설명으로 ‘蹇, 難也, 險在前也.(蹇은 어려운 것이다. 어려운 상황이 앞에 놓여 있다.)’라는 의미이다. 여기서 ‘蹇’은 ‘어려운 상황’을 가리킨다.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蹇’이 ‘질름발이’에서 ‘어려운 상황’으로 詞義가 변화한 것은 다음 개념적 은유의 寫像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136)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711쪽.

<그림 70> 개념적 은유 ‘어려운 상황은 절름발이다’ 寫像



위 그림에서 근원영역에 해당하는 ‘절름발이’의 개념 중 ‘둔하다’는 ‘수월하지 않음’, ‘쉽지 않음’, ‘어려움’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목표영역의 ‘순조롭지 못함’에 대응하는 것이며, 이 두 개념은 두 의미영역의 유사성으로 작용한다. 이 점에 근거해 근원영역의 ‘걸음걸이’가 ‘상황’으로, 결과에 해당하는 ‘걸기 어렵다’가 ‘극복하기 어렵다’로 寫像되어 대응함으로써 詞義의 구조를 이룬다.

두 詞義 引伸 관계를 의미자질 분석 관점에서 본다면 ‘절름발이’의 의미자질 중 관련 의미자질인 ‘둔하다(순조롭지 못함)’가 전이되고, 그 대상인 제한 의미자질 ‘걸음걸이’가 ‘상황’으로, 결과를 나타내는 관련 의미자질인 ‘걸기 힘들다’가 ‘극복하기 어렵다’로 변화하여 詞義가 변화한 것이다.

芟<sup>137)</sup>: 刈艸也。从艸，殳聲。按：从艸，从殳，會意。殳，殊也。『詩·載』：芟，載柞。傳：除草曰芟。『周禮·肆師』：嘗之日，涖卜來歲之芟。注：芟草除田也。『左·隱·六』傳：芟夷蕪崇之。注：刈也。說文艸部引作癸。『淮南·本經』：芟野芟。注：殺也。【轉注】『齊語』：耒，耜，耩，芟。注：大鎌也，所以芟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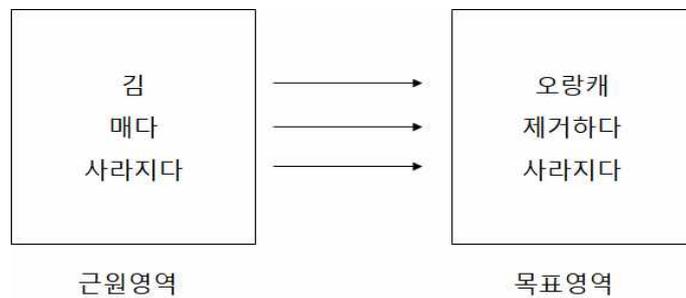
『說文』에 따르면 ‘芟’의 本義는 ‘김을 매다’이다. ‘김을 매는 것’은 들판에서 불필요한 풀을 제거하는 것이다. ‘芟’은 ‘풀을 제거하다’에서 ‘불필요한 세력을 제거하다’, ‘오랑캐를 제거하다’로 引伸되었다. 『左·隱·六』의 ‘芟夷蕪崇之.(오랑

137)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 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145쪽.

개 세력을 제거하다.)’에서 ‘芟’은 ‘베다’라는 의미로 적을 무찌르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芟’이 引伸義 ‘베다’로 쓰인 문장이 本義 설명에 인용되었다는 것이다.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芟’이 ‘김을 매다’에서 ‘적을 제거하다’로 詞義가 변화한 것은 아래 개념적 은유의 寫像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그림 71> 개념적 은유 ‘적을 제거하는 것은 김을 매는 것이다’ 寫像



위 그림에서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에서 공통된 요소를 찾을 수 있다. 바로 ‘사라지다’이다. 논, 밭의 김을 매고 난 후 잡초가 사라지게 되고, 적을 제거하면 적이 사라지게 된다.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의 ‘사라지다’는 두 개념의 유사성으로 작용하여 개념적 은유의 寫像을 성립시킨다. 이 유사성을 근거로 근원영역의 ‘김’은 ‘오랑캐’로, ‘매다’는 ‘제거하다’로 寫像되면서 의미영역 대응하는 구조를 이루게 된다.

두 詞義 引伸 관계를 의미자질 분석 관점에서 본다면 ‘김을 매다’의 의미자질 중 결과를 의미하는 관련 의미자질인 ‘사라지다’가 전이되고, 대상을 나타내는 제한 의미자질인 ‘김’이 ‘오랑캐’로 변화, 동작을 나타내는 중심 의미자질인 ‘매다’가 ‘제거하다’로 변화하면서 詞義가 확대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芟<sup>138)</sup>: 越也。从夂从尃。尃，高也。會意。按：从尃猶从陸也。字亦作輶。『廣雅·釋詁四』：芟，犯也。『漢書·灌夫傳』：輶轢宗室。注：踐踏也。經傳：多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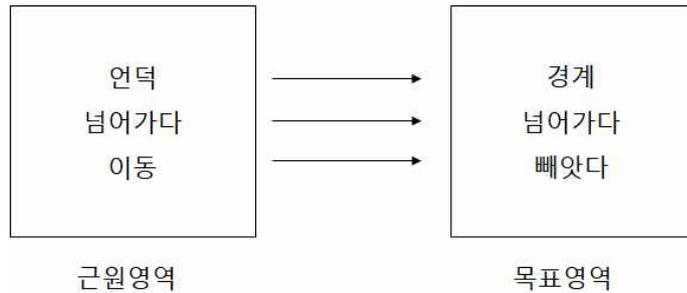
138)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76쪽.

陵以凌以凌爲之. 【轉注】『說文』一曰: 凌, (彳+犀)也. 按: 凌, 徃者, 始速終遲. 自高漸下之意. 『詩·大車·序』: 禮義陵遲. 疏: 猶陂陀也. 『漢書·成帝紀』: 日以陵夷. 注: 言其積替若邱陵之漸平也. 皆以陵爲之.

『說文』에 따르면 ‘凌’의 本義는 ‘넘어가는 것’이다. ‘넘어가다’라는 것은 ‘가로막고 있는 것을 건너다’는 것으로 일정한 경계 혹은 장애물을 넘는다는 의미이다. 『廣雅·釋詁四』에서는 ‘凌, 犯也.(凌은 침범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넘어가는 것’과 ‘침범하는 것’은 한 지점을 기준으로 한쪽에서 또 다른 쪽으로 이동한다는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本義인 ‘넘어가다’는 언덕을 기준으로 이동이 일어난 반면, 引伸義 ‘침범하다’는 한 공간에서 개인 고유의 공간, 국가 고유의 공간을 설정하는 경계 넘어가는 것으로 물리적인 이동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凌’이 ‘넘어가다’에서 ‘침범하다’로 詞義가 변화한 것은 아래 개념적 은유의 寫像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그림 72> 개념적 은유 ‘침범하는 것은 넘어가는 것이다’ 寫像



위 그림에서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에서 공통된 개념인 ‘넘어가다’를 근거로 근원영역의 ‘언덕’이 ‘경계’로, 행동의 결과인 ‘이동’이 ‘빼앗다’로 寫像되어 대응하는 구조를 이루게 된다.

두 詞義 引伸 관계를 의미자질 분석 관점에서 본다면 ‘넘어가다’의 의미자질 중 동작을 나타내는 중심 의미자질 ‘넘어가다’가 전이되고, 그 대상인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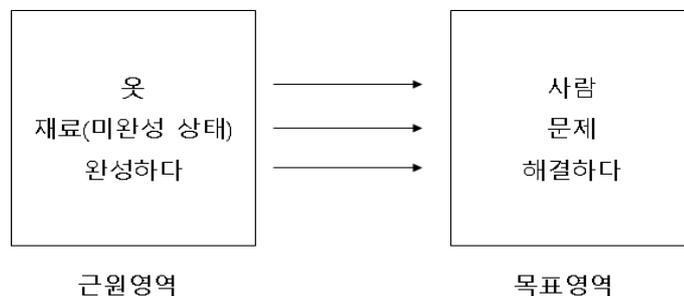
한 의미자질 ‘언덕’이 ‘경계’로, 결과를 나타내는 관련 의미자질인 ‘이동’이 ‘빠  
앗다’로 변화하면서 詞義가 확대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補<sup>139)</sup>: 完衣也. 从衣甫聲. 『詩·衣職』: 有闕, 維仲山甫補之. 『呂覽·順說』: 田  
贊衣補衣. 【轉注】『廣雅·釋詁四』: 完也. 『漢書·董仲舒傳』注: 益也. 『荀子·  
臣道』: 事暴君者, 有補削, 無撓拂. 注: 謂彌縫其闕. 『大戴·曾子立事』: 疾其  
過而不補也. 注: 改也. 『史記·六國表』: 補龐城籍姑. 『索隱』: 修也.

『說文』에 따르면 ‘補’의 本義는 ‘옷을 완성하는 것’이다. 옷을 완성하는 것은  
미완성 상태의 재료들을 잘 꾸려 완성품을 만드는 것이다. 『詩·衣職』의 문장  
‘有闕, 維仲山甫補之.(문제가 생기면 仲山甫(신하)가 그것을 해결한다.)’와  
【轉注】에 인용된 『荀子·臣道』의 ‘事暴君者, 有補削, 無撓拂.(폭군을 모시는  
것은 부족한 것을 채우고 과실을 없애면서도 개선됨이 없다.)’, 『大戴·曾子立  
事』의 ‘疾其過而不補也.(과오를 염려하면서도 고치지 않는다.)’에서 ‘補’는 ‘문  
제를 해결하다’라는 의미이다. 미완성인 상태는 문제가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미완성 상태를 완전한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補’가 ‘옷을 완성하다’에서 ‘문제를 해결하다’로 詞義  
가 변화한 것은 아래 개념적 은유의 寫像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그림 73> 개념적 은유 ‘문제는 미완성 상태이다’ 寫像



139)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410쪽.

위 그림에서 근원영역의 ‘완성하다’와 목표영역의 ‘해결하다’는 미완성의 상태를 완전한 상태로 만든다는 점에서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유사성에 근거해 ‘옷’은 ‘사람’으로, ‘재료’는 ‘문제’로 寫像되어 대응하는 구조를 이루게 된다.

두 詞義 引伸 관계를 의미자질 분석 관점에서 본다면 ‘補’의 本義인 ‘옷을 완성하다’에서 중심 의미자질인 ‘완성하다’가 ‘해결하다’로 전이되고, 대상을 나타내는 제한 의미자질인 ‘옷’이 ‘사람’으로, ‘재료’가 ‘문제’로 변화하여 詞義가 확대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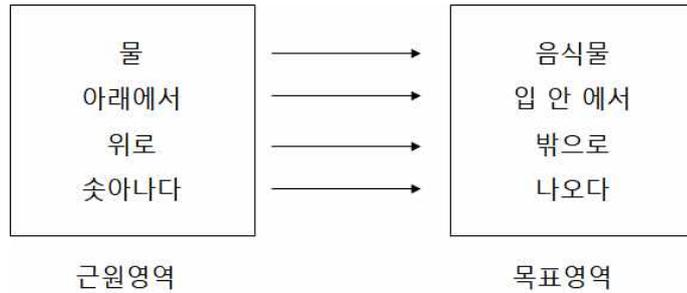
涌<sup>140</sup>): 滕也. 从水, 甬聲. 字亦作湧, 作涌. 『廣雅·釋詁一』: 涌, 出也. 『爾雅·釋水』: 濫泉正出. 正出, 涌出也. 『公羊昭五傳』: 瀆泉者何, 直泉也. 直泉者何, 涌泉也. 『釋名·釋水』: 水上出曰涌泉. 『論衡·狀留』: 泉暴出者曰涌. 『楚辭·悲回風』: 憚湧湍之磕磕兮. 注: 涌湍危阻也. 【轉注】『素問·陰陽離合論』: 少陰根起於涌泉. 注: 穴名, 在足心下踠指宛之中. 又『五常政大論』: 漂泄沃涌. 注: 溢也. 其動瘍涌. 注: 嘔吐也. 又『方言·六』六: 涌, 滿也. 凡以器盛而滿謂之涌. 注: 言涌出也.

涌의 本義는 ‘물이 솟아오르다’이다. 『公羊昭五傳』에서 ‘瀆泉者何, 直泉也. 直泉者何, 涌泉也.’(瀆泉은 무엇인가? 위로 솟는 샘이다. 위로 솟는 샘은 무엇인가? 涌泉이다.)라고 설명한 것을 통해 ‘涌’은 ‘물이 아래에서 위로 솟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轉注】에 인용된 『五常政大論』의 ‘漂泄沃涌(설사와 구토)’에서 ‘涌’은 ‘구토하다’라는 의미이다.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涌’이 ‘물이 아래에서 위로 솟는다’에서 ‘구토하다’로 詞義가 변화한 것은 다음 개념적 은유의 寫像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140)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41쪽.

<그림 74> 개념적 은유 ‘구토는 물이 솟아나는 것이다’ 寫像



위 그림에서 근원영역의 ‘솟아나다’는 한 공간에서 물질이 나오는 현상이다. 이 개념은 목표영역의 ‘나오다’와 유사성을 갖는다. 이 유사성은 개념적 은유 ‘구토는 물이 솟아나는 것이다’ 寫像의 근거로 작용하여 근원영역의 ‘물’이 ‘음식물’로, ‘아래’가 ‘입 안’으로, ‘위’가 ‘밖’으로 寫像되어 의미영역 간에 대응 구조를 구축하게 된다.

두 詞義 引伸 관계를 의미자질 분석 관점에서 본다면 ‘涌’의 本義 ‘물이 아래에서 위로 솟다’에서 중심 의미자질 ‘솟다’가 전이되고, 대상을 나타내는 제한 의미자질인 ‘물’이 ‘음식물’로, 방향을 나타내는 의미자질인 ‘아래’가 ‘안’으로, ‘위’가 ‘바깥’으로 변화하여 詞義가 확대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晦<sup>141)</sup>: 月盡也. 从日, 每聲. 『爾雅·釋言』: 晦, 冥也. 『論衡·四諱』: 三十日日月合宿謂之晦. 『左·成十七傳』: 陳不違晦. 注: 晦, 月終. 陰之盡. 『穆天子傳』: 一, 賜語晦. 注: 月終爲晦. 『莊子·逍遙遊』: 朝菌不知晦朔. 【轉注】『易·象上傳』: 君子以嚮晦入冥息. 鄭注: 冥也. 翟元注: 冥也. 『魯語』: 晦而休. 注: 冥也. 『左·昭元傳』: 晦, 淫惑疾. 注: 夜也. 『詩』: 風雨如晦. 傳: 昏也. 又『爾雅·釋天』: 霧謂之晦. 『公羊僖十五年』: 己丑晦. 『成十六年』: 甲午晦. 傳: 晦者何, 冥也. 『漢書·高帝紀』: 是時雷電晦冥. 注: 晦冥皆謂暗也. 『太元元錯』: 晦也. 又『詩酌』: 遵養時晦. 傳: 昧也. 『左·成十四傳』: 志而晦. 注: 亦微也. 『荀子賦』: 闇乎天下之晦盲也. 注: 晦盲言人莫之識也. 『楚辭靈懷』: 羣阿容以晦光兮. 注: 冥也. 又『江淹詩』: 寂歷百草晦. 注: 凡草木華實榮茂謂之

141)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20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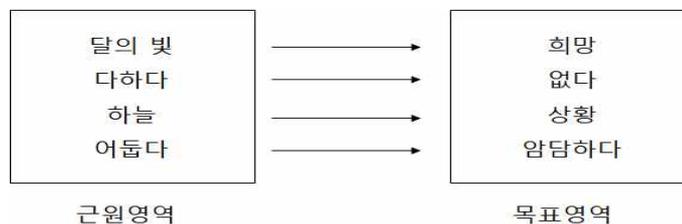
明, 枝葉彫傷謂之晦.

『說文』에 따르면 ‘晦’의 本義는 ‘달이 다하다’이다. 달은 일정한 주기로 변화한다. 가장 큰 보름달에서 달의 형태가 가작 작은 초승달과 그믐달까지 달은 계속해서 변화한다. ‘晦’는 달의 주기 중에 ‘그믐 달’에 해당하며 달의 모습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다. 달의 형태가 작아져 빛이 함께 줄어들면서 하늘은 매우 어두워진다. 【轉注】에 인용된 문장을 통해 ‘晦’가 本義 외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詩酌』의 ‘遵養時晦.(시대가 희망이 없고 어두우니 흐름에 따르고 후일을 기약하다.)’에서 ‘晦’는 ‘어둡다’는 의미이다. 『荀子賦』의 ‘闇乎天下之晦盲也.(암담하도다. 천하가 어둡구나.)’에서 ‘晦盲’은 ‘사회가 암담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를 가리킨다. 또한 『江淹詩』의 문장 ‘寂歷百草晦.’는 ‘낙엽이 지고 기운이 쇠하니 모든 초목이 시들다.’라는 의미인데, 이 문장에 ‘凡草木華實榮茂謂之明, 枝葉彫傷謂之晦.(초목에 꽃과 열매가 무성한 것을 明이라하고, 가지와 줄기가 시들어 힘이 없는 것을 晦라고 한다.)’라고 해석한 注를 인용했다. 여기서 ‘晦’는 초목이 시든 상태를 가리킨다.

위에서 각 문장의 해석을 통해 ‘晦’가 本義인 ‘달이 다하다’에서 ‘희망이 없다’, ‘초목이 시들다’로 詞義가 引伸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晦’의 詞義 引伸 과정은 두 가지 개념적 은유 寫像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먼저 ‘晦’가 ‘달이 다하다’에서 ‘희망이 없다’로 詞義가 변화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것은 다음 그림과 같이 개념적 은유 ‘빛은 희망이다’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그림 75> 개념적 은유 ‘빛은 희망이다’ 寫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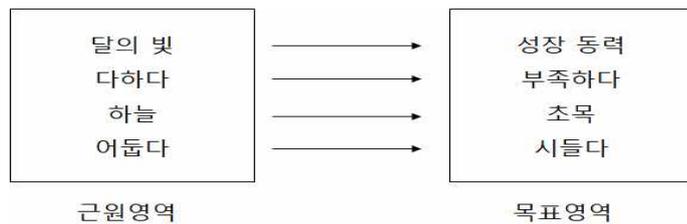


위 그림에서 근원영역의 ‘다하다’는 ‘남아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근원영역의 ‘다하다’와 목표영역의 ‘없다’는 두 의미영역의 유사성으로 작용한다. 이 유사성을 근거로 ‘달의 빛’은 ‘희망’으로, ‘하늘’은 ‘상황’으로, ‘어둡다’는 ‘암담하다’로 寫像되어 두 의미영역이 대응하는 구조를 이루게 된다.

두 詞義 引伸 관계를 의미자질 분석 관점에서 본다면 ‘달이 다하다’의 의미자질 중 중심 의미자질인 ‘다하다’가 전이되고, 대상을 나타내는 제한 의미자질 ‘달의 빛’이 ‘희망’으로, 결과를 나타내는 관련 의미자질 ‘하늘’, ‘어둡다’가 ‘상황’, ‘암담하다’로 변화하면서 詞義가 확대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晦’가 ‘달이 다하다’에서 ‘초목이 시들다’로 詞義가 변화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것은 다음 그림과 같이 개념적 은유 ‘빛은 성장의 원천이다’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그림 76> 개념적 은유 ‘빛은 성장의 원천이다’ 寫像



개념적 은유 ‘빛은 성장의 원천이다’에서 근원영역의 ‘다하다’와 목표영역의 ‘부족하다’는 두 의미영역의 유사성으로 작용한다. 이를 근거로 ‘달의 빛’은 ‘성장 동력’으로, ‘하늘’은 ‘초목’으로, ‘어둡다’는 ‘시들다’로 寫像되어 두 의미영역이 대응하는 구조를 이루게 된다.

두 詞義 引伸 관계를 의미자질 분석 관점에서 본다면 ‘달이 다하다’의 의미자질 중 중심 의미자질인 ‘다하다’가 전이되고, 대상을 나타내는 제한 의미자질인 ‘달의 빛’이 ‘성장 동력’으로, 결과를 나타내는 관련 의미자질인 ‘하늘’, ‘어둡다’가 ‘초목’, ‘시들다’로 변화하면서 詞義가 확대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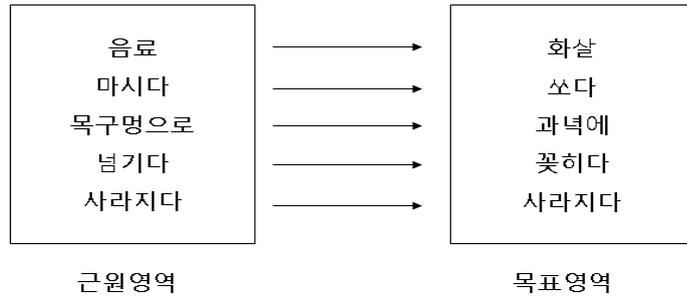
飲<sup>142)</sup>: 飲也. 从欠畚聲. 古文从水, 今聲. 又古文从食今聲. 按: 小篆从酉从欠, 今聲. 酉者, 酒也. 古文畚. 與左水右今之或淦字別. 今隸作飲. 『易·需』: 君子以飲食宴樂. 虞注: 水流入口爲飲. 【轉注】『周禮·膳夫』: 飲食實賜之殮牽. 注: 飲食燕饗也. 『儀禮·公食禮』: 飲酒漿飲, 俟於東房. 注: 飲酒, 清酒也. 又『左·哀·二十五傳』: 請飲彘也. 注: 罰也. 按: 自飲曰飲, 飲人亦曰飲, 所飲之物即曰飲. 『周禮·酒正』: 辨四飲之物. 清, 醫, 漿, 醕也. 『漿人』: 掌共王之六飲, 水, 漿, 醕, 涼, 醫, 醕也. 又『漢書·朱家傳』: 飲其德. 注: 沒也. 按: 猶食言之食也. 『說苑』: 沒矢飲羽. 飲亦沒也. 又『莊子·則陽』: 或不言而飲人以和. 注: 被也. 按: 猶食舊德之食也. 又『趙策』: 漆其頭以爲飲器. 注: 溺器也. 按: 猶受也.

『說文』에 따르면 ‘飲’의 本義는 ‘마시다’이다. 『易·需』의 문장 ‘君子以飲食宴樂.(君子가 이것으로 마시고 먹으며 잔치를 벌여 즐기다.)’에서 ‘飲’은 ‘水流入口爲飲.(물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飲’은 本義 ‘마시다’에서 ‘숨기다’, ‘사라지다’라는 의미로 引伸된다. ‘飲’이 引伸義로 쓰인 예문을 【轉注】의 인용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漢書·朱家傳』의 문장 ‘飲其德.’은 ‘덕을 없애다.’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說苑』의 문장 ‘沒矢飲羽’는 화살을 쏜 후 화살의 끝 장식인 깃털이 과녁에 꽂혀 보이지 않게 된 것을 의미한다. ‘飲’이 本義 ‘마시다’에서 ‘없애다’, ‘사라지다’로 詞義가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飲’의 詞義 引伸 과정을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은유 寫像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42)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98쪽.

<그림 77> 개념적 은유 ‘꽃히는 것은 넘기는 것이다’ 寫像



위 그림에서 근원영역의 개념 ‘넘기다’는 목구멍을 기준으로 음료를 입에서 몸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동작이다. 그리고 목표영역의 개념 ‘꽃히다’는 과녁 표면을 기준으로 화살이 과녁 밖에서 과녁 안으로 박히는 것이다. 음료를 넘긴 후에는 음료가 눈에 보이지 않으며, 화살이 과녁 안에 박히면 화살이 보이지 않게 된다. 이 두 동작은 동작의 결과 사물이 사라진다는 유사성을 갖는다. 이 유사성을 근거로 근원영역의 ‘음료’는 ‘화살’로, ‘마시다’는 ‘쏘다’로, ‘목구멍으로’는 ‘과녁에’로, ‘넘기다’는 ‘꽃히다’로 寫像되어 의미영역 간에 대응하는 구조를 이루게 된다.

두 詞義 引伸 관계를 의미자질 분석 관점에서 본다면 ‘마시다’의 의미자질에 대한 분석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마시다’는 것은 ‘飲’의 本義에서 설명했듯이 액체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마시는 동작이 끝난 뒤에 음료인 액체는 사라지고 없어진다. ‘飲’은 本義의 의미자질 중 관련 의미자질인 ‘사라지다’가 전이되고, 대상을 나타내는 제한 의미자질인 ‘음료’가 ‘화살’로, 중심 의미자질인 ‘마시다’가 ‘쏘다’로 변화하면서 詞義가 확대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侵<sup>143)</sup>: 漸進也. 从人又持帚. 會意. 若埽之進. 又, 手也. 今隸作侵省巾. 【轉注】『廣雅·釋言』: 侵, 凌也. 『左·莊二十九傳』: 凡師有鐘鼓曰伐, 無曰侵. 『公羊·莊十傳』: 桷者曰侵, 精者曰伐. 『穀梁·隱五傳』: 苞人民, 毆牛馬曰侵. 『僖·

143)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8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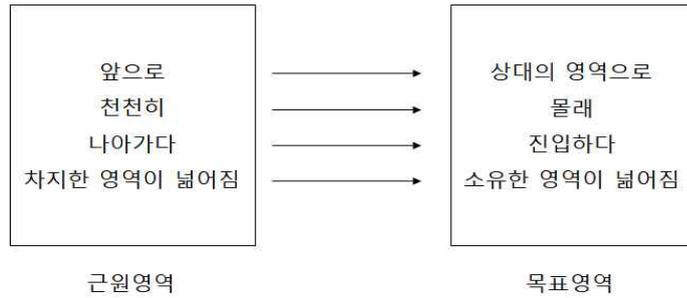
二十六傳』: 侵淺事也. 又『考工·廬人』: 是故侵之. 司農注: 侵之, 能敵也. 又『楚語』: 無相侵瀆. 注: 犯也. 又『漢書·陳餘傳』: 義不侵爲然諾者也. 注: 猶犯負也.

許慎은 ‘侵’의 本義를 ‘漸進也. 从人又持帚.(점차 나아가는 것이다. 사람이 손으로 빗자루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구성되었다.)’라고 풀이했다. ‘侵’은 빗자루로 바닥을 쓸며 점차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轉注】에 인용된 몇몇 문장을 통해 ‘侵’이 本義인 ‘점차 나아가다’에서 ‘침범하다’는 의미로 詞義가 引伸되었음을 알 수 있다. 『廣雅·釋言』에서는 ‘侵, 凌也.(侵은 넘어가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앞서 ‘凌’의 詞義 引伸 과정에서 ‘凌’의 本義가 ‘넘어가다’이며 ‘침략하다’로 詞義가 변화했음을 살펴보았다. 朱駿聲은 ‘凌’의 本義와 관련하여 ‘多以陵以凌以凌爲之’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 문장은 ‘凌’이 ‘陵’, ‘凌’, ‘凌’으로 더욱 많이 쓰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陵’, ‘凌’, ‘凌’은 모두 ‘凌’과 같은 의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廣雅·釋言』에서 ‘侵, 凌也.’이라고 한 것에서 ‘凌’은 곧 ‘凌’이다. 그리고 『左·莊二十九傳』의 문장 ‘凡師有鐘鼓曰伐, 無曰侵.(중과 북을 울리는 것을 伐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侵이라 한다.)’, 『公羊·莊十傳』의 문장 ‘旃者曰侵, 精者曰伐.(거칠게 침략하는 것을 侵이라고 하며, 계획적으로 침략하는 것을 伐이라고 한다.)’, 『穀梁·隱五傳』의 문장 ‘苞人民, 毆牛馬曰侵.(백성을 포로로 삼고 소와 말을 부리는 것을 侵이라고 한다.)’을 통해 ‘侵’과 ‘伐’의 의미상 차이를 알 수 있다.

앞의 설명을 통해 ‘侵’이 ‘빗자루로 바닥을 쓸며 점차 앞으로 나아가다’에서 ‘침략하다’로 詞義가 引伸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 지점에서 점차 나아가다 보면 나아간 영역이 조금씩 넓어진다. 이것은 적의 영역을 침략한 결과 차지하는 영역이 넓어진다는 점에서 의미상 유사성을 갖는다.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侵’의 詞義 引伸 과정은 다음 개념적 은유의 寫像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그림 78> 개념적 은유 ‘침략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寫像



위 그림에서 근원영역의 ‘나아가다’와 목표영역의 ‘진입하다’는 한 공간에서 또 다른 공간으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동의 결과 차지하는 영역이 넓어지게 된다. 이동과 이동의 결과는 이 두 개념의 유사성으로, 은유 寫像 성립의 근거로 작용한다. ‘侵’은 근원영역의 ‘앞으로’가 ‘상대의 영역으로’, ‘천천히’와 ‘몰래’가 서로 寫像되어 의미영역의 요소가 대응하는 구조를 이루게 된다.

두 詞義의 引伸 관계를 의미자질 분석 관점에서 본다면 ‘점차 앞으로 나아가다’의 의미자질 중 중심 의미자질인 ‘나아가다’와 결과를 나타내는 관련 의미자질인 ‘차지한 영역이 넓어지다’가 전이되고, 방향과 관련된 제한 의미자질 ‘앞으로’가 ‘상대의 영역으로’, 방식과 관련된 제한 의미자질인 ‘천천히’가 ‘몰래’로 변화하면서 詞義가 확대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瘰<sup>144)</sup>: 寒也. 从尪廩聲. 字亦作凜. 又作凜. 『素問·五運行大論』: 其性爲凜. 注: 寒也. 腎之性也. 【轉注】『廣雅·釋詁一』: 凜, 敬也. 『埤蒼』: 凜者, 顏色懼兒也. 又凜愼悲吟兒也. 『家語·致思』: 凜凜焉. 若持腐索之扞馬. 注: 戒懼之兒. 『文賦』: 心凜凜以懷霜. 注: 危懼兒. 『漢書·食貨志』: 而直爲此瘰瘰也. 注: 危也. 以瘰爲之. 亦重言形況字. 又『荀子·議兵』: 臣下凜然莫必其命. 注: 悚慄之貌, 亦單辭形況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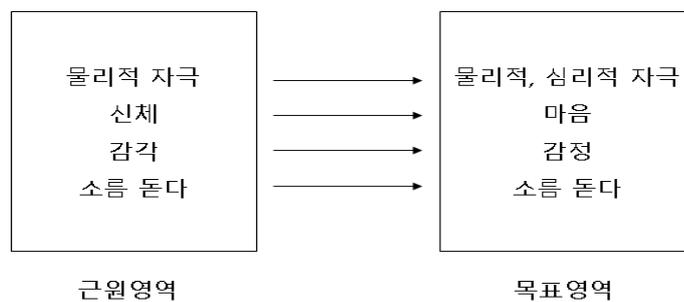
許慎에 따르면 ‘瘰’의 本義는 ‘추위를 느끼다’이다. 위 인용문에서는 ‘瘰’의

144)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 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102쪽.

本義와 함께 ‘癡’이 ‘凜’과 ‘慄’과 같이 쓰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두 글자는 부수가 각각 ‘冫’와 ‘忄’인 것으로 보아 전자는 ‘추위’인 감각을 나타내고 후자는 감정과 관련된 詞義라고 추측할 수 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癡’은 ‘공포’, ‘경외감’으로 詞義가 변화한다. 추위를 느낄 때 우리 몸은 떨리기도 하고, 피부에 소름이 끼치는 등 신체적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신체적 현상은 추위를 느낄 때뿐만 아니라 경외감, 공포를 느낄 때도 일어난다. 추위를 느끼는 것은 외부의 물리적 자극에 의한 감각이고 경외감과 공포를 느끼는 것은 물리적 자극 혹은 심리적 자극에 의한 감정이다. 다음 문장은 ‘癡’이 각각 ‘경외’와 ‘공포’로 쓰인 문장이다. 【轉注】에 인용된 『埤蒼』의 문장에서 ‘凜者, 顔色懼兒也. 又慄慄悲吟兒也.(凜은 두려워하는 안색이다. 또한 두렵고, 서럽고, 슬피하며, 앓는 모습이다.)’라고 했다. 『家語·致思』의 문장 ‘慄慄焉. 若持腐索之扞馬.(慄은 벌벌 떠는 것이다. 썩은 밧줄로 말을 묶어 끌고 가는 것과 같다.)’, 『文賦』의 문장 ‘心慄慄以懷霜.(서리를 품은 것과 같이 마음이 떨린다.)’에서 ‘凜’과 ‘慄’은 ‘두려워하는 모습’을 의미한다.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癡’의 詞義 引伸 과정은 아래 개념적 은유의 寫像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그림 79> 개념적 은유 ‘공포는 추위이다’ 寫像



우리의 신체는 외부에서 발생한 물리적 자극을 통해 추위를 느끼고 그 결과 신체에 소름이 돋는 현상이 나타난다. 공포는 추위와 마찬가지로 외부 자극으로 인해 발생하는 감정으로, 공포를 느끼면 신체에 소름이 돋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 두 현상 모두 ‘소름 돋음’이라는 동일한 반응이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공통점은 은유 寫像이 성립되는데 근거가 된다. 두 詞義는 ‘소름 돋다’를 근거로 근원영역의 ‘물리적 자극’이 ‘물리적, 심리적 자극’으로, ‘신체’가 ‘마음’으로, ‘감각’이 ‘감정’으로 寫像되어 의미영역 간에 대응하는 구조를 이루게 된다.

두 詞義 引伸 관계를 의미자질 분석 관점에서 본다면 ‘癩’의 本義인 ‘추위를 느끼다’의 의미자질 중에 결과를 나타내는 관련 의미자질인 ‘소름 돋다’가 전이되고, 원인을 나타내는 관련 의미자질인 ‘물리적 자극’이 ‘물리적, 심리적 자극’으로, 제한 의미자질인 ‘신체’가 ‘마음’으로, 중심 의미자질인 ‘감각’이 ‘감정’으로 변화하면서 詞義가 확대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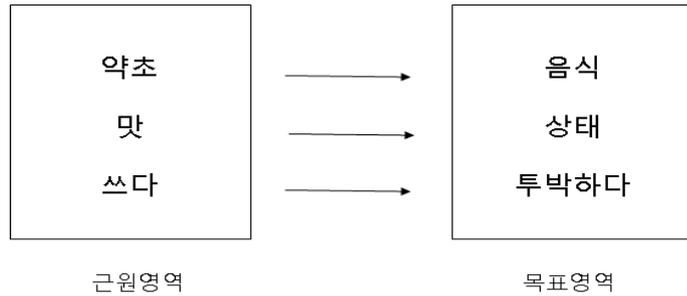
苦<sup>145)</sup>: 大苦荼也. 从艸古聲. 按: 荼字, 藟字. 『爾雅』: 藟, 大苦. 孫叔然注: 今甘草也. 【轉注】草味似苦者皆得苦名. 『廣雅·釋草』: 苦心, 沙蔘也. 『周禮·瘍醫』: 以苦養氣. 注: 火味也. 『管子·小匡』: 辨其功苦. 注: 謂濫惡. 『周禮·典婦功』: 辨其苦良. 『淮南子·精神』: 苦垮之家. 注: 疾也.

‘苦’의 本義는 ‘쓴 맛이 나는 약초’이다. 【轉注】에 인용된 『管子·小匡』의 문장 ‘辨其功苦.(음식의 정갈함과 투박함을 분별하다.)’, 『周禮·典婦功』의 문장 ‘辨其苦良.(비단이 거친지 부드러운지 품질을 판별하다.)’에서 ‘苦’는 ‘투박하다’, ‘거칠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苦’의 詞義 引伸 과정은 다음 개념적 은유의 寫像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145)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418쪽.

<그림 80> 개념적 은유 ‘투박함은 쓴 맛이다’ 寫像



쓴 음식을 먹을 때는 목으로 넘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 쓴 맛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쓴 맛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맛이 아니다. 단 맛이 부드럽고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데 반해 쓴 맛은 부드럽지 않고 먹을 때 인상을 쓰게 된다.

‘쓰다’는 것은 상태의 ‘양호함’과 ‘양호하지 않음’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후자에 속하는 상태이다. ‘맛이 쓴 것’과 ‘상태가 투박한 것’은 그 성질이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긍정과 부정, 양호와 불량, 좋음과 나쁨 등 이분법을 적용하여 분류한다면 두 가지 모두 부정, 불량, 나쁨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로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개념은 이것을 근거로 근원영역의 ‘약초’가 ‘음식’으로, ‘맛’이 ‘상태’로 寫像되어 의미영역 간에 대응하는 구조를 이루게 된다.

두 詞義의 引伸 관계를 의미자질 분석 관점에서 본다면 本義의 중심 의미자질 ‘쓰다’가 전이되고, 제한 의미자질인 ‘약초’, ‘맛’이 ‘음식’, ‘상태’로 변화하면서 詞義가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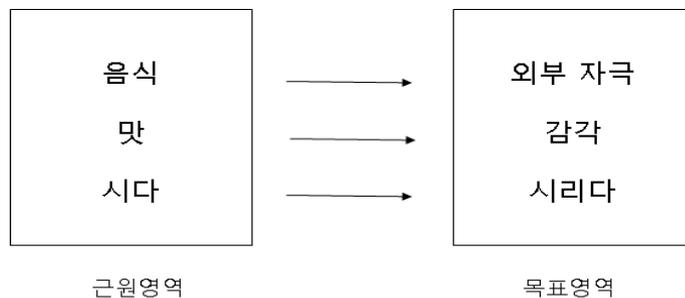
酸<sup>146</sup>): 酢也. 从酉夊聲. 籀文从畷聲. 關東謂酢曰酸. 『唐·洪範』: 曲直作酸. 『周禮·瘍醫』: 以酸養骨. 注: 大味也. 『呂覽·本味』: 酸而不酷. 『楚辭·大招』: 吳酸蒿萎. 【轉注】『高唐賦』: 寒心酸鼻. 注: 鼻辛酸淚欲出也. 又『廣雅·釋草』: 酸木, 狐桃也. 疑即『開寶·本草』之獼猴桃<sub>酸</sub>生.

146)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794쪽.

‘酸’의 本義는 ‘신 맛’이다. ‘酸’은 ‘맛’에서 ‘통증’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 【轉注】에 인용된 『高唐賦』의 문장 ‘寒心酸鼻.(마음을 차갑게 하고 코를 시리게 하다.)’에서 ‘酸’은 ‘시리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일종의 통증으로 몸의 일부가 찬 기운으로 인해 느끼는 감각이다.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酸’의 詞義 引伸 과정은 다음 개념적 은유의 寫像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그림 81> 개념적 은유 ‘시린 통증은 신 맛이다’ 寫像



개념적 은유 ‘시린 통증은 신 맛이다’의 寫像에서 두 영역의 유사 관계는 ‘시다’와 ‘시리다’에서 찾을 수 있다. 신 맛이 나는 음식을 먹었을 때 입 안에 톡 쏘는 느낌과 짜릿한 느낌을 받는다. 찬 기운이 몸에 닿았을 때도 날카로운 사물이 스치듯 따끔하고 짜릿한 느낌을 받는다. 두 감각은 자극에 대한 신체적 반응이 유사하다. 이 유사성을 근거로 근원영역의 ‘음식’은 ‘외부 자극’으로, ‘맛’은 ‘감각’으로 寫像되어 의미영역 간에 대응하는 구조를 이루게 된다.

두 詞義의 引伸 관계를 의미자질 분석 관점에서 본다면 本義의 중심 의미자질인 ‘시다’가 전이되고, 제한 의미자질인 ‘맛’이 ‘감각’으로, 원인을 나타내는 관련 의미자질인 ‘음식’이 ‘외부 자극’으로 변화하면서 詞義가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駁<sup>147)</sup>: 馬色不純也. 从馬爻聲. 與从交之字別. 『易·說卦』: 爲駁馬. 『詩·東山』: 皇駁其馬. 『爾雅·釋畜』: 駟白駁. 『文選·楮·白馬賦』注: 彤白雜毛曰駁. 又 『通俗文』: 黃白雜謂之駁犖. 『字林』: 班駁色不純也. 『漢書·梅福傳』: 白黑雜合謂之駁. 以駁爲之. 【轉注】『荀子·王霸』: 駁而霸. 注: 雜也. 『太元晬』: 冥駁冒晬. 注: 不純也. 『漢書·谷永傳』: 解偏駁之愛. 注: 不周普也. 『薛宣傳』: 兄弟相駁不可. 注: 執意不同. 『後漢·馬援傳』注: 駁, 乖舛也. 蔡邕『獨斷』: 其有疑事, 公卿百官會儀, 若臺閣有所正處, 而獨執異議曰駁議. 皆以駁爲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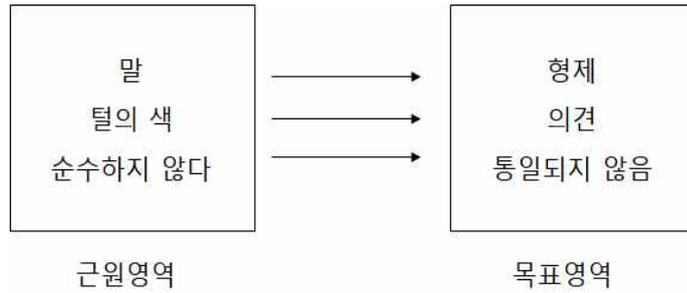
『說文』에 따르면 ‘駁’의 本義는 ‘말의 색이 순수하지 않다’이다. 朱駿聲은 『文選·楮·白馬賦』의 문장 ‘彤白雜毛曰駁.(붉은색과 흰색의 털이 섞인 것이 駁이다.)’, 『通俗文』의 문장 ‘黃白雜謂之駁犖.(황색과 흰색이 섞인 것이 駁犖이다.)’, 『字林』의 문장 ‘班駁色不純也.(班駁은 색이 순수하지 않은 것이다.)’, 『漢書·梅福傳』의 문장 ‘白黑雜合謂之駁. 以駁爲之.(흰색과 검은색이 섞인 것을 駁이라고 한다. 그래서 駁으로 駁을 대신한다.)’를 통해 ‘駁’이 여러 가지 색의 털이 섞여 있는 것을 의미함을 밝혔다. ‘駁’은 本義에서 또 다른 의미로 詞義가 변화한다. 【轉注】에 인용된 『荀子·王霸』의 문장 ‘駁而霸’는 ‘粹而王, 駁而霸.’의 한 구절로 ‘기준을 확립하고 인사를 행하는 사람은 王이며, 기준 없이 어지럽게 인사를 행하는 사람은 霸이다.’라는 의미이다. 이 문장에서 ‘霸’는 ‘기준 없이 어지럽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薛宣傳』의 문장 ‘兄弟相駁不可.’는 ‘형제의 의견이 서로 다르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이 문장에서 ‘駁’은 ‘의견의 불일치’를 가리킨다. ‘기준 없이 어지럽게 행동함’과 ‘의견의 불일치’는 ‘일관성 없는 행동’, ‘일관성 없는 의견’으로 여기서 ‘駁’과 ‘駁’은 本義 중 ‘일관성이 없음’ 혹은 ‘통일되지 않음’이라는 의미자질이 반영되어 詞義가 변화한 것이다.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駁’의 詞義 引伸 과정은 다음 개념적 은유의 寫像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먼저 ‘駁’이 本義에서 ‘의견 불일치’로 변화한 詞義 引伸 과정이다.

147)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308쪽.

<그림 82> 개념적 은유 ‘의견 불일치는 순수하지 않은 것이다’ 寫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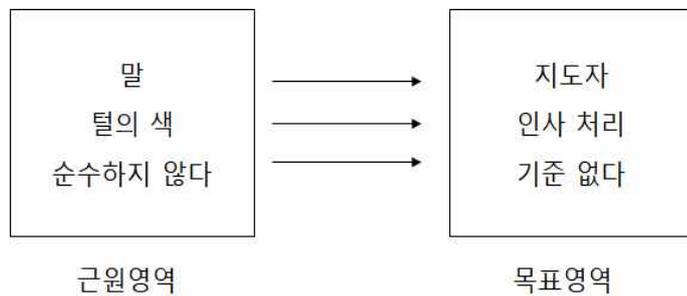


위 그림에서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의 ‘순수하지 않다’와 ‘통일되지 않음’은 두 영역의 유사성으로 작용한다. ‘순수하지 않음’은 여러 종류가 섞여 통일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순수하지 않음’과 ‘통일되지 않음’은 서로 유사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근거로 근원영역의 ‘말’은 ‘형제’로, ‘털의 색’은 ‘의견’으로 寫像되어 의미영역의 요소가 서로 대응하는 구조를 이루게 된다.

두 詞義의 引伸 관계를 의미자질 분석 관점에서 본다면 本義의 중심 의미자질인 ‘순수하지 않음’이 전이되고, 제한 의미자질인 ‘말’, ‘털의 색’이 ‘형제’, ‘의견’으로 변화하면서 詞義가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은 ‘駁’이 本義에서 ‘기준 없는 인사 처리’로 변화한 詞義 引伸 과정이다.

<그림 83> 개념적 은유 ‘기준 없는 인사는 순수하지 않은 것이다’ 寫像



앞서 살펴본 개념적 은유 ‘의견 불일치는 순수하지 않은 것이다’와 마찬가지로 위 그림에서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의 ‘순수하지 않다’와 ‘기준 없다’는 두 영역의 유사성으로 작용한다. 이 점을 근거로 근원영역의 ‘말’은 ‘지도자’로, ‘털의 색’은 ‘인사 처리’로 寫像되어 두 의미영역이 서로 대응하는 구조를 이루게 된다.

두 詞義의 引伸 관계를 의미자질 분석 관점에서 본다면 本義의 중심 의미자질인 ‘순수하지 않음’이 전이되고, 제한 의미자질인 ‘말’, ‘털의 색’이 ‘지도자’, ‘인사 처리’로 변화하면서 詞義가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 존재론적 은유

존재론적 은유는 추상적인 목표영역에 대하여 사물, 실체, 그릇과 같은 존재론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존재론적 은유는 구조적 은유에 비하여 목표영역이 충분히 구조화되지 않음으로써 목표영역에 대해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의미자질 분석 관점에서 존재론적 은유는 구조적 은유와 마찬가지로 本義의 의미자질 중 하나가 전이되어 引伸義의 의미자질로 작용하고, 전이된 의미자질 외에 나머지 의미자질이 변화하여 本義와 引伸義 간에 서로 대응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說文通訓定聲』의 예자를 통해 구조적 은유를 통한 詞義 引伸 과정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短<sup>148</sup>): 有所長短以矢爲正. 从矢, 豆聲. 按: 短不長也. 橫用之器矢最短, 豎用之器豆最短, 故从矢从豆會意. 長以髮喻短以豆矢喻. 或曰从登. 字省聲. 非是. 『素問·至真要大論』: 短而濇. 注: 往來不遠. 是謂短也. 『呂覽·長見』: 以其長見與短見也. 注: 近也. 『楚辭·國殤』: 車錯轂兮短兵接. 注: 刀劍也. 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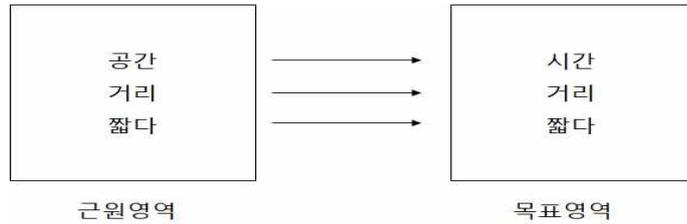
148)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749쪽.

从矢之義。『荀子·非相』：帝堯長。帝舜短。文王長。周公短。仲尼長。子弓短。『史記·孔世家』：僬僥三尺。短之至也。『後漢·王望傳』注：楚人謂袍爲短褐。此从豆之義。【轉注】『書·堯典』：日短星昴。按：太陽行度在南遠于人中國人目視之其過也。速故晝短也。又『洪範』：凶短折。鄭注：未冠曰短。『逢盛碑』：命有悠短字。誤作短。『禮記·表記』：義有長短大小。疏：謂世位淺促。『漢書·五行志』：兄喪弟曰短。又傷禽獸曰短。又『呂覽·先識』：此治世之所以短。注：少也。又『淮南·修務』：知者之所短。注：缺也。又『漢書·蕭望之傳』：短車騎將軍。注：謂毀其短惡也。『史記·屈原傳』：上官大夫短屈原于頃襄王。又『楚辭·大招』：鱗鱗短狐。注：短狐鬼蜮也。亦作短弧。

許愼에 따르면 ‘短’의 本義는 ‘짧다’이다. 朱駿聲은 許愼의 정의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橫用之器矢最短，豎用之器豆最短，故從矢從豆會意。(가로로 두고 사용하는 사물 중 가장 짧은 것은 矢이며, 세로로 두고 사용하는 사물 중 가장 짧은 것은 豆이기 때문에 두 글자를 합쳐서 短을 만든 것이며 會意字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短’은 ‘공간적 거리가 짧다’에서 ‘시간적 거리가 짧다’로 詞義가 변화한다. 【轉注】에 인용된 『書·堯典』의 문장 ‘日短星昴.’는 ‘日短星昴，以正仲冬’의 앞 구절로 ‘해가 가장 짧은 시기에 묘성(星昴)이 하늘의 정중앙에 놓이면 仲冬(음력 11월)이다.’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洪範』의 문장 ‘凶短折.(요절하다.)’에 대해 鄭玄은 ‘未鬣曰凶，未冠曰短，未昏曰折.(젓나가 나기 전 세상을 떠나는 것이 凶이고, 加冠 전에(20세 전에) 세상을 떠나는 것이 短이고, 혼인하기 전에 세상을 떠나는 것이 折이다.)’이라고 해석했다. 즉, ‘短’은 ‘살아온 시간이 짧음’을 가리킨다. ‘短’의 本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래 ‘짧다’라는 개념은 ‘공간’ 혹은 ‘가시적 사물’의 한 지점과 한 지점 사이의 거리가 길지 않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은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길이를 가진 대상물’로 인식함으로써 그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공간에서 시간으로의 은유 寫像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84> 개념적 은유 ‘시간은 길이를 가진 대상이다’ 寫像



두 詞義의 引伸 關係를 의미자질 분석 觀點에서 본다면 本義의 중심 의미 자질인 ‘짧다’가 전이되고, 제한 의미자질인 ‘공간’이 ‘시간’으로 변화하면서 詞義가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長<sup>149)</sup>: 久遠也. 从兀从匕. 兀者, 高遠意也. 久則變化. 匕聲. 𠂔者, 倒亡也. 按: 倒匕則篆宜作 𠂔. 許說非也. 字當訓髮, 人毛之最長者也. 𠂔象髮綿延之形, 一以束之. 从巳, 久而色變也. 與老同意. 此字兼象形, 指事, 會意. 肆或體从𠂔, 知長𠂔同義. 或曰从尸从毛省从巳與老同. 作 𠂔 猶作 𠂔 也. 存參. 又按: 古文从儿上與元同, 此上又首之上也. 又古文象形一以束之或曰从尸从毛省. 又漢時俗隸馬頭人為長見說文敘. 【轉注】為長短. 『易·說卦』: 巽為長, 為高. 『詩·泮水』: 順彼長道. 箋: 遠也. 『甫田』: 禾易長畝也. 傳: 竟畝也. 『左·昭五傳』: 長轂九百. 注: 戎車也. 『禮記·樂記』: 長言之也. 注: 引其聲也. 『爾雅·釋天』: 夏為長贏. 『吳都賦』: 習禦長風. 注: 遠風也. 『孟子』: 布帛長短同. 注: 謂丈尺也. 又『儀禮·士冠禮』: 注: 長三尺. 『周禮·淩人』: 注: 長丈二尺. 『釋文』: 凡度長短曰長. 『論語』: 長一身有半. 又為長久. 『廣雅·釋詁三』: 長, 久也. 『詩·長發』: 幅幅既長. 箋: 猶久也. 『齊策』: 未嘗聞社稷之長利. 『禮記·表記』: 義有長短大小. 又為滋長, 增長. 『齊語』: 不月長. 注: 益也. 『楚語』: 昔瓦唯長舊怨. 注: 猶積也. 『呂覽·任數』: 則亂愈長矣. 注: 大也. 『莊子·庚桑楚』: 有長而無本剽. 『釋文』: 增也. 『漢書·嚴安傳』: 壞長地進. 注: 進益也. 『杜欽傳』: 廢奢長儉. 注: 謂崇貴之也. 『賈山傳』: 不可長也. 注: 謂畜養之也. 又為長幼, 君長. 『廣雅·釋詁』: 長, 老也. 長, 君也. 祭義立敬自長始. 注: 兄

149)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908쪽.

也. 『孟子』: 不挾長. 注: 年長也. 『吳語』: 吳晉爭長未成. 注: 先也. 『韓非子·說使』: 重厚自尊謂之長者. 又『詩·皇矣』: 克長克君. 『左·昭二十八傳』: 教誨不倦曰長. 『周禮·大宰』: 二曰長以貴得民. 注: 諸侯也. 而建其長. 注: 謂公卿大夫王子弟食采邑者. 『儀禮·大射儀』: 若賓若長. 注: 孤卿之尊者. 『孟子』: 則疾視其長上之死而不救. 注: 軍率也. 『獨斷』: 今之令長, 古之諸侯.

許慎은 ‘長’의 本義를 ‘久遠也.(멀고 오래되다.)’라고 했다. 그러나 朱駿聲은 ‘字當訓髮, 人毛之最長者也.(長의 의미는 긴 머리털이라고 해야 한다. 사람의 체모 중에 가장 긴 것이다.)’라고 本義의 풀이를 수정했다. ‘長’의 갑골문은 ‘𠂔’으로 사람의 머리에 머리카락이 길게 자란 모습을 본 뜬 것이며, 그 의미는 ‘긴 머리털’이다.<sup>150)</sup>

朱駿聲의 주장을 기준으로 삼으면 ‘長’은 本義인 ‘긴 머리털’에서 ‘공간적 거리가 길다’로 詞義가 변화한다. 【轉注】에 인용된 『詩·泮水』의 ‘順彼長道.(먼 길을 따르다.)’, 『甫田』의 ‘禾易長畝也.(벼가 긴 이랑을 뒤덮다.)’에서 ‘長’은 ‘공간적 거리가 길다’라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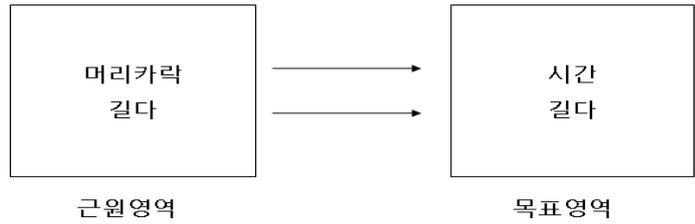
‘長’은 공간적 길이뿐만 아니라 ‘시간적 길이가 길다’라는 의미도 갖는다. 『禮記·樂記』의 ‘長言之也.(길게 말하다.)’, 『爾雅·釋天』의 ‘夏爲長嬴.(여름은 길고 왕성한 계절이다.)’에서 ‘長’은 ‘시간적 길이가 길다’라는 의미이다.

‘長’은 공간적 개념에서 시간적 개념으로 사고가 전환되면서 ‘거리가 길다’에서 ‘시간이 길다’로 詞義가 변화한다.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인 ‘시간’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길이를 가진 대상으로 인식함으로써 그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長’의 공간에서 시간으로의 은유 寫像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50) 馬如森, 『殷墟甲骨文實用字典』, 上海, 上海大學出版社, 2008, 215쪽.

<그림 85> 개념적 은유 ‘시간은 길이를 가진 대상이다’ 寫像



두 詞義의 引伸 關係를 의미자질 분석 관점에서 본다면 本義의 중심 의미 자질인 ‘길다’가 전이되고, 제한 의미자질인 ‘머리카락’이 ‘시간’으로 변화하면서 詞義가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永<sup>151)</sup>: 水長也. 象水筮理之長. 『詩·漢廣』: 江之永矣. 『爾雅·釋詁』: 永, 遠也. 永, 遐也. 【轉注】『方言·一』: 施于眾長謂之永. 『易·訟』: 不永所事. 『書·堯典』: 日永星火. 『詩·卷耳』: 維以不永懷. 『周禮·大祝』: 求永貞. 『儀禮·士冠禮』: 永乃保之. 『禮記·中庸』: 以永終譽. 『論語·天祿永終·書金縢』: 惟永終是圖. 『史記』: 作長. 又『詩·白駒』: 以永今朝. 箋: 久也. 『既醉』: 永錫祚允. 傳: 引也. 『後漢·馬皇后紀』注: 永巷宮中署名也.

‘永’의 本義는 ‘물줄기가 길다’이다. 물리적 영역에서 추상적인 영역으로 사고가 전환되면서 ‘永’은 공간적 개념에서 시간적 개념으로 의미가 변화하였다. 【轉注】에 인용된 『易·訟』의 문장 ‘不永所事.(송사가 오래 가지 않다.)’에서 ‘永’은 ‘시간이 길다’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書·堯典』의 인용문 ‘日永星火.’는 ‘日永星火, 以正仲夏.(해가 떠 있는 시간이 긴 시기에 星火가 중앙에 위치하면 음력 5월이다.)’의 앞 구절인데 여기서 ‘永’은 ‘시간이 길다’라는 의미이다. 『詩·白駒』의 문장 ‘以永今朝.’는 ‘以永今朝, 所謂伊人, 於焉逍遙.’의 한 구절로 ‘아침 내내 오래도록 붙잡다.’라는 의미이다. 이 문장에서 ‘永’은 ‘오랫동안’이라는 의미로 역시나 ‘시간이 길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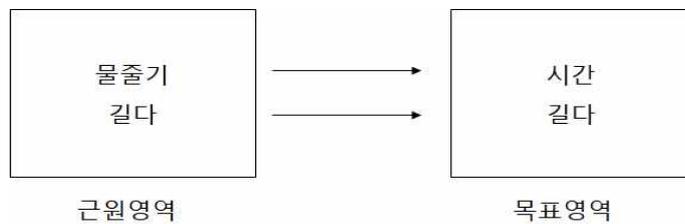
‘永’의 本義는 ‘물줄기가 길다’인데 이것은 자연물인 하천, 강의 공간적 거리

151)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930쪽.

가 긴 것을 의미한다. ‘永’은 공간적 개념에서 시간적 개념으로 사고가 전환되면서 ‘시간이 길다’, ‘시간이 오래다’와 같은 의미를 갖는데, 이것은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길이를 가진 대상물’로 인식함으로써 그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永’의 공간에서 시간으로의 은유 寫像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86> 개념적 은유 ‘시간은 길이를 가진 대상이다’ 寫像



두 詞義의 引伸 관계를 의미자질 분석 관점에서 본다면 本義의 중심 의미자질인 ‘길다’가 전이되고, 제한 의미자질인 ‘물줄기’가 ‘시간’으로 변화하면서 詞義가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滲<sup>152</sup>): 下澆也. 从水參聲. 『漢書·司馬相如傳』: 滋液滲澆. 注: 謂潤澤下究. 『揚雄傳』: 澤滲離而下降. 注: 流貌也. 『宋孝武宣貴妃誄』: 六祈輟滲. 注: 謂滲澆喻祉福也. 『素問·至真要大論』: 淡味滲泄爲陽. 注: 滲泄小便也. 【轉注】 『廣雅·釋詁一』: 滲, 盡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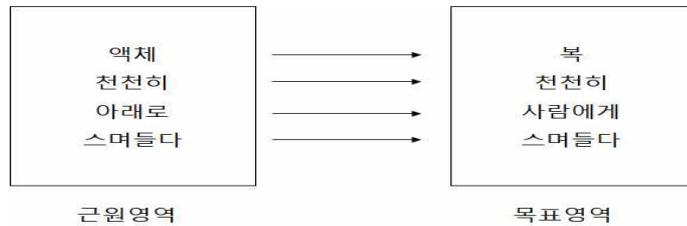
『說文』에 따르면 ‘滲’의 本義는 ‘액체가 아래로 스며드는 것(물리적 대상이 막을 통과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스며드는 것’은 액체 따위가 흘러 들어가는 것이다. ‘스며드는 것’은 보통 짧은 순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오랜 시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滲’은 ‘액체가 스며드는 것’에서 ‘복이 오는 것(추상적 대상이 추상적인 공간 혹은 사람의 기운에 들어가는 것)’으로 詞義가 引伸된다. 【轉注】에 인용된 『宋孝武宣貴妃誄』의

152)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104쪽.

문장 ‘六祈輟滲.(제사를 지냈지만 복이 오지 않는다.)’에서 ‘滲’은 ‘복’을 가리킨다.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滲’의 詞義 引伸 과정은 아래 개념적 은유의 寫像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그림 87> 개념적 은유 ‘복은 액체이다’ 寫像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으로 외부에서 찾아오거나 우리에게 그 기운이 스며든다고 생각한다. ‘스며들다’는 본래 ‘액체’에 대한 개념으로 액체가 사물에 젖어드는 것을 말한다. ‘복’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복’을 ‘액체’로 인식함으로써 외부에서 우리 몸으로 혹은 우리의 정신으로 들어오는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위 그림에서 근원영역의 ‘액체’는 ‘복’에, ‘아래로’는 ‘사람에게’로 寫像되어 ‘滲’이 ‘복’의 개념에 사용되면서 詞義가 점차 확대되는 것이다.

두 詞義의 引伸 관계를 의미자질 분석 관점에서 본다면 本義의 중심 의미자질 ‘스며들다’와 제한 의미자질 ‘천천히’가 전이되고, 제한 의미자질인 ‘액체’가 ‘복’으로, 관련 의미자질인 ‘아래로’가 ‘사람에게’로 변화하면서 詞義가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末<sup>153</sup>): 木上曰末. 从木, 一在其上. 指事. 一在木下爲本. 戴個六書故引唐本  
 从木从上, 當作 𣎵 . 本从木从下, 當作 𣎵 . 按凡偏旁多以古文上作  
 二 . 下作 一 . 罕有从篆文, 上, 丌 者. 異說不可从. 『左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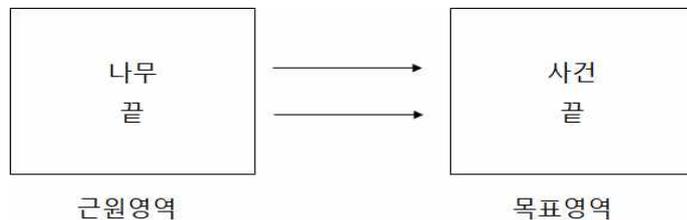
153)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694쪽.

末大必折. 『孟子』: 不揣其本, 而齊其末. 『淮南·墜形』: 末有十日, 其華照下地. 注: 端也. 【轉注】 『周書·武順』: 元首曰末. 又 『左·昭元傳』: 風淫末疾. 注: 四肢也. 『樂記』: 奮末廣責之音作. 注: 動使四支也. 又 『淮南·墜形』: 末僂修頸. 注: 猶脊也. 又 『禮記·曲禮』: 獻杖者執, 末. 疏: 拄地頭也. 『考工·弓人』: 末應將興. 注: 猶蕭也. 又 『方言·十』 末, 緒也. 『廣雅·釋言』: 末, 垂也. 又 『小爾雅·廣言』: 末, 終也. 『書·立政』: 我則末惟成德之彥. 又 『廣雅·釋言』: 末, 衰也. 『禮記·中庸』: 武王末受命. 注: 猶老也. 又 『呂覽·精喻』: 淺智之所爭, 則末矣. 注: 小也. 『禮記·檀弓』: 末之卜也. 注: 微也. 『公羊·桓十五傳』: 末言爾. 注: 淺也. 『左·昭十四傳』: 不爲末減. 注: 薄也. 『楚辭·離世』: 退伏于末庭. 注: 遠也. 『東京賦』: 末學膚受. 注: 謂不經根本. 『後漢·馬援傳』: 末規. 注: 猶下計也. 『班彪傳』: 末流. 注: 猶下流也. 又 『易·象·上』 傳: 本末弱也. 侯果注: 臣也. 『象·上』 傳: 志末也. 『集解』: 猶上也. 『象·下』 傳: 志末也. 疏: 猶淺也.

許慎에 따르면 ‘末’의 本義는 ‘나무의 위’인 ‘나무 꼭대기’이다. 이것은 사물의 위치를 나타내는 글자이다. 【轉注】 에 인용된 여러 문장을 통해 ‘末’이 本義 외에 다양한 引伸義로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 『書·立政』의 ‘我則末惟成德之彥.(왕이 끝내 덕을 이룬 선비가 되다.)’에서 ‘末’은 일이나 사건의 끝을 가리키는 것으로 ‘마지막 시점’이다. ‘末’은 물리적 대상 ‘나무의 끝’에서 ‘사건 발생의 끝’으로 引伸되면서 시간적 개념에 적용되었다.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末’의 詞義 引伸 과정은 다음 개념적 은유의 寫像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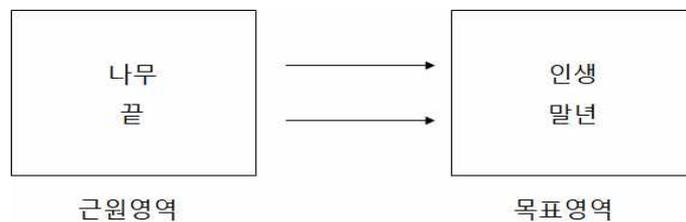
<그림 88> 개념적 은유 ‘사건은 시작과 끝이 있는 사물이다’ 寫像



두 詞義의 引伸 관계를 의미자질 분석 관점에서 본다면 本義의 중심 의미 자질 ‘끝’이 전이되고, 제한 의미자질인 ‘나무’가 ‘사건’으로 변화하면서 詞義가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轉注】에 인용된 『廣雅·釋言』에서는 ‘末’을 ‘쇠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禮記·中庸』의 ‘武王末受命.(무왕은 몸이 쇠하여 운명을 받아들였다.)’에서 역시 ‘末’은 ‘늡다’, ‘쇠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末’이 ‘나무의 끝’에서 ‘쇠하다’로 詞義가 引伸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末’이 공간적 개념에서 시간적 개념으로 詞義가 변화하는 과정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그림 89> 개념적 은유 ‘인생의 말년은 사물의 끝이다’ 寫像



앞서 ‘末’이 ‘사건의 끝’으로 詞義가 引伸된 것과 마찬가지로 근원영역의 ‘나무’가 ‘인생’으로, ‘끝’은 ‘말년’으로 寫像되어 공간적 개념이 시간적 개념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근원영역을 통해 목표영역인 ‘인생의 말년’을 이해했다면 이번에는 목표영역 안에서 ‘인생의 말년’과 관련된 개념들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이 개념들은 ‘인생의 말년’을 구성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환유 寫像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인생의 말년’에서 ‘쇠하다’로 詞義가 변화하는 것은 은유가 아닌 환유에 의한 詞義 引伸 과정으로, 하나의 의미영역 내에서의 개념 간의 寫像을 통해 詞義가 引伸되는 것이다.

‘末’은 은유를 통해 공간적 개념에서 시간적 개념으로 詞義가 변화했으며, 또 다시 환유를 통해 詞義가 변화하는 과정을 겪은 결과 다양한 詞義를 갖게 된 것이다.

### 3. 방향적 은유

방향적 은유는 공간적 방향과 관련하여 하나의 전체적 개념 구조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sup>154)</sup>

방향적 은유는 구조적 은유와 존재론적 은유가 한 개념이 다른 개념의 관점에서 은유적으로 구조화되는 것과는 달리, 상호 관련 속에서 개념들의 전체 체계를 조직하는 은유적 개념이다.<sup>155)</sup> 예를 들어 ‘위’는 의식, 많음, 행복, 숭배 등과 같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아래’는 무의식, 적음, 슬픔, 복종 등과 같이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일관된 체계를 갖는 것이다.

『說文通訓定聲』의 예자를 통해 방향적 은유를 통한 詞義 引伸 과정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上<sup>156)</sup>: 高也. 此古文指事也. 按: 从一从丨. 所謂引而上行. 讀若凶者也. 一與丨皆指事. 篆文作上. 按古文作 . 今據偏旁補. 『詩·燕燕』: 下上其音. 傳: 飛而上曰上音. 『周禮·疾醫』: 冬時有嗽上氣疾. 注: 逆喘也. 『易·需』: 雲上于天干. 注: 升也. 周語』: 民可近也, 而不可上也. 注: 陵也. 『釋名·釋書契』: 下言于上曰表. 又曰上示之于上也. 『廣雅·釋詁一』: 上, 君也. 『禮記·中庸』: 上焉者, 注: 謂君也. 『書·文侯之命』: 昭升于上. 馬注: 謂天也. 『爾雅·釋天』: 冬爲上天. 『釋名』: 其氣上騰. 與地絕也. 『禮記·曲禮』: 太上貴德. 『左傳』: 太上有立德. 『選·詩』: 悠悠太上. 注: 太古也. 又『方言·十二』: 上, 重也. 『孟子』: 故善戰者服上刑. 『周禮·司儀』: 從其爵而上下之. 注: 猶豐殺也. 『禮記·禮器』: 與年之上下. 注: 豐凶也. 又『淮南·說山』: 是以能上之. 注: 大也. 『秦策』: 上客從趙來. 注: 尊客.

‘上’의 本義는 ‘위’이다. ‘上’은 각 문헌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廣雅·釋詁一』에서는 ‘上, 君也.(上은 군주이다.)’라고 풀이했다. 『禮記·中庸』

154) 임지룡,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서울, 한국문화사, 2008, 173쪽.

155) George Lakoff·Mark Johnson, 노양진·나익주 옮김, 『삶으로서의 은유』, 서울, 박이정, 2008, 37쪽.

156)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 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906쪽.

에서는 ‘上焉者.’에 대해 ‘謂君也.(군주이다.)’라고 해석했다. 두 문장에서 ‘上’은 ‘군주’라는 의미로 지위가 높은 신분을 가리킨다.

그리고 『書·文侯之命』의 ‘昭升于上.(덕이 두터워 위로 올라간다.)’에서 ‘上’은 ‘하늘’이다. 시대를 불문하고 인간에게 하늘은 ‘희망’, ‘숭고함’, ‘신’ 등 긍정적인 대상에 비추어 표현된다.

『禮記·曲禮』에서 ‘太上貴德.(태고에 덕을 귀하게 여겼다.)’, 『左傳』에서 ‘太上有立德.(태고에 덕을 세웠다.)’, 『選·詩』에서 ‘悠悠太上(아주 오래 전)’에서 ‘上’은 시간이 앞선 것을 의미한다.

또한 『周禮·司儀』의 ‘從其爵而上下之.(직위에 따라 증감하다.)’에서 ‘上’은 ‘증가시키는 것’이고, ‘下’는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禮記·禮器』에서 ‘與年之上下(한 해의 풍년과 흉년)’에서 ‘上’은 ‘풍년’을 가리키고 ‘下’는 ‘흉년’을 가리킨다. 『秦策』의 ‘上客從趙來.(중요한 손님이 趙에서 오다.)’에서 ‘上’은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說文通訓定聲』에 인용된 많은 문장을 통해 ‘上’이 다양한 의미로 詞義가引伸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인지관점에서 ‘上’이 ‘군주’, ‘하늘’, ‘증가’, ‘풍년’, ‘중요함’으로 의미가 변화하는 과정은 방향적 은유에 근거하여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구조적 은유와 존재론적 은유가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이 서로 대응하여 寫像되면서 영역 간에 대응을 통해 의미가 확대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방향적 은유에서는 이 두 가지 은유 방식과는 달리 요소의 대응을 통한 구조를 이루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 인지이론에 따르면 방향적 은유는 공간적 방향과 관련된 것으로, 방향적 은유의 ‘위-아래’, ‘앞-뒤’, ‘오른쪽-왼쪽’ 등은 물리적 경험, 문화적 경험에 따라 은유화 된다. 일반적으로 ‘위-아래’ 도식에서 ‘위’는 긍정, ‘아래’는 부정으로 평가되고는 한다. 이것은 잔에 물을 부으면 수면이 올라가는 현상에서 ‘위’는 ‘많은 양’을 나타내고 ‘아래’는 ‘적은 양’을 나타내는 경험을 통해 우리의 사고가 언어에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57)</sup>

‘위’는 ‘지위가 높음’, ‘결과가 좋음’, ‘행복’, ‘미덕’, ‘합리적’, ‘증가’ 등의 긍정

157) 임지룡, 『인지의미론』, 서울, 한국문화사, 2017, 181-182쪽.

적인 의미를 갖는 반면 ‘아래’는 ‘지위가 낮음’, ‘결과가 나쁨’, ‘불행’, ‘불합리’, ‘감소’ 등 부정적인 방향으로 詞義가 발전한다. 위에 나열된 ‘上’의 引伸義들은 ‘지위가 높음’, ‘위치가 높음’, ‘농사의 결과가 좋음’, ‘중요함’ 등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詞義로 일관성 있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下<sup>158</sup>): 底也. 指事. 鍚本从反上爲下. 按: 古文一在一之下. 據偏旁補. 篆文从古文 一 . 又作中直而屈之. 『書·舜典』: 疇若予上下草木鳥獸. 傳: 謂澤. 『微子』: 用亂敗厥德于下. 馬注: 世也. 『詩』: 下武維周. 箋: 猶後也. 『周禮·典同』: 下聲肆. 注: 謂鍾形下大. 『周禮·曲禮』: 君臣上下. 『釋文』: 謂大夫士. 又『爾雅·釋詁』: 下, 落也. 『方言·十三』: 捨下. 注: 捨下謂陷下也. 又『禮記·射義』: 下而飲. 注: 降也. 『史記·項羽紀』: 未能下. 『正義』: 以兵威服之曰下. 『周禮·司民』: 歲登下其死生. 注: 下, 猶去也. 『荀子·堯問』: 賜爲人下而未知也. 注: 謙下也. 『書·僞五子之歌』: 民可近不可下. 傳: 謂失分. 『秦策』: 下兵三川. 注: 出兵也.

‘下’의 本義는 ‘아래’이다. ‘下’는 각 문헌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詩』의 ‘下武維周.(후에 이을 자는 周뿐이다.)’에서 ‘下’는 ‘후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시간의 관점에서는 ‘미래’가 되지만, 자리를 물려주고 물려받는 관계에서는 물려받는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뒤 따르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周禮·曲禮』의 ‘君臣上下’에서 ‘上’은 ‘군주’, ‘下’는 ‘신하’를 가리킨다.

『爾雅·釋詁』에서는 ‘下, 落也.(下는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史記·項羽紀』의 ‘未能下.’는 ‘함락시킬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갖는 문장으로 여기서 ‘下’는 ‘함락시키다’라는 의미이다. 『正義』에서 ‘以兵威服之曰下.(무력으로 위협하여 굴복시키는 것이 下이다.)’에서 ‘下’는 『史記·項羽紀』의 문장 ‘未能下.’에서 ‘下’의 의미와 같다.

『周禮·司民』에서 ‘歲登下其死生.(해마다 태어나고 죽는 사람의 수를 기록하고 삭제하다.)’에서 ‘下’는 ‘삭제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書·僞五子之歌』에서 ‘民可近不可下.’는 ‘백성은 가까이 할 수

158)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 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454쪽.

있지만 잃을 수는 없다.’라는 의미로 이 문장에서 ‘下’는 ‘잃다’이다.

『說文通訓定聲』에 인용된 많은 문장을 통해 ‘下’의 다양한 引伸義를 살펴본다.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下’가 本義인 ‘아래’에서 ‘후대’, ‘뒤따르다’, ‘신하’, ‘떨어지다’, ‘무력으로 함락시키다’, ‘삭제하다’, ‘잃다’로 詞義가 변화하는 과정은 방향적 은유 ‘아래는 부정이다’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뒤따르다’는 ‘이끌다’와 비교하여 소극적인 어감을 갖으며, ‘신하’는 ‘군주와 신하’의 관계에서 지위가 낮은 신분에 속한다. 그리고 ‘떨어지다’는 위로 ‘상승하다’와 달리 ‘실패’, ‘불운’ 등의 의미를 갖는다. ‘무력으로 함락시키다’는 그 이유가 어떠한지 강제로 협박하고 위협한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부정적인 詞義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등록하다’가 이름이나 자격을 얻는 의미를 갖는다면, ‘삭제하다’는 이름을 상실하는 의미를 갖으며, ‘잃다’ 역시 상실의 의미이다.

이처럼 ‘下’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詞義로 일관성 있게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尊<sup>159</sup>): 酒器也. 从酋, 卪. 以奉之. 會意. 或从酋从寸. 按: 寸聲, 字亦作罇, 作樽. 『周禮·小宗伯』: 辯六尊之名物. 司農注: 獻尊, 象尊, 著尊, 壺尊, 大尊, 山尊. 『爾雅』: 彝, 卪, 罍, 器也. 注: 皆盛酒尊. 按: 尊者, 大名. 彝爲上, 卪爲中, 罍爲下, 皆以待祭祀賓客之禮器也. 『周禮·司尊彝』: 掌六尊, 六彝之位皆有罍罍人. 廟用修. 注: 讀曰卪. 卪中尊. 謂獻象之屬是尊. 卪卪也. 卪者家大人雲卪卪西字. 以其居中. 故獨得尊名其實彝卪罍皆尊也. 『禮記·明堂位』: 尊用犧象山罍. 『儀禮·士冠禮』: 側尊. 『少牢禮』: 乃啟二尊之蓋. 『左襄廿三傳』: 新樽絜之. 『昭十五傳』: 樽以魯壺. 『淮南·繆稱』: 猶中衢而致尊邪. 【轉注】『爾雅·釋文』: 引『說文』: 尊, 或从寸. 酒官法度也. 今之尊卑從此得名, 故尊亦爲君父之稱. 按: 凡禮酒必先實于尊, 以待酌貴重之器, 非如棹榼置酒爲尋常用物, 故引申爲尊卑之誼. 許書收棹, 不收樽, 其實棹亦卑字也. 『廣雅·釋詁一』: 尊, 敬也. 『廣雅·釋詁四』: 尊, 高也. 『考工·輪人』: 部尊一枚. 注: 高也. 『左·昭五傳』: 尊, 地也. 注: 重也. 『易·系辭』: 天尊地卑. 『白虎通·封禪

159)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806쪽.

』: 天以高爲尊. 『論語』: 尊五美. 皇疏: 崇重也. 『孟子』: 尊德樂義. 注: 貴也. 又『禮記·喪服小紀』: 養尊者必易服. 注: 謂父兄. 『淮南·精神』: 視至尊窮寵. 注: 謂帝王. 『漢書·廣川惠王越傳』: 背尊章嫖以忽. 注: 尊章, 猶言舅姑也. 或曰凡尊卑字借爲宗庫. 尊, 宗一聲之轉, 義實正大當從. 又『莊子·逍遙遊』: 何不慮以爲大樽. 司馬注: 樽如酒器縛之於身, 浮于江湖, 可以自渡.

『說文』에 따르면 ‘尊’의 本義는 ‘술잔’이다. 朱駿聲은 『說文通訓定聲』 【說文】에서 ‘尊’을 설명하기 위해 고대 술잔의 명칭을 제시하고, 그 크기도 비교했다. ‘尊’은 제사에 사용하는 술잔으로 ‘尊’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제사를 지내는 장면을 생각하게 된다. 제사를 지낼 때는 예와 정성을 다해야 하며 제사에 사용되는 기물은 귀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래서 ‘尊’은 ‘귀중하다’, ‘존경하다’, ‘존귀하다’와 같은 의미로 詞義가 변화하게 된다.

【轉注】에 인용된 『廣雅·釋詁四』에서는 ‘尊, 高也.(尊은 높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白虎通·封禪』의 ‘天以高爲尊.(하늘은 높기 때문에 존귀하다.)’에서 ‘尊’은 ‘귀하다’라는 의미이다.

‘尊’의 두 詞義 ‘높다’와 ‘귀하다’의 詞義 引伸 관계는 방향적 은유 ‘위는 긍정이다’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높다’는 위치가 위쪽임을 가리키는 것이고, 위쪽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귀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또한 『左·昭五傳』에서는 ‘尊, 地也. 注: 重也.(尊은 땅이다. 注: 중요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尊’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다. 반면 『易·系辭』에서는 ‘天尊地卑.(하늘은 중요하고 땅은 비천하다.)’라고 했다.

첫 번째 예문에 따르면 ‘尊=땅=중요한 것’이며, 두 번째 예문에 따르면 ‘尊=하늘=중요한 것’이고, ‘卑=땅=비천한 것’이다. 두 예문에서 ‘尊’은 모두 ‘중요한 것’을 가리키지만 하나는 ‘땅’을 또 하나는 ‘하늘’을 가리킨다. 또 주목할 만한 것은 두 예문에서 ‘땅’의 의미가 서로 상반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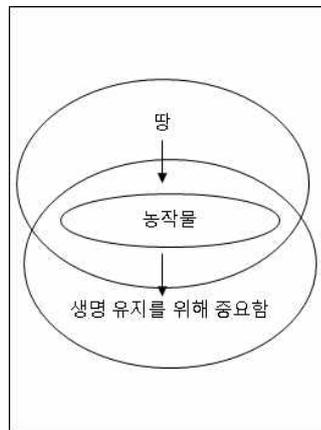
‘땅’이 갖는 두 가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이론을 적용하여 詞義를 분석해야 한다.

우선 ‘天尊地卑.(하늘은 중요하고 땅은 비천하다.)’는 방향적 은유 ‘높은 것은 귀하고, 낮은 것은 비천한 것이다’에 근거하여 詞義 변화를 해석할 수 있

다. 하늘은 높은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며 땅은 낮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비천한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尊’이 ‘땅’을 뜻하며 ‘중요하다’로 詞義가 변화하는 과정은 방향적 은유가 아닌 이중 환유를 통해 해석할 수 있다.

<그림 90> ‘땅은 농작물을 대표하고, 농작물은 중요함을 대표한다’ 환유 寫像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터전이고 농사를 지은 결과 백성에게 먹을 것을 제공한다. 현재는 물론 과거에도 인간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먹는 일’이다. ‘땅’은 의미영역 내에서 ‘농작물’로 寫像되어 ‘땅은 농작물을 대표한다’ 환유가 발생한다.

그리고 농작물은 인간의 주된 식량으로 생존을 위해 기본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농작물’은 의미영역 내에서 ‘중요하다’로 寫像되어 ‘농작물은 중요함을 대표한다’ 환유가 발생한다.

‘땅’은 ‘농작물’로 접근 후 또 다시 ‘중요하다’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땅은 농작물을 대표하고, 농작물은 중요함을 대표한다’ 이중 환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 4. 영상 은유

영상 은유는 한 영상 위에 다른 영상을 겹쳐 놓음으로써 대응되는 두 가지 영상에 의해 생성되는 일회적인 寫像으로, 영상 은유의 寫像은 일반적으로 구조적 은유가 수반되지 않는다.<sup>160)</sup>

예를 들어 ‘나의 아내... 그녀의 허리는 모래시계’라는 문장에서 우리는 ‘모래시계’를 통해 ‘아내의 몸’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이 은유 속의 단어들 자체가 모래시계의 어느 부분이 여성 몸의 어느 부분으로 寫像되는지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통된 모양에 기초하여 어느 부분이 어느 부분으로 寫像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이것은 영상 은유를 언어적이라기보다는 개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61)</sup>

『說文通訓定聲』의 예자를 통해 영상 은유를 통한 詞義 引伸 과정을 살펴보고 하겠다.

領<sup>162)</sup>: 項也. 从頁令聲. 『詩·碩人』: 領如蝤蛴. 傳: 頸也. 『桑扈』: 有鶯其領. 『禮記·檀弓』: 是全要領. 『楚語』: 緬然引領南望. 【轉注】『禮記·深衣』注: 古者方領. 按: 衣之曲袷曰領. 又『荀子·正論』: 衣衾三領. 注: 三稱也. 又『爾雅·釋畜』: 小領盜驪. 又『漢書·嚴助傳』: 輿轎而逾領. 『廣雅·釋邱』: 巔阪也. 字亦作嶺. 按: 猶顛之爲巔.

‘領’의 本義는 ‘목’이다. 『漢書·嚴助傳』의 ‘輿轎而逾領.(가마가 산비탈을 넘어 가다.)’에서 ‘領’은 ‘산비탈’을 의미한다. 本義인 ‘목’에서 ‘산비탈’로 詞義가 변하게 된 것은 두 대상의 외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사람의 목은 몸과 머리를 잇는 부위로 목선이 수직에 가까울 정도로 경사가 매우 가파르다고 할 수 있다. 산의 경사는 장소마다 가파른 정도가 다르다. 하지만 산이 위로 솟은 자연물이기 때문에 어디나 경사는 존재한다.

‘領’은 목의 경사진 모습을 통해 산의 경사를 연상하게 되면서 詞義가 확대

160) Zoltan Kovacs, 김동환 옮김, 『은유, 인지언어학적 접근법』, 서울, 로고스라이프, 2014, 95-98쪽.

161) Zoltan Kovacs, 김동환 옮김, 『은유, 인지언어학적 접근법』, 서울, 로고스라이프, 2014, 121쪽.

162)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 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847쪽.

된 것으로, 영상 은유에 의한 詞義 引伸이라고 할 수 있다.

‘목’의 의미자질은 「신체」+「부위」+「얼굴」+「몸통」+「연결」+「가파르다」로 분석할 수 있다. 의미자질 관점에서 ‘頷’의 詞義 引伸은 ‘목’의 의미자질 중 관련 의미자질인 ‘가파르다’가 전이되고, 중심 의미자질과 제한 의미자질이 변화하여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尾<sup>163</sup>): 微也. 从到毛. 在尸後. 古人或飾系尾, 西南夷亦然. 按: 禽獸俊也. 『史記·五帝紀』: 解引【說文】. 尾交接也. 愚謂人畜之分. 造字宜謹. 當从到毛. 从尸聲近是. 『易·履』: 履虎尾, 未濟, 濡其尾. 又『書·堯典』: 鳥獸孳尾. 傳: 交接曰尾. 【轉注】『爾雅·釋天』: 大辰, 房, 心, 尾也. 按: 東方七宿尾九星在後, 象蒼龍之尾故名. 又『方言·十二』: 尾, 梢也, 尾, 盡也. 『廣雅·釋詁四』: 尾, 俊也. 『爾雅·釋水』: 漢, 大出尾下. 注: 猶底也. 字亦作泥. 『莊子·秋水』: 尾閭泄之. 司馬注: 尾閭泄, 海水出外者也. 又『史記·張儀傳』: 獻恒山之尾五城. 『素隱』: 猶末也. 『易』: 遯尾. 注: 尾之爲物, 最在體後者也. 又『秦策』: 王若能爲此尾. 注: 後也. 『太元元文』: 故首尾可以爲庸也. 注: 終也.

『說文』 따르면 ‘尾’의 本義는 ‘금수의 꼬리’이다. 『爾雅·釋天』에서 ‘大辰, 房, 心, 尾也.’는 별자리를 뜻하는 詞義들로 이 문장에서 ‘尾’는 ‘별자리 이름’이다. ‘尾’가 ‘금수의 꼬리’에서 ‘별자리 이름’으로 引伸된 것에 대해 朱駿聲은 ‘東方七宿尾九星在後, 象蒼龍之尾故名.(동쪽의 별자리가 청룡의 꼬리를 닮았기 때문에 ‘尾’라고 한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금수의 꼬리’와 ‘별자리의 모양’의 외형이 유사성을 근거로 詞義가 引伸된 것으로 영상 은유에 속하는 유형이다.

의미자질 관점에서 ‘尾’의 詞義 引伸은 本義인 ‘금수의 꼬리’의 모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관련 의미자질이 전이되고, 나머지 중심 의미자질과 제한 의미자질이 변화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63)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560쪽.

鮐<sup>164</sup>): 海魚名. 从魚, 台聲. 『漢書·貨殖傳』: 鮐鯨千斤. 『吳都賦』: 王鮐侯鮐. 按: 狀如科斗, 疑即今河豚斑魚之屬. 【轉注】『方言·一』: 鮐, 老也, 陳充之會曰耇鮐. 『爾雅·釋詁』: 鮐背, 壽也. 注: 背皮如鮐魚. 舍人注: 老人氣衰, 皮膚消瘠, 背若鮐魚也. 『釋名·釋長幼』: 九十曰鮐背, 背有鮐文也. 『詩·閟宮』: 黃髮台背. 箋: 皆壽徵也. 以台爲之.

‘鮐’의 本義는 복어와 같은 종류의 어류를 가리키는 것으로 물고기 명칭이다. 『吳都賦』에서 ‘王鮐侯鮐.(바닷물고기 중 으뜸은 鮐(고등엇과의 바닷물고기)이고, 그 다음은 鮐(참복과의 바닷물고기)이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朱駿聲은 ‘鮐’가 ‘狀如科斗.(올챙이같이 생겼다.)’라고 보충 설명했다.

【轉注】에 인용된 문장을 통해 ‘鮐’가 ‘어류’에서 ‘노인’으로 詞義가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方言·一』에서는 ‘鮐, 老也. 陳充之會曰耇鮐.(鮐는 늙은 것이다. 陳나라 兗지역에서는 耇鮐라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鮐’가 ‘어류’에서 ‘늙은이, 노인’으로 의미가 引伸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爾雅·釋詁』에서 ‘鮐背, 壽也.(鮐背는 장수를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背皮如鮐魚.(등가죽이 복어와 같다)’, ‘老人氣衰, 皮膚消瘠, 背若鮐魚也.(노인이 기력이 쇠하여 피부가 주름지고, 등이 鮐와 같다.)’라고 注를 달고 해석했다. 이를 통해 ‘鮐’가 ‘어류’에서 ‘노인’으로 詞義가 변화한 근거가 두 대상의 유사한 외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고기의 외형을 통해 노인의 주름진 피부와 굽은 등이 연상되면서 詞義가 引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의미자질 관점에서 ‘鮐’의 詞義 引伸은 ‘鮐’의 외형적 특징인 ‘굽은 등’을 나타내는 관련 의미자질이 전이되고, 중심 의미자질과 제한 의미자질이 변화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鼻<sup>165</sup>): 主臭者也. 从自畀聲. 『老子』: 天食人以五氣從鼻入, 地食人以五味從口入. 『白虎通』: 鼻出入氣高而有竅. 又鼻者, 肺之使. 『易·噬』: 膚滅鼻. 虞注: 良爲鼻. 『太元割』: 割鼻, 入口. 注: 鼻者, 氣息之主也. 【轉注】『方言·十三』: 鼻, 始也. 獸之初生謂之鼻梁益之間謂鼻爲初, 或謂之祖. 又『考工·玉人

164)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179쪽.

165)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633쪽.

』: 鼻寸. 注: 勻流也. 凡流皆爲龍口. 又『廣雅·釋器』: 鈕謂之鼻.

『說文』에서 許慎은 ‘鼻’를 ‘引氣自界也.(공기를 끌어 스스로 숨을 쉬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즉, ‘코’를 가리킨다. 朱駿聲은 ‘鼻’의 本義를 ‘主臭者也.(주로 냄새를 맡는 것이다.)’라고 해석했다. 그리고 本義를 설명하기 위해 『老子』의 ‘天食人以五氣從鼻入, 地食人以五味從口入.(하늘은 다섯 가지 氣로 사람을 먹이고, 땅은 다섯 가지 맛으로 사람을 먹이다.)’, 『白虎通』의 ‘鼻出入氣高而有竅. 又鼻者, 肺之使.(鼻는 氣가 드나드는 곳으로 높고 돌출되어 있다. 또한 鼻는 폐의 사신이다.)’를 인용했다. 이 문장에서 ‘鼻’는 숨 쉬는 기관인 ‘코’를 가리킨다. 오히려 朱駿聲이 설명한 ‘鼻’의 本義인 ‘냄새를 맡다’로 쓰인 문장은 보이지 않는다.

반면, 【轉注】에 인용된 『廣雅·釋器』의 ‘鈕謂之鼻.(손잡이를 鼻라고 한다.)’에서 ‘鼻’는 ‘도장의 손잡이’이다. 코는 보통 안면에서 돌출되어 있다. ‘도장의 손잡이’나 ‘사물의 손잡이’ 역시 본체에서 돌출되어 물건을 잡기 쉽도록 한 것이다. ‘코’와 ‘손잡이’는 바깥으로 돌출된 모습이 유사하다. ‘鼻’의 本義와 引伸義는 외형이 유사한 특징을 근거로 詞義가 引伸된 것으로, 이것은 영상 은유에 의한 詞義 引伸이라고 할 수 있다.

의미자질 관점에서 ‘鼻’의 詞義 引伸은 ‘鼻’의 외형을 묘사하는 관련 의미자질 ‘신체에서 앞으로 돌출되다’가 전이되고, 중심 의미자질과 제한 의미자질이 변화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墳<sup>166)</sup>: 墓也. 从土賁聲. 按: 此字本訓大防也. 『爾雅·釋丘』: 墳, 大防. 『釋地』: 墳, 莫大于河墳. 『詩·汝』: 墳, 遵彼汝墳. 傳: 大防也. 『常武』: 鋪敦淮濱. 傳: 涯也. 鮑照『蕪城賦』: 袤廣三墳. 注: 或曰河墳汝墳淮墳也. 『方言·一』: 墳, 地大也. 青幽之間凡土而高且大者謂之墳. 注: 卽大陵也. 『射雉賦』: 崇墳夷靡. 注: 今呼爲塘. 『楚辭·哀郢』: 登大墳以遠望兮. 注: 水中高者爲墳. 【轉注】『方言·十三』: 冢, 秦晉之間謂之墳. 注: 墳, 取名于大防也. 『禮記·檀弓』: 古也. 墓而不墳. 注: 土之高者曰墳. 聲轉爲蟠. 『孟子』: 卒之東郭蟠間字亦作

166)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816쪽.

藩. 又『爾雅·釋詁』: 墳, 大也.

『說文』에 따르면 ‘墳’의 本義는 ‘무덤’이다. 그러나 朱駿聲은 許慎의 설명과는 달리 ‘墳’의 本義를 ‘此字本訓大防也.(이 글자의 의미는 제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墳’이 쓰인 문장을 인용하여 本義를 자세히 밝혔다.

『爾雅·釋丘』의 ‘墳, 大防.(墳은 제방이다.)’, 『方言·一』의 ‘墳, 地大也. 青幽之間凡土而高且大者謂之墳. 注: 卽大陵也.(墳은 땅이 큰 것이다. 青幽 간에 흙이 높고 크게 쌓인 것을墳이라고 한다. 注: 큰 언덕이다.)’, 『射雉賦』의 ‘崇墳夷靡. (언덕을 높게 쌓고 물의 가장자리를 평평하게 하다.)’, 『楚辭·哀郢』의 ‘登大墳以遠望兮. 注: 今呼爲塘. 水中高者爲墳.(높은 강둑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다. 注: 지금은塘이라고 한다. 물 가운데 높게 올라온 것이墳이다.)’과 같은 설명을 통해 ‘墳’이 흙을 높게 쌓은 형태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朱駿聲은 【轉注】에 『禮記·檀弓』의 문장 ‘古也. 墓而不墳.(옛날에는 묻었을 뿐 봉분을 만들지 않았다.)’을 인용하여 ‘墳’이 ‘제방’에서 ‘무덤’으로 引伸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土之高者曰墳.(흙이 높이 쌓인 것을墳이라고 한다.)’이라고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제방’과 ‘무덤’의 연결고리를 언급했다.

許慎과 朱駿聲은 ‘墳’의 本義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었지만, 朱駿聲이 인용한 문장들과 그 해석을 통해 ‘墳’이 ‘무덤’과 ‘제방’ 두 詞義를 갖게 된 근거가 외형의 유사성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의미자질 관점에서 ‘墳’은 ‘흙을 높고 봉긋하게 쌓은 모습’을 묘사하는 관련 의미자질의 전이와 중심 의미자질 및 제한 의미자질의 변화를 통한 詞義 引伸이라고 할 수 있다.

杠<sup>167</sup>): 牀前橫木也. 从木, 工聲. 『方言』: 牀, 其杠謂之樹, 或謂之趙, 或謂之梓. 【轉注】『孟子』: 十一月徒杠成. 張音方, 橋也. 按: 橫木以渡, 後世或以石爲之, 字又作砭.

167)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45쪽.

『說文』에 따르면 ‘杠’의 本義는 ‘침대에 가로로 놓인 나무’이다. 『孟子』에서 ‘十一月徒杠成. 橋也.(11월에 徒杠을 완성한다. 다리이다.)’라고 한 것에 대해 朱駿聲은 ‘橫木以渡, 後世或以石爲之, 字又作杠.(가로로 나무를 놓고 건너는 것이다. 후에 나무를 돌로 대신했기 때문에 글자를 杠으로 쓰기도 한다.)’이라고 보충 설명했다. 이 문장에서 ‘杠’의 의미는 ‘다리’이다. ‘다리’는 육지와 육지를 가로질러 놓여있는 사물이다. ‘杠’의 本義 ‘침대에 가로로 놓인 나무’와 ‘육지와 육지를 가로질러 놓여있는 다리’는 그 외형이 유사한 것으로 영상 은유를 통해 詞義가 引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미자질 관점에서 ‘杠’은 本義 ‘침대에 가로로 놓인 나무’에서 제한 의미자질에 해당하는 ‘가로로 놓이다’가 전이되고, 중심 의미자질과 제한 의미자질, 관련 의미자질의 변화를 통해 詞義가 引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虹<sup>168</sup>): 蜺也. 狀似虫. 从虫, 工聲. 『明堂月令』曰: 虹始見. 籀文从申. 申, 電也. 『爾雅·釋天』: 蜺, 虹也. 蜺爲挈貳. 注: 蜺, 雌虹也. 『春秋·元命苞』: 陰陽交爲虹. 按: 兩與日相薄而成虹. 【轉注】『禮記·聘義』: 氣如白虹. 『西京賦』: 互雄虹之長梁. 『楚辭·遠逝』: 建虹采以招指. 注: 旗也.

『說文』에 따르면 ‘虹’의 本義는 ‘무지개’이다. 【轉注】에 인용된 『楚辭·遠逝』의 ‘建虹采以招指.(깃발을 세워 부르다.)’에서 ‘虹采’는 ‘깃발’이다. ‘虹采’는 색이 화려함을 뜻한다. ‘虹’의 本義 ‘형형색색의 무지개’와 引伸義 ‘화려한 깃발’은 그 외형이 다채롭고 화려한 특징을 갖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두 詞義는 외형의 특징의 유사함을 근거로 詞義가 확대된 것으로 영상 은유에 의한 詞義 引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의미자질 분석 관점에서 ‘虹’은 ‘무지개’의 특징을 나타내는 관련 의미자질 ‘색이 다채롭다’가 전이되고, 중심 의미자질과 제한 의미자질이 변화하여 詞義가 引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68)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47쪽.

梁<sup>169</sup>): 水橋也. 从木从水, 會意. 刃聲. 古文从水从二木會意从一指事. 『方言·九』: 舳舟謂之浮梁. 『莊子·秋水』: 梁麗可以衝城. 司馬注: 小船也. 『左莊四傳』: 除道梁澐. 『禮記·月令』: 謹關梁. 『孟子』: 十一月與梁成. 『周語』: 十月成梁. 『晉語』: 津梁之上. 又『爾雅·釋宮』: 隄謂之梁. 注: 卽橋也. 或曰石絕水者爲梁. 『詩』: 有狐, 在彼淇梁. 『釋地』: 梁莫大于溴梁. 『水經·濟水』注: 梁水隄也. 『左襄十六傳』: 會于溴梁在今河南懷慶府濟源縣西北原山. 有白澗水是也. 又『周禮·敝人』: 掌以時敝爲梁. 司農注: 水偃也. 偃水爲關空. 以笱承其空. 『詩·谷風』: 無逝我梁. 『詩·楸人』: 維鵜在梁. 『詩·鴛鴦』: 鴛鴦在梁. 『禮記·王制』: 然後漁人入澤梁. 【轉注】『爾雅·釋宮』: 宋廡謂之梁. 注: 屋大梁也. 按: 南北之棟也. 又楣謂之梁. 注: 門戶上橫梁. 按: 卽【說文】之楣也. 『書·無逸』 鄭本: 乃或梁閣. 『禮記·喪服四制』 古本: 高宗梁閣. 又『詩·小戎』: 五檠梁輶. 傳: 輶上句衡也. 『甫田』: 如茨如梁. 傳: 車梁也. 按: 以其穹隆, 故謂之梁. 『左·定五傳』: 楚沈諸梁字子高. 又『史記·司馬相如傳』: 怵焘以梁倚, 集解相著也.

『說文』에 따르면 ‘梁’의 本義는 ‘다리’이다. ‘다리’는 수면을 횡단하며 두 공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轉注】에 인용된 『爾雅·釋宮』의 ‘宋廡謂之梁.(대들보를 梁이라고 한다.)’, 『詩·小戎』의 ‘五檠梁輶(다섯 번 가죽으로 감은 멩에와 끌채)’에서 ‘梁’은 각각 ‘대들보’와 ‘멍에’이다. ‘다리’는 수면을 가로 질러 육지와 육지를 연결하는 것이고, ‘대들보’는 작은 들보의 하중을 받기 위해 기둥과 기둥을 가로 질러 놓인 것이며, ‘멍에’는 가로로 놓여 수레의 양쪽의 끌채를 연결하는 것이다. 세 가지 사물은 모두 기능은 다르지만 지점과 지점, 사물과 사물을 가로 질러 연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것은 외형의 유사함을 근거로 詞義가 引伸된 것으로 영상 은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의미자질 분석 관점에서 ‘梁’은 本義 ‘다리’에서 다리가 놓여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관련 의미자질 ‘가로질러 놓이다’와 ‘두 지점을 연결하다’가 전이되고, 중심 의미자질과 제한 의미자질이 변화하여 詞義가 引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69)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 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912쪽.

冢<sup>170</sup>): 高墳也。从冂, 冢聲。冢冢一聲之轉。或曰从塚省, 會意。塚, 掘土也。亦通。今附豐部。『周禮·冢人』: 掌公墓之地。『方言·十三』: 冢, 秦晉之間, 或謂之隴。【轉注】『詩·綿』: 乃立冢土。傳: 大社也。又『爾雅·釋山』: 山頂冢。『詩·十月之交』: 山冢峯峯。『西山經』: 華山冢也。注: 冢者, 神鬼之所舍也。

『說文』에 따르면 ‘冢’의 本義는 ‘봉분’이다. ‘봉분’은 흙을 쌓아 올려 만든 둥근 모양의 무덤이다. ‘冢’은 本義인 ‘무덤’에서 ‘산 정상’으로 詞義가 引伸된다.

【轉注】에 인용된 『爾雅·釋山』의 ‘山頂冢(산 정상)’과 『詩·十月之交』의 ‘山冢峯峯.(산 정상이 높고 험하다.)’에서 ‘冢’은 산의 맨 꼭대기인 ‘산 정상’을 가리킨다. ‘봉분’은 마치 작은 산과 같은 모습이며, 맨 꼭대기가 봉긋한 형태를 띤다. ‘산’과 ‘봉분’은 꼭대기가 봉긋한 모습을 띤다는 외형의 유사함을 근거로 詞義가 引伸된 것으로 영상 은유에 의한 詞義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의미자질 관점에서 ‘冢’은 외형을 나타내는 관련 의미자질인 ‘꼭대기가 봉긋하다’가 전이되고, 중심 의미자질과 제한 의미자질이 변화하여 詞義가 引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觜<sup>171</sup>): 鷗舊頭上角觜也。从角此聲。頂有毛似角。【轉注】鳥味銳如角, 故曰觜。『射雉賦』: 裂膝破觜。注: 喙也。又『廣雅·釋親』: 觜, 口也。以觜爲之。則移以稱人。俗子作嘴。又『說文』一曰觜也。按: 佩角銳耑象觜形。

『說文』에 따르면 ‘觜’의 本義는 ‘새 대가리 위에 빨처럼 솟은 털’이다. ‘觜’는 本義에서 ‘새 부리’로 引伸된다. 朱駿聲은 【轉注】에 ‘鳥味銳如角, 故曰觜.(새의 부리가 빨과 같이 생겨 觜라고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射雉賦』의 ‘裂膝破觜.(모이 주머니를 찢고, 부리를 깨다.)’에서 ‘觜’는 ‘부리’이다.

‘觜’의 本義 ‘새 대가리 위에 빨처럼 솟은 털’과 ‘새 부리’는 모두 뾰족한 모습을 띤다. 두 詞義는 서로 외형의 유사한 특징을 근거로 引伸된 것으로, 이 引伸 과정은 영상 은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미자질 관점에서 ‘觜’는 本義 ‘새 대가리 위에 빨처럼 솟은 털’에서 외형

170)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43쪽.

171)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596쪽.

을 묘사하는 제한 의미자질인 ‘뿔과 같은 모습’이 전이되고, 중심 의미자질, 제한 의미자질이 변화하여 詞義가 引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綏<sup>172</sup>): 系冠纓也. 从系委聲. 謂纓之垂者. 『爾雅·釋詁』: 綏, 繼也. 『禮記·內則』: 冠綏纓. 注: 纓之飾也. 『玉藻』: 有事然後綏. 『檀弓』: 喪冠不綏. 【轉注】 『釋名·釋兵』: 綏, 有虞氏之旌也. 注: 旌竿首, 其形樂樂然也. 『明堂位·樂記』: 以綏爲之. 又『爾雅·釋器』: 縹綏也. 按: 婦人蔽膝之系也. 郭注: 失之. 又『釋水』: 縹綏也. 謂維丹之小索. 其大索曰紼. 『詩·采』: 菽縹作纒. 『禮記·檀弓』: 范則冠而蟬有綏. 注: 謂蝸喙, 長在腹下.

『說文』에 따르면 ‘綏’의 本義는 ‘갓 끈’이다. ‘갓 끈’은 모자를 머리에 고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 모습이 아래로 처져있다는 특징이 있다.

【轉注】에 인용된 『禮記·檀弓』의 ‘范則冠而蟬有綏.(벌에는 갓이 있지만 갓 끈은 없으며, 매미는 갓 끈이 있다.)’에서 ‘綏’는 ‘매미의 배 부위에 자라는 것’으로 아래로 처진 모양을 띤다. ‘갓 끈’과 ‘매미 배에 자라는 것’은 모두 아래로 처진 형태로 외형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釋名·釋兵』의 ‘綏, 有虞氏之旌也.(綏는 虞씨의 기(旗)이다.)’에 대해 ‘旌竿首, 其形樂樂然也.(깃대 머리의 장식이 아래로 축 늘어진 모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깃대의 모습도 역시나 아래로 처져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매미의 배에 자라는 것’과 ‘기(旗)’는 외형이 유사함을 근거로 詞義가 引伸된 것으로 영상 은유에 의한 詞義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의미자질 관점에서 ‘綏’는 그 외형을 묘사하는 관련 의미자질 ‘아래로 처지다’가 전이되고, 중심 의미자질과 제한 의미자질이 변화하여 詞義가 引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畢<sup>173</sup>): 田网也, 从田, 从畢. 象形. 或日从畢由馨. 畢, 网形小而柄長. 『詩·鴛鴦』: 畢之羅之. 『禮記·月令』: 田獵置罟, 羅網畢翳. 『齊語』: 田狩畢戈. 注: 掩雉兔之网. 『漢書·楊雄傳』: 其餘荷垂天之畢. 『晉語』: 陽畢. 古今人表作罕.

172)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 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568쪽.

173)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 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649쪽.

字亦作畢. 『呂覽·季春』: 田獵畢戈. 『廣雅·釋器』: 畢, 率也. 『楚辭·守志』: 舉天畢兮掩邪. 【轉注】 『爾雅·釋天』: 濁謂之畢. 按: 西方宿八星, Y又如畢網形. 亦曰罕車. 『詩·大東』: 有捄天畢. 漸漸之石, 月離于畢. 又『儀禮·特牲禮』: 宗人執畢先入. 注: 狀如叉. 『禮記·雜記』: 畢用桑長三尺. 注: 所以助主人于載者. 蓋助載鼎實之器, 亦象網形. 又『儀禮·大射儀』: 以弓爲畢. 注: 畢, 所以助教助執事者. 以木爲之. 長三尺. 此以弓代之也. 按: 當亦岐頭象網形.

『說文』에 따르면 ‘畢’의 本義는 古代에 수렵할 때 사용하던 ‘긴 그물’이다. 손잡이가 긴 형태를 띤다.

【轉注】에 인용된 문장을 통해 ‘畢’이 ‘별자리 이름’으로 引伸되었음을 알 수 있다. 『爾雅·釋天』의 ‘濁謂之畢.(濁은 畢星이다.)’에 대해 朱駿聲은 ‘西方宿八星, Y又如畢網形.(서쪽 별자리 모양은 Y와 같은 모양으로 ‘畢’의 형태를 띤다.)’이라고 보충 설명하고 있다.

또한 『儀禮·特牲禮』의 ‘宗人執畢先入.(宗인이 畢를 잡고 먼저 들어가다.)’, 『禮記·雜記』의 ‘畢用桑長三尺.(畢은 뽕나무로 만든 것으로, 그 길이가 三尺이다.)’에서 ‘畢’은 각각 ‘제사에 사용하는 도구’와 ‘그릇을 채울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이 두 詞義와 관련해서 ‘狀如叉.(작살과 같은 모양이다.)’, ‘亦象網形.(그물과 같이 생겼다.)’이라고 注를 추가하여 보충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儀禮·大射儀』의 ‘以弓爲畢.(弓으로 畢를 삼는다.)’에 대해서는 ‘畢, 所以助教助執事者. 以木爲之. 長三尺. 此以弓代之也.(가르치거나 일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나무로 만든 것으로 길이가 三尺이다. 弓으로 이것을 대신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朱駿聲은 이에 대해 ‘當亦岐頭象網形.(머리 부분이 갈라진 것이 畢의 모양과 닮았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畢’과 그 모양이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畢’이 本義인 ‘그물’에서 ‘별자리’, ‘도구’로 詞義가 引伸된 것은 외형의 유사함을 근거로 발생한 것이며, 이것은 영상 은유에 해당한다.

의미자질 관점에서 ‘畢’은 本義 ‘수렵용 그물’에서 외형을 묘사하는 관련 의미자질인 ‘긴 손잡이’, ‘끈이나 실로 구멍이 나게 엮은 모습’이 전이되고, 중심 의미자질과 제한 의미자질이 변화하여 詞義가 引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斗<sup>174</sup>): 十升也. 象形. 有柄. 『說文』敘: 俗謂人持十爲斗. 蓋俗字作斗. 『禮記·月令』: 角斗甬. 【轉注】『通俗文』: 木瓢爲斗. 『大戴·保』. 傳: 太宰持斗而禦戶右. 注: 斗所以斟. 『詩·行葦』: 酌以大斗. 又『易·豐』: 日中見斗. 『穀梁文·十四』傳: 斗有環域也. 按: 北斗七星. 南斗六星. 又天市垣小斗五星. 皆象斗形, 故以爲名. 『漢書·五行志』: 斗, 天之三辰. 綱紀量也. 『春秋文耀鉤』: 斗者, 天之喉舌. 又『釋名·釋宮室』: 斗在樂兩頭, 如斗也. 斗負上員櫬也. 又『釋床帳』: 小帳曰斗帳, 形如覆斗也.

『說文』에 따르면 斗의 本義는 ‘十升’으로 양의 단위이다. 古代에 양을 측정할 때는 정량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했는데, ‘斗’가 그 중 하나로 손잡이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斗’는 외형이 유사한 특징을 근거로 ‘식기’, ‘북두칠성’으로 詞義가 변화한다.

【轉注】에 인용된 『大戴·保』의 ‘太宰持斗而禦戶右.(太宰가 斗를 들고 오른 쪽에 서다.)’에서 ‘斗’는 ‘식기’이다.

『易·豐』의 ‘日中見斗.(대낮에 斗가 보인다.)’, 『穀梁文·十四』의 ‘斗有環域也.(북두칠성에 고리처럼 생긴 경계가 있다.)’에서 ‘斗’는 ‘북두칠성’을 가리킨다.

朱駿聲은 ‘斗有環域也.’에 대해 ‘北斗七星. 南斗六星. 又天市垣小斗五星. 皆象斗形, 故以爲名.(북쪽에는 일곱 개의 별, 남쪽에는 여섯 개의 별, 天市垣에는 다섯 개의 별이 있는데 모두 斗와 같은 형상이다. 그래서 斗라고 한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斗’가 ‘별자리’로 詞義가 引伸될 수 있는 근거가 本義의 형상과 유사한 특징이 있기 때문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斗’가 本義인 ‘양을 측정하는 도구’에서 ‘식기’, ‘별자리’로 詞義가 引伸된 것은 외형의 유사한 특징에 근거한 것으로 영상 은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의미자질 관점에서 ‘斗’는 그 외형을 묘사하는 관련 의미자질 ‘손잡이가 있다’, ‘국자와 같은 모습’이 전이되고, 중심 의미자질과 제한 의미자질이 변화하여 詞義가 引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74)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355쪽.

## V. 결론

본고는 인지적 관점에서 古代 漢語 詞義 引伸의 과정을 분석한 논문이다. 인지언어학자들은 詞義가 확장되는데 환유와 은유적 사고가 중요한 원리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환유와 은유는 본래 비유법의 일종으로 수사학에서 다루어져 왔지만 인지언어학자들은 많은 연구를 통해 환유와 은유가 인간 사유 방식의 하나로 언어 사용에 깊이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환유와 은유를 의미자질의 변화를 통해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우선, 환유를 통해 『說文通訓定聲』 예자의 詞義 引伸 과정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환유는 하나의 의미영역 안에서 개념과 개념 간의 寫像을 통해 詞義 引伸이 발생하는 것으로, 의미자질 분석 관점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식에 해당한다.

첫째, 本義의 의미자질이 파생되어 새로운 詞義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둘째, 本義의 의미자질의 집합이 파생되어 새로운 詞義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셋째, 本義의 의미자질 중 일부가 전이되고 또 다른 의미자질과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詞義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본고에서는 Kovecses와 Radden의 환유 유형을 기준으로 古代 漢語 詞義 引伸의 유형을 분류하고 분석했다. Kovecses와 Radden의 환유 이론이 널리 통용되고, 또한 연구가 매우 상세하게 진행되었다고 평가<sup>175)</sup>를 받기는 하지만, 古代 漢語 詞義 引伸을 연구에 적용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음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碩’은 本義인 ‘머리가 크다’에서 ‘크다’로 詞義가 引伸되고, ‘黠’은 本義인 ‘오디가 익어 검은 색을 띠는 것’에서 ‘검은색’으로 詞義가 引伸되며, ‘涉’은 本義인 ‘징검다리가 있는 물을 건너다’에서 ‘건너다’, ‘물을 건너다’로 詞

175) Vyvyan Evans, Melanie Green, 임지룡·김동환 옮김, 『인지언어학기초』, 서울, 한국문화사, 2008, 344쪽.

義가 引伸된다.

Kovecses와 Radden이 분류한 환유의 유형에 따라 위 詞義 引伸의 유형을 분류하면 세 詞義는 모두 ‘전체-부분’ 환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碩’, ‘黠’의 本義와 引伸義는 ‘특성과 특성의 관계’를 가지며, ‘涉’의 本義와 引伸義는 ‘행동과 행동의 관계’를 갖는다. 이것은 Kovecses와 Radden이 분류한 환유 유형인 ‘사물과 부분 ICM’, ‘척도 ICM’, ‘구성 ICM’, ‘사건 ICM’, ‘범주와 구성원 ICM’, ‘범주와 특성 ICM’ 중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다. 물론 ICM은 하나의 모형으로 두 개념의 관계를 기반으로 새롭게 생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특성과 특성의 관계’, ‘행동과 행동의 관계’는 동일한 개념 간의 관계로 ICM을 생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漢字는 사물, 상태, 동작을 그림으로 형상화한 문자로 동작이나 상태를 형상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가 그림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이 곧 本義이다. 이와 같은 漢字의 형성 원리로 인해 漢語의 詞義는 행동, 대상, 상태, 장소 등 다양한 의미자질을 내포한다. 그리고 漢語는 詞義가 내포하는 모든 의미자질로 의미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漢語가 詞義가 내포하는 모든 의미자질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각 의미자질의 파생에 의해 새로운 의미가 생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에 詞義가 전체이고 의미자질을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이라고 가정한다면, 의미자질의 파생은 詞義의 의미자질이 구성하는 하나의 의미영역 내에서의 寫像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곧 환유에 의한 詞義 引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漢語는 환유적 사고에 의해 詞義 引伸이 주로 발생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환유를 통해 詞義가 引伸되었을 때 引伸 전후의 詞義를 모두 개념 관계로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은유를 통해 『說文通訓定聲』 예자의 詞義 引伸 과정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구조적 은유와 존재론적 은유는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의 개념들이 寫像을 통해 詞義가 引伸되는 방식이다.

의미자질 분석 관점에서 은유는 本義의 의미자질 중 하나가 전이되면서 발

생한다. 우선 本義의 의미자질의 일부가 전이되고, 나머지 의미자질이 변화하여 새로운 의미영역을 이루면서 本義와 引伸義 간에 구조를 이루는 방식이다. 구조를 이룬다는 것은 本義의 의미자질과 引伸義의 의미자질 중에 서로 유사한 기능을 하는 의미자질 간에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방향적 은유는 구조적 은유와 존재론적 은유와 달리 의미영역 간에 대응 구조를 구축하지 않는다. 이것은 本義와 引伸義의 의미자질이 서로 대응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이다. 방향적 은유는 방향과 관련된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詞義가 일관성 있게 변화하고 발전해가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上’이 ‘풍년’으로 引伸되거나, ‘下’가 ‘공격하다’로 引伸되는 것은 인간이 ‘위쪽’에 대해서는 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반면, ‘아래’에 대해서는 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詞義가 변화 및 발전해나가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詞義 引伸 과정은 의미자질의 변화로 설명하기에는 이론적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詞義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이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에 매우 적합한 것으로, 의미자질 분석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영상 은유는 本義와 외형이 유사한 특징을 근거로 詞義가 변화하는 것이다. 영상 은유는 시각적 자극을 통해 두 대상의 유사한 특징을 인지함으로써 은유적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의미자질 분석 관점에서 영상 은유는 관련 의미자질 중 외형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의미자질이 전이되고, 나머지 의미자질이 변화하여 詞義가 引伸되는 방식에 해당한다.

본고에서는 『說文通訓定聲』의 예자를 가지고 古代 漢語 詞義 引伸의 과정을 분석하고 유형을 분류했다. 『說文通訓定聲』은 清代 說文四大家 중 한 사람인 朱駿聲의 저작이다. 朱駿聲은 許慎이 창안한 글자 배열법을 따르지 않고, 古韻을 기준으로 글자를 재배열 했다는데 매우 독창적인 평가를 받는다. 또한 朱駿聲은 轉注를 詞義의 引伸으로 인식하고 本義 외에 기타 詞義를 전면적으로 연구함으로써 漢語 詞義 발전의 규칙을 밝혔다고 평가 받는다.

본고는 朱駿聲이 【轉注】로 분류한 詞義를 引伸義로 삼고, 本義에서 引伸義로 詞義가 변화하는데 인지적 관점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분석했다. 그러나 연구 결과 朱駿聲이 本義와 引伸義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경우가 적

지 않게 확인되었다.

즉, 本義의 쓰임이 【轉注】로 분류되거나, 引伸義의 쓰임이 本義를 설명하는 인용문에 쓰인 경우가 종종 발견되었다.

‘전체-부분’ 환유의 ‘사물과 부분 ICM’에서 ‘鉤’가 引伸義인 ‘사다리’로 쓰인 예가 【轉注】가 아닌 本義를 설명하는데 인용되었으며, ‘전체-부분’ 환유의 ‘구성 ICM’에서 ‘石’이 引伸義인 ‘악기’로 쓰인 예 역시 【轉注】가 아닌 本義를 설명하는데 인용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부분-부분’ 환유에서 더 자주 발견되었다. ‘부분-부분’ 환유의 ‘행동 ICM’에서 ‘支’, ‘滕’, ‘鞭’, ‘繩’은 引伸義로 쓰인 문장이 【轉注】가 아닌 本義를 설명하는데 인용되었다. 또한 ‘부분-부분’ 환유의 ‘행동 ICM’의 ‘嗣’는 引伸義의 쓰임이 本義를 설명하는데 인용되었으며, 반대로 本義로 쓰인 문장이 【轉注】로 분류되어 인용되기도 했다. ‘劫’ 역시 引伸義로 쓰인 문장이 【轉注】가 아닌 本義를 설명하는데 인용되었다.

‘부분-부분’ 환유의 ‘인과성 ICM’에서 ‘冰’도 引伸義로 쓰인 문장이 【轉注】가 아닌 本義를 설명하는데 인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체-부분’ 환유보다 ‘부분-부분’ 환유에서 더 두드러지는데 이것은 ‘부분-부분’ 환유가 의미영역 내의 부분과 부분 간의 寫像을 통해 성립하는 것으로, ‘전체-부분’ 환유의 寫像과 비교하여 두 관계가 더욱 밀접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의미자질 분석 관점에서 본다면 이와 같은 현상은 詞義의 의미자질이 과생되어 생성된 引伸義인 경우 本義와 引伸義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환유를 통한 詞義 引伸 분석에서 本義와 引伸義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확인된 반면, 本義와 은유를 통해 생성된 引伸義는 대체로 명확히 구분되었다.

단, 주목할 만한 것은 방향적 은유에서 분석한 ‘上’과 ‘下’의 詞義 체계이다. 朱駿聲은 ‘上’과 ‘下’가 쓰인 많은 문장을 『說文通訓定聲』에 인용하여 그 쓰임을 밝혔다. 본고에서 살펴본 詞義만 하더라도 ‘上’은 ‘하늘’, ‘시간이 앞서다’, ‘군주’, ‘증가하다’, ‘풍년’과 같은 詞義를 가지며, ‘下’는 ‘후대’, ‘뒤따르다’, ‘신

하’, ‘떨어지다’, ‘무력으로 함락시키다’, ‘삭제하다’, ‘잃다’와 같이 다양한 詞義를 갖는다. 그러나 朱駿聲은 이 모든 詞義를 本義를 밝힌 뒤 바로 나열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轉注】 항목을 따로 두지 않았다는 것이 주의하여 살펴볼 만 하다.

漢字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古代 漢語 詞義를 연구하는 일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고대 문헌을 해독하거나 중국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古代 漢語에 대한 선행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古代 漢語 詞義의 연구는 가치를 갖는다. 이 외에 古代 漢語의 연구는 現代 漢語 어휘 교육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現代 漢語와 古代 漢語는 문장의 형식뿐만 아니라 어법, 음운, 어휘의 차이도 적지 않다. 물론 어휘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漢字의 本義에서 그 의미가 확대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現代 漢語에서 쓰이는 어휘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어 ‘矯’의 本義는 ‘굽은 것을 곧게 펴는 것’이다. 本義를 기준으로 ‘矯’는 ‘활을 바로잡다’, ‘오류를 바로잡다’ 등과 같은 의미로 의미가 확장된다. 現代 漢語에서 ‘矯’가 쓰인 詞로는 矯揉(교정하다, 바로잡다), 清矯(청렴하며 절개를 굽히지 않다), 匡矯(바르게 고치다), 矯正機(교정기) 등이 있다. 이 詞義들의 공통적인 의미자질은 ‘굽히지 않다’와 ‘바로잡다’이다. 또한 ‘柄’의 本義는 ‘도끼의 손잡이’이다. ‘柄’이 쓰인 詞로는 柄臣(권신), 柄權(권력을 쥐다), 柄政(정권을 쥐다), 傘柄(우산 손잡이) 등이 있다. 이 詞義들의 공통적인 의미자질은 그 대상이 구체적이든, 추상적이든 쥐고 다루는 것이다.

언어를 학습하고 활용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어휘에 대한 학습이다. 어휘 학습은 언어 사용자의 언어 사용 능력과는 무관하게 영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어휘 활용 수준이 곧 언어 사용의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언어학습에 있어 어휘 학습은 여전히 부족한 학습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휘학습을 단순 암기 형식이 아닌 어휘 내부 및 외부의 변화에 따른 詞義 변화의 관점을 통해 교육한다면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가나다순, 알파벳순 및 연대순

### 【단행본】

- 孔在錫, 『중국언어학』, 서울, 신서원, 2002.
- 김동환, 『인지언어학과 개념적 혼성 이론』, 서울, 박이정, 2013.
- 김동환, 『환유와 인지-인지언어학적 접근법』, 서울, 한국문화사, 2019.
- 김애령, 『은유의 도서관-철학에서의 은유』, 서울, 그린비출판사, 2013.
- 김태완, 『중국의 상형문자』, 서울, InterBooks, 2015.
- 박영순, 『한국어 은유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 손예철, 『簡明甲骨文字典』, 서울, (주)박이정, 2019.
- 오예옥, 『형식의미론과 인지의미론에서 본 어휘의미론』, 서울, 역락, 2004.
- 오예옥, 『언어사용에서의 은유와 환유』, 서울, 역락, 2011.
- 윤영은, 『언어의 의미 및 화용 이론과 실제-형식 의미론적 관점과 인지 의미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문화사, 2013.
- 이규갑, 『漢字學教程』, 서울, 차이나하우스, 2015.
- 이돈주, 『漢字學總論』, 서울, 박영사, 2012.
- 이영주, 『漢字字義論』,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임지룡,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서울, 한국문화사, 2008.
- 임지룡, 『인지의미론』, 서울, 한국문화사, 2017.
- 조광제, 『철학 라이더를 위한 개념어 사전 생각정원』, 서울, 생각정원, 2012.
- 히라가 마사코, 김동환·최영호 옮김, 『은유와 도상성-인지언어학적 텍스트 분석』,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7.
- Cruse, D·Alan ·Croft, William, 김두식·나익주 옮김, 『인지언어학』, 서울, 박이정, 2010.
- Ewa Dabrowska & Dagmar Divjak, 임지룡·김동환 옮김, 『인지언어학 핸드북』, 서울, 박이정, 2018.
- George Lakoff·Mark Johnson, 노양진·나익주 옮김, 『삶으로서의 은유』, 서울, 박이정, 2008.
-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北京, 語文出版社, 2008.
- 何自然, 『語用學概論』, 長沙, 湖南教育出版社, 1988.

- Jeannette Littlemore, 김주식·김동환 옮김, 『인지언어학과 외국어 교수법』, 안양, 소통, 2012.
- 齊沖天·齊小乎, 『漢語音義字典·上冊』, 北京, 中華書局, 2010.
- 齊沖天·齊小乎, 『漢語音義字典·下冊』, 北京, 中華書局, 2010.
- 蔣紹愚, 이강재 옮김, 『古漢語詞彙講話』, 서울, 차이나하우스, 2012.
- John Lyons, 강범모 옮김, 『의미론1-의미연구의 기초』, 서울, 한국문화사, 2011.
- John Lyons, 강범모 옮김, 『의미론2-의미와 문법, 맥락, 행동』, 서울, 한국문화사, 2013.
- John I. Saeed, 이상철 옮김, 『최신의미론』, 서울, 한국문화사, 2004.
- 馬如森, 『殷墟甲骨文實用字典』, 上海, 上海大學出版社, 2008.
- 孫雍長, 『訓詁原理』, 北京, 語文出版社, 1997.
- Vyvyan Evans, Melanie Green, 임지룡·김동환 옮김, 『인지언어학기초』, 서울, 한국문화사, 2008.
- 王朝忠, 『漢字形義演釋字典』, 成都, 四川辭書出版社, 2006.
- 王寧, 『訓詁學』,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04.
-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 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 Zoltan Kovecses, 김동환·최영호 옮김, 『은유와 감정-언어, 문화, 몸의 통섭』, 서울, 東文選, 2009.
- Zoltan Kovecses, 임지룡·김동환 옮김, 『언어·마음·문화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서울, 역락, 2010.
- Zoltan Kovecses, 김동환 옮김, 『은유, 인지언어학적 접근법』, 서울, 로고스라임, 2014.

## 【논문】

- 박홍수, 「朱駿聲說文學研究」, 國立臺灣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1994.
- 박홍수, 「朱駿聲 說文學의 創見」, 『中國語文學』, 25권, 1995.
- 박홍수, 「朱駿聲『說文學』의 成就」, 『中國語文學誌』, 5권, 1998.
- 박홍수, 「朱駿聲의 轉注·假借說研究」, 『中國言語研究』, 6권, 1998.
- 박홍수, 「從右文說看『說文通訓定聲』」, 『南京師範大學文學院學報』, 4期, 2001.
- 박홍수, 「『說文通訓定聲』의 字義系統」, 『中國研究』, 45권, 2009.
- 전종한, 「聯想과 多義語의 義項 內部 關係에 關한 考察」,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 우유선, 「認知意味論의 接近을 통한 中國語의 語彙教育-韓中 兩國語 身體語彙의 多義 現象을 中心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 이옥진, 「『詩經』 자연 경물 모티프의 은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7.
- 이재혁, 「『說文通訓定聲』古音체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9.
- 이하영, 「인지언어학의 연상개념으로 본 漢語 詞義引伸 類型 연구」, 『언어학연구』, 25권, 2020.
- 이하영, 「인지언어학 관점을 통한 漢語의 의미 확장 양상-正反引伸을 통한 반의어로의 의미 변화를 중심으로-」, 『中國文學研究』, 79집, 2020.
- 安蘭朋, 「『說文通訓定聲』詞義引伸研究」, 安徽大學 博士學位論文, 2005.
- 安蘭朋, 「『說文通訓定聲』之文字分化研究」, 『淮北煤炭師範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5期, 2006.
- 安蘭朋, 「詞義引伸研究概說」, 『合肥學院學報(社會科學版)』, 4期, 2006.
- 白兆麟, 「再論『說文通訓定聲』」, 『杭州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 6期, 2003.
- 陳殿璽, 「試探詞義引伸的途徑和方式」, 『黑龍江教育學院學報』, 3期, 1994.
- 鄧開初, 「關於詞義引伸的途徑問題」, 『長沙大學學報』, 1期, 1997.
- 鄧婷, 「簡述語義引伸的方法」, 『讀與寫(教育教學版)』, 12期, 2013.
- 杜音, 「從心理學角度看詞義引伸的途徑」, 『湖南師範大學社會科學學報』, 1期, 2000.
- 高守綱, 「試論詞義引伸的兩種相反趨勢」, 『天津師大學報』, 5期, 1984.
- 勾俊濤, 「論古代漢語詞義的反向引伸」, 『南陽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 5期, 2004.
- 賈剛如, 「淺談詞義引伸的方式, 脈絡和規律」, 『安陽師範學院學報』, 6期, 2009.
- 穀衍奎, 『漢字源流字典』, 北京, 語文出版社, 2008.
- 桂柳玥, 「『說文通訓定聲』中的‘轉注’, ‘假借’說評議」, 『襄陽職業技術學院學報』, 6期, 2018.
- 郝艷萍, 「簡述義素分析方法」, 『黑龍江教育學院學報』, 4期, 2011.
- 何書, 「『說文通訓定聲』的詞義研究」, 南京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6.
- 何書, 「試論朱駿聲『說文通訓定聲』詞義引伸研究中的義素分析思想」, 『南昌航空工業學院學報(社會科學版)』, 4期, 2006.
- 何書·馬景倫, 「古漢語動詞詞義引伸的義素運動模式研究」, 『揚州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期, 2007.
- 胡華, 「試論“語言”的共同義素和區別義素」, 『遼東學院學報:社會科學版』, 2期, 2012.
- 胡娟, 「朱駿聲轉注新探」, 華中科技大學 碩士學位論文, 2010.
- 黃麗, 「論引伸義產生的幾個理論依據」, 『吉林省教育學院學報(學科版)』, 4期, 2010.
- 黃瓊, 「朱駿聲與『說文通訓定聲』」, 『蘭台世界』, 25期, 2015.
- 汲傳波·劉芳芳, 「詞義引伸方式新探-從隱喻看引伸」, 『喀什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 4期, 2001.

- 李嘉翼,「‘假借’与‘通假’辨异」,『江西广播電視大學學報』,3期,2005.
- 李喜榮,「『說文通訓定聲』中的‘說文’研究」,內蒙古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2007.
- 李宇宏,「三十年來國內的詞義引伸研究」,『語文學刊』,21期,2011.
- 李中成,「古代漢語單音名詞義之間的互補引伸」,『商丘職業技術學報』,3期,2006.
- 李中成,「古代漢語單音名詞義內部的 相似引伸」,『黑龍江教育學院學報』,3期,2006.
- 李中成,「古代漢語單音動詞義之間的互補引伸」,『玉林師範學院學報』,6期,2006.
- 李卓琳,「漢語詞義反向引伸研究」,『北京大學研究生學志』,1期,2012.
- 劉桂芳·楊曉敏,「對義素分析及其困惑的几点言說」,『北方論叢』,6期,2005.
- 羅薇,「朱駿聲與『說文通訓定聲』」,『青年文學家·言語研究』,25期,2016.
- 宋鐵全,「朱駿聲是正『說文解字注』辨正四則」,『寧夏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2期,2014.
- 王金芳,「試論古漢語詞義引伸中的文化意蘊」,『江漢論壇』,2期,2003.
- 王立軍·吳菲菲,「朱駿聲轉注系聯中的字形問題」,『陝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5期,2014.
- 王曉宇,「淺析古漢語詞匯的文化引伸」,『藝術科技』,4期,2016.
- 韋紹翔,「古漢語詞義的同步引伸」,『楚雄師範學院學報』,4期,2004.
- 吳景河,「論古漢語詞義引伸的方式及詞義的系統性」,『馬鋼職工大學學報』,3期,2003.
- 徐今,「反向引伸探析」,『華中科技大學學報』,6期,2004.
- 許莉,「詞義引伸中的認知活動和經濟性原則」,『合肥工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6期,2013.
- 徐天興,「義素分析法与古漢語詞匯研究」,『河南科技學院學報(社會科學版)』,1期,2013.
- 楊蓉·夏國強,「『古代漢語』教學中引伸義的詮釋及界定」,『銅陵學院學報』,6期,2005.
- 楊運庚·郭芹納,「古漢語詞義引伸的心理認知,思維模式底蘊-以『段注』詞義引伸規律為例」,  
社會科學論壇,3期,2009.
- 叶夏興,「古詞義引伸規律分析」,『岳陽大學學報』,2期,1988.
- 尹戴忠,「近二十年漢語詞義引伸研究綜述」,『湘潭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1期,2008.
- 尹喜艷,「論古漢語詞義引伸的語域變異類修辭引伸」,『無錫商業職業技術學院學報』,1期,2012.
- 于雪,「『說文通訓定聲』中同形字現象初探」,『漢字文化』,12期,2018.
- 袁慶德,「詞義究竟是如何引伸的」,『吉林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1期,2003.
- 袁媛,「朱駿聲『說文通訓定聲』語義研究」,『語文建設』,32期,2015.
- 云興華,「概念義素与功能義素的不均衡分布」,『山東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2期,2011.
- 張歡,「古代漢語詞義引伸相關概念淺析」,『語文學刊』,3期,2012.

- 張麗萍, 「『說文通訓定聲』‘口’部引伸義系統語義分析」, 山東大學 碩士學位論文, 2006.
- 張勝廣, 「修辭与古漢語詞義的引申」, 『渤海學刊』, 3期, 1988.
- 張文霞, 「古漢語詞義引申的文化意義探析」, 『山西大同大學學報』, 5期, 2013.
- 張延俊, 「對詞義引伸問題的幾點淺見」, 『商丘職業技術學院學報』, 6期, 2016.
- 趙宗芳, 「淺談聯想與詞義引伸」, 『社科縱橫』, 6期, 1998.

## Abstract

A Research on Word Meaning Extensions of Ancient Chinese  
Language through a Cognitive Linguistic Perspective  
-Focusing on the Transfer(轉注)  
in the Shuowen Tongxun Dingsheng(說文通訓定聲)-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ancient Chinese language through a metonymic and metaphoric perspective and aims to categorize the types of word meaning extension.

The word meaning extension(詞義 引伸) is one of the methods of language management which possesses the original meaning as well as the meaningful relativity and generates another fundamental meaning for a word. Unlike how the current researches on the existing word meaning extension were divided into a semantic analysis and cognitive linguistic perspective research methods, these two methods were combined instead to analyze the word extension meaning within the scope of this paper.

In addition, this paper took the examples from the “Shuowen Tongxun Dingsheng(說文通訓定聲)” as its research subject. The “Shuowen Tongxun Dingsheng” is a work written by Zhu Junsheng(朱駿聲) who was one of the “the four Shuo-wen masters” during the Qing(清) Dynasty. As such, it is a comprehensive research collection which consolidates the characters, scholia (of Chinese classics) and phonology. Zhu Junsheng put a lot of importance in the research of ‘transfer(轉注)’ and ‘substitute homonym characters(假借)’ while analyzing the other miscellaneous fundamental meaning of a word other than the original meaning whereby he is highly acclaimed in dealing with the ancient Chinese word meaning extension in an in-depth manner.

Zhu Junsheng asserted that transfers(轉注) are in fact extensions(引伸) by changing the definition and examples of transfers suggested by Xu Shen(許慎) which had no existing established theory. Zhu Junsheng also clarified the usage of extended meaning(引伸義) mainly by following the explanation of the fundamental meaning in the “Shuōwén jiězì(說文解字)” and differentiating the transfer categories in the explanation of the representative Chinese character. It is believed that by using this proces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undamental meaning and the extended meaning can be analyzed and also be a very useful resource in categorizing the types of word meaning extensions.

Through the results of this paper, contemplations about how much the metonymic and metaphoric directions were reflected in the ancient Chinese language word meaning extensions were carried out and by confirming what kind of differences there are in the changes of semantic meaning in terms of the said metonymy and metaphors, it is expected that the ambiguous boundary between the existing two categories would have clearer distinctions than now.

Keywords: Ancient Chinese Language, Meaning Extension(詞義 引伸), extended meaning(引伸義), metonymy, metaphor, semantic feature, Shuowen Tongxun Dingsheng(說文通訓定聲), Zhu Junsheng(朱駿聲), Transfer(轉注)